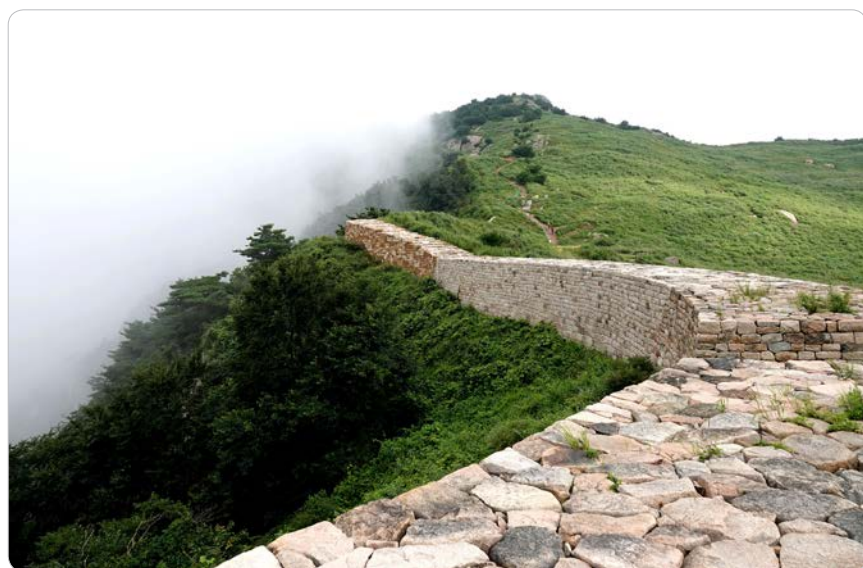


2024

昌寧文化

제44호



〈화왕산〉
사진제공 : 창녕군

 창녕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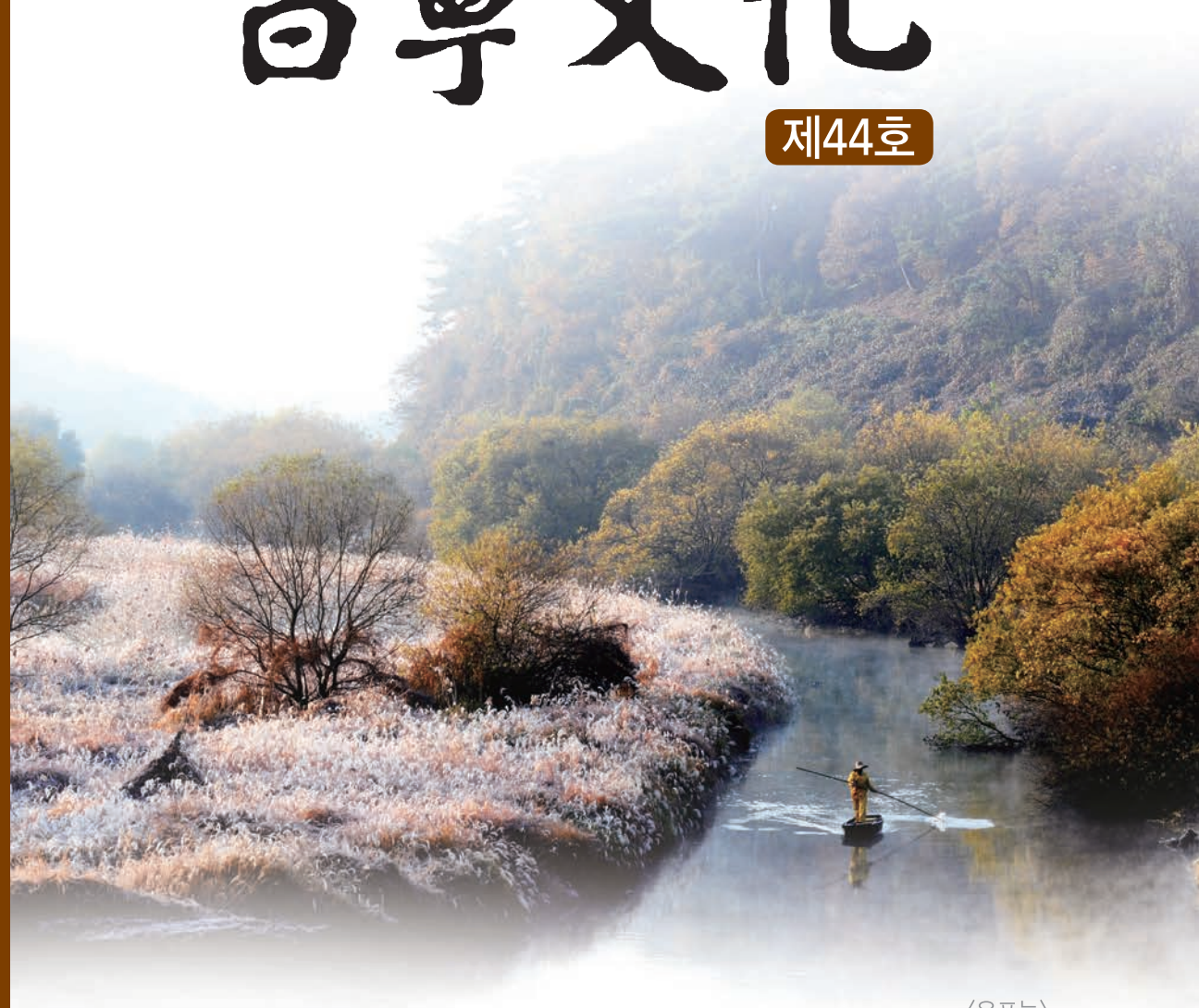
2024

昌寧文化

제44호



창녕문화원



〈우포늪〉
사진제공 : 창녕군

 창녕문화원

— 〈 표지 사진 설명 〉 —

• 표지 전면 / 후면 공히

2024. 7. 5.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핵심구역인 우포늪과 화왕산을 상징적으로 표현

2024

昌寧文化

제44호



창녕문화원



창녕문화원 원훈(slogan)

더 아름답게!
(法 / 古 / 創 / 新)

- 1. 나누자(大) [건강/일깨움]
- 1. 받들자(明) [사랑/복돈음]
- 1. 누리자(充) [행복/꽃피움]






‘아름다움’이란 ‘나다움’이다

아름다움 → ‘문화(文化)’의 다른 이름

-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 하는 것
 -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
- 나다움, 자기다움, 나누고, 받들고, 누리는 것.
- 비웠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텅 빈 총만)
 - ‘개체’로서 ‘전체’를 인식하며 살아감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나누자(大) ⇨ 건강(배려)

- * 나누면 적어지는게 아니라 크게(大) 된다.
 - * ‘나(我)를 내려놓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이다.
 - * 집착을 놓고 배려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 * ‘불취심(不取心 / 취하지 않는 마음)’이다.
 - *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는다.
 - * 상대보다 나에게 더 이롭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리(自利)의 마음’이다.
- 

받들자(明) ⇨ 사랑(존중)

- * 받아들여서 받들면 밝아(明)진다.
- * 상대를 존중하고 보듬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 * ‘불사심(不捨心 / 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 * ‘발고여락(拔苦與樂)’이다.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함께한다.
- * 상대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타(利他)의 마음’이다.
- ※ 사랑은 「나」와 「상대」, 「나눔」과 「누림」,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자양분이다.

누리자(充) ⇨ 행복(조화)

- * 누리면 마음이 보름달처럼 늘 충만(充)해진다.
 - 행복은 미래의 희망이 아닌 현재의 선택이다.
- * ‘불식심(不息心 / 늘 좋은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마음)’이면서, ‘원력심(願力心 / 모두를 잘 되게 하는 마음)’이다.
- * 법희선열(法喜禪悅)이다.
 - 세상의 이치(진리)를 깨닫는 데서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다.
- *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워,
모두에게 좋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이다.





《 문예중흥선언문 》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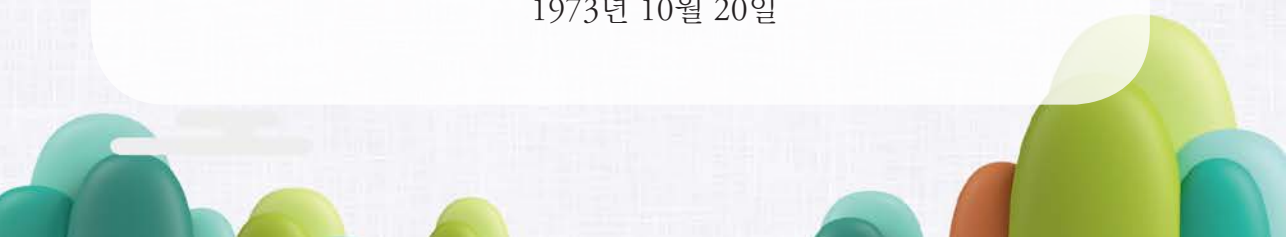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속에 꽃피우고 우리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년 10월 20일





《 문화비전선언문 》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CONTENTS •차례

❁ 창녕문화원 원훈

❁ 문예중흥선언문

❁ 문화비전선언문

❁ 발간사

- 창녕문화원장_한삼윤..... 012

❁ 축사

- 창녕군수_성낙인..... 014
- 창녕군 의회 의장_홍성두..... 015
- 창녕경찰서장_오경용..... 016
-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_이경희..... 017

❁ 2024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019

❁ 좋은 생각 / 좋은 글 / 좋은 사진

- 용과 인간_김동주..... 064
- 교육과 저출산과의 상관관계_곽정기..... 082
- 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_진태홍..... 095
- 스승의 은혜_진태홍..... 098
- 흐끄므레한 새벽 미풍이 부는 날 마타리 꽃을 피우리라_문경주..... 100
- 역사왜곡에 대한 소고 - 건국전쟁과 사육신_김진열..... 109
- 나만의 행복한 인생 꿈_진영출..... 113
- 을사년 새해를 바라보며_유영숙..... 118



- 충의의 표상 백이(伯夷)와 숙제(叔齊)_이복순 120
- 許交와 許與_성두철 129
- 기후 위기 시대의 퇴계선생 이야기_노용호 134
- 우리 문화원에서 피워낸 꽃_주영숙 140
-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_염옥현 142
- 세계속의 우포늪 위상_성득용 148
- 구채구의 물_박태명 151
- 전통신발 만드는 방법_한판철 160

❁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 창녕 진만석 영세불망비_창녕문화원 170
- 고구려 남정에 대한 가야사의 미스터리_남중희 172
- 추운 시절의 그림, 세한도 감상하기_남용우 176

❁ 시와 한시 / 서예 작품

- 도동 아리랑_김희덕 198
- 햇불 밝힌 청룡_신익교 200
- 송출선원_신익교 201
- 창녕문화원 수덕사 예당호 탐방_하재훈 202
- 토평천 세레나데_염옥현 203
- 모란_이우걸 204
- 월영대_공병찬 205
- 서예작품_ 우당 하인종/ 석호 하명술/ 청아 사공순/ 덕산 신한순/보라 이봉임/ 고야 최상교/
정암 남이우/ 지우 이호일/ 창암 김영수/ 유당 곽병윤/ 우만 성태기 206



CONTENTS • 차례

❁ 역사문화 및 여행기

- 우리 유산 찾기 탐방 기행문_이규엽 214
- 수덕사로 가는 길 부처님 연가 마음에 담다 _문경주 220
- 현감조후운한애민선정비 답사기_박태명 243
- 취취의 기다림_심재만..... 259

❁ 회원동정 및 수상소식

- 창녕문화원 ‘유영숙 향토사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 협의회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266
-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24회 황우 문화상 수상 267
-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한국문화원 연합회 고문 선임 268
- 창녕문화원 회원 ‘권춘석’ 제3회 일본 색소폰 경연대회 대상 수상 269
- 제33회 창녕군민대상 수상(조정한 / 신용태 / 성위경) 270
- 창녕문화원 회원 ‘신영옥’ 제31회 구암대상 전국 시조 경창대회 대상부 장원 수상 271
-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제10회 합천 대야성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272
- 창녕문화원 회원 ‘글길 문경주’ 제4회 신정문학상 전체 대상 수상 273
-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불교문화해설사 1급 자격 취득/ tvn 방송 출연 274



- 제2회 경남도민 문화의달 문화한마당..... 275
 -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문화예술발전 공로상 수상
 -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희망상 수상
- ‘창녕 부곡가마골풍물단’ 제15회 경남도지사기 어르신농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76
- 창녕문화원 회원 ‘이순미’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파크골프 여자 1위 277
- 향토사연구소 ‘노용호 연구위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인물 스토리 텔링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78
- 창녕시무구지놀이 제42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 279
- 창녕문화원 사진 동아리 전시회 (사진: 픽셀에서 추상까지 그림을 탐하다.) 280

❁ 창녕을 빛낸 사건

-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283

❁ 2025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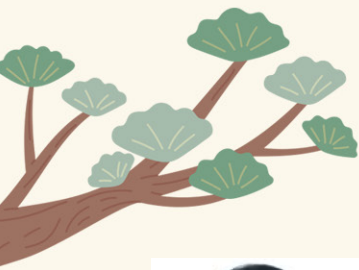
❁ 2025년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 286

❁ 창녕문화원 조직도 287

❁ 창녕문화원 부설단체(동아리)현황 288

❁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289





발간사



창녕문화원장
한 삼 윤

나누고 받들고 누리는 아름다운 창녕문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녕문화 제44호 발간을 자축하면서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낙인 군수님과 홍성두 군의회 의장님, 오경용 경찰서장님, 이경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무엇을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문화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려는 작은 손길들을 모아 문화라는 소박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서로 일깨우고 북돋우며 꽃 피워온 지난 여정에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갑진년 한 해, 우리군은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작년에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올해 창녕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15년도에 등재된 영산 줄다리기와 함께 그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 인연들과 함께 노력한 탁월한 결실이라고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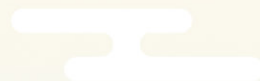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를 드리면서
뿌듯한 자긍심을 가집니다. 거듭 자축해 마지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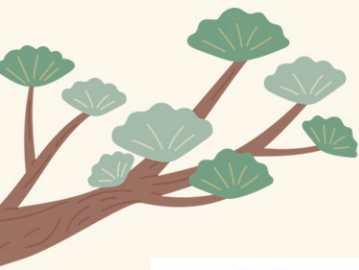
갑진년 한 해 숭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고 받들며 누리는
아름다운 창녕문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여정을 거울삼아 대망의 을사년 새해에도 더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늘 건승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축사



창녕군수
성낙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예술을 꽃피워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창녕문화원의 한 해 발자취가 담긴 「제44호 창녕문화」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으로 군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지역 문화지 발간을 위해서도 열성을 아끼지 않으신 한삼윤 창녕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은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줄다리기, 세계유산인 가야 문화의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국제적 생태 가치를 인정 받은 창녕군 전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명실공히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고유하고 찬란한 지역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창녕문화」는 많은 군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불어넣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지역 문화발전의 든든한 동력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수호하고 대변하는 대표적인 문화지로 자리하기를 바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창녕문화원의 위상도 더욱 단단해지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점이 될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축사

창녕의 고유문화를 계발·보급·전승시키고, 향토 문화를 발굴·조사·보존하여 창조적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제44호 창녕문화」발간을 창녕군의회 전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를 나누고·받들고·누리는 창녕 문화 발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창녕문화원 한삼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역대 원장님을 비롯한 고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문화원은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문화와 창작 활동을 모아 책으로 엮음으로서 우리 군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으며, 창녕의 문화를 선도하며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향토 문화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올해로 제44호를 맞는 창녕 문화의 발간은 우리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녕군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고유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창녕의 문화 수준과 문화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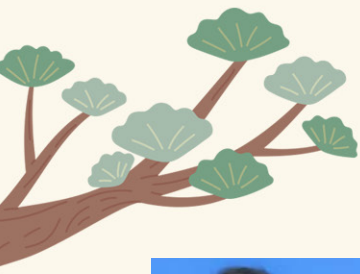
끝으로, 「제44호 창녕문화」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창녕의 고유한 문화를 이끌어 가는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창녕 문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내에 평안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창녕군의회 의장
홍성두



축사



창녕경찰서장
오 경 용

안녕하십니까? 창녕의 치안을 맡고 있는 창녕경찰서장 오경용입니다. 「창녕문화」 제44호 발간을 창녕경찰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군민의 문화 역량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삼운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고 훌륭한 유형 문화재와 수준 높은 무형문화재가 찬란하게 꽃피웠으며 이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곳입니다.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녕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문화유적지 탐방, 향토사 발굴, 문화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창녕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어 창녕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쾌거를 이룬 것도 「창녕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 함께 공유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경찰도 문화의 고장, 창녕에서 근무한다는 긍지를 갖고 문화재 보호 활동과 홍보는 물론 군민과 함께하는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창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44호 창녕문화」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축사

제44호 『창녕문화』 발간을 축하하며

존경하는 창녕문화원 가족 여러분!
『창녕문화』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교육장 이경희입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경 희

창녕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귀중한 기록물인 『창녕문화』 제44호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한삼운 원장님과 창녕문화원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4호 『창녕문화』는 창녕문화원이 지난 1년간 기울인 열정과 노력을 집대성한 결실로, 지역 문화의 정수를 담아냄과 동시에 창녕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빛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창녕문화』는 단순한 문집을 넘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예술적,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시와 수필, 역사와 문화, 여행기와 독후감 등 다채로운 장르로 채워진 이번 호는 창녕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새롭게 조명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문화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삶을 연결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창녕문화원이 펼쳐온 다양한 사업과 『창녕문화』의 발간은 바로 그러한 문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창녕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녕문화』가 앞으로도 창녕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잇는 중심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제44호 『창녕문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책이 창녕의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昌寧文化





**2024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2024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 2024년 갑진년 창녕군민 신년인사회 초청 공연

- 일시 : 1. 8. (월) 10:3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공연 : 앙상블색소폰 동아리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신년하례회

- 일시 : 1. 10. (수) 11:30
- 장소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경남로봇재단 2층 회의실
- 대상 : 경남 20개 시·군문화원장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 일시 : 1. 12. (금) 11:00
- 장소 : 경남도청 대회의실
- 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 수상 : 유영숙 향토사연구위원



❁ 2024년 심폐 소생술 체험

- 일시 : 1. 24. (수) 10:00
- 장소 :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 인원 : 15명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임원



❁ 2024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 30. (화) 11:00
- 장소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실
- 대상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감사,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안건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2024년 창녕문화원 제24회 황우문화상 선정위원회 개최

- 일시 : 1. 31. (수) 10:00
- 장소 : 향토사연구소
- 위원 : 6명
- 선정 대상자 :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장)



❁ 2023년도 사업 및 결산 감사

- 일시 : 1. 31. (수) 11:00
- 장소 : 창녕문화원
- 감사 : 2명



❁ 2024년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2. 2. (금) 11: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인원 : 23명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심의의결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건, 향토사연구소장 선임의 건, 제71차 정기총회일 결정



❁ 2024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

- 일시 : 2. 5. (월) 11:00
- 장소: 진주문화원 1층 다목적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안건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2024년 창녕문화원 갑진년 설 합동 세배회

- 일시 : 2. 14. (수) 11:00
- 장소 : 본관 3층 대강당
- 대상 : 기관 및 사회단체,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 인원 : 300여명
- 행사내용 : 1부) 합동 세배회, 2부) 웃놀이 대회



❁ 경상남도 창녕교육지원청 제8회 창녕교육상 시상식

- 일시 : 2. 15. (목) 11:00
- 장소 : 창녕교육지원청 대회의실(3층)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수상자 : 김용숙 대합초등학교장



❁ 2024년 창녕 팔각회 제58대·제59대 회장 이·취임식

- 일시 : 2. 19. (월) 11:00
- 장소 : 경화회관
- 취임회장 : 오두환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동아리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의료법인 창녕서울재단 의료서비스지원 업무 협약식

- 일시 : 2. 21. (수) 11:00
- 장소: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김동주 고문님, 곽정기 부원장님



❁ 제71차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 23. (금) 11:00
- 장소 : 본관 3층 대강당
- 대상 : 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 부설단체, 회원
- 인원 : 400여명
- 내용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 기타토의



❁ 2024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제63차 정기총회

- 일시 : 2. 26. (월) 11:00
- 장소 : 서울 호텔코리아나 7층 글로리아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안건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안 심의·확정의 건,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 선임의 건



❁ 제63회 3·1 민속문화제

- 일시 : 2. 29. (목)
- 장소 : 창녕 영산 무형유산 놀이마당
- 주최 : 3·1 민속문화 향사회
- 참석 : 한삼운 원장님(개회선언)





2024 문화학교

❁ 2024년 문화학교 개강

- 일시 : 3월 ~ 11월 (9개월) • 대상 : 문화원 회원
- 과목 : 시조창, 요가, 서예, 건강체조, 한문, 민요,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사진, 난타, 색소폰(A,B), 바둑, 기공, 쉐비로즈, 파크골프



❁ 창녕·창원 한국춘란회 제13회 한국춘란전시회

- 일시 : 3. 2. (토) 11: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일본 사쓰마센다이 큰줄다리기보존회 문화교류단 환영회

- 일시 : 3. 2. (토) 18:00
- 장소 : 화왕산스파호텔 연회장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빛벌회 1분기 회의

- 일시 : 3. 6. (수) 18:30
- 장소 : 가현한우식육식당
- 대상 : 빛벌회 전 회원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내용 : 전입 기관·단체장 소개, 기관·단체간 협조사항 협의, 간담회 등

❁ 2024년 대합 메탄마을 봄맞이 대잔치 초청 공연

- 일시 : 3. 9. (토)
- 장소 : 대합 메탄마을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동아리



❁ 2024년 (사)전국 이·통장연합회 창녕군지회 회장 이·취임식

- 일시 : 3. 11. (월) 17:00
- 장소 : 창녕농업협동조합 2층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창녕향교 춘향석전 대제 봉행

- 일시 : 3.14. (목) 10:00
- 장소 : 창녕향교
- 초헌관 : 이수영 고문님



❁ 2024년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 일시 : 3. 21. (목) 11:00
- 대상 : 향토사 연구위원 및 고문
- 내용 : 향토사 발굴, 당면 현안 사항 등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인원 : 21명



❁ 2024년 물계서원보존회 갑진년 물계서원 춘향대제 봉행

- 일시 : 3. 24. (일) 11:00 (음력 2. 15.)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장소 : 물계서원 승덕사

❁ 2024년 제1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3. 26. (화) 14:00
- 인원 : 군민 50여명
- 주제 : 꼭, 알아두어야 할 인생과 예절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 강사 : 김희덕



❁ 2024년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 군수실 내방 및 문화원 환담

- 일시 : 3. 29. (금) 15:30 • 방문기간 : 3. 29. (금)~3. 31. (일)
- 장소 : 창녕군청,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 인원 : 60여명
- 내용 : 문화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 및 이해증진



❁ 창녕문화원·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 문화교류 합동공연

- 일시 : 3. 30. (토) 14: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인원 : 360여명
- 공연 : 창녕문화원 동아리, 일본 문화협회 동아리
- 전시 : 일본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 동아리 사진



❁ 제62회 진해군항제 꽃비 내리는 풍류 한마당 초청 공연

- 일시 : 4. 1. (월) 10:00
- 장소 : 진해루 특설무대
- 공연 : 한국무용 디딤새 동아리



❁ 2024년 창녕군 제31회 창녕군민의 날 기념식 수상

- 일시 : 4. 3. (수) 10:3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수상
1. 봉사부문- 조정한 (창녕문화원 회원/ 의정동우회 회장)
 2. 산업부문-신용태 (창녕문화원 부설 시우회 회장/(주)신돈사상 회장)
 3. 교육·문화 부문- 성위경 (창녕문화원 이사/ 물계서원 이사장)



❁ 2024년 창녕군 창녕 반다비 체육센터 개장식

- 일시 : 5. 1. (수) 14:00
- 장소 : 창녕반다비체육센터 2층 실내체육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문화유적지 탐방

- 일시 : 5. 3. (금) 07:30
- 장소 : 충남 예산 수덕사, 예당호 출렁다리
- 대상 : 전 회원
- 인원 : 370명



2024년 창녕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 2024년 5월 3일(금) / 충남 수덕사, 예당호

❁ 2024년 광평이씨 창녕중중묘원 완공 고유제(古由祭) / 수비(豎碑) 제막식

- 일시 : 5. 6. (월) 11시
- 장소 : 경남 창녕군 대합면 퇴산리 77번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제4회 창녕군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 일시 : 5. 7. (화) 09:00
- 장소 : 유어파크골프장
- 참가 : 창녕문화원 율타리 파크골프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창녕군새마을회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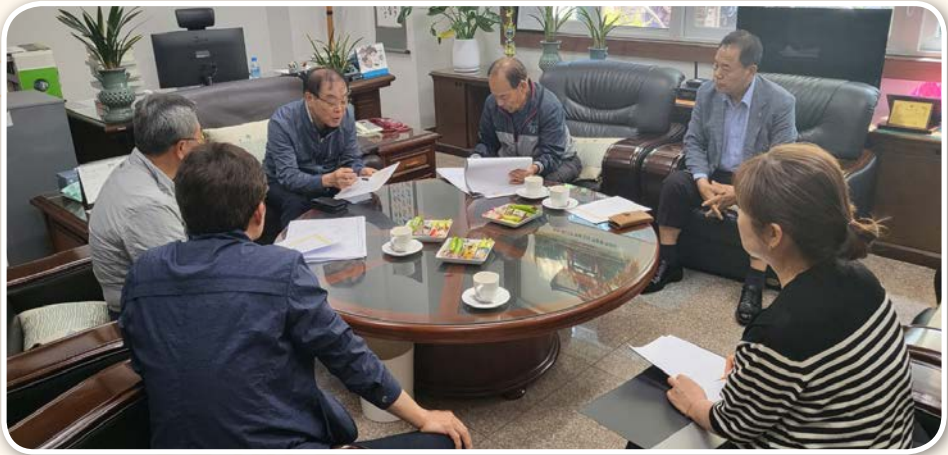
- 일시 : 5. 8. (수) 10: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창녕군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행사

- 일시 : 5. 10. (금) 14:00
- 장소 : 우포따오기복원센터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창녕문화원 리모델링 간담회

- 일시 : 5. 13. (월) 10:00
- 장소 : 원장실
- 인원 : 한삼윤 원장님, 김동주 고문님, 이수영 고문님, 국장, 설계업체, 담당 공무원



❁ 2024년 영산향교 기로연 행사

- 일시 : 5. 14. (음력.4.7) (화) 10:00
- 장소 : 영산향교 충효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제2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5. 14. (화) 14:00
- 인원 : 군민 40명
- 강사 : 노용호 교수
- 주제 : 노용호 교수의 생태문화 콘서트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2024년 창녕향교 기로연

- 일시 : 5. 23. (목) 10:00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장소 : 창녕향교 명륜당



❁ 2024년 창녕문화원 농촌일손돕기

- 일시 : 5. 27. (월) 09:00
- 인원 : 원장님의 10명
- 장소 : 창녕군 창녕읍 옥천길 727
- 농가 : 옥천 소재(마늘 수확)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동아리 버스킹 공연

- 일시 : 5. 29. (수)
- 장소 : 영산 영지못



❁ 2024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표창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일시 : 2024. 5. 30. (목) 14:00 ~
- 위촉 : 한삼윤 원장님
- 장소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1층 회의실

❁ 창녕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 일시 : 6. 6. (목) 09:55
- 장소 : 충혼탑 광장
- 대상 : 400여명 (도의원, 기관 · 단체장, 보훈가족, 군민, 공무원, 학생 등)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창녕문화예술회관 출향 작가전 「한국의 얼」

- 일시 : 6. 7. (금) 16: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1층 대전시실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우리 유산 찾기 문화탐방

- 일시 : 6. 21. (금) 08:00
- 장소 : 안동 봉정사, 의성김씨 학봉(김성일)종택, 목계서원, 만휴정 등
- 대상 : 고문 및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 인원 : 34 명



❁ 2024년 (사)송엽관소리보존회 「국악이 날다」

- 일시 : 6. 21. (금) 19:00
- 장소 : 만옥정 공원
- 주관 : 송엽관소리 보존회
- 후원 : 창녕문화원
- 공연 : 송엽 지미희, 우포 따오기 민요동아리



❁ 박진전쟁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 일시 : 6. 24. (월) 14:00
- 장소 : 박진전쟁기념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창녕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

- 일시 : 6. 25. (화) 11:00
- 장소 : 경화회관 다목적홀(2층)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너도 나도 하하! 행복 미소 전도사」 프로그램

- 일시 : 6. ~ 10. (4개월)
- 장소 : 낙영리회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녕문화원
- 인원 : 22명
- 내용 : 마음의 행복과 소통을 위한 활동. 좋은 시 낭독,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다양한 체험 등



**2024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간담회 및 창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Net Zero City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6. 26. (수) 10:00
- 장소 : 고성박물관 회의실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내용 : 상호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Net Zero City 조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협약 체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창녕군협의회 제13대·제14대 회장 이·취임식

- 일시 : 6. 27. (목) 11: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2024년 제3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7. 1. (월) 14:0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대상 : 고문 및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회원, 창녕군민
- 인원 : 110여명
- 강사 :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 주제 : 세계 속의 한국, 지속가능한 K·컬처



❁ 2024년 어르신 국어문화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 일시 : 7월 (1개월/총 4회차)
- 장소 : 별관 3층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국어국립원
- 인원 : 군민 25명
- 내용 : 디지털로 통(通)하는 어르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찾기, 가짜 뉴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애로 사항 해결 등



❁ 2024년 제2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7. 4. (목) 11:00
- 인원 : 20명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상반기·하반기 주요활동 사항, 당면 사항 등



❁ 2024년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 일시 : 7. 5. (금) 11:00
- 대상 : 창녕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 인원 : 19명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내용 : 창녕의 누정, 서원, 당사 주련 및 제영집 편찬 관련, 당면 현안 사항 등



❁ 2024년 찾아가는 문화나눔봉사 공연

- 일시 : 7. 9. (화) 14:00
- 장소 : 영산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 공연 : 휘파람 색소폰 동아리



❁ 2024년 불교 문화유산연구소 창녕 용흥사지 학술대회

- 일시 : 7. 10. (수) 13:00 ~ 18:00
- 장소 : 경화회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이규영 소장님 등
- 내용 : 창녕 용흥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과제



❁ 제13회 이기철 시인과 함께하는 서정시 삼천리

- 일시 : 7. 13. (토) 16:00
- 장소 : 창녕 우포늪 형설의 전당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이수영 고문님
- 동행 : 창녕문화원, 창녕문인협회, 창녕위낭소리 시낭송회



❁ 제7회 창녕군수배 세계합기도대회

- 일시 : 7. 20. (토) 11: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주최 : (사)비연관 합기도협회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곽정기 부원장님

❁ 2024년 국제 인지 문화진흥협회 창녕지부 수료식 초청

- 일시 : 7. 27. (토) 11:00
- 장소 : 국제 인지 문화진흥협회 창녕지부
- 공연 : 우포 따오기 민요동아리



❁ (주)창녕신문 창간 24주년 기념식

- 일시 : 7. 30. (화) 11:00
- 장소 : 경화회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이규엽 소장님 등

❁ '경남 창녕의 정신'유튜브 영상 촬영

- 일시 : 7. 31. (수) 14:00
- 장소 : 창녕문화원
- 인터뷰 : 한삼윤 원장님
- 방영 : 유튜브 채널

❁ 2024년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장 간담회

- 일시 : 8. 21. (수) 12:00
- 장소 : 양반청국장
- 참석 : 원장, 고문, 부원장, 향토사연구소장
- 내용 : 당면사항 및 본관 리모델링 추진 등 적극 협조.

❁ 2024년 국립극장 우수공연 “우리 동네 국립극장” 영상 상영

- 일시 : 8. 23. (금) 10:0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인원 : 군민 30여명
- 제목 : 훌춤(무용)



❁ 2024년 제4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8. 27. (화) 14:0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인원 : 군민 70여명
- 강사 : 이선중 문학박사
- 주제 : 위기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2024년 찾아가는 문화나눔봉사 공연

- 일시 : 8. 27. (화) 14:00
- 장소 : 성산 소리제이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 2024년 국립극장 우수공연 “우리 동네 국립극장” 영상 상영

- 일시 : 8. 27. (화) 19:0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인원 : 군민 40여명
- 내용 : 춘향(창극)



❁ 2024년 대합 한여름 밤의 음악회 초청 공연

- 일시 : 8. 29. (목) 18:00
- 장소 : 대합면 체육공원
- 공연 : 우포 따오기 민요동아리



❁ 성낙인 군수님과 간담회

- 일시 : 9. 4. (수) 18:30
- 장소 : 대가식당
- 참석 : 원장님, 고문님, 부원장님 등
- 내용 : 문화원 당면 현안사항 건의

2024년 경남 지방문화원 임원 및 지역사연구위원회 워크숍

- 일시 : 9. 6. (금) 10:00 • 장소 :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 참석 : 9명(원장님, 부원장님, 향토사연구소장님 등)
- 내용 : 특강 및 문화탐방



하동칠 작가 개인전 '화왕산에서 우포늪으로'

- 일시 : 9. 10. (화) 10: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2층 소전시실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제10회 경상남도지사배 합천대야성 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 일시 : 9. 13. (금) 09:30 • 장소 : 합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인원 : 5명 • 참여 : 한국무용 디딤새 동아리

❁ 2024년 제5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9. 24. (화) 14:00
 - 인원 : 군민 50여명
 - 강사 : 남중희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 주제 : 비사벌(比斯伐)에서 가야(伽倻)를 찾다.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2024년 국립극장 우수공연 “우리 동네 국립극장” 영상 상영

- 일시 : 9. 24. (화) 16:3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인원 : 군민 50여명
- 제목 : 천년의 노래, 리버스(국악관현악)



❁ 제2회 창녕 비화가야 학술심포지엄 <빛의 나라 비화, 세계유산으로 빛나다.>

- 일시 : 9. 26. (목) 13:3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 : 한삼운 원장님,곽정기 부원장님, 이규엽 소장님, 연구위원 등
- 내용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1주년을 맞이하여 “빛의 나라 비화, 세계 유산으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제2회 창녕 비화가야 학술심포지엄.



❁ 2024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

- 일시 : 9. 28. (토) 18:00 • 장소 : 창녕박물관 역사공원
- 참석 : 한삼운 원장, 김동주·이수영 고문님, 곽정기·신판기 부원장님 등



❁ 제20회 창녕군생활체육대회 개최식

- 일시 : 10. 5. (토) 09: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 일시 : 10. 8. (화) 09:30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2024년 제3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10. 10. (목) 11:00
- 인원 : 20명

- 장소 : 본관2층 소회의실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상반기·하반기 주요 활동사항, 당면 현안사항 등



❁ 2024년 찾아가는 문화나눔봉사 공연

- 일시 : 10. 10. (목) 14:00
- 공연 : 휘파람 색소폰동아리

- 장소 : 남지복지회관



❁ 제2회 경남도민 문화의달 문화한마당 행사

- 일시 : 10. 17. (목) 10:00 • 장소 : 함안군 함주공원 내 다목적 잔디구장
- 주최/주관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함안문화원
- 참가 : 한국무용 디딤새 - 희망상 수상
- 수상 :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문화예술발전 공로상)



❁ 2024년 우리 유산 찾기 문화탐방

- 일시 : 10. 18. (금) 07:30 • 장소 : 수원화성, 용주사, 화성박물관
- 대상 : 고문 및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 인원 : 40명



❁ 제15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른농악경연대회 참가 최우수상 수상

- 일시 : 10. 25. (금) 09:30 • 장소 : 밀양강 둔치
- 인원 : 60명 • 대상 : 도내 20개팀 참여

- 참여 : 부곡가마골풍물단



❁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제38회 비사벌문화제 향토기양제

- 일시 : 10. 25. (금) 17:00
- 장소 : 만옥정공원 객사
- 참석 : 한삼윤 원장님(인사말씀)

❁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제38회 비사벌문화제 기념식

- 일시 : 10. 25. (금) 18:30
- 장소 : 창녕천 비사벌 문화광장 특설무대
- 참석 : 한한삼윤 원장님(격려사)

❁ 제35회 전국시조경창대회

- 일시 : 10. 26. (토) 09: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 : 창녕문화원 부설 시우회
- 인원 : 200명



❁ 제38회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비사벌문화제 ‘창녕문화원 동아리공연’

- 일시 : 10. 26. (토) 16:00
- 장소 : 비사벌문화광장 특설무대
- 인원 : 1,000명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우포의 향기 댄스스포츠, 판소리 명창, 한국무용 디딤새, 창녕 비사벌 난타, 우포 따오기 민요, 휘파람 색소폰



❁ 2024년 제6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10. 30. (수) 14:00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2층 강당
- 인원 : 40명
- 강사 : 남용우 교수
- 주제 : 세한도 감상



❁ 제7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녕지부 회원전

- 일시 : 11. 1. (금) 13: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김동주 고문님,곽정기 부원장님 외

❁ 신동 불교 사상 학술대회 개최식

- 일시 : 11. 1. (금) 13:3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김동주 고문님, 곽정기 부원장님 외

❁ 제3회 창녕군수배 파크골프대회

- 일시 : 11. 05. (화) 09:00
- 장소 : 유어파크골프장
- 참가 : 울타리파크골프 동아리



❁ 제15회 우포늪 생명 길 걷기 대회

- 일시 : 11. 9. (토) 08:30
- 장소 : 우포늪 일원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이수영 고문님, 곽정기 부원장님

❁ 영산 향로당 추계 만수위로연 초청 공연

- 일시 : 11. 11. (월) 11:30
- 장소 : 영산 도리원 교육관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 일시 : 11. 15. (금) 11: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제42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 수상

- 일시 : 11. 19. (화) 09:30
- 장소 : 함안 함주공원
- 참가 : 창녕 시무구지
- 시연 : 창녕 구계목도(제6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문화유적지 탐방

- 일시 : 11. 22. (금) 07:30
- 장소 : 청풍 문화재단지, 비봉산, 만천하 스카이워크(충북 단양군)
- 대상 : 고문 및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 인원 : 40명



❁ 사진 전시 “픽셀에서 추상까지 그림을 탐하다”

- 일시 : 11. 22. ~ 11. 27.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주관 : 창녕문화원 사진동아리



❁ 2024년 제7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11. 26. (화) 14:00
- 인원 : 60명
- 주제 : 유교사회의 비석문화를 알아본다.
- 장소 : 별관2층 강당
- 강사 : 이규엽 향토사연구소 소장



❁ 2024년 창녕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공연

- 일시 : 11. 29. (금) 10:30
- 인원 : 350명
- 대상 : 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 및 회원, 군민
- 내용 : 공연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우포의 향기 댄스스포츠, 관소리 명창, 한국무용 디딤새, 창녕 비사벌 난타, 우포 따오기 민요, 휘파람 색소폰, 시조창, 시낭송, 건강체조), 전시 및 체험 (쉐비로즈 작품 전시, 서예전시, 사진 전시, 전통차 체험)
- 장소 : 본관 3층 대강당



❁ 2024년 울타리파크 동아리 나들이

- 일시 : 12. 1. (월) 08:00
- 장소 : 지리산 삼성궁, 쌍계사, 화개장터
- 대상 : 울타리파크 동아리 회원
- 인원 : 27명

❁ 장학 기금마련 일일차집

- 일시 : 12. 5. (목) 10:00
- 장소 :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강당 2층
- 참석 : 곽정기 부원장님

❁ 제11회 (사)한국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 일시 : 12. 11. (목) 10:3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 창녕군 새마을지도자대회

- 일시 : 12. 13. (금) 11:00
- 장소 : 경화회관 다목적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 창녕 예술인의 밤

- 일시 : 12. 13. (금) 17:3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창녕지회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곽정기 부원장님

❁ 향토사 연구위원회 회의(3차)

- 일시 : 12. 24. (화) 11: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 : 21명
- 내용 : 창녕의 누정, 서원, 정자 주련 및 제영집 편찬 관련

昌寧文化






좋은 생각 / 좋은 글

- ◇ 용과 인간
- ◇ 교육과 저출산과의 상관관계
- ◇ 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 ◇ 스승의 은혜
- ◇ 흐끄므레한 새벽 미풍이 부는 날 마타리 꽃을 피우리라
- ◇ 역사왜곡에 대한 소고 - 건국전쟁과 사육신
- ◇ 나만의 행복한 인생 꿈
- ◇ 을사년 새해를 바라보며
- ◇ 충의의 표상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 ◇ 許交와 許與
- ◇ 기후 위기 시대의 퇴계선생 이야기
- ◇ 우리 문화원에서 피워낸 꽃
- ◇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
- ◇ 세계속의 우포늪 위상
- ◇ 구채구의 물
- ◇ 전통신발 만드는 방법

김동주
곽정기
진태홍
진태홍
문경주
김진열
진영출
유영숙
이복순
성두철
노용호
주영숙
염옥현
성득용
박태명
한판철



용(龍) 과 인간(人間)

김동주
창녕문화원 고문



금년(2024년)은 갑진년 용의 해라고 하며 특히 용 중에서 청룡의 해이다. 이 해를 맞이하면서 필자의 생각도 세상사가 무언가는 크게 한번 변할 것이다. 아니 변해야 된다는 막연한 기대를 해봤다.

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용의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상징의 동물이다.

육십갑자의 지지 부분 12동물의 5번째가 진(辰) 즉 용의 해이다.

사전에서 용을 풀이한 내용은

- ① 큰 구렁이 같고 발톱과 뿔이 있는 전설상의 동물.
- ② 관념상의 동물의 하나, 중국, 인도 등지에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파충류로 뱀과 흡사하며 등에 81개의 비늘이 있고 네 개의 발에 각각 5개의 발가락이 있고 뿔은 사슴에, 눈은 귀신에, 귀는 소에 가깝다고 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용에 관한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있어 흥미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기록한다.

용의 그림은 천차만별로 용을 그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구상대로 온갖 형태로 나타난다. 용은 기린, 봉황, 거북과 더불어 사령(四靈)이라 불리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 등 문명 발상지 어디에서나 오래전부터 상상되어 온 동물로서 신화나 전설 등에 등장하여 왔으며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큰 몫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상상의 동물이니 시대나 민족에 따라 그 모습이나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도 한다.

중국의 문헌에서 용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내용은 【용은 인충(鱗蟲: 비늘이 있는 동물의 총칭) 중의 우두머리로서 그 모양은 다른 짐승들과 아홉 가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과, 눈은 토끼와, 귀는 소와, 목덜미는 뱀과, 배는 큰 조개와, 비늘은 잉어와, 발톱은 매와,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라는 내용이다. 그중에서 9·9의 (兩數) 인 81개의 비늘이 있고, 소리는 구리 쟁반 울림과 같고, 입 주위에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 명주(明珠)가 있으며, 목 아래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박산(博山: 평탄한 공간)이 있다. 라고 설명한 내용도 있다.

1. 민간 신앙에서의 용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으로 신앙 되면서 많은 용신 신앙을 발생하게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물을 외면하고는 살 수 없다. 특히 농경민족은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물을 지배하는 용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다. 신라 시대 사해 제, 사도가 제, 고려 때는 사해사독제(四海四獨祭) 조선 시대는 각처에서 각종 용신제 등이 모두

용을 대상으로 한 거국적 의식으로 생명의 원천이며 농경의 절대적 요건인 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 시대부터 해오던 잔재는 지금 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전승 되고 있는 용왕굿, 용신제, 등은 현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四海四瀆(나라에서 정한 바다의 4방향과 낙동강(동독) 대동강(서독) 한강(남독) 용흥강(북독)의 4대강)

용에 관한 몇몇 기록을 보면 대개가 비를 구하는 행사로써 신라 진평왕 오십 년 조에 보면 흙으로 용상(龍像)을 만들어 놓고 무당으로 하여금 비를 빌게 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으며 그래도 계속 비가 없으면 ¹⁾오해신(五海神)에게 비를 빌기도 하였다.

용은 특히 어민들의 어로 신앙에 중요한 대상으로 숭배되어 왔다.

용이 바다 밑 용궁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 전승되어 왔으니 안전한 항해, 조업 그리고 풍어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용왕제 풍어제 등이 있고, 특히 용왕제는 어촌의 부녀자들이 음력 정초, 또는 이월 초에 만조시를 택해 바닷가에 제물을 차리고 사해(四海)용왕님께 가족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의식으로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다.

2. 풍수(風水)에서의 용

용은 풍수설에도 중요시해 와서 토지의 기복(起伏: 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함)인 산을 용 또는 용 날이라 한다. 기복 변화가 무상 무진한 산이 마치 음양 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용의 조화와 같다는 뜻이라 본다.

1)오해신: 동, 서, 남, 북과 중앙의 다섯 용왕

풍수설에는 모든 산의 종산을 태조산이라 하며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태조산이고, 곤륜산은 중국의 태조산이다. 태조산에서 뻗어 나오는 큰 산맥을 간룡(幹龍)이라 한다.

3. 설화에서의 용

용이 등장하는 설화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한국사의 증추적인 사서에 각종 용이 등장하는 설화가 86편이나 된다고 하니 놀랍다.

하도 많은 설화를 용소(沼)설화, 용연(淵)설화, 용정(井)설화, 용혈암(血岩)설화, 용꿈(夢)설화, 기타 설화 등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기록돼있는 내용이 있다.

전남 담양군 추월산 동쪽에 두 개의 돌연못이 있다. 기암 밑에 용이 살았다는 굴이 있고 반석 위에는 구불구불한 용의 발자욱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못을 용연이라 한다. (박영춘: 한국의 전설 8, 1973)

용혈암 설화로 경상도의 양산 통도사에 관한 설화는 통도사 창건 시 그 자리는 원래 연못이었는데 안에 용이 9마리가 살고 있었다 한다. 이에 자장(滋臈: 신라 때 고승)이 용이 다른 곳으로 떠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아 종이에 불화자 4자를 써서 못에 던지고 법장(法杖)으로 연못을 저으니 갑자기 물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자 다섯 용은 오룡곡(五龍谷)으로 달아나고 4마리 용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죽어 그 피가 근방의 바위에 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용혈암이라 하였다. (한국 민간 전설 집, 1958)

또 용꿈(夢) 설화는 우리 주변에도 익숙한 말이라 하겠다.

용 자체를 큰 희망과 청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입신출세의 관문을 등용문(登龍門)이라 하였다. 갑자기 매우 좋은 행운이 생기면 용꿈

꿨다는 말을 한다. 꿈 중에서 가장 으뜸이 용꿈이라 한다. 옛 용꿈에 얽힌 설화중 세조 때 홍제상이 낮잠을 자다가 문득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진동하고 청룡이 그에게 달려드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난 홍제상은 급히 춘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로부터 춘성은 태기가 있어 결국 홍길동을 출산하였다. (朴榮春, 한국의 전설 8, 1973)

기타 설화중에는 영덕 무등산 적벽봉 위의 큰 바위에 말 발자국이 있는데 이는 아기 장수가 타던 용마의 발자국이라 하고, 또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에 걸쳐있는 계룡산은 그 연봉(連峰)이 마치 닭의 벼슬 쓴 용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산 서쪽은 용문폭포(龍門瀑布)가 있다. 남쪽은 솟용추와 암용추가 있다. 옛날 그곳에 암용과 솟용이 살았다 하고 양쪽이 땅 밑으로 서로 통했다고 하며 아무리 가뭄에도 물이 줄지 않는다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계룡산 아래 잠연(潛淵)이 있는데 한재에 기우하면 호험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용에 관한 설화는 끝없이 이어진다.

4. 불교에서의 용

불교에서 용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과 인도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으나 생략하고 우리나라의 불교가 삼국통일 이래 독자적인 호국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호국용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영원한 왕권과 호국을 기원하는데 용이 많이 이용되었다. 황룡사 구층탑이 그 예의 하나이며, 문무왕이 죽어서 대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며, 또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의 내용은 신라 제31대 신문왕 2년에(682) 용으로부터 영험스러운 대(竹)를 얻어 피리를 만들었다는 설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東海)에 감은사를 지었다. 신문왕 2년에 해관(海官)이 동해안에 작은 산이 감은사로 향하여 온다

고 하여 일관으로 하여금 점을 쳐보니,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金庾信)이 수성(守城)의 보배를 주려고 하니 나가서 받으라 하였다. 이견대(利見臺, 유적, 사적 제159호)에 가서 보니, 부산(浮山)은 거북 머리 같았고 그 위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풍우가 일어난 지 9일이 지나 왕이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말하기를,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 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와 피리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이 피리를 불면 평온해져서, ‘만과식적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 뒤 효소왕 때 이적(異蹟)이 거듭 일어나 ‘만만과과식적’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5. 제왕의 상징으로서의 용

용은 임금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임금이 시무복으로 입는 옷이 용포(龍袍)다 이를 곤복(袞服) 또는 곤용포(袞龍袍)라고도 한다. 두루마기형의 윗옷으로 노란색 또는 붉은색 비단으로 가슴, 등 양어깨에 오조용(五爪龍)을 금실로 수놓아 지었다.

임금이 사용하는 평상을 용상(龍床), 수레를 용가(龍駕), 큰 배를 용가(龍舸) 심지어 임금이 흘리는 눈물을 용루(龍淚)라 하는 등, 임금과 관계되는 것에는 모두가 빠짐없이 용이라는 접두사를 붙여 호칭하였다. 이는 용이 무한하고 경이로운 조화 능력을 인정하며 이것이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하며 호국용 사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6. 용의 그림과 조각(彫刻)

용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마음이 융합함으로 태어난 환상적인 하나의 창조물로서, 어느 종교의 독점물도 아니며 민속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다 같이 받아들이는 영물이므로 실체는 없으면서도 위대한 존재라

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용에 관한 수많은 신화, 설화, 전설과 신앙 학설 문화 또는 미술의 형태로 거듭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소산물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용의 형상이며 그 형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용의 미술이다.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하는 사찰 주변의 옛날 유명 선사들의 공적 비석의 두부에 용 조각으로 장식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많은 용상이 닮은 것은 있어도 같은 것은 없듯이 작가의 뜻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나타나 있는 용에 관한 기록 중에서 용의 발가락 개수도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고 하는데, 한나라 고조(高祖) 때 제왕과 제1, 2 왕자만이 다섯 발가락용을 쓸 수 있고, 제3, 4 왕자는 네 발가락용을 쓰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후세에 와서 중국은 황제만이 다섯 발가락용을 쓸 수 있고, 우리 한국의 왕은 네 발가락용을, 일본의 왕은 세 발가락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화의 세계에서는 다섯 발가락 용 그림이 자유롭게 나타나 있으며, 용의 몸집은 뱀을 닮은 탓으로 그 자세가 자유로워서 천변만화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 용의 모습과 현대적 변용

용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동물이다. 시대와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용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용이 발휘하는 조화 능력을 신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용의 모습이나 조화 능력도 조금씩 달리 묘사되고 인식되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중국 민족이 상상해온 용의 모습을 받아들였다. 거기에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인도의 불교적인 용의 모습이 겹치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의한 또 다른 모습의 용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세 가

지 모습들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용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있는 용의 형상의 보면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시대 금동 당간 용두와 삼성 미술관에 있는 고려시대 용두보당(龍頭寶幢)이 있으며 삼성미술관의 것은 금속으로 제작된 국보 제136호의 귀중품이다.

또 용의 그림으로는 양산 통도사 대들보에 그려져 있는 백용의 그림이 우리나라 용 그림의 대표작이라 한다.

8. 용자를 사용한 여러 분야

먼저 고금을 막론하고 인명에서 앞과 뒤 용자를 사용한 이름은 수없이 많으며 용자 단일로 호칭한 이름도 흔하다.

하나같이 최고, 최대, 최상, 최강 등등 가장 으뜸을 희망 내지 기대하는 바람을 추구한다고 할까? 계천(溪川)에서 용 났다는 말도 낯선 말이 아니다. 외딴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에서 만사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크게 출세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세상 만물에서 출중한 부분이 있으면 으레 용자가 붙는다.

우리 지역 안의 지명을 위시하여 용자를 곁들인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신라시대 팔대 사찰의 하나인 관룡사의 경우 원효가 제자 송과와 함께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색 채운이 영롱한 하늘을 향해서 화왕산 마루의 월영 삼지(三池)로부터 아홉 마리 용이 등천하는 것이 보이므로 절 이름을 관룡사(觀龍寺)라 하고, 산 이름을 구룡산이라 하였다 한다. 또 고암면 감리 쪽에서는 관룡산이라고 하고, 구룡곡의 지명은 감골 동편 골짜기 이름인데 이 일대에 구불구불한 능선이 아홉 개가 있어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구룡(九龍)이 감돌아 있는 곳이므로 구룡곡 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관룡사 대웅전 앞에서 서남 방향 높은 산등성에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95호)이 있는 장소를 용선대(龍船臺)라 하며 이 지명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사전에 용선(龍船)의 뜻은 임금의 놀잇배라 한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뱃놀이는 만인이 즐기는 놀이다.

특히 옛 기록을 보면 용선은 엄청 호화롭게 꾸며졌다고 한다. 고려시대 어느 임금 때는 어선(御船)을 비단으로 꾸미는 데 3년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다. 또 광해군이 만든 용주(龍舟)는 선상에 방을 꾸며 사치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별로 이용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참고해 보면 용선대라 이름 붙인 것은 석가 석조 여래좌상이 안치된 이 산봉우리가 용선에 비길만큼 아름답다는 표현 외는 다른 뜻이 없을 듯하다.

9. 우리 지역 내의 용(龍)자를 겸한 여러 명칭과 내역

● 창녕읍

용석리 이마을은 읍의 남서(南西)부로 동서간의 거리가 5.5km의 산능선이 이어지고 있어 용의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양용석 골용석 등 크고 작은 자연마을이 15개쯤 되고 마을 앞에 흐르는 냇가 용석천이며 화왕산의 남쪽 자런 골과 비들제 골 두 골짜기가 퇴천마을 앞에서 합류하여용석리 앞을 길게 흐름으로 용석천 이라는 이름으로 유어 풍조 앞을 지나 낙동강에 이른다.
퇴천 아랫담 냇가에 서흥 김씨 봉선소인 기룡재(起龍齋)가있는데 기문 내용 중 마을 앞에 누워있는 돌(바위) 모양이 용과닮았다고 하여 용석이라는

동명(洞名)을 갖게 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기룡재(起龍齋) 서흥김씨 봉선소이며 기문 쓴이가 주자(朱子) 「여산 와룡암기문」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 이라함.

용양재(龍陽齋) 기문 내용에 재명에 대한 언급이 없고 용석리의 남쪽 즉, 양지(陽地)의 뜻으로 볼 수 있다.

벽진 이씨 봉선소.

용화당(龍華堂) 남창녕 입구 고개에 있는 김해김씨 종친 회관이다. 용화는 김수로왕의 13세손인 흥무왕 김유신 장군의 별호 이다. 선조의 훌륭한 인품을 본받아 종친의 번영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으로 보는 것이 어떠할지?

● 남지읍

용산리(龍山里) 풍수지리에서 산줄기가 구불구불 힘차게 뻗어 내려 오는 것을 지칭 하는 말이며,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이 용의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변에 용암산 용지덤 용산늪 용산제방과 용제단이 있는데 용제단은 옛날 여기에 봄가을로 고을 원이 와서 제사를 올렸는데 낙동강 수운과 홍수그리고 가야 진에 주둔 하고 있는 군사들의 무운을 비는 제단이라 한다.

용강이(龍江) 아지리의 한곳으로 옛적에는 늪으로 깊은 소(沼)가 있어 용이 살았다하고 용이 등천하여 용이 내려 보낸 비의 강물로 매년 풍년이 든다하여 용강 들 이라 한다.

● 장마면

용암산(龍岩山) 강리의 상강마을 북쪽 산 으로 용이 등천한 자리라 한다. 가뭄이 심할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사흘안에 비가 온다고 한다.

축산군지의 이사(異事)란에「용암산유용공심부지 기백장면천한기우측적우운」(龍岩山有龍穴深不知其百丈面天旱祈雨卽雨云)

「용암산에 용의 굴이 있어 그 깊이는 몇 백길인지 알 수 없다. 가뭄에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내린다.」라는 기록이 있다.

용암재(龍巖齋) 밀양박씨의 선조 남유당 박공(諱 延福)을 추모하는 봉선 소로서 용암산의 지명을 따라 지어진 재명인 듯 하다.

● 성산면

대산리 이 사찰은 1760년대(영조40년) 건립되었다는 모호
용흥사(龍興寺) 터 한 기록 과 또 구전으로 신라시대부터 있었다는 말도 있다. 용흥이란 절 이름 유래는 어디에도 없다. 이 터의 북쪽 700m 높은산 기슭에 각료암 이라는 용흥사에 따른 암자가 있다. 현재 밀양 표충사 호국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국보 재75호 청동은입사향완이 과거 용흥사 소유였다는 기록과 받침에 용무늬를 장식 하였는데 용의 모습을 능숙하게 표현된 고려의 은입사 기술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군이 국보 제33호 진흥왕 척경비, 제34호 술정

동삼층석탑, 제75호 용흥사 청동은입사향완 등 3점이나 된다. (이 향완의 안쪽면에 새겨진 57자 내용을 미루어보니 고려 명종 7년(1177)에 제작 되었다 하니 용흥사가 신라 때부터 라고 구전으로 전하는 내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 된다.)

추기

이 글을 완료한 후에 용흥사에 관한 새로운 기록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용흥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지난 7월10일 용흥사지 학술대회 책자를 통해 새로운 기록을 접하게 되었다. 창녕현의 주산인 관룡산과 북쪽의 비슬산이 창창하게 고을의 남과 북에서 마주하고 있는데 관룡산의 줄기가 이윽고 일어난 까닭에 용흥을 절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기록 하고 있다.

● 대합면

내울(內弓)리

이 마을에는 외룡(外龍), 구룡산, 어룡곡(魚龍谷) 등 3개소가 용이 들어있다. 외룡은 옥산리의 왼쪽 산등성 이를 따라 붙인 이름이며 어룡은 잉어가 오래 살아 화한 것을 말하며 이 골짜기에 잉어가 있었다고 한다.

구룡산(九龍山)

신당리의 북쪽이며 옥산리에서는 남쪽산으로 산봉우리가 9개 라는데서 한 말이며 진사(進士)가 9명 날 곳인데 7명이 났다고 한다. 어룡곡은 잉어가 오래 살아 화한 것을 말하며 이 골짜기에서 어룡이 있었다고 한다.

용호벌(龍湖一) 외룡동(臥龍洞)은 마을 뒷산이 누워있는 용의 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용천(龍川)월포앞을 흐르는 내로 용이 승천하 면서 비를 내린다는 용쟁이(龍莊澤), 용천(龍川) 용산리용 의 위쪽 이라고 용산으로 작명 하였다고 한다.

구룡재(九龍齋) 대구(大丘) 서씨의 재각으로 구룡산 아래의 뜻외는 다른 기록이 없다.

용암재(龍巖齋) 대합면 도개에 있는 옥산전씨의 문중 윗분의 호가 용암(龍巖)이라 그분을 추모하는 봉선소.

● 대지면

용소(龍沼)리 넓은 면적의 옛 사밭포의 일부인 세거리별로서 옛날 개간전에 깊은 못들이 많아 용이 살았다고 하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용소리 안에는 20개의 각각 유래에 따라 붙여진 지명이 있다.(용소, 헌터, 우뜸, 매란새미터, 아랫뜸, 화지대굴, 세거리, 당산동, 앞당산, 뒷 당산, 신만만당, 용시골, 삼학골, 장고개, 작살고개, 장정승묘, 세거리별, 사밭별, 가운데지, 살구십, 큰보 등이다.)

뢰용재(雷龍齋) 효정리(槐洞)에 있는 창녕성씨 봉선소 이다. 산의 형국이 용의 형상이며 용은 서리어 움츠리고 잠겨 누워있어야 기이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어서 뢰용 이라고 한다는 내용이다.

용산재(龍山齋) 용소리에 있는 여양진씨(驪陽陳氏) 용암이란 호를 가진 문중 웃어른을 추모하는 재각이며 마을의 지명에 따라 지은 이름 이라 한다.

용연재(龍淵齋) 용소리에 있는 하산장씨(河山張氏)의 조상이신 태사공(太師公)의 후손이 조상의 추모를 위한 봉선소로 건립된 재실(齋室)이다.

● 영산면

영산면 영산면의 지명사나 누정록을 다뒤져도 용자가 포함된 명칭은 찾아 볼수가 없고 다만 창녕지명사 중 영산면 첫장에 조선팔경에 따른 영산 팔경이 구전되는데 이 팔경외 또다른 팔경이 있다고 하면서 나열한 팔경중 용산만하(龍山晚霞)가 있는데 원문만 기록이 있다.

어느 산을 지적한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산에 비친 늦은 저녁노을 경치가 영산팔경의 한 몫을한 듯 하다.

교리 골룡(骨龍) 교리 남쪽의 마을로 처음엔 용이 앉은자리라 하여 용성(龍成)이라 했는데 그후 산세를 보니 돌이 많아 딱딱한 지형이므로 이 지형은 용의 뼈라하여 골룡으로 고쳤다 한다.

용산정(龍山亭) 영산 궁도의 역사가 100년이나 된다니 놀랍다. 용산정의 발기는 1924년 남산기슭에서 남산정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어 1938년에는 장소를 옮기면서 영덕사우회(靈德射友會)를 창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6.25 한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중 1976년

창녕군의 지원을 받아 재건과 동시에 용산정(龍山亭)으로 개칭 하였고, 뜻있는 몇분이 사비를 출연하여 지금의 장소를 매입하는등 각고의 노력으로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용산정의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전국대회를 개최하여도 손색없는 궁도장으로 발전하였고, 용산정 백년사를 펴내어 영산인의 기질과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 이방면 석리

용배(龍背)와 상룡(上龍)

용배는 용의 등이라는 좋은 뜻이 아니라 달리 용의 위쪽으로 상용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창리에는 용아산(龍牙山) 용아천(龍牙川)등의 지명이 있다. 아리실 남쪽 산으로 용의 형국이라 하여 용아산 으로 불리고 아리실 마을 앞 내를 용아천 이라 한다.

용강재(龍岡齋)

광주노씨 소유 재각(齋閣)으로 옆에 이수정(二水亭)이 화재로 소실되고 용강재에 합(合)치게 되었다는 기록만 있다.

● 유어면

대대리 호룡골(回龍)

이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름이 용두산이다. 이 산이 『회룡 고조(回龍顧祖)의 형국』 이라하는 풍수 지리설에 의해 마을이름이 되었다. 이마을이 모두 부자로 잘사는 것이 이 회룡고조의 덕이란다.(回龍顧祖)~풍수설, 산의 지맥이 뺨 돌아서 본 산과 서로 마주 대하는 地勢)

회룡재(回龍齋) 선산김씨의 봉선소로서 기문에 중수기(重修記)내용 외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도천면 우강리 호룡골(回龍) 우강 동편끝의 정상에서 남으로 뻗어 있는 산등이 아홉 개가있어 구등산(九登山)이라 하고 아홉등중 서쪽으로 뻗어다,낙동강과 만나는 산등을 용두산이라 하고 산등이 구비쳐 왕성이곡(旺聖峴谷)을만든 시초라하여 이곳이 용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왕성이곡(旺聖峴)): 효우촌에서 길곡 오희리 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길곡면 오희리 용두(龍頭) 오희리의 바깥마을을 외동이라 하고 외동의 북쪽의 산으로 용의 머리 형상이라고 용두라 칭하며 풍수지리설에 의한 지명이라 한다.

부곡면 학포리 비룡산(飛龍山) 학포리 마을 뒷산이며 노리의 논실마을 앞산이기도 하다. 산의 형상이 나르는 용처럼 힘차게 꿈틀거리고 있다. 하여 풍수지리설에서 나온 이름 이라 한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창원 북면의 천마산과 마주하고 있다.

기타 용의 명칭(읍지, 군지등의 문헌에 명칭만 있는 樓, 亭)

대지 성구세(成龜世)강학소~~~ 臥龍亭,

장마 창녕조씨 재각 ~~ 龜龍亭,

장마 밀양박씨 재각 ~~ 龍巖齋,

장마 윤경의(尹慶義)재각 ~~ 駕龍齋,

在縣南十里김시해(金是階)묘각 ~~ 龍岡齋,

참고문헌: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창녕루정록, 창녕군지명사, 창녕금석문

10. 용을 주제로한 각종 조형물

1) 전통적인 용모습



용두보당(삼성 미술관 전시)
국보 제136호

※ 용두보당(龍頭寶幢):
금속으로 제작된 고려시대 당간지주



금동 당간 용두(국립대구박물관 소장)
통일신라시대 보물

2) 용의 돌조각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비의 귀부

※ 귀부(龜趺):
거북모양 비석받침돌



원각사비의 이수

※ 이수(螭首):
용 모양을 새긴 비석의 머릿돌

3) 무신도(巫神圖)중의 용신



용왕대신, 중요민속자료 제17호
(서울 종로구 국사당 소장)



용궁부인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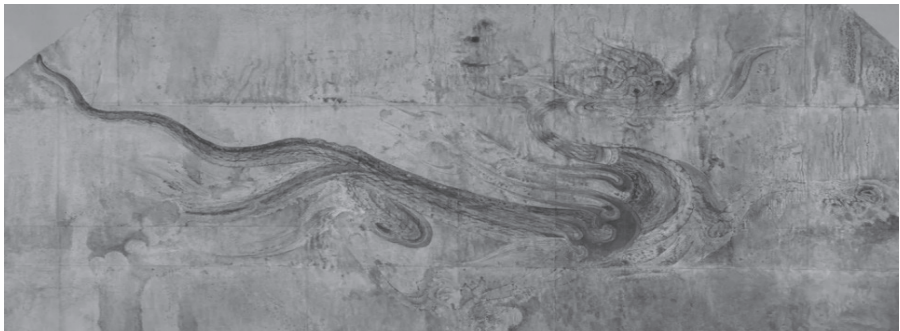
4) 용의 조형물



운룡문대모장롱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용신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룡도, 고구려 벽화(북한 평안남도 강서군)

교육과 低出産의 相關關係



虎棲 곽정기
창녕문화원 부원장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개인을 떠나 국가적인 큰 문제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느끼고, 또 걱정하는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아니,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전연 개의치 않고, 국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 역사상 언제부터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고민하게 되었나? 왜 저출산이라는 아주 국가적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상상하고 미래 대비에 관심을 두었는가? 이런 부분을 필자는 교육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가 교육의 발전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사회 활동 등 활발한 움직임, 경제적인 富, 여러 조건을 고려해보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국가적인 정책과 대책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부터 즉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임시방편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며, (예를 들면 1명 낳으면 100만 원, 2명 낳으면 400만 원, 3명 낳으면 돈과 학교 교육지원 등 지자체별, 기업별 상이한 지원, 어느 기업에서는 아이 낳으면 1억(億)

지원을 한다고 하는 등) 방법은 어느 기점에 가서는 한계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일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한 처방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인 교육의 방향, 여성들의 사회 활동 등을 고려해서 정책을 장기적이고 다방면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판단되어 교육과 저출산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교육의 변천 과정

교육방식은 아주 예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실시됐지만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는 朝鮮時代부터 한번 과정을 알아볼까 한다.

朝鮮時代에는 중앙에 成均館과 4학(東學, 西學, 南學, 衆學)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방에는 향교와 서당이 운영되었다. (지금도 향교, 서원, 서당이 많이 남아있다) 향교는 聖賢祭祀를 비롯한 유생교육 및 지방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각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위치하며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여 운영되었다. 서당은 주로 初等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고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나, 일반평민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교육기관 들이 朝鮮時代의 敎育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참 고

서당의 기원은 고구려의 경당에서 찾을 수 있다.

이어서 조선 시대에는 여러 형태의 서당이 세워졌고 일제 강점기에 학교설립이 어려웠으므로 자연 서당에 다니는 학생이 많아졌다.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서당은 없지는 않았지만 공부한다고 해도 여자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기초적인 문자만 배웠다.

◇ 教育의 기회 ◇

朝鮮時代는 주로 일반층(소수의 支配階級) 남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백성이 文盲 상태였다. 그러나 세종대왕 시기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백성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支配階級은 여전히 漢文 중심의 文字 생활을 유지하며 일반백성들은 지배계급의 文化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訓民正音

1443년 음력 12월(양력 1444년 1월)에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국어의 표기체계(朝鮮 4代 임금 세종대왕)

“1444년 창제하고 1446년 반포한 韓國 고유의 文字체계”

◇ 개화기 教育기관 ◇

원산학사는 1883년에 설립된 教育기관으로 19세기 말 조선이 서양을 향한 개방과 근대화에 필요성을 직면하면서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원산 개항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教育 근대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원산학사는 정식학교와 함께 자생적인 教育기관으로 운영되었다. 학교는 문반(文科)과 무반(武科)으로 나뉘어 상업, 해외무역, 행정 등의 문화적인 지식과 치안유지를 위한 군사훈련을 제공했다. 이 학교는 조선의 教育체계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다음으로 1885년 한성사범학교, 1886년 ¹⁾육영공원 등이 있으며 1886년 배재학당은 기독교 선교사인 스크랜턴부인이 설립한 학교이며 이 학교는 女性 教育의 産室로서 初等, 中等, 大學교육을 모두 실시한 개화기의 女性 教育 기관으로 운영된 것으로 본다.

1) 육영공원 : 1886년 설립된 관립학교(양반, 고관자제 수용)

◇ 정부 주도 교육기관 ◇

고종이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의 이름을 지어주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조치였다. 정부는 公教育에 의한 근대적 國民教育制度 수립을 추진했고, 한성사범학교 관제와 小學교령을 제정하고,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노력은 당시 조선 정부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教育改革을 주도적으로 추구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의 자주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세기 실학자들의 보편적 國民教育에서 출발하여 자생적으로 국민 初等教育制度를 수립한 것이다.

◇ 民間 주도 교육기관 ◇

소규모 教育機關이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활발히 운영되었다. 이러한 教育機關은 法令에 의한 정식학교만큼의 시설과 교사, 교육과정을 갖추지 않았지만, 新學問에 대한 열의로 교육활동이 조직 운영되었다.

民間 교육활동은 정식학교와 비교해 훨씬 많았으며, 1905년 당시 전국에는 公立 小學校가 60여 개 있었고, 반면 私設 教育機關은 무려 5,000여 개로 많았으며 1908년 민간학교 인가를 신청한 수는 1,200여 개 더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교육 열의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 고

「女性の 역할과 근대 여자교육 談論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여성 지식인과 여자교육의 歷史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27년 이능화의 「조선여속고」 「조선해어회사」로 볼 수 있다. 이 두 연구서는 근대 이후 형성된 남녀 同等權이나 여자 教育談論을 반영한 것이다.

2. 教育의 중요성 인식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부가 教育改革에 힘을 기울여 초, 중등교육의 확대와 質的 改善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대학개방, 사립대학 육성정책 등이 시행되어 고등 教育 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부터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教育정책의 다각화와 현대적 도약이 이루어졌다. 教育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人材 養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社會的 編成, 다문화 教育, 教育과 일치하는 진로 체계 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세기 초에는 教育의 平等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롤리즘교육정책과 유럽의 教育정책은 性別, 人種, 社會的 배경과 관계 없이 모든 이에게 教育 機會를 제공하기 위해 教育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教育프로그램과 정책이 마련되었다.

교육의 歷史的 발전은 인류문명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古代文明에서 시작된 教育은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와 현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現代의 教育은 디지털 기술과 개인화된 학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發展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教育의 歷史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教育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다. 教育의 기원과 發展 過程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教育시스템을 이해하고 미래의 教育을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教育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知慧와 價値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教育의 역사적 進化를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 教育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教育 方向도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教育으로 轉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 이런 교육 課程에서 인구 增加는 계속되었다.

교육이 이런 과정과 발전을 하면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經濟가 어렵다 보니 먹고사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시골 지역에서는 보릿고개(보리가 나기 전에 糧食이 고갈되는 時期)가 유행처럼 무척 어려운 살림살이가 계속되는바 정부는 産兒制限이란 정책을 내면서 필자가 공직생활 할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으로 가족수당도 자제는 2명까지만, 그리고 심지어 예비군훈련(남자)도 정관수술을 하면 訓練 免除 등 다양한 방법으로 産兒制限을 부르짖으며, 인구억제를 위한 노력이 지대하였다.

“Birth control(산아제한 가족계획)의 Let us do it now 한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기가 있었는데 産兒制限의 넵 두유.

4. 인구억제를 위한 家族計劃事業

6.25 戰爭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증했기 때문에 韓國戰爭 이후 1955年 ~ 1963年 生을 베이비 붐 세대라 칭한다. 인구증가를 우려한 정부는 1961년 출산을 抑制하는 「産兒制限」가족계획사업을 펼쳤다.

産兒制限이란 과잉인구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家族構成元數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調整하는 것을 의미한다.

人口增加를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임법교육, 피임 도구 제공, 불임수술, 임신중절을 권장하기도 했다.

‘61년 産兒制限은 ’70년까지 추진했으나 그의 실패 수준이었으며, ‘70년 출산율은 4.53명으로 여전히 높았다.

다시 정부는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口號와 연도별로 구호를 만들어 인구억제 정책을 연구한 바 있다.

1970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父母 되자

1980년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超滿員

1990년

젊은 꿈을 아름답게 이성 교제 健全하게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5. 人口增加에서 減少로

1960년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
급격한 인구증가는 經濟成長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經濟開發 5개
년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 정책이 並行 추진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여 저출산이 시작되어 대략 年
度別로 출생률을 보면, 1960年 6.0명, 1970年 4.53명, 1983年 2.08명
으로 人口代替 수준(2.1명)에 도달한 후 약 10여 년간은 1.6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青年 失業者가 대거 생겨
나고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1
년에는 初 저출산사회(1.3명)로 진입을 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最低 수준을 記錄하였다.

연도별 출생아 數字로 보면 1980년대에는 年 87만 명, 2006년에는 年
46만 명,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부터 減少가 예상되었고 유소년 인구가 65세 노인인구보다 줄어드는 人口構造의 변화는 社會構造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高齡化로 이어져 생산능력이 鈍化되고 소비, 투자, 저축이 위축되어 경제성장과 潛在 성장률의 鈍化가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이 문제화되면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 제기

家族 親和的 양성 평등적 文化 造成,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과 관련하여 세부 과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共感帶 형성을 위하여 經濟界, 宗教界, 女性界, 保健 醫療界, 市民 團體, 言論界 등 전국 5,857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앙 및 지역출범을 지속해서 재개해 나가기 위한 아이 낳기 좋은 世上運動本部가 출범하였다.

◇ 최근 年度別 출산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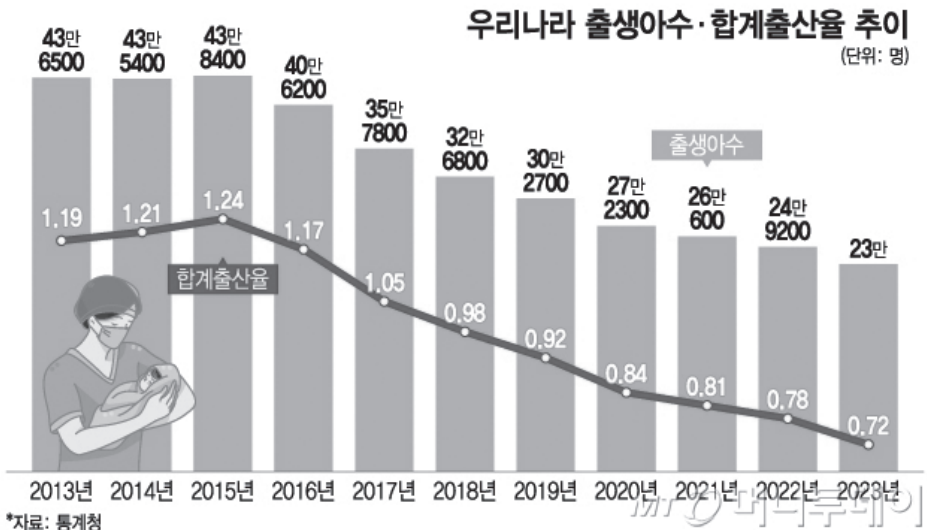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그래픽=이지혜

6. 각고의 努力에도 저출산은 繼續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시작은 2001년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인구 출산에서 보면 2000년도 출산이 63만 명인 데 반하여 2001년에는 54만 명으로 1년 만에 약 9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게 태어나 이때가 저출산의 時期로 보는 것이다.

연도별 출산 수

연도별	총 출산수	남자 아이	여자 아이
1990년	632,168	331,449	300,719
2000년	625,914	326,275	299,639
2010년	460,535	237,229	223,305
2020년	291,777	149,578	142,198
2022년	249,089	127,504	121,585

※ 2023년 223,895명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증가하다 2020년부터 사망자보다 출산자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 減少로 돌아섰다. 즉 2020년-**32,611**명, 2021년 -57,118명, 2022년 -123,753명으로 매년 減少 폭이 증가하고 있다.

7. 왜 저출산은 繼續되고 있는가?

늦은 婚姻 時期와 혼인을 하락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80년대 후반에는 30대에 家庭을 일구어 자녀를 두 명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時代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는가? 현재는 30대 초반은 結婚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30대 후반은 '아직 멀었네' 하고 옛날에는 30대 결혼 못 한 자녀가 있으면 큰 흥으로 생각하고 부모는 죄지은

사람처럼 부끄럽고 꼭 부모 잘못된 양 말도 못 하는 시절인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싱글 시대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다.

특히 都市보다 農, 漁村지역으로 가면서 이는 더 深刻하고 아예 결혼을 外國여자에 의존하는 時代에 다문화 가족을 이제 받아들여 그나마 가정을 이루고 출산율에 일조하고 있다.

부모가 結婚을 강요하지 못하는 사정 중의 하나는 정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르겠지만 본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과 눈을 낮추어서라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운이 좋아 저의 이상형에 딱 맞는 짝꿍을 만나 결혼했지만, 만약 男便을 만나지 않았다면 기준을 낮춰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結婚 잘못하는 순간 人生은 와-장창~~~~~무너지는 거 아시죠?” 이런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과 상호 比較하는 내용으로 물론 돈 문제가 있다. 누구는 명품가방에 다이아 반지에 住宅준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부터 아파트 생활하던 세대인데 우리네 父母들처럼 원룸, 빌라, 전셋집에서 新婚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어땡고, 남들 다 하는 몸 조리부터 유아 되기까지의 과정, 영유 私立初, 그리고 어마어마한 私教育費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결혼이 멀어져 가고 있다.

미혼일 때 나 혼자 충분히 즐기며 여유롭게 생활했는데 아이 낳고 기르려니 힘들게 일해도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이런 젊은 사람들의 思考가 社會的으로 변화되어 스스로 판단해서 결혼과 가정을 가지는 것이 幸福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을 통한 저출산의 극복책

1. 教育의 變化추구

結婚, 出産, 育兒 費用을 줄여주는 정책지원(policy)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祝福이 될 수 있고 자연의법칙과 생존의 가치 추구를 위한 認識 變化(cultural change)가 없으면 정책은 成功할 수 없다면서 “독일, 이스라엘, 일본, 미국 등 출산율이 1%대인 先進國을 보면 일과 가정이 확실히 양립되고 사회적 돌봄 체계가 구축돼있고 가족 친화적 文化 등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했다.

“오늘날 출산은 哲學이다.”

출산 세대는 幸福하지 않다. 幸福할 자신이 없다.
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아니 못 낳는다.

총체적인 문제의 결과가 저출산, 그 뿌리는 哲學의 不在다.

출산 세대가 幸福하게, 幸福할 자신이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직 저출산에 대한 深刻한 문제를 느끼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 대책이란 게 정부정책만 쳐다보고 있고, 정책을 내놓아도 따를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왜일까?

“출산 세대가 幸福하고, 幸福할 자신이 있으면 된다.”

그들 부모 그들 자식은 따라서 幸福해진다. 최소 부부가 아이 둘 낳으면 된다.

2. 教育을 바꿀 수는 없는가?

유럽과 미국처럼 學生에게 공부만 하라고 하느냐? 대학진학률 30%, 대학을 안 가도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공부가 趣味인 사람들이 대학 간다. 숙련공, 기능공이 몸값이 더 비싸다. 이들은 파티를 즐기면서 幸福하게 산다. 우리가 먼저 이 길을 만들고, 가 보면 된다.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를 키우고 있는 父母로서 기성세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자각하자. 현재 저출산 時代를 위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世上을 여는 기회로 만드는데 總力을 기울여 보자. 또한 교육의 방향도 한번 생각하면서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結婚, 家庭, 아이 낳는 것을 자기 幸福 지수가 아니라는 아이러니한 생각 이런 것이 지금하고 있는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를 바꾸는 데는 전문적인 專門家나 學者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3. 그렇다면 克服策은 없는가?

지난해 정부는 모델로 헝가리를 선택해서 다방면으로 研究를 했다. 양육 보조 정책, 이는 女性들이 家庭을 위해 職場을 포기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없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특히 “家族을 위한 住宅구매 보조금 지급정책”으로 新婚 부부의 住宅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新築 주택에 대한 부가세율을 27%에서 5%까지 삭감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 결과 헝가리 출산율은 2011년 1.23에서 2018년 1.49로 2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마침내 오늘날 헝가리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약 20만 가구에 달할 정도의 成황으로 이어졌다. 헝가리 政府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총체적 증가추세로 成果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방향에서 저출산 탈출을 위한 정책이 헝가리 못지 않게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企業體가 앞장서서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2024년도 結婚과 출산수가 늘어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은 다행 중 다행이나 이는 一時的인, 즉, 깜짝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앞서 필자가 저술한 內容과 같이 長期的이고, 저출산 탈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教育의 方法과 方向에 대한 研究를 해서 並行하여야만 될 것이다.

結婚과 자녀 수에 따라 더욱 다양한 支援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補助金 이외에도 저금리 담보대출, 차량구매 보조, 각종 세제 혜택 등 각종 제정 지원을 계속 지원해서 인구 增加 추세로 轉換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우리의 未來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인가? 投資에 인색해선 절대 成功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선순위로 보아서는 가장 1順位가 이 문제 아닌가 싶다.

結論的으로 우리는 저출산의 탈출은 教育과 結婚, 子女, 家庭을 가지는 것이 幸福이 될 수 있는 哲學이 되면 자연히 저출산은 극복되리라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는 言行들과 시행자의 정치 성향에 대한 評價와는 별개로 오르반(헝가리 총리)이 시행한 출산 정책은 맞벌이 가구들이나 職場이 있는 女性들에 매우 커다란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世界的인 저출산 분위기 속에서 그중에서 OECD 국가 중 最下位에 있는 大韓民國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經濟大國이 된 것과 같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증가로 돌아서는 위대한 國家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국민의 底力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역사는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지 않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政府의 좋은 정책과 다방면의 지원을 더 해서 우리 모두의 努力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海水 陳台洪 (96세)
창녕군 대지면 학성리

조상을 잘 모셔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다.
조상을 배신하면 불행하다.
부모님 생전이나 사후에도 불효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자부한다.

부모님의 유언을 고령의 나이지만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편모 슬하(膝下)에서 자당(慈堂)의 유언은 “너는 학력 없지, 재물 없지,
도와줄 형제 없지. 어떻게 살 것인가 심히 걱정이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대문부터 열어라. 그것이 부지런의
상징이다.”

이런 유언을 실천한 결과, 먹고 사는 데도 가난하지 않고, 내가 장수
하는 것도 유언의 덕택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은혜로운 자당이 82세로 운명(殞命)하셨다.
너무나도 슬퍼 울고 또 울고 하여 얼굴이 많이 부었다. 마을 이웃에서
문상을 와서 하는 말이 “상주 병원에 가야 하겠다”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것은 병이 아니고 어머니님 안장 후에는 절로 완치가 됩니다.”

장례 후에는 49제를 위해 빈소를 차려 49일간 아침저녁 밥상을 차려 곡을 하며 절을 했다. 묘소에도 상복 입고 매일 성묘 참배 하였다.

내 침실에 자당(慈堂) 사진이 걸려 있는데 하루 평균 10번 이상 절을 한다.

호천망극(昊天罔極)에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여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행복감이 있다.

우리 모두 조상을 섬겨야 행복하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로운 사람도 볼 수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다.

조상은 나를 있게 하신 너무나도 은혜로운 분이시다.

근원 없는 냇물 없고, 뿌리 없는 나무 없으며, 구름 없는 비가 올 수 없고, 조상 없는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조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로운 분이시다.

때문에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교훈이다.

조상을 모신다는 것은 다만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후손의 도리다.

조상을 배신하면 천벌을 받는다.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선산에 묘소를 둔다. 그 묘소에 수시로 가서 참배 성묘하는 것이 또한 자손 된 도리다.

또한 가정에서는 조상의 가신 날을 기해 후손이 모여 정성 어린 제사를 지낸다.

양 명절에도 누대 조상을 같이 모신다.

효성이 지극한 후손은 철저히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며 정성을 다한다.

이러함에도 명절이 되면 조상을 모시고 가족 간에 친목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엔 수십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니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패륜아들이다.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부모님의 제사에 올리는 축문에 호천망극(昊天罔極)이란 말이 있다.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는 뜻이다. 부모님의 은혜가 이러한데 어찌하여 보답할 수 있겠는가!

스승의 은혜



海水 陳台洪 (96세)
창녕군 대지면 학성리

옛날에는 ‘군사부(君師父)’라 하여 스승을 임금님 다음으로 예우하였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사람다운 도리다.

필자는 어릴 때 한학자로부터 한문교육을 받았다.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창녕읍 직신리에 김녕김씨 재실인 청온당이 있었는데 그 곳이 한학을 배우는 서당이었다.

율곡 선생의 저서인 격몽요결(擊蒙要訣)과 대학(大學)을 배웠다. 이후 그것을 그만두고 신학(新學)을 배웠다. 또한 한학 스승님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강학계(講學契)를 조직하고 필자가 계장이 되어 운영하였다.

정기총회 시 스승의 아호를 작호하여 직암(直菴)이라 하였다. 스승은 별세하시고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학들이 모여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묘비를 세우자는 결의를 하였다.

후학들의 성금이 상상외로 많았다. 비문도 필자가 작성하였다. 묘비 비제(碑題)를 ‘직암 김진하 선생지묘’라 하였다. 드디어 1990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수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많은 하객이 운집 하였다. 김진백 군수님, 황희룡 교육장님도 참석 하시어 축사 말씀이 있었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바로 이곳이 교육의 현장이라 하셨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다.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회고해 보니 참으로 잘한 일이었고 지난 추억이 새삼 새롭게 다가 온다.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일회적인 인생이다.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면 인생무상감(人生無常感)만 남는다. 후회 없고 미련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한다.

운명적인 생로병사(生老病死), 누가 거절 할 수 있겠는가? 매사 인연에 순응하며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다. 죽음은 우리 삶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다. 은혜에 보답하고 배신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면 희희낙락(喜喜樂樂)으로 황천을 간다.

직암 스승님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흐끄므레한 새벽 미풍이 부는 날 마타리 꽃을 피우리라



글길 문경주

우뚝 솟은 용마루 섬섬이는 피리를 불면서 서러운 봉황대(鳳凰臺) 공원을 내려다보았다. 취기가 더 오른 가야 주거군(회현리 패총: 조개 껍데기 등이 쌓여 만든 조개무지) 뜨거운 역사 철기 및 골각기, 토기와 탄화미 등 가야 시대 생활 모습은 골각기(骨角器: 석기시대 동물의 뼈, 뿔, 이빨)와 탄화미(炭化米: 유적에서 출토된 곡물 중 하나 불에 타거나 자연적으로 탄화된 남아 있는 쌀)의 상흔이 남았다. 미풍이 부는 날 사금 파리 별들을 에워싸고 후벼 파는 아픔 뺏고동 울음 뒤 숨어 해선의 얼굴 너울처럼 소나무 숲 사이 아픔 근심의 봉황대 뒤 숨어 담뱃불 라이트를 켜며 안 보일 때까지 몸 웅크리며 난간에 기댄 채 혼절하며 선 인생 수레 바뀌는 한 많은 애모(哀慕)의 정(情) 꿈에도 못 잊을 사랑을 남기고 뒹구는 낙엽은 생이별이란 걸 모른 채 풍광을 즐기는 만추의 서정이었다.

한밤중 벌떡 일어나 몽유병 환자처럼 두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할 때마다 아쟁으로 심신을 달래었다.

김해 봉황대는 조선시대 김해 부사 정형석이 “언덕의 모양이 봉황이 날개를 편 모습과 같다.” 하여 대(臺)를 쌓고 봉황대(鳳凰臺)라 불렀다.

에둘러 해선은 가야금 열두 줄을 튕기며 움짱달짝 못하고 버티는 기둥의 높이 세 치는 하늘, 땅, 사람(三才)을 기원하였다.

가끔 내 위치와 상관없이 손이 떨릴 때마다 한 움큼의 진통제를 털어 넣었다.

걸핏하면 피리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김해의 가락국(금관국:금관가야) 때 가야금(伽倻琴)은 가야를 정복한 신라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승(傳承)하여 신라금(新羅琴)이라 하였다.

봉황대 주위를 둘러보았다.

넓은 공원으로 사당이 있고 곳곳에 맞춤형 용도들이 즐지어 있었다.

가야의 음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야금이다.

우륵은 가야금을 만들고 작곡도 12곡 하였다. 그중 하가라도(下加羅都)는 금관가야를 가리키고 상가라도(上加羅都)는 대가야를 가리킨다.

가실왕(嘉悉王)은 “가야 여러 나라의 말이 각각 다르게 성음(聲音)을 한 소리로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가야금을 만들었다.

가야금을 만든 목적은 음악을 통해 가야의 연맹체를 결속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던 중 신라와 국경 분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예비군으로 나아가야 했다.

꼬깃꼬깃 접힌 입영 통지서를 허둥지둥 꺼내 해선의 손에 꼭 쥐어준다.

섬섬이 : 내가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해 선 : 걱정 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포옹하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꽃이 지고 필 때까지 몇천 번이고 기다릴 수 있다고 대뇌였다.

섬섬이 : 담배를 사납게 꼬나물며 진짜 사나이가 되어 군 출전을 앞두고 불안한 기운에 정신이 번쩍 달아나버렸지만, 눈을 뜨지 않고 해선의 젖은 머리칼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말없이 기댄다.

해선 : 마음이 뒤숭숭해요.

눈자위가 붉게 부어 물든 해선을 뒤로하고 흘끔거리듯 애꿎은 돌을 툭툭 차올렸다.

여름 쟁글쟁글 햇살이 가파른 사선으로 내리 쏘였다.

신라 통일기 6정(停)의 설립과 군사 지리적 관계로 왜(倭)로 가득 찼다.
천변길 따라 남지 철교가 보인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해선과 견던 남지 개비리길 걷다 낮게 흘러나오는 자연의 소리를 상상해 보았다.

머리를 굽적이며 눈을 내리깔고 호주머니 속 피리를 꺼내 [봉황대의 봄]이 흘러나온다.

반주에 맞춰 빠져나온 발가락들 끄떡끄떡한다.

섬섬이 군에 출전하여 자충괘(현: 군악대)에 배치되어 군의 사기를 높이고 분위기 고조를 위해 피리를 불곤 하였다.

가야금과 가야 음악은 각종 의례【(儀禮: 형식과 절차를 갖춘 행사로 의식과 전례(典禮)】에 연주되었다.

왕 역시도 예악 정치를 추구하였다.

이후 가야금은 왜(倭)에 전해져 현재 일본 정창원에 신라금(新羅琴)이 남아 있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봉황대 깊은 침묵 속에서 올려 보는 하늘은 높고 푸르다 못해 시렸다.

섬섬이 없는 미래는 없다.

현재의 삶은 과거를 양산하는 것이다.

못내 사랑을 알아버린 병어리 풋 가슴처럼 애욕(愛慾)을 알았다.

본인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타의(他意)에 의한 섬섬이는 찬란한 비화가야의 창녕을 방문자 취급으로 낙동강변을 따라 부챗살 꼭지만 남겨두고 ‘희생양’이 되었다.

금관가야의 터(김해)는 지형은 육지와 남해 바다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낙랑과 왜(倭)를 연결하는 중계무역이 활발히 성행한 상업 국가이다.

철제 무기를 앞세워 철을 제련하여 대외 교역품으로 사용, 무장력을 향상해 적들을 괴로하게 하여 사기를 떨어 떨어뜨렸다.

덕필 장군은 신라 중고기(中古期)에 중앙 및 지방 주둔 군단의 지휘관이자 주(州)의 장관이었다.

덕필 장군은 그전부터 해선이 마음에 들어 속마음 드러내며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세월을 막연히 기다릴 수 없었다.

자신을 소개한 뒤 “잘 지내시죠?”라며 인사로 헤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잠깐동안 그를 좋아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매우 난처하게 대답한 적은 있다.

“옛 애인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지만 덕필 장군에게 굳이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망설였다.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들은 주파수를 맞출 때 들렸던 지지직씩 소리가 무거운 군홧발 소리로 들려왔다.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적막해져 갈 즈음 흘끗 뒤 돌아보니 덕필이 필터 없는 말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새벽부터 실랑이가 땅거미 지도록 해결이 나지 않았다.

덕필은 해선이 어떤 생각으로 있는가? 우선 떠 보고 난 다음에 그 기분에 맞추어서 모호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 지레 겁먹고 무책임한 것 같지만 해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친척들은 해선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묻곤 했다.

“너는 언제 시집을 갈 생각이냐?”

그 무수한 일관된 말(言)들에 함축된 의미를 차단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쳤다.

환상을 쫓아 가지만 해선은 무릉도원의 꽃 잔치에 흠뻑 빠져 매몰차게 몰아세우고 현(炫)의 마음을 싣고 저녁노을이 붉게 타들어 가도록 윤슬처럼 빛날 뿐이다.

반짝이는 하늘의 별 마냥 섬섬이와 허수아비 사랑 이룰 수 없었다.

섬섬이와 해선의 사랑을 끊어 놓기 위해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하고 (마음)을 시험하는 행위로 어깨를 껴안으려고 하며 불쾌한 기색으로 외면하면 덕필은 해선이 일절 응하지 않는 마음에 너그럽게 웃고 조금도 다름없이 응대하였다.

“그럴수록 질투의 기색 화살을 쏴야 한번 더 내 사랑은 간곡히 받아 주게. 우린 잘 알고 있잖은가?” 라며 호소하였다.

노곤한 감기로 인한 오한으로 으스스 추위 계단에 발을 디딜 순간 덕필이 젖은 양어깨에 손을 올리며

“추우세요.”

“괜찮아요.”

“섬섬이 많이 보고 싶구나?”

(멍 때리고 있다)

“감싼다.”

하루 종일 제 몸 말린 맨 처음 말린 마타리꽃 작은 송이 1~2개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첫 물은 버리고 우려난 차 맛을 음미하며 향기로운 냄새가 코 끝을 간지럽힌다.

섬섬이를 죽일 욕심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분노하면서 위험한 곳으로 유도하였으나 운명은 그들의 인연 줄 끊어 놓고 세월은 떨어지는 나뭇잎 서로 눈여겨보며 갈피를 못 잡고 흐느끼는 줄 타는 가야금만이 슬픈 인연의 언약을 튕겨본다.

2년이 지나서 세월 넘어 섬섬이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포로가 되어 투항하거나 항복은 하지 않았다.

가을의 문턱에 서서 해선은 섬섬이의 무사 귀환을 위해 하얀 밤을 지새우며 고즈넉이 추념하는 가야금 노래에 포물선 그리듯 오매불망(寤

寐不忘) 사연을 전하고자 처연(悽然)의 소리를 낸다.

섬섬이의 거동과 모습이 봄에 뿌린 씨앗이 각자의 가슴에 알찬 열매로 수확되어 가꾸어진 풍성함 빼어남을 안 덕필은 그럴수록 질투심에 차 섬섬이가 전사하였다고 거짓을 알린다.

가끔 바람과 바람을 가르며 피리를 불어 주던 섬섬이 포로가 되어 있던 장소는 군사력이 크지 않은 충분히 억재(億載) 할 수 있는 호각 지세(互角之勢)를 이루었다.

요령껏 해선이 앞에서는 겨우 태연하게 행동하며 저울질해보기도 하고 눈사람 모양으로 점점 커지던 이해심 많은 덕필도 어설피 적의 화살에 맞아 죽는다.

해선은 덕필의 영혼의 배려를 위해 가야금 연주로 빌어준다.

섬섬이는 일정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호기심으로 미지의 것을 동경한 반면 해선은 섬섬이를 자기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정착하였다.

섬섬이 다른 곳을 탐색하여도 절대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다.

해선이 마음이 너그럽고 그 어떤 여자보다도 매력이 넘쳐 그에겐 간단히 넘길 방지턱이 없었다.

봉황대 108계단을 내려가면 철독 건너편 봉황리 동네가 있고 그 중간쯤 봉황사 절이 있다.

좁고 긴 고샅길 골목이 둥근 언덕을 가르마처럼 지나쳤고 올망 올망 녹슨 철 대문이 따개비처럼 붙어 있었다.

가을 들녘 추수를 끝낸 할아버지는 마늘을 심다 쪼그리고 앉아 한 개비 담배를 빨아대는 사이 허리 구부려 무릎 짚고 일어난 할머니는

누른 호박을 쓰다듬으며 번쩍 들어 수레에 싣는다.

수레에 담긴 풍성한 찬 거리는 저녁 부엌으로 들어가는 내내 할머니의 입꼬리는 올라간다.

주머니 깊숙이 언제 적부터 있었는지 녹녹해진 박하사탕을 꺼내 마른 입을 적신다.

자신의 길을 지키려 아픔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채 짝 되어 홀로 몸서리쳤다.

한 사내를 만나 두 손 꼭 잡아 주는 인연도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나니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아름다운 인연이었노라고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 편한 것을 해선은 가끔 사내가 그리울 때도 일편 단심 섬섬이를 기다리다 허공에 무너지고 만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였다.

매장하는 과정은 크게 묘택(墓宅: 묘지)의 선정과 정지 단계를 거쳐 매장 주체부를 구축과 시신 안치 및 부장품 부장 단계 매장 주체부 복개 및 밀봉 단계 성토 단계로 나뉜다.

해선도 봉황대 장지로 운구된 시신을 목곽에 넣어 석실의 중앙에 안치되었다.

해선이 아끼던 옷 장신구 가야금은 묘 곁에 두어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가져갔다.

죽은 해선을 매장 후 탈상(脫喪)할 때까지의 의례를 상장례라 하여 시신을 장지로 운구할 때도 일정한 의례 절차를 밟았다.

장례기간은 3년 동안 슬픔을 묻어 해선이 봉황대에서 가야금으로 노래하니 새소리가 들어오고 동네 사람들도 해선이와 섬섬이를 위해 춤 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듯이 혼 불을 넣어 가야금을 탔다.

지고지순한 사랑과 헌신 사랑하기엔 존재 가치가 신성(新星)하여 마
른 앞들 눈에 선하다.

봉황대 바람도 매섭고 어둡고 외진 마을로 내려온 섬섬이는 몇 날 며
칠 툭툭 부은 눈을 닦으며 흙 속에 묻혀 무릎 위 썩어질 것 생각하니
야! 이생(生)의 인연은 끝났구나?

늘 그랬듯이 함께 연주하는 첫 곡은 『마타리 꽃』이었다.

지휘자는 숲 속의 미물들이 코로스를 높여가며 그 노래를 반복하게
했고 구경꾼들은 목젓이 다 보일 정도로 흥으로 돋운 뒤 마지막은
춤으로 시나위 하였다.

(독백) 무덤가에 삼배하고 다소곳이 앉아 “장부(丈夫)의 한 세상 허망
하게 초라하게 살다 가는 거지?”라며 다 부질없는 것이라 선답(禪答)
하듯 들어왔다.

뜻 한번 펼치지 못한 사내의 진한 눈물, 다 내려놓으니 무념무상(無念
無想)이라?

들판을 가로지르며 소신 공양하며 향을 피운다.

몇 달 전 그곳에 지나게 되었는데 비석 옆 돌에 섬섬이와 해선이
내세의 못다 한 사랑을 이승에서도 똑같이 옮겨 갈 수 있도록 영역을
표시하며 혼을 움켜쥐며 땅 속에 숨을 쉬던 핏빛 붉은 단풍이 먹살잡이
하듯 붉다.

철저히 계율을 지키며 생의 촉수들 환생하며 건드리면 토오톡 터지는
씨앗, 위상을 앞으로 형상화하여 벽화를 그려 도심의 피곤을 녹인다.

꽃송이 날리며 크게 숨 쉬는 날
이듬해 초가을 올려다보는 옹골진 봉황리 마타리 꽃으로 부스럭거
리리라.

역사왜곡에 대한 소고

(건국전쟁과 사육신)

海昌 金辰烈
창녕문화원 이사

행정동우회의 주선으로 2024년도 화제가 된 영화 “건국전쟁”을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단체 관람했다.

건국전쟁은 김덕영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김감독은 1965년생인 서강대 84학번으로 그동안 586세대로서 이승만에 대한 비난과 왜곡된 교육을 받아오면서 부정과 모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한으로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건국전쟁은 1945년 해방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 원리로 경제변영과 선진국의 길에 들어선 대한민국. 두 나라는 같은 언어와 역사, 인종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갈라졌을까?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투쟁과 희생을 재조명한 작품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지금도 좌우로 나누어 별이는 정치적인 판단을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야 하고 어떠한 길이 우리 후손에게 영광스럽게 물려줄 유산인지 지금이라도 늦지않게 각 오를 달리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워 왔던 역사가 정치적인 논리나 힘에 의해 왜곡되고 폄하되어 왔음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며 모든 매체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빛과 그림자 중에 그림자만 알아왔던 본인이 토지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원리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각자적인 노력 등 새로운 사실을 알면서 그동안 역사의 왜곡과 편파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백촌 김문기 선조가 오랜 시간 동안 사육신에 등재 되지도 못하다.

1977년 9월22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에 의거 사육신 중의 한분으로 판정하고 현창한 내용을 되세기며 후손으로써 사육신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알려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느끼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사육신 김문기 선생의 추모제 내용과 약전을 이번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매년 춘분일이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 있는 충의사에서 옥천군 문화원이 주최하고 옥천군과 김녕김씨충의공파 대종회가 후원하는 추모대제가 거행된다.

2024년 3월20일 순의 568주년 추모제가 전국의 유림대표, 옥천군 기관단체장 및 김녕김씨 충의공파 대종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창녕에서도 버스 1대로 종친 25명이 참석하였다. 참고로 1년전

567주년 행사시는 한삼윤 창녕군 문화원장 등 20여분의 지역유지분과 종친등 35명이 추모제에 다녀온적이 있다. 추모제에 참석하는 버스안에서는 항상 9순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산 김진백 전군수님의 사육신과 충의공 백촌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소개하는 특강이 있는데 매번 감동과 감사를 느끼며 소중한 역사를 한번 더 배우는 기회가 가진다.

11시가 되면 추모제향을 올리는데 초헌관은 황규철 옥천군수. 아헌관은 김녕김씨충의공과 대종회장이 맡으나 올해는 건강상 김창규 대종회이사장(전 창녕군종친회장)이 종헌관은 박한범 옥천군의회의장이 맡았으며 집례는 김정수 대구유림원로와 연정희 옥천향교장외가 대축은 유정현 옥천문화원장이 맡았으며 난계국악단의 제례악으로 거행하였다. 2부행사는 추모식으로 내빈소개(최명서 영월군수 등 주요인사), 사육신 김문기선생 약전 소개, 추모식사(옥천군수) 추모사(옥천군의회의장), 후손대표인사(대종회장), 사육신의노래(정순철 짝자궁 어린이합창단), 헌화 순으로 거행됐다.

사육신 白村 김문기(金文起)선생 약전을 간략히 소개한다.

선생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서조선초 부(父) 휘 觀, 모(母) 옥천 陸氏의 장운으로 출생 초휘는 효기(孝起)였으나 장인의 휘를 피휘하여 문기(文起)로 개명.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 마암(馬巖)이고 시호는 충의공(忠毅公)이다.

- 1418(태종18)년 일선(선산)김씨와 혼인(빙부 文靖公 金孝貞公)
- 1426(세종8)년 생원시와 문과에 급제
- 1429~1450(세종11~32)년 예문관 검열, 병조정랑, 경창부 소윤, 함길도 도진무, 수 승문원 판사, 겸지형 조사, 병조참의(정3품) 등 역임

- 1450(문종즉위년) 동부승지, 우부승지, 좌부승지
- 1451(문종1)년 함길도 관찰사,
- 1453(단종1)년 형조참판, 함길도도절제사
- 1455(단종3)년7월 공조판서
- 1456(세조2)년 6월2일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로 계시면서 단종 복위 모의를 주동하시다 발각. 6월8일 군기감 앞에서 거열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효수하여 3일간 시정에 걸어두는 형벌에 처해짐.
이날의 세조실록의 기사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의 6인에 대해서만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음.
- 1778(정조2년) 3월 충의공(忠毅公)시호를 받으심.
- 1781(정조5년) 증직을 받으심. 증직교지 내용에도 “자헌대부 이조 판서겸 오위도총부도총관 증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의겸부사 지경연 춘추관사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 세손이사” 당시 관직과 증직교지 관직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알수있음
- 1791(정조15년)영월 장릉 충신단에 배향되심.
- 1977년 9월22일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사인 조선왕조 실록에 의거 선생을 세조조에 가려진 육신중의 한분으로 판정하고 현창하셨음.
- 1978년 5월18일 사육신 묘역에 허묘를 봉안하고 의절사에 위패를 봉안함.
- 2004년 7월16일 노량진에 사육신 김문기선생 기념관을 개관하고 영정과 위패를 봉안함.
- 2017년 3월20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 충의사를 건립하고 영정과 위패를 봉안함.

나만의 행복한 인생 꿈



智樹 진영출
향토사 연구위원

“시간은 금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대는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문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2 인생 시작 12년 차, 40여 년의 직장생활 퇴직 후 강산이 한번 변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었다. 가슴이 뛰는 삶, 드맑은 가을날 서산마루에 저무는 한 해 노을을 보면서 인생의 나잇값을 생각해 본다.

인생의 나이는 5가지가 있다고 한다.

- 첫째 시간과 함께 먹는 달력의 나이
- 둘째 건강 수준을 재는 생물학적 세포의 나이
- 셋째 지위 서열의 사회적 나이
- 넷째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신적 나이
- 다섯째 지력을 재는 지성의 나이

“나잇값 한다.” 사람값 한다는 얘기다. 나는 과연 내 나이에 걸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일 모두 다 기록하지는 않다.

“나이 드니까 아침에 보고 들은 걸 다음날엔 까먹더라” 칠십 이후 팔십이 넘으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나이, 상황과 현실이지만 반복해서 읽고 쓰고 생각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노년일수록 머리뿐 아니라 몸을 자주 움직여야 한다. 배우고 익히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희망을 찾으면 불빛이 보이고 절망에 집착하면 어둠에 갇힌다.”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공부 하고 일터에서 땀을 흘린다. 행복 하려면 힘과 지혜, 부와 명예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악한 욕망을 억누를 줄 아는 힘, 모든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지혜와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명예로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몫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므로 남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자기의 재능(TALENT)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성공은 목적인 바를 이루는 것이다. 삶에서 꿈, 욕망, 소망, 목표를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이루면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성공의 물질적인 소득수준 비싼 집과 차, 사회적 명성 등 가치를 좇는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 생각한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을 받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 에머슨

오래전에 소장하고 있던 코리안 탈무드를 다시 읽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배움을 뜻하는 유대교의 경전으로 가르침이라는 뜻의 토라와 같은 책이다. 토라와 탈무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교사)라 한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2가지 욕구가 있지만 모든 것 다 성취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래도 험담보다 좋은 말 칭찬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해 주지 않을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들은 자 그리고 험담의 대상자”이다.

유대인의 지혜가 집약된 탈무드는 말하기 전 3가지를 체에 걸러 봐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인지, 상대에게 유익한 좋은 내용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영화 “버킷 리스트”에서 자동차 정비사 카트는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에게 이런 말을 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나의 존재는 어떤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지은 스티브코비의 아들 프랭클린 코비의 조언은 첫째, 우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살펴본다. 둘째,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셋째, 사회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 한다.

나는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인생을 새옹지마라는 사자성어로 묘사하는데 좋은 일이 나쁜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뜻으로 길흉화복은 언제든 찾아온다.

배움은 달콤하고 즐겁다고 나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다.

“배운다는 것은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 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이해하며 공감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되고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줄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역사 공부도 좀 하고 문화도 이해하면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과학화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맞추어 우리의 삶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과학 혁명의 시대 우리는 모든 것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야 한다. 자신을 알고 남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공존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이질성이 있는데, 동질감을 느끼도록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인 삶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개념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국가도 우리 나라라고 이제 가슴을 짝 펴고 당당한 자세로 자신감을 가져 보자.

“거거거중지 행행행이각(去去去中知 行行行裏覺)이라, 행해 나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뜻으로 깨달음이 항상 부족한 것 같은 내 마음을 잡아준 좋은 글귀로 모든 일에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누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 에너지로 가족, 친구, 공동체 사회와 의미 있는 삶을 가꾸어 보자,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조국 찬가”라도 불러 보자.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중략.)

자유 평화 희망찬 앞날을 구상하고 꿈꾸며 다 함께 노력해보자.

을사년 새해를 바라보며...



유 영 숙
(주)창녕신문 대표

사람들 모두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묵은 때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해 뜨는 동쪽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소원을 빌며 새해를 맞이한다.

한 해가 가면 또 한해가 시작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또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을 실감하며 한 살을 더 먹게 된다.

인간의 기대는 무한대이므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절망도 크므로 한정된 자기 삶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 을사년 해를 맞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각오는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단지 같은 게 있다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해에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했고 좌절을 희망으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삼아 한층 더 마음을 가다듬고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좌절을 이겨낸 지난해의 어려움을 새해엔 더욱더 부각시켜 아름다운 사회를 이끄는 한 존재로서 남아있어야 한다. 아직 사회는 부정과 부패로 명들어 있고 서민들은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특수층 사람들은 돈 보따리를 들고 숨어서 왔다 갔다 하는 엽기적인 억장 무너지는 일을 많이 본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으면서 이권과 명예에 두 눈이 멀어져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기 그지없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하고 정화시켜야 하는 큰 숙제와 목적을 안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큰 몫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국민들 모두가 삶의 투쟁 속에서 먹고 살기가 바쁜데 정치가 어수선했다 국민들 모두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게 나라가 바로 나아가는지가 참 의문스럽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변화 소용돌이는 당연히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을사년의 바람은 오직 나라가 안정되고 건강해야 또 각자의 개인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을사년 새해 모든 분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충의의 표상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李福順

창녕읍 조산 서재골로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 말기의 형제로,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의인(義人)으로 알려져 있다. 백이와 숙제 두 형제는 서쪽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죽국의 후계자였다. 고죽국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자 이 둘은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영주의 자리에 나서지 않으려 했다.

이때 상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周나라 문왕이 되는 희창(姬昌)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西伯)의 자리에 있었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희발(姬發)은 군대를 모아 무도한 상나라를 치려하였다. 희발의 스승 강태공은 뜻을 같이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준비를 시작했다.

이 때 백이와 숙제는 희발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孝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국가이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 하려는 것을 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희발은 크게 노하여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 이라 하여 죽음을 면했다. 이후 희발은 상나라를 토벌하고 주나라의 무왕(武王)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가 망한 뒤에도 상나라에 대한 충심을 버릴 수 없어 고죽국 영주로 받는 녹봉 역시 받을 수 없다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만세에 이어져 지금도 충의(忠義)의 표상(表象)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우리 조선 왕조에도 많은 충의의 지사(志士)들이 있지만 세조때 사육신(死六臣) 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그 중 단종복위 운동의 주모자격인 성삼문(成三問)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 진들 재미도 하는것가
비록애 푸새의 것인들 그 뉘 땅에 났더니 (성삼문)

-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 숙제 형제를 한탄해마지 않는다.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는단 말인가. 아무리 그것이 보잘 것 없는 풀이기로서니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 백이, 숙제가 주나라 무왕을 부정하여 수양산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무왕의 천하에서 고사리를 캐어먹은 휘절(毀節)을 한탄한 것이 이 시조의 요지이다.
 초장의 수양산은 산 이름인 동시에 수양대군을 가리키고 중장의 고사리와 중장의 푸새는 세조가 주는 녹을 먹지 않겠다며 백이, 숙제보다 더한 절의를 가슴속에 품고자 스스로 다짐하고 세조의 신하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 하리라 (성삼문)

○ 이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하니,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큰소나무가 되었다가 흰 눈이 온 세상을 가득 덮었을 때 홀로
푸르고 푸른빛을 보여 주리라

- 단종 복위 계획이 탄로되어 옥에 갇혔을 때 부른 노래로 義를 어기고
욕되게 사느니 죽음의 길을 택하여 忠義를 지키겠다는 작품이다.

봉래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제일봉(峯)에 솟아있는 소나무, 그 소나무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가지가 축 늘어져 위풍당당한 소나무가 되려는
자신의 이상이 작품 속에 뚜렷이 나타나 있고 온 천하를 덮은 눈 위에 홀로
푸르리라는 절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칼날 앞에 굴복하여 세조를
섬기는 세상이 되더라도 나라도 단종을 섬기고 절개를 지키겠다는 대목은
읽는 이로 하여금 숙연케 한다.

성삼문 (成 三 問 ; 1418-1456)

그는 태종 18년(1418) 외가인 홍주 (洪州 ; 지금의 홍성)에서 무관인
도총관(都總管) 성승(成勝)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학문은 조성(早成)
하여 1435년 18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38년 21세에 식년문과에 하
위지와 함께 합격하고 세종 29년(1447)에는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했다.
이 시험에서 박팽년, 이개, 신숙주등 8명이 합격했는데 모두 수재들이라
우열을 가리지 못함에 세종이 몹시 기뻐하여 이들 모두를 궁전으로 불러

직접 시험을 보고 성삼문을 수석 합격자로 정했다. 세종 24년 박팽년, 신숙주, 하위지, 이석형등과 삼각산 진관사(津寬寺)에 가서 ‘사가독서’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

또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핵심역할을 한바, 요동지방에 유배되어 있던 명나라의 유명한 음운학자 황찬(黃瓚)에게 신숙주와 더불어 13차례나 찾아 갔으니 훈민정음 창제에 끼친 그의 공적은 실로 높은 것이었다.

세종 말년에 중국사신 예겸(倪謙)이 왔을 때, 시에 조예가 깊은 그를 대접할 인물이 없어서 난감했을 때 성삼문, 신숙주가 접대역으로 선발되었다. 중국어에 능통한 신숙주가 말상대를 하고, 시는 모두 성삼문이 지었다한다. 예겸은 깊이 감동하여 두 사람과 의형제를 맺었다. 이때 예겸이 우리학자 들에게서 받은 시를 모아서 요해편(遼海篇) 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성삼문이 발문(跋文)을 썼다. 예겸이 다녀간 4년 후 그의 제자인 장녕(張寧)이 사신으로 왔다. 그러나 이때는 성삼문등이 죽음을 당한 후 였다. 그는 몹시 애통해 하며 “조선에 재사가 많다는 스승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다”고 말했다하니 생전에 그의 높은 명성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라 하겠다.

세종은 어느 날 집현전 뜰을 거닐면서 “내 죽은 후에 너희들이 이 아이(세손)를 잘 보호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세종이 재위 32년 만에 죽고 향(珦)이 문종으로 왕위에 오른 후 문종은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를 불러 무슨 일이건 의논했다. 어느 날 문종은 이 세 사람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세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 한다”고 했는데 병약한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 말이 곧 유언이 되어 버렸고 성삼문은 이 유언대로 어린 단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쳤다. 세종과 문종의 이와 같은 당부는 단종의 앞날에 애절한 운

명이 꼭 올 것을 예견이라도 했을까?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5개월 만에 수양대군은 김종서등 중신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았다. 소위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결국 단종도 수양대군의 꾀박을 견디지 못하고 1455년 윤 6월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었다.

성삼문은 당시 예방승지로 국새를 갖다 바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단종의 명으로 국새를 안은 삼문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제하지 못해 그만 목 놓아 통곡하고 말았다. 엎드린 채 거짓 사양하고 있던 수양은 독기서린 눈으로 한참동안 삼문을 노려보았다.

양위식에 참석했던 박팽년은 비분을 참지 못해 경희루 앞 연못에 몸을 던지려 했으나 뒤따라온 삼문이 “상왕이 살아 계시니 후일을 도모하다 잘못되면 그때 죽어도 늦지 않다”고 만류하여 들은 입술을 깨물고 진정했다.

단종복위 운동을 제일먼저 발기한 사람은 성삼문이지만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 집현전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많은 동지들을 모아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그들 중에는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립도 참여했다. 세조와 세자는 유응부가 자신이 맞기로 장담했고 “신숙주는 나의 평생 친구지만 죄가 중하니 용서할 수 없다.”한 성삼문의 말에 모두 찬동하여 “신숙주는 내가 죽이겠다.”고 윤영손이 나섰다. 삼문은 김질을 보고 “대사가 성공하면 그대의 장인 정창손은 수상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계획도 세우고 각자의 소임도 정해졌다.

그러나 성승, 유응부가 맡은 별운검(別雲劍:임금이 거동할 때 칼을 들고 호위하는 무관)이 소용없게 되었다. 세조의 총복이며 모사꾼 한명회(韓明澮)의 직감에 의한 건의로 연회장에 세자의 출석과 무관의 참기를

취소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사실을 모르는 성승이 무장을 갖추고 연회석에 들어가려 하자 한명회가 왕명이라며 가로 막았다. 분개한 성승은 그 자리에서 한명회를 베려 하였으나 성삼문은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고 결사적으로 말렸다. 이때 유응부는 격분함이 극에 달하여 칼을 잡고 소리 친다. “이런 거사는 신속히 해야만 하고, 만일 뒤로 미루었다가 기밀이 누설되면 만사가 끝장이오. 세자가 없다하나 수양과 저들의 수뇌들이 같이 있으니 이들을 먼저 죽이고 상왕의 명으로 무사들에게 경복궁을 포위시키면 세자가 갈 곳이 없을 것이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소” 그러나 좌우에서 이구동성으로 만전을 위한 방법이 못된다고 만류했다. 중의(衆意)에 따라 유응부도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같이 거사에 참여했던 김질이 마음이 변하여 세조에게 단종복위 계획의 전모를 밀고 했다. 놀란 세조는 군(軍)을 소집하고 승지들을 불러 모았다.

근위병에게 체포되어 세조에게 끌려 나간 성삼문에게 「김질과 어떤 일을 꾸몄는지 말해보라」 뜻밖의 질문에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김질과 대질을 요구했다. 김질은 세조에게 밀고한 내용을 되풀이 하였다. 김질의 배신을 안 성삼문은 “김질! 다 말할 것 없다. 나머지는 내가 말하겠다.” 하며 김질을 물리치고 세조를 향해 당당히 말하였다. “김질의 말이 옳소. 상왕께서 아직 젊은데 왕위를 빼앗겼으니 상왕을 복위 시키는 것은 신하로서 도리가 아니겠소?” 이리하여 계획에 가담한 동지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는다. 「너희들이 어째서 반역을 모의 했는가?」 성삼문은 동지들을 대표하여 소리 높여 대답한다. “진짜 왕을 복위 시키는 것이 어찌 반역이란 말이오? 나으리는 걸핏하면 ¹⁾주공(周公)을 들먹이곤 했지만 주공이 이랬단 말이오? 하늘에 두 태양이 없고 우리에게도 두 임금이 있어

1) 주공(周公) 周나라 무왕(武王)의 동생으로 무왕이 일찍 죽자 어린조카 성왕을 도와 주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서는 아니 되겠기에 일을 도모한 것 이요” 이 말에 세조는 노기충천하여 소리쳤다. 「그러면 어찌하여 즉위할 때 말리지 않고 이제 와서 반항하는가?」 “대세를 어찌할 길이 없었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냥 죽는 것은 헛된 일이므로 뒷날을 도모하기 위해 참아 왔을 뿐이요.” 「너는 나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 하니 내 녹을 먹지 않았단 말이냐? 녹을 먹고 배반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냐?」 “상황이 계시거늘 나으리가 어찌 나를 신하로 삼는단 말이요. 나는 나으리의 녹을 먹은바 없소. 믿지 않거든 내 집을 몰수해 조사해 보시오” 극도로 노한 세조는 무시를 시켜 첩편을 불에 달구어 팔과 다리 살을 애게했다. 그러나 성삼문은 낮빛 하나 변치 않고 세조 옆에서 있던 신숙주를 보고 꾸짖었다. “네 이놈! 너와 함께 집현전에 있을 때 영릉(英陵;세종)께서 원손(元孫;단종)을 안으시고 앞뜰을 거니시면서 간곡히 부탁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내 귓전에 생생한데 너만 까맣게 잊었던 말이냐? 네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줄은 정말 몰랐다” 신숙주는 곤혹스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세조가 물러가 있으라고 하자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다.

이때 시(詩), 서(書), 화(畵)에 능하여 3절(三絶)이라고 부르던 강희안도 성삼문과 친하였다는 이유로 잡혀와 고문하다가 불복 하므로 삼문에게 관련 여부를 물었다. “선조(先朝)의 명사는 나으리가 이미 다 죽이고 남은 이가 이사람 뿐이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남겨두어 쓰는 것이 좋을 것 이요” 삼문의 이 한마디로 강희안은 죽음을 면 하였다.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가던 성삼문은 좌우에 있는 옛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자네들은 어진임금 잘 섬겨 태평성대 이룩하게. 나는 이 길로 지하로 돌아가서 선왕을 모시겠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곧장 형장으로 향했다.

그 혹독한 낙형(烙刑)을 당했건만 그 의지, 그 기백은 용솟음 쳤다. 그는 강개한 표정으로 한 수의 시를 길게 읊었다.

울리는 저 북소리 목숨을 재촉는데	(擊鼓 催人命)
머리를 돌이키니 서산에 해저문다	(回頭 日欲斜)
저승 가는 길엔 주막도 없다는데	(黃泉 無客店)
오늘밤엔 뉘 집에서 자고가리	(今夜 宿誰家)

여섯 살 난 딸아이가 수레 뒤에 따라가다 기진한 목소리 애절하게 울부짖는다. 아버지! 아버지! “내 집 사내자식은 모두 죽겠지만 너는 계집애라 살겠지?” 강장한 그의 얼굴에도 추연한 빛이 돌았다. 말문이 막혀버린 그의 종은 눈물만 흘리면서 술잔을 올렸다. 수레는 다시 움직였다. 한 잔 술에 만 갈래 회포가 가슴을 열어 놓은 듯 천천히 다시 읊조린다.

임의 밥 임의 옷 먹고 입으며	(食人之食 衣人衣)
일평생 먹은 마음 변할 중이 있으랴	(素志平生 莫有違)
한번 죽음이 충의인줄 알았으니	(一死固知 忠義在)
²⁾ 현릉의 송백이 꿈결처럼 아롱이네	(顯陵松柏 夢依依)

듣기에도 끄찍한 형벌이 기다리는 형장으로 가면서도 시를 지어 읊은 것이다. 술 취해서 시를 읊은 이태백을, 초토를 거닐며 읊은 두보(杜甫)를 어이 이에 비기랴. 흐느끼던 군중들마저 숙연해 졌다.

이리하여 그는 동지 유응부, 이개, 하위지 등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팽년은 모진 고문으로 감옥에서 이미 죽었고, 유성원은 집에서 자결(自決)했다. 이 들이 바로 역사상 충신의 표본으로 일러오는 사육신(死六臣)이다.

2) 현릉(顯陵): 문종릉

단종 복위운동의 기수(旗手) 성삼문과 그 동지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관련자 70여명도 살해와 유배를 당했다. 삼문의 남자 가족은 모두 살해
되고 처와 자부는 관비로 되었으나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

그가 죽은 뒤 가산을 몰수하니 세조가 주는 녹봉은 월별로 고스란히
그대로 쌓여 있었다 한다.

이어 세조는 상왕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시켜 종내는 사사(賜死)
하고 단종 모후의 무덤 소릉(昭陵)도 파헤치는 등 만행을 저질러 민심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시습, 남효온, 조여, 성담수, 이맹전, 원호 등 생육신(生六臣)은 폐인을
자처 하였고, 신숙주의 아우 신말주(申末舟)는 은퇴 하였으며 이징옥의
난등 두 차례에 걸쳐 무인의 반란이 일어났다. 세조 자신도 “일대의 죄인
이요 만고의 충신이다”고 그들의 충절을 감탄한바 있다.

그 뒤의 왕들도 한결 같이 그의 충의를 찬양했고 일반 국민들은 모두
그를 높이 받들었다.

許交와 許與



성두철
향토사 연구위원

許交란 事典에 ‘서로 벗하기를 허락(許)하고 사귀(交). 가까이 사귀어 「하계」의 말씨를 씀’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고전에는 허교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면
허교(許交) 5년. 나이가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10년이 많으면 형처럼 섬기고 한다. 나이가 배가 되면 아버지처럼 섬긴다. 『소학(小學), 동몽선습(童蒙先習)』

허교(許交) 7년. 역사상 돈독한 우정으로 유명한 오성(鰲城)과 한음(漢陰)의 연령 차이가 7살이므로 전통적으로 허교의 나이로 본다.

허교(許交) 8년. ¹⁾忘年之友를 사귄 수 있는 나이가 상팔하팔(上八下八)이다.

1) 忘年之友: 나이를 초월한 우정,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교제하는 벗, 연소자의 재덕을 인정하여 연장자가 특별히 하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전에는 보통 5년 차이는 누구나 허교하고 돈독한 관계는 7년, 망년지우는 상팔 하팔까지 허용 되었다.

안동의 유서 깊은 양반 집안에는 허교라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 아무 하고나 친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그 사람의 학문과 인품을 겪어 본 후에야 본격적으로 교제를 허락하는 방식이다. 즉, 사람을 만나고 단기간 내에 곧바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라 허교라고 하는 검증 기간을 거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임진왜란 공신들을 기리는 임진난 정신문화 선양회 행사에 功臣의 후손 대표로 참석하여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분이 7년 전 창녕향교 춘계 석전대제에 필자를 제관으로 추천하였다.

망권(望圈)을 받고 처음으로 석전대제(釋奠大祭)에 참석하여 대축(大祝)을 맡아 장의(掌議)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필자를 제관으로 추천한 그 분은 필자보다 7년 연상이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일곱 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우리 허교하세” 라면서 말을 트고 지내자고 제안했다. 대합의 벽진 이씨 집안에서는 지금도 7년 장은 서로 허교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승낙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옛날에는 그 것이 가능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두 살만 많아도 형대접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방 모곡의 매당 이진락 선생은 선친보다 8년 연상 이고 그의 아들은 8년 연하였다. 매당 선생으로부터 “우리 벗 하세” 하면서 허교를 제안 받은 적이 있었다. 어른과 벗하면 아들로부터 어르신 대접을 받게 되고 아들과 벗하면 어른은 어르신으로 모셔야 하는데 누구와 벗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요즈음 許交는 忘年之友가 아니라면 한 살 차이까지만 가능 하고 학교 동기라든지 어릴 때부터 흥허물 없이 같이 자란 동네 친구라면 서로 묵시적 동의하에 2~3년 차이도 말을 트고 지내는 것도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선비의 사귄 허여(許與)에 관하여

許與는 깊은 사귀를 가리킨다. 서로 간에 ‘허여’가 되는 관계는 동지적 결속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깔려 있는 관계이다. 난세에는 서로 행보를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까지 간다. 그러니까 허여의 관계는 아무하고나 쉽게 맺는 관계가 아니다. 상당한 관찰과 검증을 거쳐야만 허여가 되는 법이다.

60년대 초반. 한학자 벽사(碧史) 이우성(1925~2017)이 30대 후반의 새과란 시절에 학봉종가를 찾아가서 고문서를 좀 보고 싶다고 부탁하였다. 당시 종손은 김시인(金時寅, 1917~2008)인데 김시인은 초면의 벽사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였다. “안 됩니다.” 얼마 후에 벽사가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에도 거절하였다. “우리 집안 문서를 함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 벽사는 김시인에게 “저도 계남(溪南) 출입입니다.”라고 하였다. “계남 어디요?” “쌍취당(雙翠堂) 사위입니다.” 계남은 도산서원 근처의 냇물인 토계(兎溪)의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퇴계 후손들의 집성촌이다.

계남에 살았던 쌍취당은 종손 김시인의 증조부인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1827~1899)의 매형인 이만운을 가리킨다. 벽사의 부인이 쌍취당의 증손녀이다. 김시인의 고모가로 8촌이 되는 셈이다. “계남 쌍취당이라면 문서를 보여 드려야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시인과 8세 연하의 벽사는 허여의 관계가 되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음은 물론

이다. 1987년 학봉가의 고문서를 보관하는 운장각(雲章閣)을 건립할 때 그 이름도 벽사가 작명한 것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영남학과의 좌장 역할을 하였던 벽사는 학문이 한참 무르익기 시작하던 젊은 시절에 학봉가와 이런 許與가 있었던 것이다(조용헌 건대교수).

중국에 전해 오는 이런 말이 있다. 그림보다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글씨다. 글씨보다 어려운 것이 시(詩)다. 시보다 어려운 것이 문장이다. 문장보다 어려운 것이 책이다. 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

젊었던 시기에는 평생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를 한명이라도 사귀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렸지만 60고개를 넘으면 실감하게 된다. 내가 줄 것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연락도 많고 모임도 잦고 주위에 웃는 얼굴들이 많다. 그러나 힘이 빠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관계들은 다 빠져 나간다.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다.

청나라 서예가였던 정판교는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

꽃이 아름답게 필 때는 좋아하지만 꽃이 시들면 가차 없이 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이 든든하고 편안한 친구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친구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만나 교제를 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 간다.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 부른다.

어떤 사람은 좋은 우정을 가진 친구를 사귀어 그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옛 사람들은 許交나 許與의 과정을 거쳐서 벗 하였다.

친구를 사귄다에 신중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오늘날에도 참고 할 만하지 않은가?

기후 위기 시대의 퇴계선생 이야기

노용호

향토사연구위원, 생태춤 창시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야행 평가위원

올해 여름은 매우 더웠다. 이상 고온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화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수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복수극(?)의 정도가 올해 정도로 끝이 아닐 것 같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상기온을 걱정하는데 어느 나라 지도자는 경제 논리로만 판단할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최근 한국 ESG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환경 관심, 사회적 기여,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뜻하고, 영어로 된 앞자리 글자를 따서 이름 지었다. 최근 학회세미나는 경북 경주시에서 열려 경북ESG지도자과정에 참가했다. 경주시의 불교와 천도교 유산들을 ESG 관점에서 알아보았고, 저녁에는 학회 김형준 감사의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동요와 인기 가요를 다 같이 즐겁게 부르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회에서는 환경 관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교 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협의체인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의 류덕기 차기 회장을 만나는 기회도 있었다. 20여년 전 부터 대학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나는 반가웠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학교와 교수들 그리고 각계 각층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우리 창녕문화원도 ESG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면 좋겠다.

한국ESG학회로 부터 퇴계선생을 주제로 한 강연을 부탁받아 그분의 삶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 고등학교 다닐 때 퇴계선생의 도산십이곡을 배운 기억이 난다. 그 이후 퇴계선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1천원 지폐의 주인공이 퇴계선생님 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된 무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선생의 삶을 알아보고선 아~ 이분의 삶이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감동하며 살아온 분임을 알게 되었다. 선생을 단순히 유학자라고만 생각해온 나의 생각이 잘못 되었구나 함을 느끼게 되었다.

도산서당의 이동채 별유사는 “퇴계선생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의 만물이 다 착한 성품을 가졌다. 하늘이 내려 준 만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퇴계 선생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은 자연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행동으로 실천하신 분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글쓴이가 받은 선생의 자연사랑에 대한 감동을 지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선생의 삶을 주요 나이별로 알아보고, 자연 사랑 시, 이야기, 노래도 소개한다. 그리고 퇴계선생의 삶이 기후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선생은 15살에 숙부님과 함께 청량산에 가고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청량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곤 평생 청량산을 좋아하여 호도청량산인이라 했다.

퇴계선생에 대해 공부를 하는 중에 안동의 병산서원을 갔다 왔다. 지난 10월 말에 창녕향교 모임에서 안동의 병산서원을 갔는데, 그곳은 조선시대의 임진왜란때 크게 활약하신 류성룡선생을 모신 서원이었다. 병산서원이 세계유산임을 알리는 표지판 옆에 선생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나무에 대해 이야기했던, 물아일체라는 표지판이 인상적이었다.

병산서원의 입구 맞은편 하천 근처 저 멀리에 스토리텔링 현수막이 보였다. 나중에 해설사안내소 앞에 가니 서원에서 모시는 분이나 제례 행사에 관한 스토리텔링대회가 있음을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있었다.

주저하다가 자연사랑을 실천하신 퇴계 이황 선생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았다. 나는 내가 퇴계선생이고 도산서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해설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해설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읽어주기를 바란다.

청량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량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감탄의 소리를 지른 이황입니다. 자 저와 함께 그 소리를 질러봅시다. 제가 먼저하고 하면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너무도 아름다운 청량산이 있다고 상상하고 감탄의 소리를 질러 보는 것입니다. “야아 우아 와우 뷰티풀 원더풀 오마이가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동하고 감탄함으로써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15살에 가재 시를 지었어요. 자연에 사는 생물에 감동하고 자연을 주제로 하여 지은 첫 시랍니다. 그리고 46살에 경암이라는 바위를 칭송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리저리 시류에 흘러 살아가는 부평초 인생이 아닌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바위에 감동받아 지은 시랍니다.

저는 2천 여 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중 107수의 매화시를 짓고 91수를 뽑아 매화시첩을 만들었지요. 매화를 친구 삼아 대화하며 시물의 이치를 묻고 깨달으려 했어요. 내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작은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저 앞에 있는 나무들의 나뭇잎들이 위로 옆으로 밑으로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잎들이 위로 흔들리는 것은 나무들이 나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밑으로 움직이는 것은 춤추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나무가 하는 말>이라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하고 같이 낭송해봅시다.

내 두 팔이 왜 위로 뻗었는지 아니?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야 내 두 팔이 왜 옆으로 뻗었는지 아니? 너를 안아주기 위해서지 내 두 팔이 왜 밑으로 뻗었는지 아니? 너와 함께 춤추기 위해서야.

(위의 시로 <춤추는 나무> 시 동작을 보여드리고 같이했어요. 제가 먼저 춤추는 시를 시연했고 방문객은 즐겁게 따라서 했답니다.)

49살에는 소수서원에 느티나무 21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나는 나무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혜택에 감동받아 나무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해볼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나무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제자들도 생각이 안 나는지 조용히 듣기만 했죠.

나는 나무인 너에게 감동의 소리 지르기, 박수치기, 그림 그리기, 춤추기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나무들을 칭찬하고 즐거운 체험을 하였지요. 제자들과 함께한 <나무춤>을 보여드릴게요. (나무춤을 시연

한다.) 나무가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동작, 비가 내리는 형태,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리는 동작입니다.

상처받아 줄기가 일부 부서진 상처받은 나무가 있군요. 저는 제자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 했죠.

(늦게 자라는 나무를 가르키며) 저는 제자들에게 “늦게 크는 나무도 있다. 여러분의 학문에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아도 너무 걱정마라”고 격려 했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무 인문학이죠.

50대에 도산서원을 지으면서 산 모양으로 글자를 쓰고, 깨끗한 친구라는 뜻의 정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심었고, 절우사라 부른 화단에는 매화,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심었다.

세월이 흘러 64살에 다시 청량산에 가자고 친구에게 말했다. 한 살이라도 다리 튼튼할 때 멋진 청량산을 보고 싶어진 것이다. 그날따라 친구가 늦게 와서, 늦게 오는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산에 먼저 가네가 아닌 <나는 그림 속으로 먼저 들어가네>’ 라는 멋진 시를 지었다. 자연인 생물과 내가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마음을 전한 시이다. 그냥 산으로 들어가네 보다는 멋지지 않은가요?

65살에는 한글로 된 도산십이곡을 지었는데 자연사랑을 통해 진리를 향하는 마음인 전6곡 언지(言志)와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인 후6곡의 언학(言學)이라는 노래지요.

노래 한편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중략)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걸 고치지 아니한들 어떠하리’ 도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중략) 자연사랑 병을 고치지~ 노래를 같이 불러봅시다. (방문객과

노래를 부른 후) 70살에 세상 떠나기 전 일평생 사랑한 매화에 물을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의 삶은 평생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 사랑을 시로, 노래로 이야기로 나타내고 나무를 심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400여년 도 더 지난 그 당시에 도 자연을 사랑하고 돌본, 선생의 그 마음과 행동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기후 위기를 맞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행동을 가지면 좋을까요? 자연사랑을 실천하신 퇴계 선생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자연을 보전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실 것 같다.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자, 나무들을 심고, 전기 아끼고 자연사랑 콘텐츠도 만들어 자랑스런 세계시민이 되자고 하실 것 같다. 독자님은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위는 <세계유산 서원 스토리텔링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창녕문화원 노용호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의 스토리텔링 원고입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피워낸 꽃

주영숙
한국무용 회원

우리 생활의 활력이 되어 준 문화원,
각자 취미와 적성에 맞게 여러 분야별로 즐겁고 신나게 생활 하던 중
우리 무용반에서 용기를 내어 도지사 배 합천 가야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했다.

지혜롭고 훌륭하신 선생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배워 익혀서 합을 잘 맞
춤으로 큰 상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이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곱게 단장하여 꾸미고 서로서로 다듬어주고
챙겨 주면서 화합을 도모하여 국악을 사랑하는 19개 팀의 많은 경쟁자
들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하이얀 버선발로 사뿐사뿐 내디디며 뱅글 뱅
글 돌면서 예쁜 새가 날갯짓하듯이 부채를 접어다 폈다 피리 소리에 맞
춰 춤을 추었으니 참으로 신명 나는 일이었다.

우리 창녕문화원의 위상을 드 높이는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요, 문화원
에서 피워낸 산물이어라. 앞으로도 각기 분야별로 서로서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족한 실력이나마 뽐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어라.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모든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우리 문화원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원 파이팅!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

염옥현
창녕군청

하얀 뭉게구름과 누런 들판이 어우러져 한 컷의 감동 프레임이 되는 가을이다. 여행 떠나기 좋은 시절이다. 여행의 종류는 다양하다.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해외로 가는 여행, 맛집 여행, 문화탐방 여행, 역사 뿌리 찾기 여행 등. 어쩌면 매일 내가 생활하는 창녕을 걸어보는 것,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체험. 이것도 하루의 여행이다.

요즘 창녕의 멋짐이 폭발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는 세계적으로 빛나는 여행지가 되었다. 창녕 전 지역이 역사의 영험과 현재의 신비로움으로 세계인이 찾아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다. 우리 곁에 흔하게 존재했던 태고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우포늪, 화산 분화에서 역사 평야를 만들어 낸 화왕산. 그리고 비화가야 역사의 길을 따라 고분의 숨겨진 내력이 매력 발산 중이다.

고분의 높이만큼 깊은 역사적 숙명으로 내가 사랑하는 창녕과 유네스코의 창녕이 공존하고 있다.

창녕 전 지역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의미와 감상을 적어본다.

창녕읍 송현동에 위치한 창녕박물관 맞은편 주차장에 자랑스러움을 뽐내는 안내판이 생겼다.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UNESCO)에 등재되었다는 내용의 기념비가 고분길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자연적 인위적 훼손을 막고 국가의 경제적 선택의 우위에서 역사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유는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창녕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주는 브랜드가 있다.

유네스코 기념비의 맨 위에 전 세계인이 알아보는 표식이 있다. 신전의 모양 속에 UNESCO 철자를 넣어서 기둥을 만들었다. 로고의 기본 형상이 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비율로 만든 완벽한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신전 형태의 유네스코 로고가 지정된 곳은 세계 문화 역사의 명품. 여행지를 방문하면 꼭 방문해 봐야 할 핫 스폿(hot spot)이 되는 것이다. 표식만 보아도 방문지에 대한 신뢰와 역사적 가치 브랜드화를 한꺼번에 녹여 주는 것이 유네스코이다. 꼭 방문해야 할, 방문할 가치가 있는 전 세계 역사와 문화 명품인증이다.

내가 만난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찬란했던 고대 서구 문명의 발원지인 아테네 중심지 아크로폴리스(높은 곳의 도시)에 우뚝 솟아 있다. 건축 높이 제한으로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유럽 문화 부흥을 이룬 르네상스의 모태가 되었다.

신성한 신전도 오랜 역사의 톱니바퀴에서 고대 그리스에는 고귀한 아테나 신전이였지만, 점령자에 따라 로마제국 때는 교회로, 오스만 지배 때는 모스크로, 십자군 전쟁 때는 화약 창고로 변신해야만 했다. 황금비율의 건축물도 시대를 지배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폭파되어 파편으로 나뒹굴게 되었다.

시내에서 바라본 신전은 상처가 없는 잘 보존된 건축물처럼 화려한 네온 사인에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정상에서 만난 세계유산 1호는 지붕은 폭파 되었고 조각상은 전쟁기념품으로 약탈당했다. 기둥마저도 파편들을 모아 신중하고 느리게 복구 중이다. 복구된 신전이 누적된 역사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현대적 고찰이 반영될 것이다.

복구 중인 건축물은 훼손된 역사와 패전국의 슬픔을 대변하는데도 불구하고, 파르테논 신전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유럽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 봐야 할 문화유산이다.

파르테논 신전은 600년이나 앞선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먼저 세계유산이 되었다. 강력한 왕권에 의한 노예들의 피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한 그리스 역사, 문화, 철학의 집약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염원이 담긴 기금을 모아 재건한 역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유네스코의 대표 유산이 되면서 민주주의 핵심 문화가치 브랜드가 되었다.

창녕의 비화가야가 보존될 역사로 선택된 것은 시민이 동참한 민주주의로 재건된 파르테논 신전과 다르지 않다. 아시아 지역을 군림했던 강력한 왕의 통치권에 지배되지 않았다는 것. 우호적 연맹 체제로 이뤄낸 가야연맹이 동양적 정치 한계를 넘어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 낸 성과를 존중하는 것이다.

창녕을 사랑하고 아꼈던 많은 지식인과 군민들의 염원들이 누적되어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속의 작은 도시가 아닌, 전 세계에서 지켜야 할 유산이 있는 미래 자원의 보고가 된 것이다.

첫 번째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은 영산 줄다리기이다.

영산 줄다리기는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줄다리기는 성별과 나이에 구분 없이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 즐기는 행사이다. 마을 공동체가 풍작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창녕은 특히 3·1독립운동의 발원지로 알려진 영산면에서 3.1 민속문화제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는 줄다리기로 장관을 이룬다. 두바이 팜 아일랜드 중심부처럼 뻗어 있는 몸줄. 곁줄. 끝줄이 펼쳐지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부와 서부 진영으로 나누어 단판 승부를 내는데, 모두가 승자이다. 그것이 줄다리기의 미학이다.

두 번째 유네스코가 사랑한 것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다.

약 100년간 지속된 비화가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창녕읍 박물관 주변 교동과 송현동 고분이 역사의 증인이다. 주민수호단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굴과 고증을 통하여 가치를 높였다.

금관가야의 김해 대성동고분군. 아라가야의 함안 말이산고분군.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합천 옥전 고분군, 소가야의 고성 송학동 고분군. 운봉고원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그리고 자랑스러운 비화가야의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7개 고분군 연속유산으로 같이 등재되었다.

세 번째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 지구인 우포늪과 화왕산이다.

우포늪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개발 욕구를 자연보존으로 합의한 지역민들의 결단이 중요했다. 산업화가 가져다주는 빠른 경제적 이익을 견뎌낸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다. 우포늪에 대한 무한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늪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아우성의 갈무리이다.

람사르습지에 등재된 우포늪에서 역새 풀이 장관인 화왕산까지 전 지역이 보전지역이 되어 미래세대에 물려 줄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산업화와 경제적 부를 향해 달려왔던 사람들은 공존의 공감을 잊었다. 정신적 육체적 황폐화로 현대병에 시달리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원초적 회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것이 에코(Eco, 생태)와 어싱(Earthing, 지구와의 교감) 맨발 걷기이다. 물질 사회를 배척할 수 없는 인간은 결핍된 심리적 치유의 목적으로, 자연으로의 회귀를 본능적으로 찾고 선택하게 되었다.

오늘의 유네스코 성과는 자연에 순응하며 느린 진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모든 가공된 삶에서 잠들지 않는 늪의 생명력과 숨겨진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생태계를 활용하는 경영 창안으로 자연 친화적인 것이 새로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창녕은 서로의 힘을 모으게 했던 3월의 줄다리기에서 비상(飛上)하고 있다. 우리는 일년내내 전 세계인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의 대단한 모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생물이 태어나는 우포늪에서부터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는 고분군
까지.

따오기가 날고 붉게 물든 우포의 깊은 일몰 한 컷조차 세계인의 SNS의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면 유네스코 도시, 창녕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치유하는 최적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행하기 좋은 날. 창녕의 구석구석을 탐미해본다.

우포늪을, 화왕산을 그리고 고분군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도록 우리의 창녕을 나눠줄까 한다. 늪에서 한 걸음 걸어
보는 것도 지구와 가치 있는 교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세계 속의 우포늪 위상



성득용

창녕군 문화관광해설사

우포늪은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에 걸쳐있는 총면적 2,31km²의 대한민국 최대의 내륙 습지다. 형성 시기는 백악기 중기인 1억4,000만 년 전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 내륙 습지다.

우포늪은 람사르 등록 습지다. 1971년 세계 각국이 모여서 체결한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서식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간단하게 말해 “물새 서식지 보전” 이것이 모토이다.

물새의 대다수는 철새인데 철새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중간기착지와 종착지가 있다. 수천 킬로를 여러 나라를 거쳐 이동하는데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나는 새라고 하지만 한 번에 수천 킬로를 이동할 수는 없다. 해서 중간기착지에서 휴식하고 먹이도 먹고 체력을 보충하여 종착지에 도착한다. 그래서 종착지가 있는 나라와 중간기착지가 있는 나라가 같이 물새 서식지를 보전해야 효과적인 서식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보전이 잘 되고 있는지 답사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가입하여 우포늪, 순천만, 대암산용늪 등 무려 25개소의

중요 습지를 등록하고 2008년엔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우포늪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우포늪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광복 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자 '창녕 백조 도래지'란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1년 후인 1973년에 철새 감소를 이유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 바 있다. 그 후 꾸준한 철새 보호와 관리로 2011년에는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이란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524호로 재지정 되어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2024년) 창녕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이 되었다. 이것은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아름다운 우포늪이 창녕에 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우포늪은 가장 큰 내륙 습지고 람사르협약으로 물새 서식지를 보전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으로도 보호하고 유네스코에서도 보전하는 큰 타이틀이 4관왕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생명의 요람'인 것이다.

지금 우포늪은 수리부엉이가 산란하여 포란하고 있고 복원사업 중인 따오기 깃대종인 큰 부리 큰기러기를 비롯하여 고니,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엄청난 진객들이 무리 지어 와 있으니 쌍안경 하나 챙겨 둘러보시기를 권장한다.



구채구(九寨溝)의 물(水)



阿鵠 朴泰明
郷土史研究委員

구채구¹⁾는 육천오백만년의 신생대의 역사를 간직한 땅으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해발 4,500m 이상의 설봉(雪峰) 19좌가 품고 있는 만년설이 쏟아 내는 용설수(融雪水) 해빙수(解氷水) 맑은 물이 모여서 해발 2,500m 이상의 깊은 계곡으로 흐르면서



해발 4,500m 이상의 설봉(雪峰)과 초해(草海)와 천아해(天鵝海)

검애(劍崖)²⁾ 현천(懸泉)³⁾이 되어, 칼슘, 마그네슘, 구리, 석회석 등 광물질을 용해하여 여린 초록색, 맑은 옥색, 짙푸른 비취(翡翠)색, 청록색, 담황색, 검푸른색, 짙은 남색(藍色), 연한 황동색(黃銅色) 등의 환상의 물색(水色)을 빚어낸 호수에는 만년설 설봉의 태산준령과 원시 삼림의 푸른 수목 그리고 하늘과 구름과 실바람의 조화로 맑고 찬란한 음영으로 물에 비추어진 만상의 그림자는 오색 물빛으로 더욱 선명하고 청초해 경이로운 풍광을 간직한 천하의 비경이다.



천아해(天鵝海) 전죽해(箭竹海) 오화해(五花海)

3,000m의 원시 삼림에서 한 줌의 눈이 녹아 작은 샘이 되고, 재잘거리는 샘물이 흘러 일칙구(日則溝)의 초해(草海)를 지나면서 실개천이 되고 여울(灘)로, 다시 내(川)가 되고, 여울이 되고 호수가 되어 또다시 호수는 폭포를 만들고 폭포는 여울로, 여울은 호수로 이렇게 반복되는 물의 흐름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幻生)하는 여정을 거쳐 낙일랑폭포(落日朗瀑布)를 지나 칩사와구(則查洼溝)에서 서로 만나서 수정구(水晶溝)를 이루어 노호해(老虎海)를 만들고,



오화해(五花海) 진주탄(珍珠灘)여울. 진주탄 폭포(瀑布)

이어서 수정폭포(水晶瀑布)를 이루어 화화해(火花海)와 갈대해(蘆葦海)로 이어지는 구체구의 아름다운 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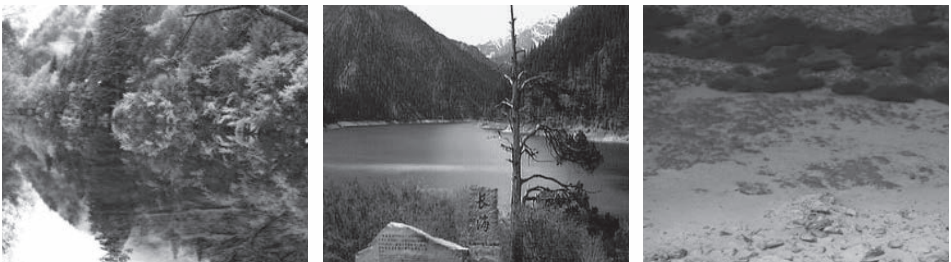
햇빛과 토양과 수목, 바람과 물의 양과 흐름이 시각(視覺)에 따라形形色색의 아름다운 신비의 색조의 물이 물속에서 억겁의 세월에도 부식되지 않고 생명이 숨 쉬고 있는 고사목(枯死木)과 여기에 새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있다.



노호해(老虎海) 낙일랑폭포(落日朗瀑布) 수정폭포(水晶瀑布)

개울은 개울마다, 여울은 여울마다, 호수는 호수마다, 폭포는 폭포마다, 제각각 특유의 몸짓을 가지고 있다.

홀로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때를 지어 있고,
 평평히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겹겹이 쌓여있는 것이 있고,
 깊으면 깊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바닥 속살까지 흰히 내비치는 오색의 맑고 맑은 물이
 더러는 움직임 하나 없는 태고의 정적으로,
 때로는 실바람에 일렁이는 운슬이 나뭇잎을 타고 숨 쉬는 고요한 호수물이
 내를 이루어 쉬엄쉬엄 여유로움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 거칠 것 없이 내리퍼부어 귀청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천 갈레 만 갈래로 끝없이 떨어지는 동적인 몸부림의 폭포수로 환생
 (幻生)한다.



경해(鏡海) 장해(長海) 오채지(五彩池)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천길만길 아래로 쏟아지는 웅장한 폭포수는

동백기름을 바른 시골 새아씨의 삼단 같은 머릿결인가 하면,
 무더운 염천에 광풍을 몰고 오는 시원한 소낙비 같기도 하고
 돌담길 탕자나무 울타리에 널어놓은 옥양목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다.
 모여져서 쏟아지는 모습은 물대포 같은가 하면
 흩어져 뿌려지는 모습은 촘촘한 물 조리로 여린 채소 잎에 흠뿌리는
 것 같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은 진주 알갱이로 엮어 만든 주렴 같은가
 하면, 쏟아지다 바위에 부딪혀 튀는 모양은 공작이 날개를 펴고 비상
 하는 것 같다.

구채구의 물은 사시사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모양과 색채와 냄새와
 소리로 태어난다.

여명과 일출에는 탄생의 기쁨이 녹아들고 작열하는 태양의 시간에는
 땀 흘리는 환희가, 낙조와 어둠에는 거둠과 휴식이 함께한다.

해빙수(解氷水)가 흘러 생명이 움트고, 신록이 짙어질 때와 만산홍엽의
 현란한 자태와 백설이 빙산에 쌓이는 삭풍의 계절로 항상 살아서 움직여
 천태만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 구채구(九寨溝/九寨沟: Jiuzhaigou, 주자이거우) : 중국 사천성의 청장고원(靑藏高原:티베트고원)의 동남(東南)쪽 소이납산(尕爾納山)의 고산지대로, 아파장족강족자치주(阿坝藏族自治州)의 구채구현(九寨沟縣)에 속하는 9개 마을이 거주하던 “Y”자형 3개의 계곡으로 구채구풍경구(九寨溝風景區) 자연보호지역으로 198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1984년 여행객에 개방되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세계환경보호연맹의 보호지역분류체계에서 “V(보호된 경관)” 에 속하며, 1997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구채구는 수많은 계단식 폭포와 다채로운 호수들로 114개의 푸른 호수, 47개의 맑은 샘물, 17개의 아름다운 폭포, 11개의 급류, 5개의 갈숨화 여울, 9개의 티베트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 검애(劍厓) : 500m 정도 되는 산으로 그 모습이 마치 보검을 하늘에 꽂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

3) 현천(懸泉) : 검애(劍厓)에서 초해(草海) 쪽으로 샘 하나가 떨어져 내리는데 약 130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인 샘.

* 해(海)와 해자(海子 Haizi) : 장족(藏族: Tibetan) 사람들은 처음엔 호수를 바다(海)로 알았으나 나중에 호수와는 다른 더 넓은 바다가 있음을 알고서 호수를 “바다의 아들을 의미하는 해자(海子 Haizi)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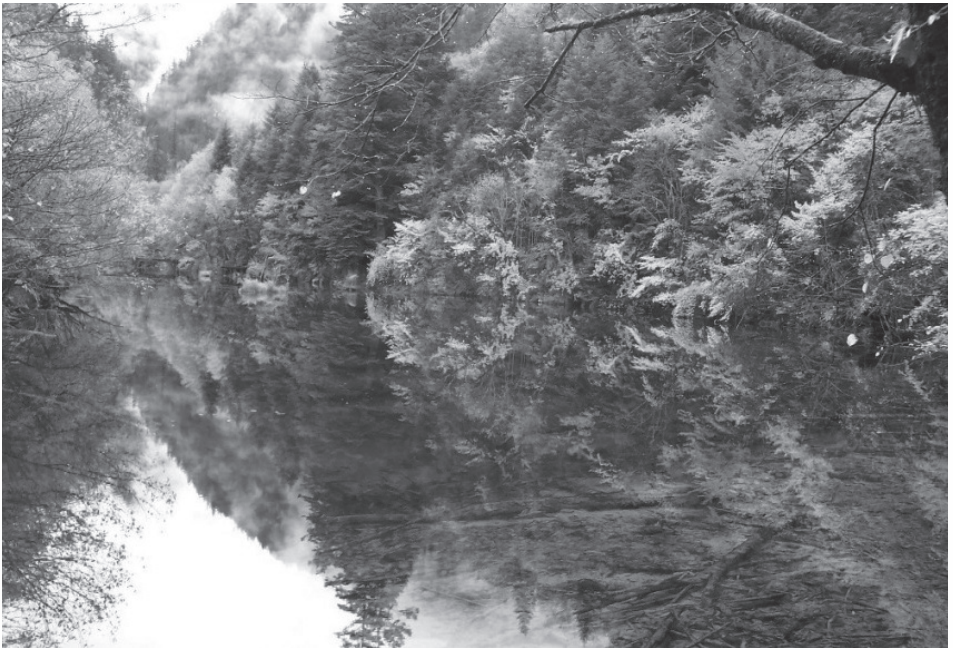
오화해(五花海) 해발 2,472m



진주탄 폭포(珍珠瀑布) 해발 2,4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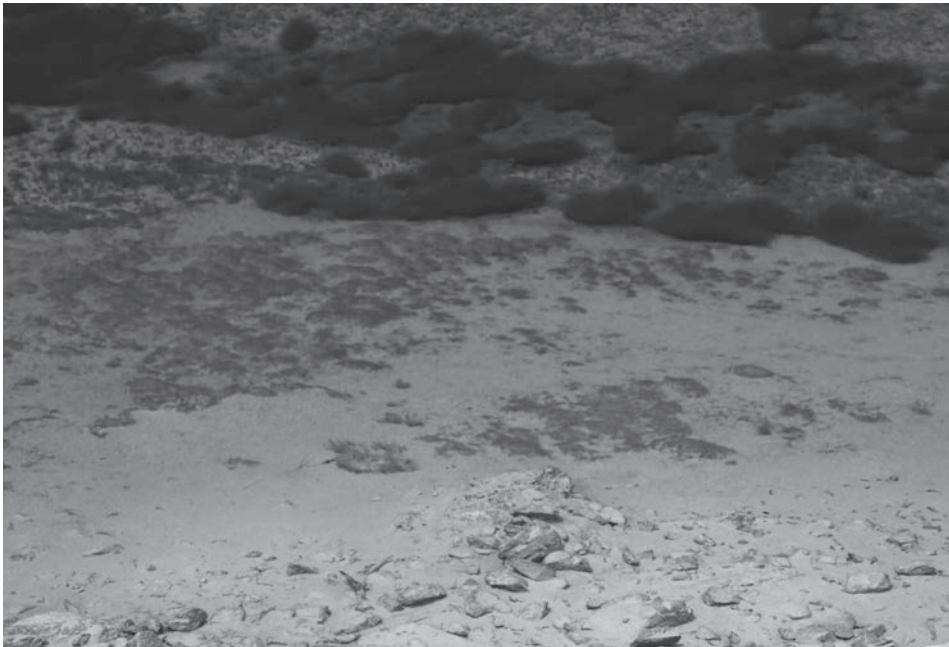
진주탄 폭포(珍珠灘瀑布) 해발 2,450m



경해(鏡海) 해발 2,390m



장해(長海) 해발 3,150m



오채지(五彩池) 해발2,995m



낙일랑폭포 해발 2,365m

전통 신발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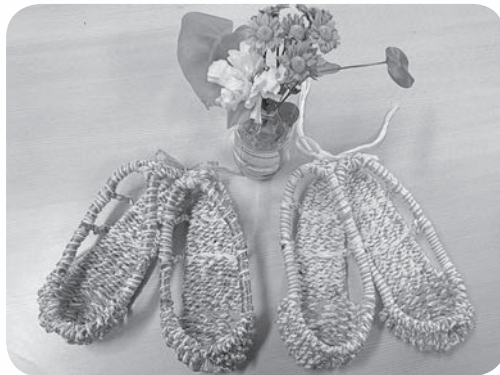
한 판 철

전) 부산 덕문여고·금성 중학교장

한국의 전통 신발은 짚, 나무, 가죽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신발입니다.

신분, 계절,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우리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유산입니다.

전통 신발 만드는 법 소개



1. 준비물: 노란색, 주황색 공작실, 노란색 비닐 끈, 연두색 목공실, 소형가위, 대바늘

2. 만들 준비

- (1) 노랑, 주황색 실, 노랑 비닐 끈, 연두색 목공실, 네 가닥을 약 7m 정도 길이로 두개를 만든 다음 하나는 5m, 2m 길이로 잘라둔다.
- (2) 노랑과 주황색 실을 각각 7m 정도 자른 후 노랑 실은 5m, 2m로 잘라둔다.
- (3) 기둥 줄 새끼를 꼬기 위하여 네 가닥을 각 7m 정도가 되게 두 개를 준비한다.

3. 기둥 줄 새끼꼬기

- (1) 길이 7m 정도의 네 가닥 두 쌍을 이용하여 꼬아서 약 4m 50cm 정도의 기둥 줄을 만든다.
- (2) 꼬아진 기둥 줄의 중앙에서 반으로 접어 접힌 부분을 약 30cm 정도에서 묶는 다음 나머지 두 줄을 묶은 부분에서 약 90cm 정도에서 또 묶는다.
- (3) 90cm 정도의 양쪽이 묶인 두 줄의 중앙을 접어둔다.

4. 신발 엮기

- (1) 신발 밑바닥과 신축을 엮을 줄 약 7m 정도 네 가닥 중 주황과 노랑은 약 5cm 정도 길게 하여 오른쪽으로 끝을 꼬아둔다.
- (2) 기둥 줄 묶인 부분 양쪽을 두 발에 걸고 그 가운데를 허리에 두른 줄을 걸어 약 30cm 뒤를 묶어 배 앞에서 고정한다. 이때 다음에

풀기 쉽게 매듭을 고리로 만들어 묶는다.

- (3) 7m짜리 네 가닥 줄(미리 준비해둔)을 긴 것은 약 20cm, 짧은 것 두 개 (비닐, 목공실)를 오른쪽으로 꼬아둔 상태에서 오른쪽 두 번째 기둥 줄 밑으로 넣고 세 번째 기둥 줄 위로 빼서 네 번째 줄 위로 빼었다 반대로 세 번째 밑으로 넣었다 두 번째 위로 감아서 길이가 긴 주황색과 노란색은 남겨두고 첫 번째 위로 빼었다 남은 부분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새끼에 끼워 고정.
- (4) 계속해서 나머지 네 가닥 긴 부분을 오른쪽에서는 왼방향(왼손을 밀어)으로 7~8번 꼬아서 7cm 정도를 잡고 새끼를 꼬아서 나머지 부분을 첫 번째 줄 아래로 끼워 넣었다 두 번째 줄 위로, 세 번째 줄 아래로, 네 번째 줄 위로 뺀 후, 미리 남겨둔 5~6cm 정도의 주황색 실을 첫째 줄 위로 감아 둘째 줄 아래에서 셋째 줄 위로 넷째 줄 아래로 감아 다시 셋째 줄 위로 감은 후 둘째 줄 새끼를 벌려 끼워 고정한다.
- (5) 나머지 길게 왼편에 빼 둔 네 가닥 줄을 오른쪽(오른손을 밀어)으로 꼬아 7cm 정도의 신총을 만든 후 나머지 부분을 왼쪽 첫 번째 기둥 줄 아래로 넣었다 두 번째 줄 위로 빼었다 세 번째 줄 아래로 네 번째 줄 위로 뺀 후 아직 남아 있는 5cm 정도의 노랑 실을 처음 주황색 실과 같이 기둥 줄 아래위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후 1cm 정도 남으면 가까운 기둥 새끼줄에 끼워 고정한다.
- (6) 나머지 네 가닥 긴 줄을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꼬아 7cm 정도의 신총을 끈 다음 오른쪽 첫째 줄 아래로 넣었다 둘째를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 줄 (왼편 첫째 줄) 위로 빼 두고, 미리 준비한 여분 주황색 7m짜리 줄 약 15cm 정도를 왼편 첫째 줄 위로, 둘째 줄 아래로, 셋째 줄 위로 넷째 줄 (오른쪽 첫째 줄) 아래로 빼서 감은 후 오

른쪽 둘째 줄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왼편 첫째 줄) 위로 빼서 1cm정도 남으면 기둥새끼에 끼우고 나무지 길게 남은 부분을 정리해둔다.

- (7) 다시 길게 빼 둔 네 가닥 긴 줄을 오른쪽으로 꼬아 7cm 정도의 신총을 꼬아 만든 후 나머지를 왼편 첫째 기둥 줄 아래로 둘째로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 줄 위로 뺀 후 정리해둔 주황색 실을 왼쪽 첫째 줄 아래로, 둘째 줄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 줄 위로 빼서 정리해 둔 후 주황색 한 가닥을 이용하여 전과 같이 고정한 후 위와 같이 반복하여 신총을 만든다. (바닥도 같이)
- (8) 신총의 개수는 240mm 이하의 신발은 양쪽 각 8개 정도, 250mm는 9개, 260mm는 10개, 더 크면 한두 개 더 만든다.
- (9) 신총을 필요한 만큼 만들고 나면 네 가닥 줄과 여분 고정 줄을 함께 왼쪽으로 꼬아 오른쪽 첫 기둥 줄 아래로 넣었다. 둘째 줄 위로, 전과 같이 계속 바닥을 엮어간다.
- (10) 처음 엮기 시작한 부분에서 240mm 이하의 신발은 약 13cm, 250mm는 14cm, 260mm는 15~16cm 정도까지 바닥을 계속해서 엮는데 7m 짜리가 끝나면 5m 짜리를 연결하여 엮는다.
- (11) 신발 바닥 중간까지 엮은 다음 다섯 가닥 중 여분 줄 한 가닥은 따로 분리하여 기둥 줄을 감아가며 고정한 후 빼 정리해 둔 다음

나머지 네 가닥을 꼬아 약 6cm 정도의 중간신총을 만들고 나머지를 오른쪽 첫째 줄 밑으로 넣었다 둘째 줄 위로 셋째를 아래로 넷째를(왼편 첫째 줄) 위로 빼 둔 다음

정리해둔 고정 줄을 이용하여 첫째 줄 아래로 넣었다. 둘째 줄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 줄 위로 다시 셋째 줄 아래로, 둘째 줄 위로 첫째 줄 아래에서 위로 감아 반대편까지 단단히 당겨 왼편에 정리해두고,

나머지 긴 네 가닥 줄 여분을 꼬아 신총 6cm 정도를 만든 후 전과 같이 바닥을 엮은 후 반대편에 빼 둔 다음 고정 줄을 전과 같이 감아 고정한 후 다섯 가닥을 한 번에 꼬아 바닥을 더 만들어 간다.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어 가다, 뒤끝 약 5cm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양쪽 뒤 신총을 전과같이 만든 후 바닥 뒷부분을 엮어 간 후

0.5cm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바닥을 만들 때는 양쪽 끝을 바깥쪽으로 기둥 줄을 모은 다음 기둥 줄 두 가닥씩을 감아서 뒤축을 만드는데 12번 정도 감아 만든 후 나머지 줄은 오른쪽 두 번째 새끼를 벌려 끼워 빼 둔다.

5. 마무리

- (1) 묶어져 있는 기둥 줄 양쪽을 풀어 오른쪽 첫째 줄(여분 줄이 끼어 있지 않은 줄)을 오른쪽 뒤 신총부터 차례로 맨 앞까지 끝을 벌려 끼운 다음 길게 빼 둔다.
- (2) 반대편 기둥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줄을 뒤축 윗부분에 바깥 붙여 자른 후 왼쪽 신총 끝에 끼워 맨 앞까지 끼운 다음 길게 빼 둔다.
- (3) 여분 줄이 끼어 있는 기둥 줄에서 여분 줄은 신총에 끼워져있는 줄에 두세 번 감아 끼워둔 후 새끼를 풀어 두 가닥 중 한 가닥과 여분 줄 일부(노랑, 주황, 연두 약 30cm정도)를 오른쪽 신총에 끼워져있는 줄을 감아 중간 신총까지 감은 뒤 반대로 돌아 뒤축까지 감은 후 고리를 만들어 뺀 후 바깥 당겨 빼 두고 반대편도 남은 한가닥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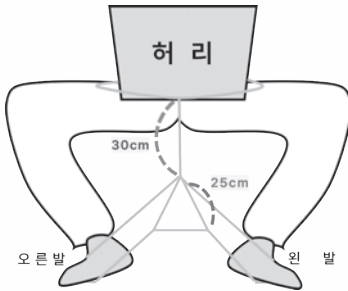
분줄(노랑, 비닐끈, 약 30cm 정도)를 왼쪽 신총에 끼워져 있는 기둥줄에 같은 방법으로 감아 고정한다.

- (4) 뒤축 끝에 고정된 각 네 가닥의 줄 중 비닐 끈은 1cm 정도 남겨 자른 후 불을 붙여 지지 손으로 눌러 붙인다.
- (5) 세 가닥씩 남은 여분 줄을 약 25~30cm 정도 되게 자른 후 각 세 가닥을 대바늘에 끼워 뒤축 바깥쪽 약 1cm 정도 위치에서 안으로 끼웠다가 빼고 바깥에서 다시 끼워 빼기를 세 번 한 다음 마지막은 안에서 바깥으로 끼워 빼 두고 나머지 세 가닥도 같이 해서 뺀 후 각각의 가닥을 서로 묶어 고정한 후 노랑과 주황실은 바깥 자르고 연두색 목공실은 1~2cm 남겨 자른 후 불로 지지 눌러 고정해준다. (조금 남았을 때 접촉시킨다)
- (6) 신발 앞부분에 빼 둔 두 가닥을 신발 크기에 맞게 한번 묶은 다음 여분 실을 이용하여 묶어 고정해 둔다.
- (7) 두 가닥 기둥 줄을 각각 풀어 양쪽의 한 가닥씩을 단단히 묶은 다음 고정하기 위해 묶어둔 여분 실을 풀어 없앤다.
- (8) 풀어져 있는 네 가닥의 비닐 끈은 약 1cm 정도 남겨두고 잘라 없앤다.
- (9) 나머지 네 가닥 중 서로 반대편의 세 가닥씩을 이용하여 앞머리 신총부터 감싸며 차례로 감은 다음 마지막 앞 신총 뒤에서 짧은 세 가닥을 이용하여 묶은 후 전체를 이용하여 중간 신총까지 기둥 줄을 감싸준 후 짧은 세 가닥을 묶어 두고 나머지 세 가닥을 앞 신총 마지막까지 감은 후 매듭짓고 주황, 노란색은 모두 자르고 연두색은 1cm 정도 남겨 자른 후 불로 지지 눌러 접촉시킨다.
- (10) 앞부분에 남아 있는 비닐도 불로 지지 접촉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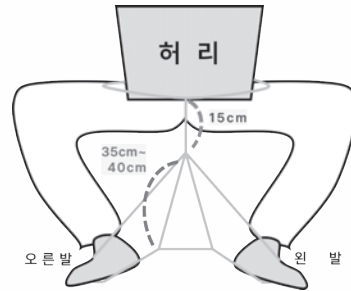
6. 주의 사항

- (1) 기둥 줄을 허리에 두른 끈과 양발에 걸어둔 상태에서 양발을 최대한 벌려 시작해야 앞부분이 뽕족하지 않다.
- (2) 가운데 두 줄 사이가 벌어지면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묶어져 있는 줄과 연결된 부분에서 약 25cm 정도 위치에 실을 걸어 네 기둥 줄의 간격이 비슷하게 한다.
- (3) 처음 시작하여 7m짜리 줄이 다 엮이고 난 후 기둥 줄 간격 조정용 줄과 허리에 묶인 줄을 풀어 허리에 묶인 줄로부터 15cm 정도에 신발 앞부분이 오게 조정하여 허리에 묶고, 간격 조정용 줄을 약 35cm 정도에 다시 묶어 발을 벌려 간격이 비슷하게 한다.

※참고도 1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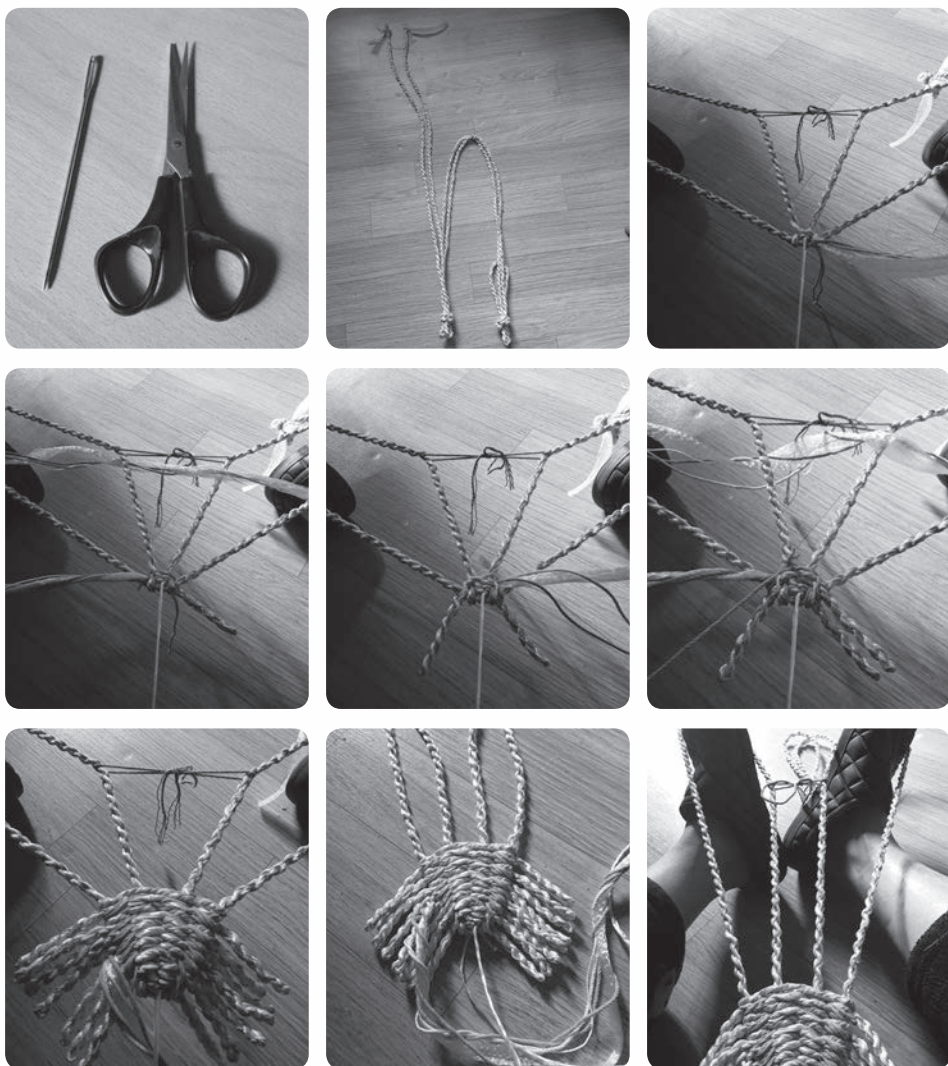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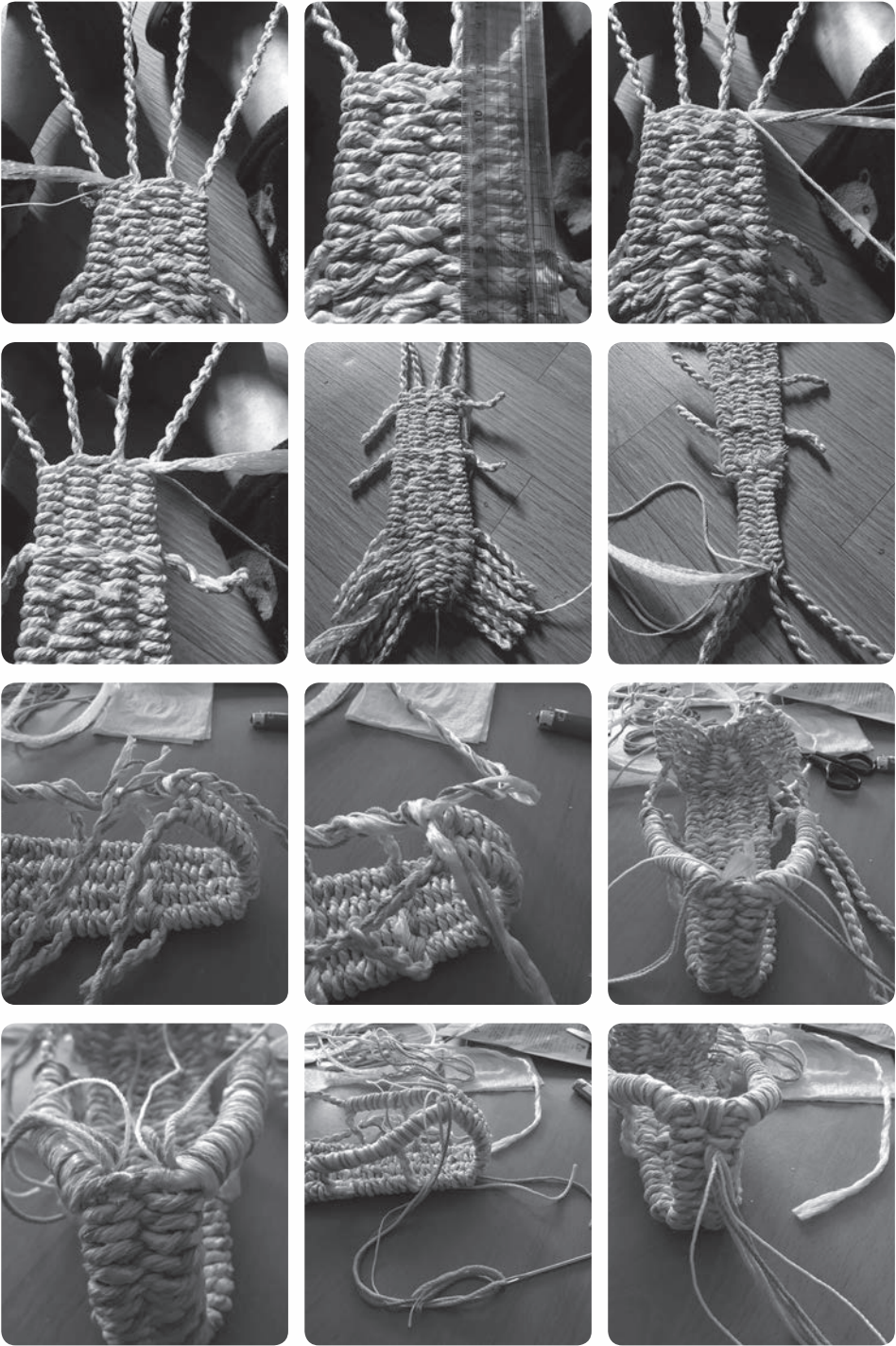
※참고도 2 (중간수정)



- (4) 허리에 두른 끈은 약2cm정도 되게 자른 후 한쪽은 고리를 만들어 사용한다.
- (5) 기둥 새끼줄용 끈이 길이가 너무 길어 불편하면 5m, 2m로 잘라 이어서 꼬아 사용할 수 있으나,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이어진 부분이 신총 감을 때 사용되지 않게 해야한다.

(6) 앞 신총 중 마지막 두 개를 간격이 벌어지게 만들면 신발 모양이 좋아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 마지막 두 번째 신총 만들기 전에 바닥을 한번 만들고 고정줄을 이용하여 왕복하여 고정시킨후 신총을 만들고, 마지막 신총을 만들기 전에도 바닥을 한번 만들고 고정 후 신총을 만들면 마무리했을 때 마지막 신총 위와 아래가 비슷한 위치에 있어 모양이 좀 더 좋아진다.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 창녕 진만석 영세불망비

창녕문화원

◇ 고구려 남정에 대한 가야사의 미스터리

남중희

◇ 추운 시절의 그림, 세한도 감상하기

남용우



창녕 진만석 영세불망비 (昌寧 陳萬碩 永世不忘碑)

-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

창녕문화원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란 선행을 쌓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기리는 비석을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 베푼 선행이나 공덕이 매우 커서 후세 사람들이 그를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창녕 진만석 영세불망비는 조선시대 자산가인 진만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진만석은 창녕의 부호로 경종 원년(1721)과 경종 2년(1722)에 흉년이 들자 개인 재산을 내어 굶주린 백성을 도운 이후 영조 2년(1726)까지 지속적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관의 곡식을 빌려 갚지 못하는 농민을 대신해 갚아주거나 흉년으로 인하여 노비가 될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는 대신 세금을 내주고 풀어 주는 등 덕을 베풀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영조대에 자헌대부의 품계를 받았으며, 공을 기리는 불망비가 세워졌다.

비문은 정조 2년(1778)에 창녕 출신 학자 성계우가 지었으며, 순조 34년(1834)에 화재로 비각과 비석이 불타게 되자 헌종 7년(1841)에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비석을 지탱하는 돌을 양옆에 세우고 지붕을 얹어 이를 보존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지붕돌은 그 크기로 보아 처음 비석을 세웠을 때의 것이 아니라 헌종 7년(1841) 좌우에 돌을 세울 때 같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공덕을 칭송하는 비석은 보통 관아에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진만석 영세불망비는 관아에서 주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우리 창녕에 적덕(積德)을 해서 세세영영 잊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공적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고구려 남정에 대한 가야사의 미스터리



남 중 희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가야역사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다. 한반도 역사의 주역에 하나였으나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서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승자 중심의 역사라고 해도 철저히 외면받아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500년 이상을 이어온 긴 역사의 가야가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토가 작고 인구수가 적다 보니 신라에게 멸망 당하게 된 것일까? 그러나 당시의 지도를 보면 신라나 가야나 그저 그런 정도였다. 그리 보면 땅 넓이와 인구수가 곧 흥망을 가르는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가야 고분에서는 백제나 신라에 비해 수많은 철제 무기와 갑주(甲冑, 갑옷과 투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역사 논점으로 번지고 있다. 상당수의 학자는 광개토 대왕 비문의 소위 경자년조(庚子年條)를 근거로 서기 400년경 고구려군의 남정(南征)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근거로 금관가야가 5세기 무렵에 멸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관가야의 지배계층 묘역인 김해 대성동고분군도 고구려군의 남정에

의해 축조 중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고대사학회 제129회 정기발표회’의 ‘광개토왕비 경자년 남정 기사의 고고학적 고찰(송원영)’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서기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고구려 남정으로 5세기쯤에 금관가야가 거의 멸망했다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인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축조 중단도 없었다는 것이다.

먼저 고구려군의 금관가야 남정 사실부터 반박했다. 묘제(墓制)의 변화나 고구려와 관련지을 수 있는 유물의 출토가 금관가야 지역에서 있었다면 고구려군의 금관가야 남정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묘제나 토기, 무기류 등에서 고구려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구려군 남정의 유력한 근거로 들고 있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축조 중단설도 반박했다. 그 직접적 근거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남쪽에 있는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서 지난해 발굴된 자료이다.

지난해 발굴된 5세기 후반의 수장급 무덤인 대성동 73호분은 금관가야가 5세기 전 반대에 중단이 됐다는 견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기존 남정설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된 대성동고분군의 축조 중단과 고구려 문물의 유입은 그 실체가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고구려군의 남정에 의해 금관가야가 5세기께 거의 멸망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5세기 후반의 수장급 무덤 대성동73호분과 광개토대왕 비문(우)

다만, 5세기 중엽 이후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5세기 이후 금관가야의 세력 약화는 외부의 군사적 정복에 의한 급격한 세력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관가야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가야 내부의 역학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점진적인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했다.

따라서 장수왕 대에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광개토대왕비의 서기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은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남정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정 기사는 장수왕의 남진 의지에 대한 과장된 표현 방식이거나, 장수왕의 남방 경력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추측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 근거로 고구려 남정의 피해를 함께 입었다는 아라가야가 5세기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실과 김해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북천동(부산) 지역이 남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경자년조(庚子年條)를 부정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서기 399년 기해년조(己亥年條) 신라가 광개토대왕에게 왜인의 침공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도 부정되어야 하는데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또한 전쟁에 휘말린 아라가야가 5세기대의 꾸준한 성장을 고구려 남정의 부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라가야가 금관가야나 왜 등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에 동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이라는 기록이 세 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는 고구려-신라의 연합군 측에 동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가야사는 미스터리로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새롭게 속속 발굴되고 있는 가야의 고분과 유물로 인하여 한반도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야사도 이제 한반도 역사의 주역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추운 시절의 그림, 歲寒圖 감상하기



남 용 우

전)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전문 연구자는 아니며 —전원에 묻혀 낮에는 약간의 농사터를 일구고, 밤에는 산 숲의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책 읽기도 즐기는—소위 晝耕夜讀 하는 사람으로서,

秋史의 學藝의 바다는 깊고도 넓어서 선불리 섭렵하기도 두렵지만, 평전과 圖錄, 세한도 그리고 몇 편의 논문을 읽고, 느낀 감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 士人畵는 워낙 강한 개성을 넘나드는 파격성을 띠고 있어서, 그 작품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술적 感興을 얻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當代 조선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여서 오죽하면 괴상한 글씨(怪) 취급을 받았겠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세상에 웬 추사 타령이나 할 수 있으나, 세상은 변해도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라는 삶의 본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에,

옛사람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세상의 이치와 인간존재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지혜와 삶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에,

우리는 古典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한 게 아닌지 싶다.

추사는 대단히 스마트하고 지식욕이 강하면서 介潔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 같다. 그가 청년기를 보낸 18세기 후반 조선의 사회에서, 상위 1%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의 잘 나가던 한 인간이, 인생살이의 迂餘曲折(家禍, 개인의 수난, 人間世의 非情)과 艱難辛勞를 통해 인생과 학문이 어떻게 익어갔는지, 이를 통해 우리는 半面教師나 他山之石으로 엿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감상해 본다.

1. 수난을 초래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인가?

- 1) 추사가 忠淸右道 御使시절(41세)에, 庇仁縣監 金遇明(59세)을 법대로 규정대로 부조리 처분(封庫罷職)한 것에 대한, 김우명의 개인적 원한과 앙심을 초래한 것이 악연의 시발이 되어, 후일 복권이 된 김우명은 추사 집안의 저승사자로 변하여,

1차(1830)와 2차의 상소(1840)를 주도하여 기어이 제주도로 유배의 길을 나서게 하고, 解配된 뒤 3년 후에는, 眞宗의 祧遷禮訟의 책임을 물어 함경도 北靑으로 또다시 유배의 길(1851)을 떠나게 하는 등, 추사는 김우명이라는 奸凶의 毒手에 걸려 인생과 집안이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나락(奈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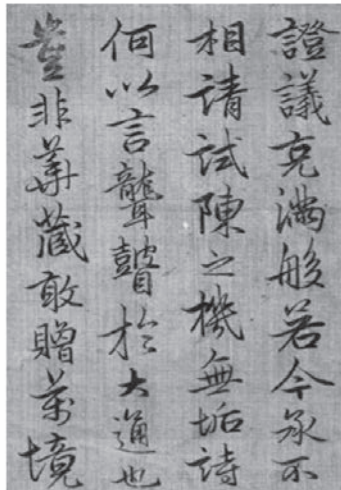
- 2) 英祖의 駙馬인 증조부 김한신의 奉祀孫이 되면서 王室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든든한 뒷배 덕택에 生父 金魯敬과 더불어 화려하고

높은 자리를 오가는 出仕와 영광을 누리면서, 금수저 집안의 넘치는 부귀영화는 필연적으로 주변의 嫉視를 초래하였고, 점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주변의 性情을 건드린 점이다.

- 3) 게다가 추사 자신이 잘난체한 지식인 특유의 자신감과 거만스러움은 상대방에게 모멸과 反感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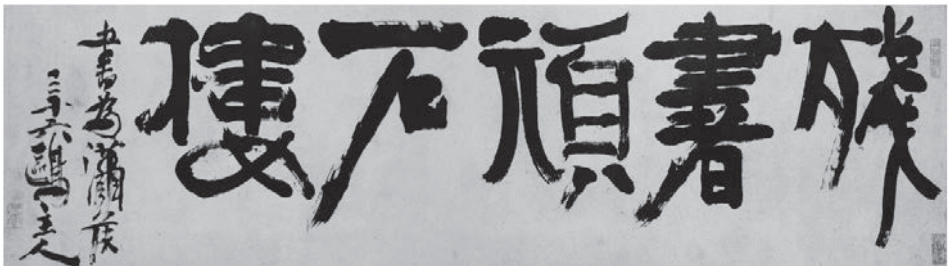
2. 추사의 書法과 글이 변화된 변환의 계기는 무엇인가?

- 우선 추사가 등장하기 전의 조선의 대표적 글씨인, 안평대군 李瑢이 엄상좌라는 노승을 보내면서 지은 재송엄상좌귀남서(再送嚴上座歸南序)는, 당시의 주류 글씨체인 王羲之體 類의, 따뜻하고 살찌며(溫潤), 우아한 글씨이고, 조선의 사대부들이 대부분 그러하였듯이, 정통의 書帖과 尺牘으로 익힌 소위 帖學 기반이었다고 여겨진다.



〈安平大君 李瑢〉
재송엄상좌귀남서(再送嚴上座歸南序): 간송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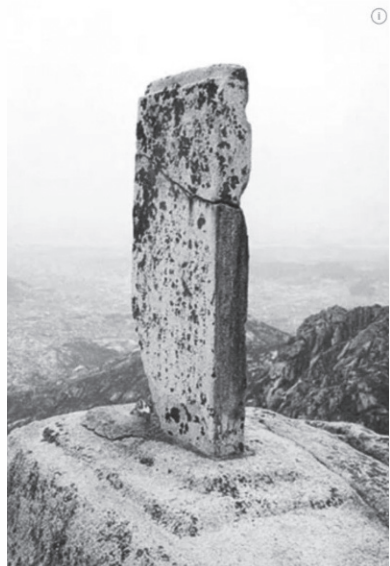
- 추사의 글씨가 독특한 개성으로 익은 말년 무렵의 글씨인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는, 비바람, 풍우에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무디고 완악한 돌에 남아있는 글씨라는 뜻으로, 북한산의 비봉에 서있던 眞興王巡狩碑(진흥왕순수비)가 그 ‘잔서완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 書法의 전형과는 전혀 맞지 않을뿐더러, 취한 듯 춤추며,拙朴하고, 거친(寒險) 스타일의 소위 碑學(묘지비석) 기반이었다.



〈秋史 金正喜〉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제자인 柳湘(1821~?)에게 준 글: 개인 소장

- 추사 역시도 청년기까지는 조선에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왕희지체 類의 정통적 서법을 익혔을 것인데, 이러한 서법에 의한 서체가 획기적 변화를 갖게 된 계기를 살펴본다.

첫 번째는, 15세 무렵(1800), 楚亭 朴齊家에게 가정교사 수업을 받으면서, 燕京에서 일고 있던 清朝學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자극을 받았던 점을 들 수 있다.



〈殘書頑石의 상징 : 북한산 진흥왕순수비〉

楚亭은 당시에 이미 燕京의 巨匠과 석학들인 나빙(羅聘)과 기윤(紀昀)들과 交遊하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淸朝문화에 심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청조학의 견문을 바탕으로 北學議(1778)를 저술한 선구자였는데,

秋史는 초정으로부터 燕京의 발달한 文物과 왕성한 學藝활동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동경하여 쓴 詩를 楚亭이 1801년에 燕京에 갔을 때, 淸朝 學界에 소개하여 영민한 추사를 알렸다.

慨然起別想 四海結知己 如得契心人 개연기별상 사해결지기 여득계심인
可以爲一死 日下多名士 艷羨不自己 가이위일사 일하다명사 염선불자이

개연히 한 생각 일어나 넓은 세상에 지기와 인연 맺고 싶어라
마음 맞는 사람을 얻기만 한다면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으련만
연경엔 명사도 많다는데 부러운 마음 절로 다함이 없어라.

두 번째는, 24세 무렵, 부친인 김노경의 冬至使 燕行(1809.10) 때, 자제군관으로 동행하여 淸朝 지식계의 거물인 翁方綱과 阮元을 만나고, 만개한 淸朝學(고증학,금석학)을 엿 보기 한 사건이다.

- 1) 淸朝문화의 완성자 격인 阮元으로부터 北碑南帖論과 碑學을 접하고, 종래 書帖에 의한 帖學이 위주가 아니라, 碑拓이 法帖의 원형이라는 논지를 듣고,
- 2) 書法의 원류는 南北朝와 魏晉을 거쳐 前漢의 隸書이며, 이는 篆書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漢隸에 書體의 근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글씨는 北碑부터 배워야 하며, 북비를 배우려면 唐의 歐陽詢,

그 중에서도 化度寺碑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은 길이다”고 入門을 권고받았으며, 이후 추사는 前隸에 입문하게 된다.

- 3) 碑文을 문헌과 사료에 근거하여 분석적으로 考證하여, 그 비문이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이며, 문화적, 예술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소위 考證學을 접하는데,

여기서 추사는 전혀 뜻밖의 학문의 論旨에 강한 충격을 받는다.

- 종래 익혀온 書法은 筆帖을 기반으로 한 書寫 위주였으나, 淸朝學은 碑石의 拓本인 碑帖 위주인 점으로
- 게다가 숭한 세월을 거치면서 풍우에 마모된, 빗돌의 탁본을 문헌과 사료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고증을 거쳐서, 비문의 내용과 글씨의 주인을 밝혀내고, 나아가 문화적, 예술적 가치까지 밝히는 이러한 서화 감상과 고증 방법을 목격하고는,
 - ① 淸朝學의 先進的이며 참신한 논지와 眼目에 압도당하고,
 - ② 학문의 접근방법과 학문하는 방식에 가히 충격을 받는다.그에 반해 조선의 학문은 시쳇말로 암기 위주의 학문방식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碑學은 石碑와 銅碑의 金石文을 고증하는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루어지므로 따로 분리할 수 없으며, 碑學과 金石學, 考證學은 동의어로서 淸朝學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 4) 추사 외에 考證學에 눈을 먼저 뜬 자 중에는 李德懋도 있으나,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秋史學’이란 것으로 재창출해 낸 이는 추사 외는 찾기 어렵다.

〈 청조학의 開祖인 顧炎武의 日知錄(1695)을 李德懋가 1778년 琉璃廠 거리(燕京의 서점가)에서 처음 구해 읽어 보고는, 六藝의 文章과 百王의 典(제도), 當世의 일(사무)을 빈틈없는 근거로써 명쾌하게

分析,考證한 것」을 처음 보고 “고염무는 실로 宏儒(굉장한 학자)로다”라고 탄복하여, 친구인 李書九에게 보내면서 “자네도 한번 玩賞해보라”고 권한다. >

- 5) 영민한 추사는 선지식에 電光石火같이 눈이 번쩍 뜨였을 것이고, 짧은 燕京에 체재하는 중에 옹방강과 완원으로부터 서화 鑑識과 金石考證의 방법을 지도받았으며, 완원의 <13經 注疏校勘記>245권, 옹방강의 <化度寺碑>모각본 등, 방대한 문헌자료마저 수집하여 귀국하였고, 귀국한 이후에는 金石學에 바탕을 둔 학예의 방향을 설정하여, 書道 수련을 하게 되었으니, 실로 秋史學의 결정적 變曲點이라 하겠다.

3. 왜 碑帖, 碑學인가?

여기서 碑帖이 왜 法帖의 원형인지, 碑文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碑拓을 考證하는 碑學인 지를 살펴보면,

- 1) 漢字라는 象形文字가 가지는 繪畫性과 유교문화가 가지는 文字崇尚의 기질이 결합하여, 文字의 표현에서 楷定한 書寫 이상의 예술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풍토가 漢代(AD 22~225)에 극성을 보인 점.
- 2) 게다가, 조상에 대한 孝나 師長(스승과 웃어른)에 대한 체면을 과시하기 위하여 碑文 치레를 경쟁적으로 해나갔으며,
- 3) 碑文치레를 위해 名筆, 名文章이 요구되었는데, 名筆을 요구하다 보니 楷正한 표현 이상의 예술성까지 희망하게 된 것이다.< 최완수 : 秋史實紀- 그 波瀾의 生涯와 藝術>

이러한 연유로 金石에 좋은 글씨와 좋은 문장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 글씨를 배우는 바른길이 碑拓과 碑帖에 있는 것이다.

4. 추운 시절의 그림, 세한도 감상의 착안점은?

朝鮮朝 지식인들이 그리는 士人畫의 특징을 살펴보면,

- 1) 형상을 빌려 보이지 않는 작가의 마음(心意)을 묘사(以形寫神)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언뜻 보면 畫法에는 허점투성이나, 내재한 그림 속에는 작자의 내공에 따라 철학적, 인생적 涵意를 품게 되고,
- 2)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 品格을 따지고, 그에 어울리는 작가의 人品과 學識, 感情과 思想이 응축된 格調와 文氣(文字香과 書卷氣)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心意를 짝 차게 하는 것이 文氣라고 본 것이다.
- 3) 書畫一律(글씨와 그림이 한가락)이라는 전통에 따라, 心意를 존중하는 것은 書 · 畫 모두가 동일하다.
- 4) 歲寒圖에서 추사는 형상의 집을 그리지 않고, 그 집으로 상징되는 - 권력으로부터 떨어져서 世人에게서 잊혀져 간 자기 자신을 - 추운 겨울에 빗대어 자신의 마음을 그렸으며, 빗자루로 끝 듯이 황술(荒率)한 필치(거칠고, 간략하고, 메마른 느낌)로 유배지의 고독과 炎涼 世態의 모질고 차가움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품격 높은 士人畫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담겨있는 복잡한 心意를 讀畫해내야 하며, 독화하는 만큼 그림이 보이는 것이다.

5. 세한도가 제작되게 된 계기는?

1) 추사가 모진 고문과 杖刑으로 반죽음 상태의 겨우 숨만 살아서, 제주도 大靜縣에 圍籬安置 되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절망의 나날을 보낼 즈음, 제자인 李尙迪은 舊誼를 잊지 않고 열성으로 추사를 섬겼다.

특히, 燕京 知識界의 동향과 신간 서적, 그리고 金石文을 구하는 대로 大靜으로 보내서 지식인의 갈증을 解消해 주었기에, 추사는 그 고마움을 謝禮할 방법이 마음밖에 없어서, 마음을 그림에 담아 李尙迪에게 선물하였고, 이후 이 그림은 燕京과 漢陽, 제주도를 오가며 流轉된 사연이, 그림을 더욱 값지게 하면서 사람을 감동케 한다.

2)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세한도 序文과 그림의 구석구석에 녹아있지만, 찍힌 方印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長毋相忘“장무상망”」이라는 閑章印이다.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다짐이고 기원이기도 한, 이 도장의 원래 出典은 漢 나라 때 瓦當(기와) 문자였으나, 그 뜻이 너무 좋아 훗날 文士들이 즐겨 사용했다는 글귀이다.



長毋相忘

6. 非情한 人間世의 풍조에서 추사는 李尙迪의 무엇을 보았는가?

序文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추사가, 현실사회에서 이상적의 뒷배가 되어 줄 아무런 영양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舊誼(구의)를 저버리지 않는 李尙迪의 태도를 보았으며, 이러한 李尙迪의 처신을 비교하기를

- 1) 史記 중, 諸侯의 기록인 「鄭世家」의 ‘厲公과 甫瑕’의 고사에서 甫瑕(보하)가 당한 업보를 “권세와 이해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권세와 이해가 다하면 그 관계도 멀어진다”(以權利合者 權利盡以交疎: 이권리합자 권리진이교소)는 속담을 두고서 사마천이 한 論評을 인용하고,

(厲公과 甫瑕의 고사: 春秋時代 鄭나라의 厲公이 甫瑕와 담합하여 甫瑕의 결정적 도움으로 왕위를 차지하였으나, 도와준 甫瑕를 당초의 약속을 저버린 채 죽였다. 이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배신이 횡횡하는 炎涼世態를 통탄한 太史公 사마천의 論評)

그런데 가만 보니, 자네는 나(추사)의 권세를 보고, 이해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던가?

- 2) 史記 중, 주요 인물의 기록인 列傳의 「汲鄭列傳」에서 前漢시대 汲黯(급암)과 鄭當時가 겪은 세상사의 非情에 대한 太史公의 論評인, “세력을 가진 때에는 빈객이 성황을 이뤘다가, 세력이 없을 때는 대문 앞에 새그물을 칠(門前雀羅:문전작라) 정도로 한산한 것(賓客與之盛衰: 빈객여지성쇠)이 세상인심이다.”을 인용하여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절해의 孤島에 남겨지고 보니, 나 역시 그러 한데, 자네는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주니, 태사공의 언급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 3)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더디 시들음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栢之後凋: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고 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인(공자)도 情義를 어려운 시절에 변함없이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또한 세상인심이란 것이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손바닥 뒤집 듯 박절한데도, 그대가 보여준 태도와 나(추사)를 대하는 처신을 돌이켜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니, 어찌 聖人한테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며,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7. 入古出新이 왜 유배시절에 세한도, 추사체로 완성되었나?

前漢의 隸書로 입문하여 이제까지 익힌 南帖의 서체와 漢隸를 응용하고, 그 기에 나름의 개성을 더한, 독특한 소위 「추사체」가 왜 하필 어려운 유배기에 창출이 된 지를 살펴보면

- 1) 제주 유배기가 연령적으로 인생이 무르익어가는 시점(55세~64세)이고,
- 2) 지난 시절 出仕와 功名으로 지낸 20년 영광의 세월은 꿈속으로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의 날로 바뀌어버린 환경 속에서, 學藝, 특히 글씨의 연찬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3) 그 글씨는 쓰는 목적과 방향성이 이제까지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씨에서, 자기를 위한 글씨로 전환되면서, 8년 3개월 동안 사실상의 無門關 생활을 견디어 냈으니, 師子吼를 토할 정도의 예술적 성숙이 어찌 아니 이를 손가?

8. 艱難辛 苦를 겪으며 어떻게 변해 갔는가?

1) 제주에서의 유배가 解配된 지 3년 만에, 거머리 같은 저승사자 김우명의 上疏로, 다시 北靑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 추사는(1851: 66세) 피가 끓는 비탄을 토한다.

“하늘이시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天乎此何人斯)

2) 世波의 굵이를 겪고

몰아친 세상사의 거친 파도가 도저히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살다 보니, 인간은 하늘 앞에서 기세가 저절로 꺾이게 되는 법이다.

북청 시절에 쓴 細算이란 詩에서, 추사는 세월을 헤아려 본 것 같다.

細算來頭三十年	세산래 두삼십년
支離拘倮孰非然	지리구루숙비연
如君壽者無量相	여군수자무량상
到此方知我可憐	도차방지아가련

오는 세월 삼십년을 곰곰히 헤아려 보니
 지리하고 구부러져 누구들 아니 그럴겠나
 무량하게 수명 누릴 그대와 같은 상은
 여기까지 와봐야 내 가련함을 알 걸세

이제는 옛날의 阮堂도 秋史도 아니고, 출세도 모두 부질없는 노릇이며, 따지고 옳고 그르네도 소용없는 일이란 걸 알게 되면서, 너그러운 自然人 으로 변한 것이다.

9. 남다른 個性, 自負의 一面이나 아니면 깨침인가?

解配된 이후의 蘭畫 그림 중, 잡초 한 포기와 산만한 畫題가 엉켜있는 不二禪蘭圖를 보면, 추사는 난화의 理想郷을 구현했다고 희열을 느낀 모양인데,

畫題 중에 일부를 옮겨보면

不作蘭畫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 부작난화이십년 우연사출성중천
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不二禪 폐문먹먹심심처 차시유마불이선

난초를 안 그린지 20년만에 우연히 그려냈다. 마음속의 자연을 찾고 찾고 또 찾은 곳, 이게 바로 유마거사의 不二禪이라네

維摩經의 不二法門品の 얘기로, 禪悅에 들어가는 상황을 維摩는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없다 하여 침묵하였다는 내용인데,

이것으로 추사가 난화를 설명한 것은, 蘭을 地面에다 그린 것보다 마음속으로 체득하는 것이 蘭을 그리는 진정한 예술의 경지라고 빗댄 것이다.

이어서 추사는

以草隸奇字之法爲之 이초예기지지법위지
世人那得知 那得好之也 세인나득지 나득호지야

초서와 예서의 奇字의 법으로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를 알아보며, 어찌 이를 좋아할 수 있으리.

라며 스스로 이 그림을 그린 근거를 설명하였다. 즉, 추사는 난초의 모양을 묘사했다기보다는, 書法을 그림에 응용하여, 상징적으로 蘭의 정신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나는 이 그림과 畫題에 담긴 심오한 뜻을 읽는 순간, 가히 入神의 경지, 깨침의 상태에 다다랐다고 느꼈다.

10. 추사가 추구한 學藝의 窮極은 어떤 경지인가 ?

1) 추사가 보낸 大靜縣과 北靑 시절의 10년의 기간은, 佛家の 無門關 參究에 비견할 수 있으며, 그 긴 忍苦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타고난 남다른 個性의 兩面 중,

남에게 傲慢과 倨慢으로 비치면서 嫉視 받던 고집스런 처세도 순화되고, 반면에, 또 다른 철저한 完壁主義의 개성은 나름의 진정한 학예의 성취로 구현되고 있었는데, 그 개성의 구현 과정을 살펴보면,

2) 그 긴 시간 분노를 삭이기 위해 쓰고, 외로운 마음 달래려고 쓰고, 심심해서 쓰고, 어떤 때는 쓰고 싶어 쓰고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제까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씨에서, 자기를 위한 글씨로, 내 안으로 안으로만 다져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청 유배가 解配 되고, 과천의 瓜地草堂에 머물던 시절에는 “비로소 허물을 벗었다”며, 오랜 벗 권돈인에게 고백하기에 이른다.

3) 글씨체가 여태까지 형태 중심의 ‘怪’의 가치에서, 기교를 감춘 ‘拙(바보스럽고, 천연스런)’로 글씨를 쓰는 마음이 변신하여, 의식적인 怪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개성으로서 발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상태를 추사는 「虛和」라 말하면서, 王徽之의 山陰雪棹 雪夜訪戴(逵) (산음설도 설야방대)의 고사를 인용해서 虛和의 예를 설명하였다.

- 눈 내리는 밤 王徽之가 山陰에 살 때, 벗이 보고 싶어 배를 타고, 섬계(剡溪)에 사는 벗 대규(戴逵)를 찾아갔다. 대규의 집이 보이는 강가에 다다라서는 굳이 대규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와 버렸다. 사람들이 까닭을 물으니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왔을 뿐이다. 어찌 꼭 만나봐야 흥이 있는가(乘興而來 興盡而返 何必見戴: 승흥이래 흥진이반 하필견대)”라고 했는데, 虛和는 바로 그런 氣와 興이 조화로운 비움(虛)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글씨를 닮으려 하는 것을 보고는, “요즘 사람들이 써낸 글씨를 보니 다 능히 虛和하지 못하고, 시뭇 악착한 뜻만 많아서 별로 나아진 경지가 없으니 한탄스러운 일일세.

이 글씨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虛和한 곳에 있으니, 이는 人力으로 나아갈 바가 아니요. 반드시 일종의 天品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이네(전집 권4, 김석준에게, 제4신, 재인용)

요새 사람들의 속된 글씨를 보면 모두 객기를 부려 飛揚(비양: 거들먹 거림)하는 것만을 숭상하여 초서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하나의 부적을 만들고 마는 실정이다(전집 권7, 잡저, 김석준에게, 재인용)”라고 개탄하였다.

- 5) 그 虛和의 상태에서 나온 拙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글씨가, 추사가 타계하기 직전에 쓴 봉은사 장관각의 懸板인 「板殿」인 데, 추사가 진정한 大自由人으로 거듭난 悟道頌으로 나는 느꼈다.



봉은사의 板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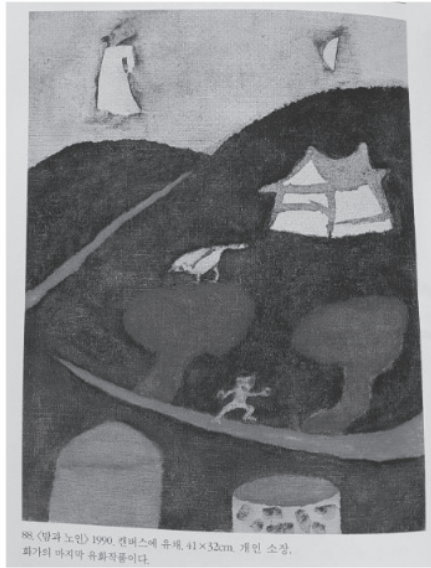
- 6) 尙有鉉(1844~1923)의 秋史訪見記에 의하면, 추사는 말년에 봉은사에 머물며, 매일 조석으로 팔뚝에 심지를 박아 자화참회(刺火參會) 하면서, 염주를 쥐고 굴리고 청정심을 닦는 지극한 佛心 속의 나날을 보냈던 것 같은데,

조선의 儒者들이 그토록 금기시하고 이단시하는 佛家 식의 수행을, 주변의 눈치도 신경 쓰지 않으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경지가 된 것이 아닌가?

11. 깨침의 수단은 多樣한가?

- 1) 추사가 이룬 학예 성취의 궁극은, 大自由人으로 거듭난 虛和의 경지, 즉 깨침이라고 생각하며, 깨침(見性)이라는 것이 話頭로 參究하는 佛家의 專有物은 아니며,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치열함과 절실함으로, 자기의 모두를 던져(全生活的, 全人格的 투입) 窮究(궁구)하면 깨침이 가능하다고 본다.

- 2) 이 같은 事例를 西洋畵의 1세대 격인, 장육진(1990. 歿)의 그림 「밤과 노인」에서 읽을 수 있는데, 초승달이 떠 있는 밤하늘을 유유히 노니는 도인은 장육진 자신이며, 禪悅의 상태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나는 느꼈다.



장육진의 밤과 노인

- 3) 또 한 편은, 16세기 조선의 女人 許난설현이 밤에 꿈속에서 廣桑山을 노닐다가 꿈이 깨어, 그녀가 노닌 광상산을 詩로 그린 「夢遊廣桑山」을 보면, 이 역시 禪悅의 경지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나는 느꼈다.

비범했던 여인이 너무도 한심한 남편을 만나 마음고생을 겪으면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자녀마저 어릴 적에 잃어버리고, 원한과 애통함에 사무침을 그림과 글씨로 다져나갔는데, 종래에는 광상산을 노니는 경지에 이른 것으로 나는 읽은 것이다.

夢遊廣桑山(몽유광상산)

碧海浸瑤海 青鸞倚彩鸞 벽해침요해 청난의채난
芙蓉三九朶 紅墮月霜寒 부용삼구타 홍타월상한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 어울렸구나.
연꽃 스물일곱 송이
붉게 떨어져 달빛 서리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12. 세한도의 마지막 소장자는?

- 세한도는 李尙迪의 사후, 그의 제자인 김병선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李尙迪(1844)→金秉善→金準學(1914)→閔泳徽→閔奎植→藤塚(1930)
→孫在馨(1944.8)→孫世基(1970)→孫昌根→중앙박물관(2020)

경기도 개성 출신 松商의 後裔(후예)인 손세기에게 인도되어, 그의 자녀 손창근이 최종적으로 소장하였으나, 손창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2020)하였다.

그전에도 「불이선란도」와 「잔서완석루」外 상당량의 古書와 珍品을 국가에 기증한 바 있으나, 그는 요란을 떨지 않았으며, 2024. 6월 세상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조용한 기부와 조용한 마무리를 하면서,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긴 울림으로 세상에 남기고 손창근씨는 떠났는데, 그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巨商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마지막 소장자 손창근

13. 글을 맺으면서

감상을 정리하면서 느낀 所懷는 다음과 같다.

1) 추사로부터 封庫罷職을 당한 김우명의 怏心(양심)에 찬 복수는, 전.후 세 차례의 上疏를 주도하여 기어이 추사와 추사의 집안을 송두리째 도륙을 내고 말았으니, 그 집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고,

지금의 우리네 세상에서도 私感에 의한 背信과 怏心, 그리고 復讐(복수)의 행태가 여전히 횡횡하는 것은, 예컨대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 ① 남들보다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同鄉 출신의 상관을 배신하고 弑害한 悖倫의 사건과
- ② 60년대 초, 지방관에 대한 비위 사실을 허위 보고한 책임을 물어, 閑職으로 보직 조치한 상관께 怏心을 20여 년간 품고서, 그 이후 국가의 중요한 고비의 현장에서, 치명적인 양심 불량한 행위로 절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기어이 복수한 사건은 人間世의 변할 수 없는 속성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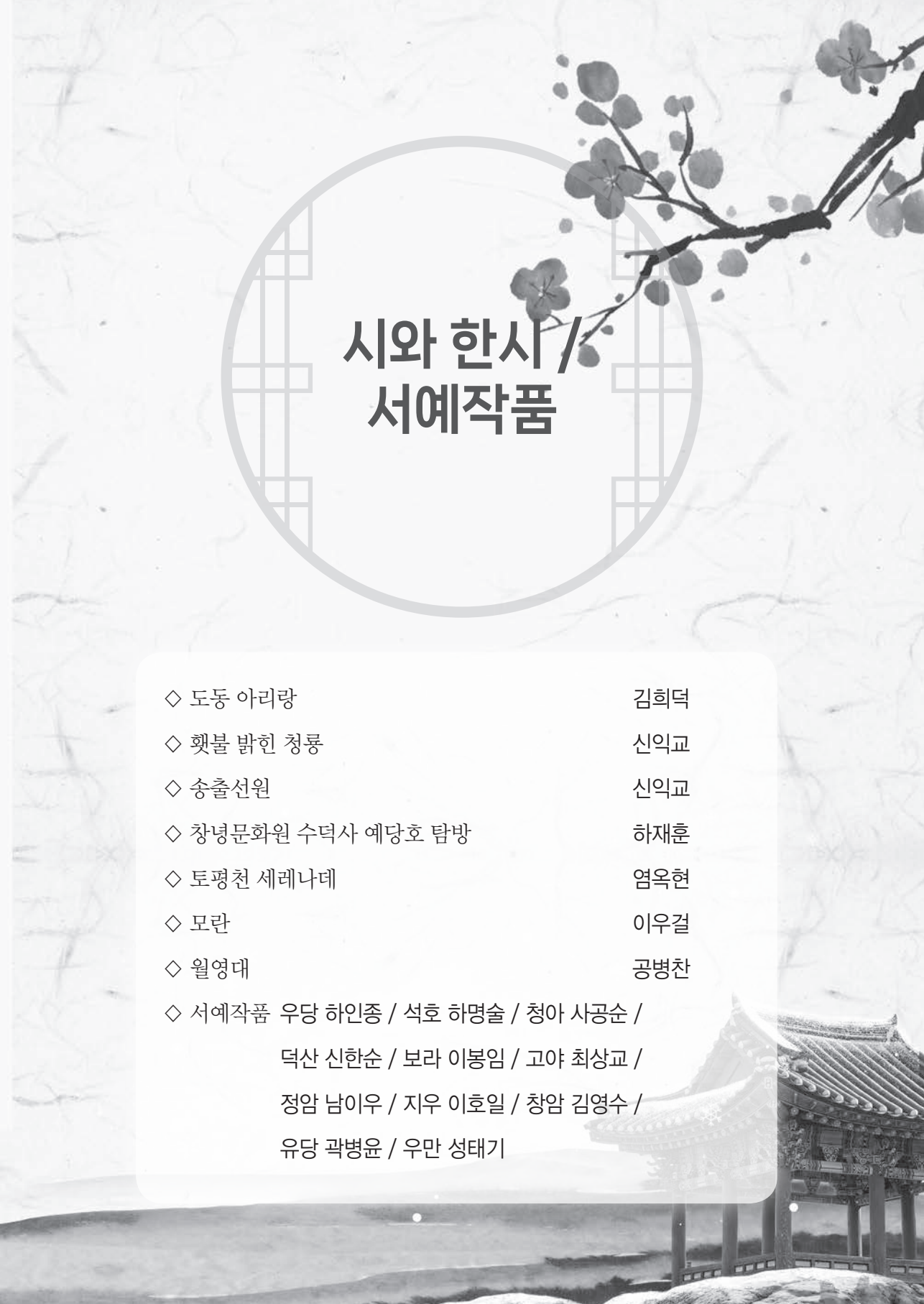
그래서 사마천은 史記의 列傳에, 私感보다는 大義를 위해 自己를 버리고, 主君의 복수를 위해 칼을 뽑아 든 자들의 「刺客列傳」을 집필한 것이었던가?

2) 추사의 上疏와 둘러싼 推鞠(추국) 과정을 보면, 정의를 구현하기 보다는, 개인적 私感이나 怏心, 그리고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인 勢道 카르텔 간의 패권 다툼이 주된 내용이니, 당시 政爭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하겠다.

3)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추사는 학예와 인생의 갈 길을 찾아 그 궁극에 도달하여 一世의 通儒(통유)가 되었으니, 불행이 오히려 스승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그렇게 反轉 시킨 추사가 더욱 우러러 보인다.

昌寧文化





시와 한시 / 서예작품

- | | |
|--|-----|
| ◇ 도동 아리랑 | 김희덕 |
| ◇ 햇불 밝힌 청룡 | 신익교 |
| ◇ 송출선원 | 신익교 |
| ◇ 창녕문화원 수덕사 예당호 탐방 | 하재훈 |
| ◇ 토평천 세레나데 | 염옥현 |
| ◇ 모란 | 이우걸 |
| ◇ 월영대 | 공병찬 |
| ◇ 서예작품 우당 하인종 / 석호 하명술 / 청아 사공순 /
덕산 신한순 / 보라 이봉임 / 고야 최상교 /
정암 남이우 / 지우 이호일 / 창암 김영수 /
유당 곽병윤 / 우만 성태기 | |

道東我理朗



辟山 金熙德

1) 戴尼山 감도는 洛東江 따라
 대니산 낙동강
 風景이 아름다운 道東書院에
 풍경 도동서원
 寒暄堂 先生의 小學精神을
 한훤당 선생 소학정신
 배우고 익히려 찾아가 보자

 我理朗 我理朗 我羅理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다람재 고개로 넘어 간다

2) 元亨과 利貞은 天道之常이요
 원형 이정 천도지상
 仁義와 禮智는 人性之綱이라
 인의 예지 인성지강
 寒暄堂 先生의 小學精神을
 한훤당 선생 소학정신
 배우고 익히려 찾아가 보자

 我理朗 我理朗 我羅理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杏子木 아래로 모여 든다
 행자목



3) 愛親 敬兄과 忠君 悌長이
 예친 경협 충군 제장
 是曰 秉彝라 有順無彊이라
 시왈 병이 유순 무강
 寒暄堂 先生의 小學精神을
 한훤당 선생 소학 정신
 배우고 익히려 찾아가 보자

我理朗 我理朗 我羅理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喚主門 차래로 들러 간다
 환주문

4) 惟 聖은 性者라 浩浩其天 이시니
 유성 성자 호호기천
 不加毫末 이라도 萬善足焉 이라니
 불가호말 만선족언
 寒暄堂 先生의 小學精神을
 한훤당 선생 소학 정신
 배우고 익히려 찾아가 보자

我理朗 我理朗 我羅理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中正堂 講座에 熱心히 배우세
 중정당 강좌 열심

햇불 밝힌 청룡 - 선원의 날 -



해송 신익교

내륙에 앞장을 선 새 시대 개척자로
일본의 침략에도 맞대응 게릴라전
동남아 해적 떼들을 물리친 젊은 전사들

조국은 바람 앞 등불 세차게 불어오고
신무기 새총에도 제압시킨 비격지천뢰
뱃길을 깨우친 뱃사람 지켜온 이 강산

사람은 인간답게 상호 간 존경대응
엄지손 내민 열정 세계만방 우뚝서서
백두산 상상봉오리 포효하는 해양건아.

송출선원

해송 신익교

단절된 애환여파
소명에 마음 비워
내일의 충전 향해
항구마다 희망충전
폭풍의
황금 바다에
생존의 보람 캔다

이국의 무역 승선
오대양 육대주로
이항구 저항구로 향한
난 세월 몇 몇 헨가
무더운
지옥 속에서 천당 발길
오고가는 바다로다

인고의 고뇌에도
삼백육십오일 청해상에
막극에 잠이 들어
수십 년
갯벌 공항 꽃피운다

昌寧文化院 修德寺 禮唐湖 探訪

창녕문화원 수덕사 예당호 탐방



관암 하재훈

大夏棟梁奇妙宮
대하동양기묘궁

1) 대하동양이 기묘한 수덕사에

傳承佛法盛無窮
전승불법성무궁

불법전승이 무궁하게 성하였네.

見庵尼院修行處
견암니원수행처

견성암에는 비구니 수행 처이고

定慧男僧崇德空
정혜남승숭덕공

정혜사에는 남승들의 숭덕을 다하였네.

唐水蕩潏雄壯視
당수탕망웅장시

예당호의 넓고 넓은 웅장함을 보고

動橋特異匠工虹
동교특이장공홍

출렁다리의 특이 장인의 무지개네.

莊嚴面貌保遺產
장엄면모보유산

장엄한 면모의 유산을 보호하며

技術尖端風景豊
기술첨단풍경풍

첨단기술의 풍경이 넉넉하네.

2024. 5. 10. 甲辰冠巖河在焠
갑진관암하재훈

1) 主: 大廈棟梁 = 큰 집을 지을 때 쓰이는 기둥과 들보, 마룻대와 들보.
주 대하동양

토평천 세레나데

염옥현
창녕군청

가을녘 풍요로움을 예찬하는 이방인의 가벼운 품평 너머
토평천 들녘의 수채화를 여러 번 걷어 내는 것은
자연의 선율에 운율을 지휘하는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내는 당신의 고단함

어두운 적막을 걷어 올리는 강렬한 써치라이트
잠들 수 없는 대지(大地)의 시간을 뜯어내며 연장하여
토지를 파고, 갈고, 고르고, 어른다
100마력의 농기구는 트랜스포머가 되어 쉬지 않고 달린다
내려 설 수 없는 자연의 독촉에 다리가 마비 된다

오만한 통계를 비웃는 냉정한 날씨의 변덕에
속세의 시간은 스치는 상념을 더하고
흙 먼지까지 폐로 스며들어 한때의 끼니가 된다
작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지휘자는 시간과 전쟁 중이다

연약해진 토지를 깨워 생존의 하모니를 연주하는
당신의 그을린 미소에 겸허한 팬이 된다
노동의 질서정연한 연주는 계속 되고
오늘도 토평천의 세레나데는 울림을 멈추지 않는다

모란



이우걸
시인

피면 지리라

지면 잊으리라

눈 감고 길어올리는 그대 만장 그리움의 강

저서도 잊혀지지않는

내 영혼의

자줏빛 상처

-
- 1946년 경남 창녕군 부곡 출생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과 졸업(교육학 석사)
 - 마산여자고등학교 교감, 진해고등학교 교장,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역임
 - 197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20여권의 시집과 평론집 출판. 경남문인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 경상남도 문화상, 한국문학상, 중앙시조대상 등 여러 문학상을 수상.
 - 현재 우포시조문학관 관장, 문예지 (서정과 현실) 발행인으로 창작과 시민 강연에 정성을 쏟고 있음.
 - 창녕군 부곡면에서 수차례 '창녕군민과 함께 하는 문학 세미나'를 열고 있음.

월영대



공병찬
경남미협 부이사장



碧波浩渺石崔嵬(벽과호묘석최외)
 中有蓬萊學士臺(중유봉래학사대)
 松老壇邊蒼蘚合(송로단변창선허)
 雲低天末片帆來(운저천말편범래)

아득한 푸른 물결 위 우뚝 솟은 바위에,
 그 안에 봉래학사 노닐던 대(臺) 있네
 단(壇) 옆에서 소나무 늙어가고 이끼 무성한데,
 하늘 끝 구름 아래 조각배 떠오네,

- 약력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역임
 한국미술협회 분과위원, 이사역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한국서예가협회,
 오사카전, 전각협회, 경남서단, 문자문명전, 창원서예가
 협회등 단체전 300여회
- 수상 : 국무총리상, 한국예총회장상, 대한민국창조문화대상
 (언론인협회 회장상)
 창원시장상,군수상, 지방법원장상
 현) 경남미술협회 추진위원장, 한문서예 분과위원장,
 3.15미술협회 추진위원장

山居漫吟(산거만음)

-西湖 金弘道(서호 김홍도)

우당 하인종

석호 하명술



文章驚世徒爲累 (문장경세도위누)
 富貴薰天亦饒勞 (부귀훈천역만로)
 何似山窓岑寂夜 (하사산창잠적야)
 焚香默座聽松濤 (분향묵좌청송도)

雨餘觀山色景象便覺新妍
 夜靜聽鐘聲音響尤爲清越

문장이 세상을 놀라게 한들 다만 누(累)가 될 뿐이요
 부귀가 하늘에 닿아도 역시 그저 수고로울 뿐이네
 어찌 산창의 고요한 밤에
 향 피우고 말없이 앉아 솔바람에 귀기울임만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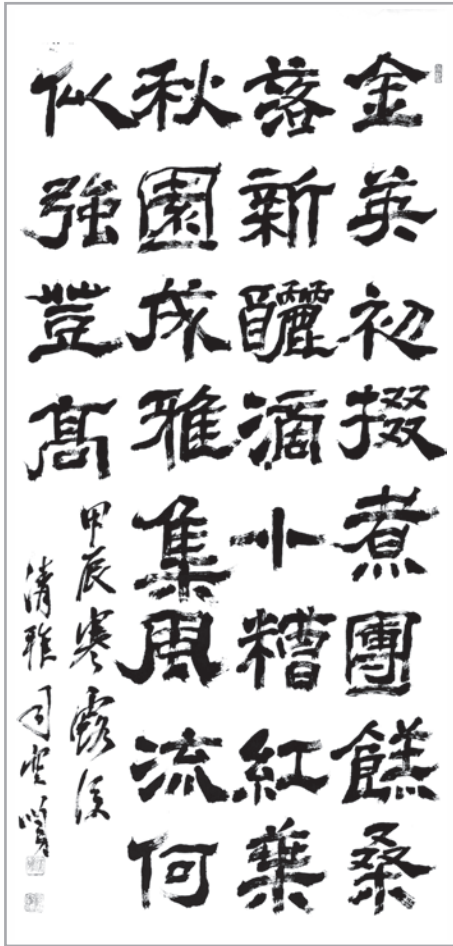
비가 갠뒤에 빛을 보면
 경상이 문득 새로움을 깨닫게되고
 밤이 고요한때에 종소리를 들으면
 울림이 더욱 맑고 높다.

-채근담 구

세시풍조(중양절의 풍속도)

-유득공(1800년대)

청아 사 공 순



金英初掇煮團饊 (금영초철자단고)
 桑落新醞滴小槽 (상락신시적소조)
 紅葉秋園成雅集 (홍엽추원성아집)
 風流何以強登高 (풍류하이강등고)

노란 국화 처음 따다 동그란 전 지저놓고
 작은 지게미 떠있는 상락주도 처음 걸렀네
 단풍든 가을 정원에 고아한 모임 가지니
 이 풍류 어찌 억지로 등고하는 것과 같으랴

곧은 절개

덕산 신한순



黑禪 (흑선)

보라 이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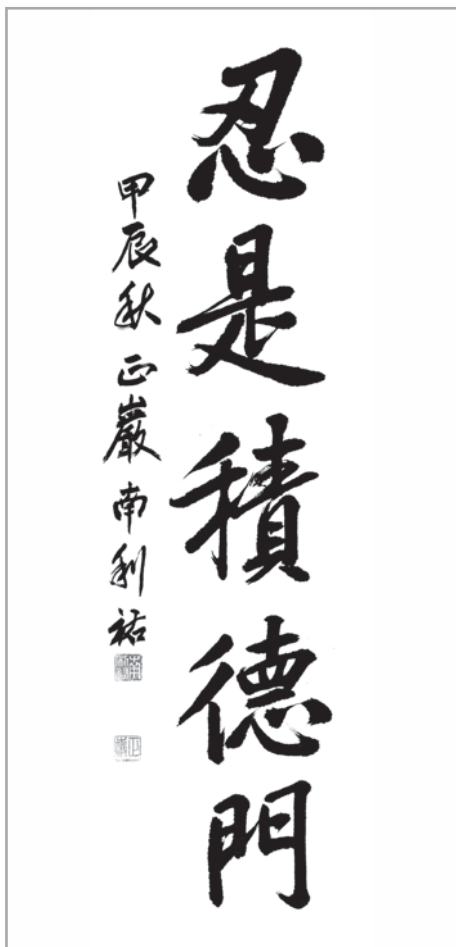
글로서 마음을 닦는다.

가고파

고야 최상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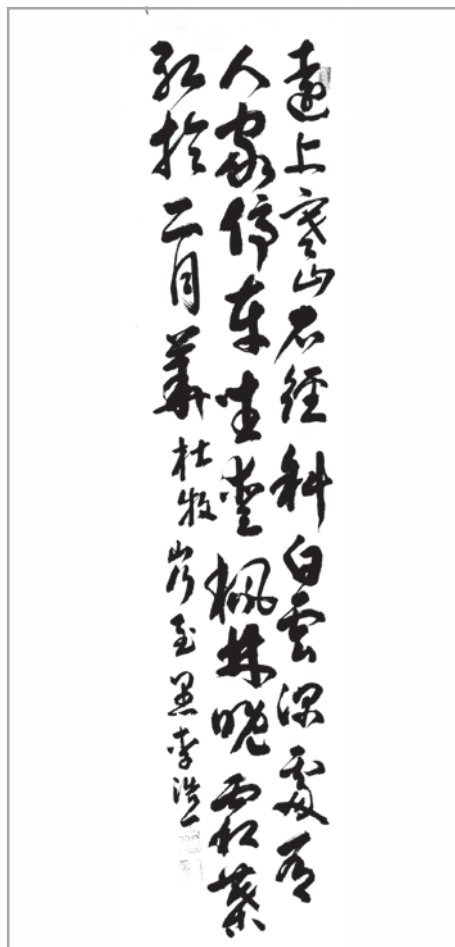


마산 성호 초등학교 “50회 졸업 동창
생”을 그리워 하며 노산 이은상 작가의
10절중에서 발췌하였음.



忍是積德門 인시적덕문

참는다는 것은 덕을 쌓는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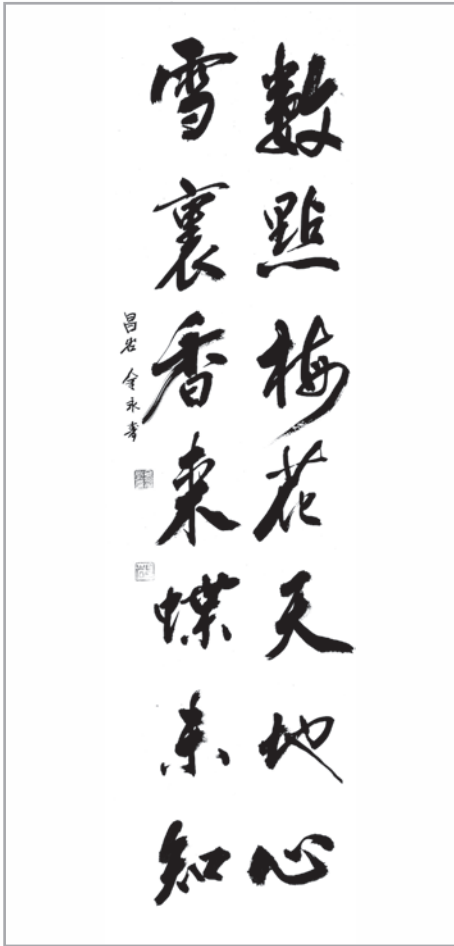


遠上寒山石徑斜 (원상한산석경사)
白雲生處有人家 (백운생처유인가)
停車坐愛風林晚 (정거좌애풍림만)
霜葉紅於二月花 (상엽홍어이월화)

멀리 비탈진 돌산길에 오르니
한구름 깊은곳에 사람이 사네
수레를 멈추고 늦은 가을을 감상하니
서리맞은 단풍잎이 2월의 꽃보다 붉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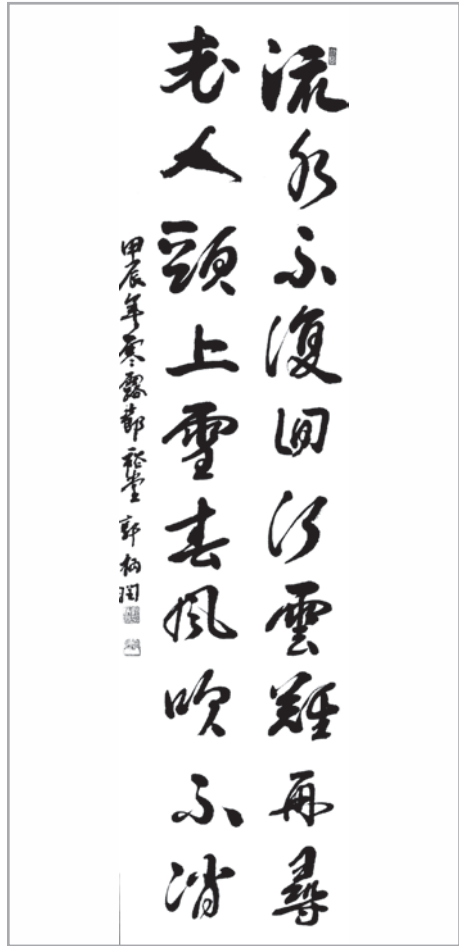
창암 김영수

유당 곽병운



數默梅花天地心(수묵매화천지심)
 雪裏香來蝶未知(설리향래접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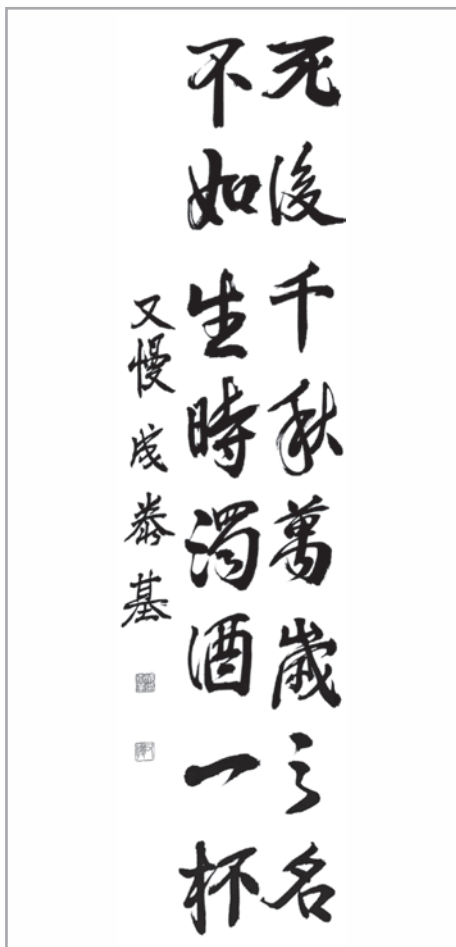
몇점의 매화에 천지의 마음이 있다.
 눈속에서 향기가 나도 나비는 알지 못하네.



유수불복회(流水不復回)
 행운난재심(行雲難再尋)
 노인두상설(老人頭上雪)
 춘풍취불소(春風吹不消)

흐르는 세월은 다시돌아오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구름은 다시볼수 없구나
 노인의 머리위에 내린 흰 눈은
 봄바람이 불어도 녹지 않는구나.

우만 성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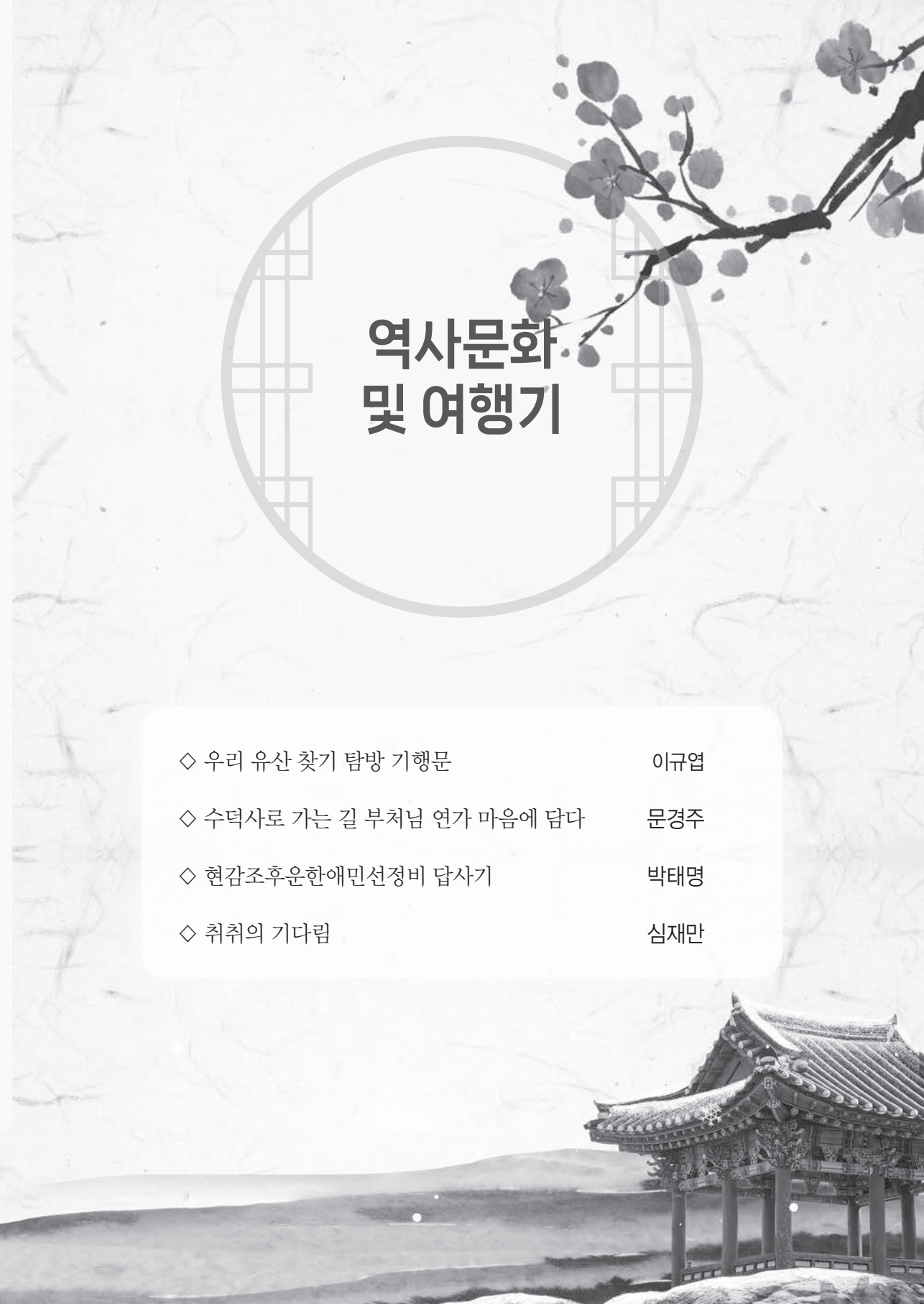
死後千秋萬歲之名 (사후천추만세지명)
不如生時獨酒一杯 (불여생시탁주일배)

죽어서 천년만년 남기는 이름보다
살아 있을 때 탁주한잔이 좋다.



昌寧文化





역사문화 및 여행기

◇ 우리 유산 찾기 탐방 기행문

이규엽

◇ 수덕사로 가는 길 부처님 연가 마음에 담다

문경주

◇ 현감조후운한애민선정비 답사기

박태명

◇ 취취의 기다림

심재만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기행문



이규엽
향토사연구소장

2024년 6월 21일 창녕문화원 회원들은 夏至 날 아침 일찍이 여행을 떠난다. 국가 유산은 인류 활동의 산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다. 이번 탐방은 자연유산보다 사찰, 고가, 서원, 누정 등 문화유산 위주로 탐방한다.

한삼윤 문화원장을 비롯한 회원 35명은 2시간을 달렸다. 신록이 우거지고 천등산이 고즈넉하게 품고 있는 불교 유적 천년고찰 봉정사는 우리를 맞이한다. 일행은 천 년 이상 발길이 이어진 일주문을 지나 부처님 도랑으로 들어간다.

佛家에서 一柱門은 衆生이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 즉, 娑婆世界(사바세계)와 질병과 괴로움이 없고 수명이 끝이 없는 평안한 극락정토 즉 極樂世界의 경계문이다.



鳳停寺(봉정사)表石은 세계문화유산 새겨져 있다.

2018년에 봉정사, 통도사, 법주사, 부석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총 7곳은 1000년 이상 한국 불교문화를 계승한 산지 승원으로 귀중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기672년 能仁大師가 봉황이 머문 곳에 터를 잡아 창건한 신라 사찰이다. 長長夏日 무더운 날씨에 넓은 도랑 많은 佛舍 중에서 극락전(국보), 고금당(보물) 등을 둘러보고 잠시 만대루에서 더위를 피하며 근심과 번뇌를 다 내려놓고 맑은 공기와 함께 명상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일정으로, 400여 년을 이어온 학봉 김성일 고택에 도착하니 김종길 종손의 영접 안내로 학봉 기념관 운장각을 관람하였다. 창녕문화원 회원 예우로 특별히 학봉종택 탐방자료 책자와 수장고 진품유물 관람에 이어 마당에 차린 절편, 식혜, 음료수 등 다과 접대를 받았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답례로 문화원은 창녕특산품 양과즙을 전하였다.

학봉 김성일 고택에 담긴 문화유적과 인물, 정치, 역사 이야기는 宗宅은 손자 김시추가 1580년 창건하고 현재 안채 사랑채 문간채 風雷軒(풍뢰헌) 운장각 학봉기념관은 1964 원래 종택지로 2번 이전한 옛 조선시대 사대부 전통한옥이다.

조선 중기 정치가 학봉 김성일(1538-1593)선생은 이퇴계 문하생 유성용과 秀才同門이고 대과급제, 나주목사, 부제학거쳐 당시 당파 동인 서인의 당쟁이 극심할 때 1590년(선조23) 통신사절단 正使 黃允吉(西人 영의정 黃禧 손자) 副使 金誠一(東人) 書狀官 許箴(東人 강릉 부사 許曄 자. 許箴 형) 9개월 동안 일본을 다녀왔다.

서기1591(선조24)년3월1일 宣祖임금에 복명은 正使 黃允吉은 兵火가 있을 것이다. 副使 金誠一 병화의 정황은 보지 못했다. 正使가 장황하게 아뢰어 민심이 動搖되게 하니 事宜(사선)에 매우 어긋납니다. 書狀官 許箴은 東人임에도 정사와 같이 병화가 있을 것으로 復命하니 宣祖는 副使의 의견을 따랐다.

이듬해 1592년(선조25) 김성일은 4월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임명 부임 중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왜군이 부산포 상륙으로 통신사 책임을 물어 拿命(나명) 歸京도중 우의정 柳成龍은 선조를 설득하여 다시 경상도 招諭使(초유사)로 임명하였다. 선조는 문책 대신 戰功을 세우라는 下命을 하였다. 당시 경상관찰사 金晬와 의병장 郭再祐 사이 불화설도 있었으며 전란의 민심 동요 안정, 관군·의병 간 조정 화합과 관군의 기강, 의병의 재봉기 등 왜적 격퇴 최선의 공로가 있었다.

다시 진주목사로 1차 진주대첩 전승 후 1593년 진주성을 재정비 중 창궐한 돌림병으로 病死하였다. 선무원종 1등 공신과 후에 이조판서 贈職을 받았다. 나라 정책을 극심한 당쟁과 통신사의 잘못 판단으로 국방 대비 없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의 廢墟(폐허)는 인명 재산손실이 가장 큰 역사를 다시 생각해본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임진 의병장 후손 400년 憂國家風으로 抗日名家로 학봉 후손 김홍락 김용환 애국지사는 의용단에 활동하여 모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상하였다.

인근 전원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안동시를 경유 20여 분을 달려 묵계서원, 보백당 종가, 만휴정은 깊숙한 산간 길안천변에 있다 연산군 때 김계행 도승지 대사간 유허지이다. 옛날엔 오지였으나 당진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안동 IC를 이용하면 교통이 편리하다. 안동의 도산서원 하회마을 다음으로 조용한 문화유적지다.

1687년 (숙종13) 묵계서원을 창건하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하는 곳이다. 조선초기 문신 김계행과 號 凝溪(응계) 玉沽선생의 덕행과 청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당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옥고선생은 야은 吉再의 문하 정종1 18세 급제, 안동부사로 선정을 펼친 인물이다. 서원 건물은 강당立敎堂, 挹淸樓, 進德門, 東齋克己齋, 특이한 小廚房, 金係行神道碑 등 도 국가유산이다.

특히 옛 소주방은 카페 만휴정 간판을 걸고 한옥 고택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카페로 서원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분위기를 준다.

晩休亭은 寶白堂 김계행 1498년(연산군4) 대사간 재직 때 勳舊派 權臣을 極論 制止하려다 낙향하여 1501년 원림과 폭포가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독서와 사색을 하면서 만년에 쉬는 사대부의 別墅(별서)이다. 조선시대 정자와 원림을 보존하여 경북도 국가 유산이다. 창녕문화원 회원들은 더운 날씨에 오솔길을 오르니 1871년 신미양요 벌어진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주연 유진초이 역-이병헌, 고신애 역-김태리) 촬영지와 개울가에 단아하게 지어진 세월이 겹겹이 쌓인

정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개울을 건너는 아슬아슬한 외나무다리 위는 방문객들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양측 방과 청마루 천정에 雙淸軒 시인 묵객의 題詠 현판이 걸려 있다.



드라마 촬영 후 전국관광객이 매년 17만명 이상 방문으로 새로운 문화 유적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 문화유적지 중심인물은 조선 초기 문신 김계행(1431-1577) 관행新安동 호 寶白堂 시호 定獻 父는 충청 비안현감 金三近이고 별족으로 장상 고관이 많고 혼인 연비측 외증손 영의정 유성룡을 비롯한 40여명 고관 등 친가, 외가, 처가 문벌이 대단한 집안이다.

김종직은 동갑으로 성균관 입학 동문 영의정 성희안 등 교유로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의금부의 고초를 당했다. 늦은 나이 49세에 대과 급제하여 나이를 고려하여 6품직에서 출발하여 승진이 빠르게 도승지, 대사간, 홍문관 등 三司 淸要職을 두루 거쳤으나 벼슬길에 있으면서 조정이나 왕실 병폐에 대해서는 直諫을 서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사직과 복직을 반복한 淸白한 정치가이다.



이번 안동지역 국가 유산을 찾아서 세월이 겹겹이 쌓인 400년에서 1300여년의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귀중한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국가 유산을 창건한 대선사 정치가 문신들의 사상 철학과 학문을 이해하고 국가 유산 보전 계승을 다짐한다.

수덕사로 가는 길 부처님 연가(戀歌) 마음에 담다

문 경 주
글길



1. 천년고찰(古刹) 덕숭산 덕숭총림 수덕사

5월 3일(금) 오전 7시 30분, 창녕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수덕사(修德寺)로 가기 위해 성낙인 군수님의 배웅을 받으며 버스 9대 인원 330명이 질서 정연하게 출발하였다. 더욱이 1호 차에 배정되어 내심(內心) 기뻐했다.

창녕문화원 → 수덕사 → 더스타웨딩홀 방문 → 출렁다리 → 창녕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버스에 착석하자마자 애써 준비했을 익숙한 음식들이 봉지에 담겨 한 분 한 분 배급받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속담이 생각나게 하는 한삼운 문화원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창녕문화원 김동주, 하정구 원로 고문님 등 현) 경상남도 교통문화원 수원장 이수영으로부터 사전답사(事前踏査 : 4월 16일(화)을 통한 고찰(考察)이 이어지고 창녕 문화와 유적지를 귀담아듣고 문화유적지 탐방지인 수덕사는 백제 때에 창건되어 내려오는 유서 깊은 고찰로써 내포 땅 가야산의 명승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평소 한삼윤 원장님의 『인본주의 표현은 휴머니즘이다.』라는 인간다움을 중요시하는 철학적 사조로 인간의 이성, 도덕, 창의성을 중시하였다.

《손에 잡히는 인문학》을 통해 역사, 문화, 예술, 철학의 존재 가치를 깨우치고 탐구하여 경험에 따른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통찰의 시간을 엮는다.

박학다식한 식견으로 미리 예습하였다. 이어 현 창녕 향교 전교 최수길님, 광정기 부원장님, 이규엽 향토사 연구소장님의 소중한 창녕문화원 유산인 『70년 사』 『낙동강이 들려주는 창녕 이야기』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 이야기』는 창녕문화원이 있기까지 원로 고문님들과 문화 가족이 함께 문화원의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유산을 계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궤적들을 책으로 엮으면서 역사와 유산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 이에 어려움의 단상(壇上) 생각해 보니 충분히 박수를 보낸다. 창녕문화원의 원훈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큰 자산으로 기억의 부활을 철저히 상기시켜 준다.

정숙연 사무국장님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휴게소 두 번 들린 것 말고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곧 도착 시간을 알린다.

현재 우리나라 현존하는 고려 시대 목조 건축물은 다섯 곳이 있다.

오늘 가는 수덕사는 고려 시대 목조 건축물은 그 다섯 곳 중 한 곳이다.

고려가 태조 왕건(재위: 918~943)이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숭상함으로써 현존하는 고려 건축물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두 『나라의 보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 ①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 사찰의 옆면과 앞면의 비가 1 : 1.62로써 완벽한 황금분할을 이루며 배흘림이 뚜렷한 원기둥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 ② 조사당 벽화(국보: 제46호)는 우리나라에서 남아 있는 벽화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영주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 ③ 고려말인 1375년(우왕: 원년)에 세워진 영천 거조사 영산전(국보: 제14호)이 있다. 또한 ④ 목재를 층층이 쌓아 만든 구조가 명쾌하게 보이는 한국 건축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평가 받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 ④ 국내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건축 시기가 명확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며 한반도 목조 건축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재인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이 있다.
국보인 대웅전과 함께 대웅전 노사나불 괘불탱(보물: 제1263호)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 유물(보물: 제1381호) 대웅전 앞 3층 석탑(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등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수덕사에는 부처의 진신사리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수덕사 전경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한 후 동양 여러 나라에 전파된 종교로써 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 그로부터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일렁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 권 18 고구려 본기 제2 소수림왕에는 불교가 고구려 땅에 전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수림왕(小獸林王: 재위 371~384) 2년(372년), 6월에 진왕(秦王) 부견(符堅)이 사절(使節)과 부도(浮屠: 승려) 순도(順道)를 보내어 불상(佛像)과 경문(經文)을 전하니 왕(小獸林王)은 사신을 내어 회사(回謝)하고 방물(方物)을 전하였다.

또한 같은 책 『삼국사기』 권 24 백제 본기 제2 침류왕에는 불교가 백제 땅에 전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침류왕(枕流王: 재위 384~385) 원년(384년), 9월에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동진(東晉)에서 왔다. 왕(침류왕)이 그를 궁궐 안으로 맞이해 예우하고 경배하였다.

불법(佛法)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또한 같은 책 『삼국사기』 권 4 신라 본기 제4 범흥왕에는 불교가 신라 땅에 전래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법흥왕(法興王: 재위 514~531) 15년(528년), 불법(佛法)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앞서 눌지왕(訥祗王: 재위 417~458) 때 고구려의 승려 묵호자(墨胡子)가 고구려에서 일선 군(一善郡: 지금의 善山)에 이르니 모례(毛禮)란 사람이 자기 집에 토굴을 짓고 묵호자를 모셨다.

여기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고 이차돈(506~627)이 순교한 사실은 『삼국사기』 권 4 신라 본기 제4 법흥왕과 『삼국유사』 권 3 흥법(興法)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차돈은 대쪽 같은 성미에 거울처럼 맑은 뜻을 품고 나이 22세에 사인(舍人)이라는 하급 벼슬을 하고 있었다.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할 당시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차돈이 나서서 불교를 공인할 것을 적극 주장하며 자신을 처형함으로써 왕의 위엄을 세우고 신하들의 반대를 가라앉힐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이에 왕은 신하들을 모아 놓고 불교를 공인할지를 의논하였고 대부분 신하가 반대하는 가운데 오직 이차돈만이 찬성하였다. 왕은 신하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이차돈 혼자서 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를 처형할 것을 명령했다. 이차돈은 죽기 직전에 “나는 불법(佛法)을 위하여 형(刑)을 받으니 부처께서 계신다면 내가 죽은 뒤 이적(異蹟)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차돈의 목이 베여 떨어지는 순간 붉은색이 아닌 흰 피가 한 길 높이로 솟구쳤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땅이 흔들리며 꽃비가 내렸다. 이에 신하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법흥왕 14년: 527년)하였다.

위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불교가 수용 혹은 연도별로 공인된 순서를 정리하면 ① 고구려 -> 소수림왕 (372년), ② 백제 -> 침류왕 (384년) ③ 신라 -> 법흥왕 (527년) 순이 되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三國)이 불교를 공인하기까지는 15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불교는 전래한 지 약 1,700년 신라가 공인한 지는 약 1,500년이라는 찬란한 역사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64%가 불교 문화유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유산 중 불교 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현대 불교신문 2002/11/19)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말(言)속에도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는 “야단법석(野檀法席)”이라는 말이 있다.

‘야단법석’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판을 나타내는 명사나 어원은 절 마당에 불단(佛壇)을 차리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도시가 아니라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에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불심(佛心) 법회(法會)에서 ‘바리 춤’ 같은 불교 무용이 대단한 볼거리이며 이를 통하여 불심은 더 깊어졌을 것이다.

백제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덕사 경내에는 신라의 원효대사가 수도하던 소림초당을 비롯하여 비구니들의 수도장인 금강암, 견성암, 선수암 등의 암자가 있다.

수덕사가 자리 잡은 덕숭산(德崇山 495m)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산으로 백제의 옛 땅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침류왕이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 후인 그 다음 해인 침류왕 2년(385)에 ‘봄 2월, 한산(漢山)에 사찰(伽藍)을 창건하고 10명의 승려를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까지는 여기에 언급된 한산이 어느 곳인지 밝혀진 것은 없다.

백제는(31대 왕 678년) 수도 천도를 3번 한다.

첫 수도인 한성백제 도읍기 【시조 온조왕 14년(기원전 5) 한성(서울), 493년간】을 시작으로 웅진 도읍기 【문주왕 원년(475) 천도·공주 63년간】 사비 도읍기(성왕 16년(536) 부여 122년간)로 이어진다.

사찰 한산이 건립된 침류왕 2년(385) 당시 백제 수도는 한성(서울)이므로 『삼국사기』에 언급된 ‘한산(漢山) 사찰(伽藍)’은 최소한 수덕사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의 마음(德)을 닦는(修) 사찰(寺)’이라는 뜻을 지닌 수덕사는 충남 내포 지역의 조계종 사찰을 관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조계종에는 25 교구 본사가 있다】 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

백제 시대인 6세기경에 창건되어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천년 고찰이면서 예산의 제1경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한국 선불교를 지켜낸 선종의 종찰(宗刹)이면서 선사들을 배출한 요람이며 여승의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2. 화살같이 빠른(永矢) 수덕사 탐방

내달리는 버스 창문 바깥에는 초록빛 물결이 일렁이고 바람결에 실려 온 향긋한 꽃내음... 아카시아꽃이 인사를 건네는 참으로 좋은 계절이요 맑고 갠 날이다.

11시 도착 (창녕 -> 수덕사 291km: 3시간 30분 소요) 덕숭총림 수덕사 선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매표소를 통과하여 해설사의 설명을 듣기로 하였다.

늦은 감이 있으나 2023년 5월 4일부터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덕사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어 무료입장이었다.

총림은 승려들의 참선 수행을 위한 선원, 경전 교육을 위한 강원, 계율 교육을 위한 율원 등을 모두 갖춘 사찰로 수덕사,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동화사, 쌍계사 등이 총림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선문을 지나 숲이 우거진 길을 따라 일주문에 이르니 인간의 욕망과 번뇌 악한 생각들을 정화한다.

일주문의 편액 ‘德崇山 修德寺’와 ‘東方第一仙院’ 글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서예가인 소전(素荃) 손재형(孫在馨, 1902~1981) 선생이 쓰셨다고 한다.

인걸(人傑)은 가고 없으나 그의 작품은 살아서 ‘추사 이후의 일인자’로 불린 그의 힘찬 글씨(筆力)를 잘 보여준다. 또한 소전(素荃) 선생과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에 엮인 사연들을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는 일제 말에 ‘추사의 펜덤(fandom)’인 후지쓰카(藤塚隣)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서예가 소전 손재형 선생의 노력과 재력에 힘입어 국내에 돌아오게 되었다. (소전 선생이 세한도를 양도받은 지 석 달이 지난 1945년 3월, 도쿄공습으로 후지쓰카의 서재가 불타버리면서 그가 힘써 수집한 추사의 많은 작품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수덕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초가집이 있다. ‘수덕여관’이다. 1945년, 42세가 된 화가 고암(顧庵) 이응로(李應魯, 1904~1989)는 해방이 되어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충남 예산의 수덕여관을 인수하고 작고하기 전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던 집(고택)이라고 한다.

초가로 지어진 ‘내 마음의 고향’ 같은 수덕여관이 보여 사진을 찍고 암각화도 찍었다. 고암 선생의 대표작은 ‘군상(群像)’이라고 한다.

화면 전체에 재미같이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영고 성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이 초가집은 고암 화백이 작품 활동

하던 곳으로 암각화 2점이 있다. 안내판에는 1969년 고암 선생은 직접 추상 문자와 암각화 2점을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수문장 역할을 하는 금강문(金剛門)을 지나 네 분의 천왕이 사천왕문(四天王門)으로 들어가니 해설사가 수덕사 내부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검은 기와 불사가 쌓여 있어 가족들의 건강, 소원성취라 적고 그것도 미약해서 촛불 한 자루에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올린다.

숨이 가쁘게 가쁜 돌계단 선명한 연둛빛 바위틈 이끼가 올해 나이 716살이라는 걸 알려준다. 이팝 꽃향기가 코끝에 머문 천 번의 계절을 맞이하는 수덕사는 새로운 단장으로 바꿨다.

포대화상은 실존 인물로 배를 만져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배를 쓰다듬고 사진을 찍곤 하였다.

현재 수덕사의 창건에 관한 문헌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여러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웅전(국보: 제49호)은 1937년 해체·복원 작업에서 발견된 묵서(묵재에 쓴 글씨) 가운데 기록으로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대웅전을 건립하였고 공민왕 대에 나옹화상이 중수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마지막 대웅전을 보수하였다. 서까래 기둥에서 1308년에 지어졌다는 문구를 발견하여 건축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한다.

1931년 만공선사(滿空禪師)가 세운 7층 석탑과 ‘수덕사의 4대 보물’로 10km 밖까지 아릅드리 고목 아래로 종소리가 들리는 6천5백 근 범종, 범종각의 목어(木魚: 나무로 고기 모양을 만들어 걸어 두고 쳐서 소리를 낸다) 범고각의 범고(法鼓: 절에서 예불할 때나 의식을 거행할 때 치는 큰북)가 마주하고 섰는데 이는 색상이 화려한 날아다니는 새 조류를 위한 운판(雲板: 구름 형상의 판목) 등이 독특한 고려 시대의 보물들로 중생을 지혜의 세계로 인도한다.

소림초당(少林草堂)은 만공(滿空1871~1946) 스님의 뜻에 따라 벽초 스님(1899-1986)이 지었다고 한다. 소림초당이라는 말 그대로 둥그런 초가지붕의 집이다.

소림초당에는 벽초 스님이 수행 길로 만든 1080 돌계단이 있다. 만공 스님이 건립했다는 25척(7.5m) 미륵불상은 석불로서 특이하게도 머리에 이중 갓을 쓰고 있다.

경허 스님은 시를 잘 썼고 만공 스님은 돌을 아주 잘 깎았다고 전해진다. 우아한 부처님의 자비 만공 스님의 걸작품이다. 소림초당은 참선하는 도량이라 그런지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다시 계단을 오른다. 자연석 바위를 깎아 불사(佛事)한 관음 불상을 만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면 석불은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에 있다.

1983년 화전리에서 발견된 백제 시대 사면 석불을 그대로 재현한 수덕사 석조 사면불은 2008년 봉안되었다고 한다. 사면 석불은 동서남북 사방(四方)에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미륵존불을 조성한 불상이며 석가모니불만 좌상(坐像)으로 하고 나머지 3기는 입상(立像)으로 봉안하였다. 청명한 목탁 소리에 불자의 발걸음 멈추게 하며 합장하게 만든다. 수덕사를 품은 덕숭산은 씨앗을 뿌리고 역사를 꽃피워 거둬들이는 자연 박물관이다.

또 다른 문화유산으로는 조선 인조 때 (인조 17 : 1639년)에 일곱 명의 비구 (남자 승려)의 발원으로 만들어진 대웅전 본전에 모셔진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 유물 (보물: 제1381호)이 있다. 여하한 이상기후로 인한 흉작과 전염병의 유행으로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 [나무위키 / 경신대기근 계정] 연구에 의하면 1672년의 조선의 인구는 10,062,000명이라고 추정한다. 【(李永九, 李鎬撤, 『經營史學』 第3輯,

經營史學會 1988. p181)】하였다는 경신, 신해대기근 【(庚辛辛亥大飢饉:1670년~1671)】때 조성된 ‘노사나불 괘불탱(보물 제1236호)’이 있다.

조선 인구 10명 중 1명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할 정도로 국난(國難)을 당해 불심(佛心)으로 이겨내며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든 조선 현종 14년 (1673: 康熙 가: 12년)에 727cm × 세로 1,059cm에 이르는 거대한 괘불이다. 괘불이란? [그림을 그려서 걸어 놓은 부처의 모습]이며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하여 십이지대보살, 십 대 제자 등이 그려져 있다.

노사나불(盧舍那佛)’이란 ‘비로사나(毘盧舍那)’의 다른 이름이며 부처의 전신으로 법계를 고루 비추어 빠짐이 없이 완전무결을 상징한다고 한다.

수덕사에 이 괘불이 걸리면서 야단법석 대법회가 열리는 날, 그날에는 꼭 참견(參見)하여 이 괘불을 직관하고 싶어진다.

대웅전 마당 한쪽에 세워진 ‘수덕사 삼층석탑’은 신라 문무왕 5년에 건립되어 원효대사가 중수했다고 전해지나 통일신라 시대 양식을 갖춘 고려 초기의 석탑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수덕사 해설

수덕사 대웅전은 조선 시대 고종(1865년 2년)에는 만공선사가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현존하는 고려 시대 건축물로 주심포식(柱心包式: 고려 시대 이전)으로 앞면 3칸, 옆면 4칸 크기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보면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으로 꾸몄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한 공포(栱包)가 기둥 위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다.

기둥은 배가 살짝 나온 배흘림기둥 양식으로 지어진 고려 건축물 양식인 절제와 균형미가 돋보인다. 이는 건축물의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천장과 지붕을 지지하여 백제의 목조건축 양식을 이은 고려 시대 가람(寺刹)으로 특히 건물 옆면의 장식적인 요소가 고즈넉한 산사에 너른 품안을 감싼 어머니의 도량이다.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고 사원 전을 하사(下賜)받아 재정을 충당하기도 하고 승려들은 승과에 통과하고 나면 한 세대를 이어가는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았으며 사찰도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으니 왕실과 귀족들의 시주와 불교 신앙의 보편화로 사찰이 크고 장엄하게 지어졌을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 유교, 도교, 무속신앙 등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발달하였다.

불교는 국가 지원을 받아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으로 많은 노비를 소유하였으며 땅과 곡식을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과 곡식을 받고 난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으로 수입이 점차 늘어났다.

절은 장생표(長生標)를 세워 절의 영역을 표시하였다. 절의 행사에 쓰이는 물건을 팔거나 운반하는 사람이 등이 굽은 오솔길을 내며 모여들었다. 특히 불상을 바위에 새겼다. 험 험한 산보다는 더 깊은 산을 보기 위해 산과 산 사이 숲과 숲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칸막이 바위에 관음 부처를 새기니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명산(名山) 속에 은거하며 시끄러운 가슴앓이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한 수행자가 참선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수덕사 창건에 관한 애뜻한 설화가 전해 온다. 먼 옛날 이곳, 수덕산에 ‘수덕’이란 마음씨 좋은 도령이 살았는데 수덕 도령은 가야산으로 매사 낱하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해 질 무렵, 민가로 들어가 밥 짓는 ‘덕송’ 남자의 자태에 마음을 빼앗겨 상사병을 앓게 되었다. 수덕 도령은 덕송 남자의 두 눈을 쳐다보며 “남자의 발을 매일 씻겨 주리라.” 하며 청혼한다. 덕송 남자는 입으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지만, 눈빛으로는 이미 수덕 도령을 ‘귀었다 났다’ 하며 어쩔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백일이 지나 덕송 남자는 수덕 도령의 청혼에 화답이라도 하듯 가야산 남쪽 절 경이 아름다운 덕송산 중턱에 “절을 지어 달라”라고 말한다. 이 말이 청혼의 대가로 알고 수덕 도령은 절을 짓게 되는데 내 마음의 깊은 숲에도 이토록 단아한 나무들이 불현듯 골짜기 깊이 산봉우리는 높게 길을 터준다.

그 길을 따라 절을 짓고 살아가는 것도 보시하는 그것으로 생각하여 혼불을 불어 꼼꼼히 훑어 넣었지만, 완공도 되기 전에 산이 깨어나는 꼭짓점에 불이 나서 내 것이 아니 되니 미련 없이 햇살도 공기도 바람도 자연의 풍경들은 모두 소실되고 만다. 두 번째 지은 절도 추풍낙엽 떨어지듯 발자국 내던지 못하고 풍성하게 잘린 눈(眼) 속의 아름다움이 빠져나가지 못해 다 벗어 주고 소실되었다. 모든 탐욕과 내려놓고 고갯마루 끝자락 실오라기 한 줌 아쉬움 없이 부처님 영원에 대한 믿음으로 절을 완공시킨다. 불사가 완공되자 그동안 미뤄졌던 결혼식을 절 입구까지 길게 늘어선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덕송 남자를 끌어안으려 하자 절 마당 위로 불탑 위로 와당 끝자락이 막 펼쳐지면서 웃고름 풀린 덕송 남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버선 한쪽만 남겨졌다고 한다. 덕송 남자가 서 있던 자리는 계곡물 스민 물이 물소리에 섞여서 단숨에 덮쳐 바위로 변하고 좁다랗게 놓인 길에 하얀 버선 꽃이 피었다. 덕송 남자는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고 한다. 세월이 강물같이 흘러서 불자들은 마음속에 꽃씨가 되어 서원 하나를 세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수덕사는 수덕 도령의 이름을 따고 덕송 남자의 이름을 따서 덕송산 수덕사라고 지었다고 전한다.

현존하는 백제의 사찰은 공주의 대통사지, 부여의 정림사지, 익산의 미륵사지 등이 남아 있다.

아무렴 어머니 자궁 속 같은 편안함을 내가 나를 모르면 나의 운명을 모르듯이 카르마(業)의 근원을 알고 나면 자연을 품을 수 있는 씨앗을 잉태한 자각도, 깨달음도 과거의 생애 이곳에 잠시 머물다 현재의 지금 나의 주체 의식이 경험으로 씨앗을 뿌려 다 함께 여행하러 오듯이 미래의 섞일 줄 아는 불성 깨달아 가는 길목에서 잉태된 씨앗이 분만하는 나의 뒤통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3. 견성암과 일엽 스님(1896~1971) 그리고 일당 스님(1922~2014)



수덕사 대웅전 내 삼층석탑

대웅전 아담한 경내 앞마당을 가로질러 ‘황하정루’ 지붕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능선의 산들이 어머니의 품속 같이 정겹게 느껴진다.

견성암은 수덕사의 부속 암자로 산정의 정혜사에 이르는 중턱에 있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 비구니의 참선 도량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도처이다.

1965년 인도식으로 지은 석조 2층 건물의 선방에서 80여 명의 비구니가 수도에 정진하고 있다. 비록 암자의 규모는 작으나 전국 여승들이 참선 수도하는 수련장으로 종가 구실하고 있다.

이 견성암에서 수행하면서 한국 불교 최고의 여승(女僧)으로 불려졌던 자서전 『청춘을 불사르고 (1962년 발간)』로 유명한 일엽 스님이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 현해탄을 건너왔다”는 14살의 소년이 늦은 봄날, 해 질 무렵에 견성암으로 일엽 스님을 찾아왔다. 모정에 목말라 있던 아들에게 “절에 왔으니 절 풍속을 따라야 한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스님으로 불러라”라고 냉정하게 말하곤 아들을 절간에서 재워주지도 않고 절 밖 ‘수덕어관’으로 내쫓았다. 스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던… 훗날, 유명한 화승(畫僧)이 된 이 일엽 스님의 아들 일당 스님은 『월간조선』 2010년 9월호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어머니의 추상같은 냉정함 속에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제가 정신적으로 이유(離乳)를 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어차피 저를 거둬들일 수 없는 몸이라면 속세에 두고 온 아들이 어머니 없어도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게 됐던 것이지요.”

일엽 스님 속가의 이름은 김원주(金元周)로 1896년 4월 28일(양력 6월 9일)에 평안남도 룡강군 삼화면 덕동리에서 감리교 목사인 아버지 김용겸과 어머니 이말대의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일엽 스님이 태어난 1896년은 국내외적으로 격변기의 세월이었다.

조선 정부는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태음력을 폐지하고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해 2월 11일,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아관파천을 강행하였다.

‘조선을 누가 통치하느냐?’를 놓고서 중국 청나라와 섬나라 일본이 크게 한판 뜬 전쟁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1895년)하는 그 무렵이었다.

이 전쟁에서 조선 정부군은 일본군과 같은 한편이었고 평양 지방군은 청나라와 한편이 되어서 이 땅을 전쟁터로 삼은 침략자를 위해서 ‘동족 살육(同族殺戮)’이라는 웃지도 못할 비극이 이 땅에서 영화처럼 상영되었다.

일엽 스님이 4살이 되던 1900년, 결핵을 앓던 어머니가 남동생 출산 후 사망하자 아버지는 재혼한다. 재혼한 아버지마저 1909년에 돌아가시자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소학교(초등학교)를 거쳐 이화학당에 입학(1913년)하고 졸업(1918년)하였다.

1918년 여름, 22살에 미국 유학과인 연희전문학교 교사인 이동익과 정동 예배당에서 결혼하였다.

남편 이동익은 40살이며 다리 하나가 없었다. 남편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하러 갔다. 그러나 결혼 4년 차에 이혼하게 된다.

일엽 스님은 1920년 3월, 잡지 『신여자』를 창간하여 주간으로 활동하였다. 이 잡지는 한국 최초의 여성 잡지로 기록되었으나 재정난으로 총 4호로 폐간되었다. 이때 소설가 춘원 이광수(1892~1950)는 친구인 일엽 스님에게 평생 필명과 별명으로 사용되는 ‘일엽(一葉-하나의 잎)’이라는 호(號)를 지어주었다.

오타 세이쥬(太田清藏)는 일본 귀족 집안의 장남으로 규슈 제국대학 법학과 출신이었다. 조선인 유학생 김원주(일엽 스님)와 세이쥬는 1921년 일본 도쿄행 특급열차 안에서 서로 만나 첫눈에 반해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대만은행(그 당시 대만은 조선과 같은 일본제국의 식민지(1895~1945)였다) 총재를 지낸 세이쥬 아버지[오타 호사쿠(太田法祚)]는 장남의 로맨스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이죠의 집안은 에도(江戸) 시대의 명장인 오타 도칸(太田道灌)의 직계 손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와 더불어 일본의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 오타 가문은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명문가라고 알려졌다. 그에 반해서 김원주(일엽 스님)의 집안은 아버지(김용겸 목사)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로서 일제가 말하는 이른바 ‘불령선인(不逞鮮人)’이었다.

1922년 아들(일당 스님 金泰伸)을 낳은 일엽 스님은 아들 아버지의 앞날을 위하여 아들을 도쿄에 남겨 두고 조선으로 떠났다.

1931년 35세인 일엽 스님은 불교에 귀의하기로 하고 1933년 37세에 만공 스님의 상좌가 되었다.

일엽 스님과 결혼을 맺지 못하고 불꽃 같은 사랑을 한 오타 세이쥬(太田清藏)는 훗날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고위 관료를 지냈고 1970년대 초 독일 주재 일본 특사라는 고위 관리를 지냈으며 못 이룬 사랑을 그리며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한다.

일엽 스님의 아들인 일당 스님은 오타 마사오(太田正雄), 송영업, 김설촌, 김태신, 그리고 일당(日堂) 스님 모두 그의 이름이다.

66세라는 늦은 나이의 불문(佛門)에 귀의한 그의 이름이 사사하듯이 영화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세수는 93세 범람 27세에 원적(승려의 죽음) 하였다.

일당 스님의 일대기는 2004년에 발간된 자전 소설 『화승, 어머니를 그리다』에 잘 나타나 있다.

오뉴월 콩알 튀기듯 사랑을 흠치고
 꽃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더니
 떠돌다 잉태된 일체무상(一切無常)이라
 속세(俗世) 비명 듣기 싫다 귀 닫아
 홀연히 수덕사 이꼴려 숨어들었노라.

회침이는 한 생애 절반 도둑맞고
 승방 깨달음 부처님 영광 찾아
 돈으로 할 수 없는 공덕 닦으니
 금욕 응혈 되도록 화려하면 덮은
 여래(如來) 범종은 울고 간다

-自作詩 - 연꽃으로 피어난 백련도엽(白蓮道葉)

4. 시인이면서 화가인 나혜석(1896~1948)

일엽 스님이 자신을 찾아온 아들(일당 스님)을 매정하게 대했을 때 모정에 굶주린 일엽 스님의 어린 아들인 일당 스님을 친아들처럼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준 이가 화가 나혜석이다. 이때 나혜석은 이혼의 아픔을 안고 출가를 결심하고 수덕사 견성암에서 여승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친구인 일엽 스님을 찾아서 수덕사 수덕여관에서 머물 때다. 【수덕여관에서 5년 동안 머물면서 승려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만공 스님으로부터 “임자는 중노릇할 사람이 아니야”라며 일언지하에 거절당한다. 만일 화가 나혜석이 꼭 여승이 되고자 하였더라면 수덕사 견성암이 아닌 다른 여승들의 수도처 《가지산 동쪽 기슭 석남사 등》로 신라 헌덕왕 때 지은 유서 깊은 사찰에서는 뜻을 이룰 수가 있었을 것이며 불교 미술사에서 한 획을 장식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화가 나혜석은 수덕여관에서 미술을 어린 일당 스님과 이당 김은호(1892~1979) 등에게 가르쳤다.

화가 나혜석과 일엽 스님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나서 잡지 『폐허』와 『삼천리』에서 같이 동인으로 활동한 친구였다.

화가 나혜석이 수덕사 수덕여관에 있다는 전갈을 받은 일엽 스님은 암자에서 내려와 두 사람의 회포는 풀었지만, 이혼녀와 속세를 떠난 여승과의 대화는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달라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후일, 일당 스님이 자신을 모정으로 품어준 나혜석 작가에 대한 회상을 『월간조선』 2010년 9월호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어머니는 냉랭한 모습으로 대하며 눈길도 주지 않고 내쫓았어요. 그러곤 수덕사 아래에 있는 수덕여관에 가서 자라고 했어요. 그럼 나혜석 작가가 ‘수덕사 견성암까지 올라갔다가 쫓겨났구나’ 하시며 저를 친아들 처럼 대해 줬지요.

나혜석 작가는 제게 팔베개를 해 주었고 그렇게 가슴팍 품에 안겨 나혜석 작가가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상에 빠지곤 했어요.”

화가이면서 시인인 나혜석은 1896년 경기도 수원에서 시흥군수를 지낸 아버지 나기정과 어머니 최 씨의 의 5남매 중 넷째로 “나 참판댁”으로 불릴 만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1913년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하러 가서 도쿄의 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 나혜석은 오빠 나경석의 친구인 최승구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최승구는 본처가 있었으며 【그 당시 결혼식장에서 당사자끼리 처음 만나 보는 것이 풍습이었다.】 결핵으로 2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이 첫사랑은 화가 나혜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trauma)로 남았다.

1920년 당시 25세 일제 강점기 조혼 풍습에 따른 데다 유학이라는 미명 아래 늦은 결혼으로 오빠(나경석)와 집안의 강요에 의해 결혼 전 4가지 조건(첫째 : 첩을 얻지 말 것, 둘째: 살림에서 자유로울 것, 셋째 : 시집살이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것, 넷째 : 애인(최승구) 묘지에 비석을 세워 줄 것)을 걸고 김우영과 결혼을 하였다.

남편 김우영이 일본 외무성이 주는 해외 위로 여행 포상으로 세계 일주를 부부 동반으로 하게 된다. 문제는 세계 일주에서 일어났다.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외교관으로 있던 최린(1878~1958)을 만나게 된다.

최린에게 한눈에 반하게 된 나혜석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소문이 남편 김우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김우영·나혜석 부부는 10여 년간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이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줄 아는 마음은 내가 남이 되어 보고 남의 잘못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내로남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이중잣대인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최린에게 과정의 책임을 묻고 당당하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다.

같은 시기에 일본 유학 중 화가 나혜석은 일엽 스님을 알게 되어 친구가 되었다.

동갑 나이 서른셋,

나혜석은 세계여행을 떠났고 김일엽은 출가하였다.

신여성으로 문인으로 여권운동가로 우정을 나누던 친구인 김일엽 스님과 화가 나혜석의 생년 월일(1896년 4월 28일)은 신기하게도 똑같다.

수덕사 덕수여관에 얽힌 일엽 스님과 화가 나혜석, 일당 스님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갔다.

남·여 사랑의 아름다움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져 가리지 않고 아름답기만 한 그 순수한 모습으로만 바라보아야 오래간다.

신여성이라는 공통분모 속에 화가 나혜석도 수도승으로 살다 갔더라면 인형이기보다는 인간이기를 대변하던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기에 올림은 크게 다가온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적의(敵意)
 허공 같은 일진의 바람 피 토하며
 고독은 왜 나의 몫이어야 합니까
 적수오건(滴水熬乾) 근(根)이 없도다
 육(肉)과 영(靈)의 결합 잘리며 잘못 이뤄
 외로움을 채질하며 심장이 멎도록
 외로우면 배어 빈빈(頻頻)의 독 가시 찔렀다
 일생 내내 낙인이 찍힌 조롱 묻히니
 굶지 못한 복권 내 인생 여로였나

- 自作詩 - 왜 나는 안됩니까

5. 내일 뜨는 태양 그 약속은 영원하리라

인생은 나그넷길이다. 하나의 씨앗이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안에 있어 그 연줄로 엮여 있다.

운명의 수수께끼 터득한다는 건 도(道)를 깨치는 것이다.

성인(聖人)이 된 일엽 스님과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화가 나혜석은 신여성으로 ‘화양연화(花樣年華)’의 시간들, 상간남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의 외조를 받으며 사랑받는 합집합에 있었다. 도드라진 면모가 돋보였으나

이혼으로 자식을 볼 수 없는 움푹 파인 삶의 가시가 서로를 아프게 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가 달리 보인다.

그래서 꼬인 삶이 삶과 죽음의 불균형을 넘어서는 경험의 축적을 견주어 보지 못한다.

운명(運命)은 천명(天命)을 이루기 위해 상실의 아픔을 성숙의 회상으로 목적지를 따라간다.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해체함으로써 진정한 나를 찾아 세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는 뜻인,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을 음미하는 하루가 되었다.

수덕사를 빠져나오기 전 선문 바로 옆에 부도전이 있다.

부도전은 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탑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 탑은 주로 사찰 안에 있지만 승탑은 사찰 밖에 있다. 일행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 허둥지둥 내려오니 버스 주차장에 군데군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곧 예약된 식당으로 이동하여 뷔페 음식점인데도 식탁에 음식을 미리 차려두어 바로 식사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었다.



예당호 출렁다리

버스로 이동하여 ‘예당호 출렁다리’에 도착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저수지인 예당호는 가장 긴 다리 출렁다리(내진 설계 1등급)는 하늘을 곧게 쏘은 64m 주탑 길이 402m, 폭 5m 양옆으로 펼

쳐진 케이블은 황새가 넓은 호수를 비상하는 듯한 형상의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예당호에서 출발 -> 창녕(260km) 오후 6시에 도착하여 오고 가는데 7시간 장시간 동안 어르신들은 흥에 겨워 노래도 잘 부르시고 식사도 즐겁게 하시는 것을 보아 평소 몸을 많이 움직여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다.

비장한 각오로 들렀다가 시간이 촉박하여 아쉬움과 여운이 남아 다시 한번 더 오고픈 천년 고찰 수덕사 탐방기이다.

다음은 기억하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헤어졌다.



2024년 창녕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수덕사, 예당호 출렁다리)

현감조후운한애민선정비 답사기

(縣監趙侯雲漢愛民善政碑 踏查記)



阿鵠 朴泰明
郷土史研究委員

영산현감 조운한에 대한 기록은 창녕향토사료제9집(昌寧郷土史料第九輯)으로 발행된 창녕현지 축산군지 합책(昌寧縣誌 鷲山郡誌 合冊)¹⁾

환적편(宦蹟篇)에 『趙雲漢 丁卯到任 庚午移白川 有善政碑(조운한 정묘도임 경오이백천 유선정비)』 즉 “조운한 현감은 정묘(1867)년에 도임하여 경오(1870)년에 백천으로 옮겨갔다. 선정비가 있다.”는 기록과 창녕군지(昌寧郡誌)²⁾ 사화편(史話篇)과 남지읍지³⁾ 사화편(史話篇) 『아들은 목사(牧使) 아버지는 현감(縣監)⁴⁾』의 기록에 따라 조운한 현감

1) 昌寧縣誌 鷲山郡誌 合冊 昌寧文化院 昌寧郷土史料第九輯 2006.11. 發行 P106, P500

2) 昌寧郡誌 昌寧郡誌編纂委員會 1984.1. 발행. P698-699

3) 南智邑誌 南智邑誌編纂委員會 1999.7. 발행 P607

4) 경국대전 / 위키백과

○경관직(京官職) 한성부(판윤:정2품) 1명, 개성부(유수:종2품) 2명-1명은 경기 관찰사가 겸함

○외관직(外官職)

8도(관찰사:종2품)	경상도
부(부윤:종2품)	경주
대도호부(대도호부사:정3품)	창원·안동
목(목사:정3품)	상주·진주·성주
도호부(도호부사:종3품)	김해·영해·밀양·선산·청송·대구
군(군수:종4품)	합천·함양·초계·청도·영천(永川)·예천·영천(榮川)·홍해·울산·양산·함안·김산·풍기·곤양
현(현령:종5품)	영덕·경산·동래고성(固城)·거제의성·남해
현(현감:종6품)	개령·거창·삼가·의령·하양·용궁·봉화·청하·언양·칠원·진해·하동·인동·진보·문경·함창·지례·안음·고령·현풍·산음·단성·군위·비안·의흥·신녕·예안·영일·장기·영산·창녕·사천·기장·웅천

선정비 답사를 마치고 이를 정리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화편의 『아들은 목사 아버지는 현감』 전문을 옮긴다.

『조운한(趙雲漢) 현감은 1867(丁卯)년에 영산 현감으로 도임한 나이 많은 현감이었다.

그가 부임해 보니 삼세(三稅-國稅)⁵⁾를 내는데 고을 사람들이 배에 직접 실어 밀양 삼랑진까지 싣고 가서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막심했으니 도천 송진 나루에서 배에 싣고 삼랑진까지 가면 홍수가 나서 파선하기도 하고 도둑 떼들에게 양곡을 빼앗기기도 하여 다시 양곡을 걷어야 되므로 주민들이 세곡을 이중 삼중 부담하는 결과였다.

“원님, 세곡(稅穀)을 송진 나루에서 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나라에서 책임지게 되면 이 폐단이 줄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진정을 듣고 조 현감은 진주목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몇몇 관속을 거느리고 진주 목사가 있는 동헌으로 갔는데 큰일이 났다. 조현감이 무엄하게도 상관을 만나려면 마땅히 문전에서 가마에 내려 걸어가야 하는데 버젓이 가마를 탄 채 동헌 마루까지 가는 게 아닌가?

“원님! 내려야 됩니다.”

“그냥 가자! 괜찮다.”

“안 됩니다요.” “괜찮다.”

5) 삼세(三稅)조선 때, 백성들에게 부과하던 세 가지 조세. 곧, 대동미(大同米)·전세(田稅)·호포(戶布).

원님은 자꾸 괜찮다는 소리만 반복하자 따라간 이속(吏屬)⁶⁾들은 간이
콩알만 해졌다.

목사가 보였다.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려니 겁을 냈는데 ‘어허! 어인
일인가?’

목사가 대청에서 뛰어 내려왔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바로 진주 목사는 조운한 현감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건의를 받고 그 뒤부터는 삼세를 송진 나루까지만 운반하면
되었다니 주민의 큰 부담과 노역을 덜게 했다.

영산 고을에는 오랫동안, “아들은 목사 아버지는 현감.” 하는 말이
돌아 오늘날까지 전하는데, 「縣監趙侯雲漢愛民善政碑 현감조후운한
애민선정비」라 새긴 선정비를 남지읍 성사리에 주민들이 1876년에
세웠다. 이 비는 지금 성사리 황새목에 서 있다. - 史話 끝 -

상기 사화(史話)를 보면 조현감은 정묘(1867)년에 영산현감으로 도입
하여 경오(1870)년에 백천으로 옮겨갔으니 조현감은 지금부터 157년
전에 영산 현감으로 3-4년 재임하였다.

생몰(生歿) 년대는 알 수 없으나 아들이 진주 목사이니 당시로는 노령
의 현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현감은 세세손손(世世孫孫) 이어온 조세(租稅) 방법을 그대로 이행
하여도 무방할 수 있을 것을 민초(民草)에 대한 지극한 측은지심(惻隱

6) 이속(吏屬)

고려와 조선의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딸려 있던, 일명 서리(胥吏)·이서(吏胥)·이속(吏屬)·
아전(衙前)이라는 하급 관리.

之心)으로 삼세(三稅)를 영산현의 시나리(송진松津)⁷⁾에서 바칠 수 있도록, 몸소 아들인 진주 목사를 찾아가 청하여 선정을 베푼 것이다. 주민들은 현감의 고마운 정을 잊지 못하여 조현감이 백천(白川)으로 이임한 6-7년 후인 “1876(丙子)년에 성사리 주민들은 지금의 남지읍 성사리 황새목에 「縣監趙侯雲漢愛民善政碑」를 세웠다.”는 남지읍지의 기록에 따라 현장을 찾아 조현감 애민선정비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고 오석(烏石)으로 세운 커다란 「靈友親睦會記念碑(영우친목회기념비)⁸⁾만 우뚝 서 있었다.

분명히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다.

영우친목회 기념비 주변 산자락에는 대나무와 닥나무, 아카시아, 찔레나무 등이 무성한 풀숲을 헤집어 보니 그 속에 잡목 사이로 흐릿하게 비의 모습이 보였으나 분명하지 않아 사진 한 장도 담을 수가 없었다.

7) 소나무는 솔나무. 소나무 가지를 솔가지로, 열매는 솔방울로, 세금(稅金)을 시금(稅金) 세곡(稅穀)은 시곡(稅穀) 나루(津)를 나리(津)로 말하는 것이 이 지방의 사투리로, 일제 강점기 한자 지명 정책 이전에는 순우리말 지명으로 불리던 것이 시나리로 지금의 송진(松津)마을 이다. 요강이 마을에 살던 고(故) 신○기 옹은 시나리마을은 세곡(시곡稅穀)을 내고 모아두는 나리(루 津). 즉 시곡(金)을 내는 나리라는 뜻으로 “시나리”라 한다고 하였다. 남지 용산리의 “창나리 마을”은 신라 때 낙동강을 경계로 백제와의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큰 창고가 있는 나루(나리 津)라하여 창나리(倉津)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8) 영우친목기념비(靈友親睦會記念碑)

갑술생(甲戌 1934년생 현재 90세) 동갑 친목계에서 회갑년인 갑술년(1994) 3월 20일 건립한 비로, 비신 전면에 「靈友親睦會記念碑」를 각자하고, 후면에 다음과 같이 쓰고 28명 회원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이회는 유서 깊은 영남들 중부권에 거주하는 갑술 친목 단체로서 오랫동안 뜻을 같이해 오던바 회갑년을 맞이하여 보다 더 우정을 돈독히 함과 아울러 후세에 이르기까지 영원불변의 정의가 계승 유지되도록 여기에 새겨 둔다.

1983년 4월 13일 발족/ 발기인 허판용 권태현 조충제 서락규 김광수 /1994년 3월 20일 갑술년 2월 9일 건립」



남지읍 성사리 530-2번지. 수목에 묻혀 보이지 않는 조운한 현감 애민선정비

아무런 장비도 없이 찾아간 것이라 후일을 기약하고 황새목에 있는 성사기노회 5성당(成士耆老會 五成堂)⁹⁾을 방문하여 마을 원로 어른들을 뵙고 조현감 애민선정비(이하 조현감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다.

성사리 매전 마을 이○우씨를 비롯한 박○규 등 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은, 현재 조현감비는 황새목 마을의 철거된 정미소에서 대성마을로 이어지는 군도(郡道)와 계성천을 건너는 성사교(成士橋)의 삼거리 갈림길 산자락 성사리 530-2에 있으나 수목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남지리 황호영(黃鎬永) 등 갑술친목계 회원들이 1994년 “靈友親睦會記念碑”를

9) 성사기노회 5성당(成士耆老會 五成堂)

성사리는 성사.매전.관동.학암.대성 이렇게 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5개 마을의 노인들로 구성된 기노회 회원들이 모여서 서예 등 다양한 취미 생활과 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다.

세운 이후로 갑술회 회원들이 주변 제초 작업과 청소 등 꾸준히 관리하여 주변이 청결하였으나 갑술 회원들이 대부분 작고하였거나 생존하여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또 후손들 또한 지근(至近)에 없으니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으니 곁에 있는 작은 조현감비는 수목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조현감비는 처음부터 성사리 주민들에 의하여 황새목에 세운 것이 아니고, 남지읍 성사리 마을과 영산면 월령리, 봉암리 등의 주민들 성금으로 작포마을 입구인 영산면 봉암리 240-9번지 산자락에 처음 비를 세웠다고 전한다.

이곳은 영산현에서 창원대도호부나 진주 목으로 가는 대로(大路) 길목으로 영산 현청에서 계성면 봉산리-영산면 봉암리-남지읍 남지리를 거쳐 낙동강을 건너 함안군 칠서면 부목리 도흥나루로 이어지는 대로로 인마(人馬)가 많이 다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정시대를 맞아 영남수리 들녘이 만들어지고 치도(治道)인 국도 5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 길 이 유일한 대로였다.



노항친목회기념비(鷲項親睦會記念碑)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든 조현감비는 토지 소유주의 비이설(碑移設)을 요구함에 따라 1985년 현 위치인 성사리 530-2번지로 이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현감 비를 이설한 성사리 530-2번지에는 “노항친목회

(鷺項親睦會 황새목친목회)¹⁰⁾에서 1957.8.25. 회원 이름을 연서각명(連書刻銘)한 영세불망비(永世不忘紀念碑)인 “노항친목회기념비(鷺項親睦會紀念碑)”가 서 있던 자리였는데, 세월이 흘러 노항친목회 회원들이 작고함에 후손들이 선현들의 유지를 받들어 1985년 가을 황새목 마을에 사우(祠宇) 상덕사(尙德祠)를 창건하여 노항친목회 60명 회원의 위패를 봉안하고 영세불망기념비를 상덕사 안으로 옮김에 빈자리에 조현감 선정비를 봉암리 240-9에서 성사리 530-2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1999.7.25. 남지읍지가 발행될 때는 조현감비는 성사리 530-2번지 있으니까 “성사 주민들이 황새목에 세웠다”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수목 제거 작업



수목 제거 후에 나타난 조현감비

- 10) 노항친목회(鷺項親睦會 황새목친목회)와 상덕사(尙德祠) 남지읍지 P563
 노항친목회 서문을 요약하면, 민족 고유문화의 상징인 도의문화정신을 후진들에게 일깨워주고 이를 유지 보전하려는 의지의 발로로 1952.4.8. 산재(散在)한 정해생(1887.당65세).무인생(1878.당74세).계미생(1883.당69세) 등 21인이 규합하여 노항친목회를 결성하고 1957.8.25. 황새목 다리머리 큰길가(鷺項橋頭 大路邊)에 회원 55인을 연서각명(連書刻銘)하여 약 2m의 화강석의 영세불망기념비(永世不忘紀念碑)를 건립하였다. 세월이 흘러 회원 처연이 작고하심에 후예들이 선현들의 유지를 받들어 1985년 가을 황새목 마을에 와가(瓦家) 3간의 상덕사(尙德祠) 사우(祠宇)를 완공하여 60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금까지 매년 4월 8일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상덕사를 건축하면서 황새목 다리머리 큰길가(鷺項橋頭 大路邊)의 영세불망기념비는 상덕사 안으로 옮겼다.

지인들과 낫과 톱으로 조현감비 주변 초목을 제거하자 3개의 크고 작은 비가 있었다.

조현감 조현감 비는 훼손된 곳은 보이지 않으나 150년의 풍상에 화강암은 많이 부식되었다. 흙 속에 묻힌 4각 하대석(下臺石) 위에 비신을 세워 장방형의 비개석(碑蓋石)을 올려둔 형태로, 비신(碑身)은 높이 97cm 폭 43cm 두께 14cm이며, 비신 밑둥부터 비개석(碑蓋石)상단까지 전체 높이가 120cm다. 비신에 “縣監趙侯雲漢愛民善政碑 丙子八月(현감조후운한애민선정비 병자 8월)”는 글자를 알아볼 정도로 양호하였다.



조현감비 서편에 있는 작은 와비(臥碑)는 지금의 성사교 재건립에 대한 기념비(記念碑)¹¹⁾를 성사리 허판용(許判龍) 주선으로 성사 5개 마을 이장단이 1996.12.에 세운 것이다.



성사교 재건립 “記念碑”

11) 성사교 기념비(記念碑)

일제는 영남수리 제방축조와 함께 영남수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다리를 1926년5월에 두 곳에 만들었는데, 성사리 대성마을과 영남수리로 통행하는 다리를 공영교(共榮橋), 상대포 마을과 상대포 양수장으로 통행하는 다리는 희락교(喜樂橋)라 명명하였는데, '같이 번영하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구호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을 교묘히 위장한 것이다.

희락교는 노후되어 1993.8-1994.9 준공하며 교량 이름도 상대포교로 바꾸었다.

공영교는 노후되어 2011.6.-2013.8. 준공하였다.

지금의 성사교(황새목다리)는 광복후 주민들이 가설한 다리는 노후화로 정부에서 1996년 철거하여 재시공하여 1997.1에 준공한 것이다.

영남수리 준공 당시에는 황새목 다리는 없었고, 계성천을 가로질러 제방을 넘어 영남수리로 출입하다가 8.15 광복즉후(光復即後)에 주민자력으로 만든 황새목다리를 기념하는 비로 전면의 비문은 아래와 같다.

「記 念 碑」

이 다리는 8.15 광복즉후(光復即後) 가설위원장 조인업(趙仁業) 총무 이점상(李点相)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력으로 건립되어 반세기 동안 이용하다가 교량 노후(老朽)로 철거되고 정부지원금으로 신영건설에서 재건립하였다.

1996.12. 성사5개마을 이장단. 주선인 성사 허판용(周旋人 成士 許判龍),

성사교는 1997년 1월 준공하였다.



靈友親睦會記念碑(영우친목회기념비)

기념비 서편의 담장 안에는 2m가 넘는 오석에 “갑술년 1994년 2월 9일(양력1994.3.20) 건립한 “靈友親睦會記念碑(영우친목회기념비)”가 위풍당당한 자태로서 있으나 무상(無常)함을 감출 수 없다. 노항친목회(鷺項親睦會 황새목친목회) 후예(後裔)와 같은 기대(期待)로 세운 비라고 전하건만 급변하는 세파(世波)를 넘지 못하는 것 같다.

영우친목기념비는 월령마을 동편에서 두남마을로 가는 삼거리 산자락 봉암리 428번지에 처음 세워 놓았으나 성사리 허판용(許判龍)등 회원들이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현감조운한애민선정비” 위치도

영산현에서 세곡을 비롯한 삼세(三稅)를 시나리(松津)마을에서 배에 실어 바쳤다고 하는데 시나리 나루터에는 그러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 하여 시나리 나루터를 찾아보았다.



국도5호선 확포장 이전의 계성천(옛 송강)의 위치도

송진마을 앞 낙동강 둔치로 흐르는 지금의 계성천은 화왕산 자락의 옥천 저수지를 거쳐서 계성면 전평-사리마을을 거쳐 장마면과 남지읍을 지나 낙동강으로 들어와 송진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천이 지금의 계성천이다. 용화산하동범지도(龍華山下同泛之圖)¹²⁾를 보면 계성천을 송강

12) 용화산하동범지도(龍華山下同泛之圖)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강 정구선생과 여헌 장현광 선생 일행이 배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 부산 동래온천에 가면서 곽재우 의병장이 거처하는 창암정(滄巖亭)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한강 선생이 창녕과 함안의 선비와 함께 낙동강 700리에서 최고의 절경이라는 용화산 아래 낙동강에 동범(同泛)한 35현인들의 동범을 그림으로 그린 용화산하동범지도(龍華山下同泛之圖) 8쪽 동범도(同泛圖)에 송진 나루가 있는 지금의 계성천이 송강(松江)으로, 지금의 망우정(忘憂亭)이 초기 명칭인 창암정(滄巖亭)으로 표시되어 있다.

詩曰

第八滄巖舍(제팔창암사) 여덟째 창암정사
 德星耀此中(덕성요치중) 덕성이 이 가운데서 빛나네.
 蘭舟將欲發(란주장욕발) 아름다운 배가 출발하려하니
 携手主人翁(휴수주인옹) 주인옹이 손을 끌어 태우네
 右蒼巖同舟(우창암동주) 우는 창암정사에서 배를 타는 모습
 *덕성(德星) : 한강을 지칭한다.

(松江)으로 기록하고 있다.



송진삼거리의 조운(漕運)하는 배를 정박하던 “시나리 나루터”

시나리의 송진삼거리는 남지와 영산 그리고 길곡으로 나누어지는 삼거리로 중앙에 작은 섬터가 있는데, 이곳은 70년대 초까지 2가구가 살았으나 남지를 통과하던 국도5호 선형이 지금과 같이 도천면-칠서면 이릉-칠원으로 변경되면서 지역 주민이 우강2구 법사지 나들목으로 진출입하기가 용이하게 송진3거리에서 요갱이 마을로 이어진 낙동강 제방위로 일방통행 차도(車道 지방도 1022호)를 만들면서 한 채 남은 가옥(송진리553-7)도 철거하였다.

마을 원로들에 따르면 이 마을 대부분이 세곡을 쌓아두는 조창(漕倉.漕運倉)¹³⁾이 있었으며 왜정시대부터 해방 후까지 큰 조창에는 목화를 저장

13) 조창(漕倉.漕運倉)

조창(漕倉)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경창(京倉 서울 한강가에 있던 각종 관곡(官穀) 창고)으로 조운(漕運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를)할 곡식(穀食)과 포백(布帛 베와 비단)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조창의 기능은 크게 세곡의 수납·보관·운송의 세 가지였으며, 조운창이라고도 불렀다. 19세기 이후 조세의 금납화(金納化)가 일반화되면서 세곡 운송의 필요성은 더욱 감소하여 19세기 말이 되면 조운제도의 폐지와 함께 전국의 남은 조창 역시 그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하였다고 한다.

조창이 있는 토지(土地)는 국세청 소유였는데 해방과 함께 개인 앞으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일부 공유지는 국세청이 있다고 하여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일부 발급해보니 송진리553-7과 송진리553-12 등은 제정경제부(국세청)로 등제되어 있었고 관음사(觀音寺) 뒤편 산도 국유지다.

국세청 토지가 있다는 것은 조창이 있었다는 것이고 조창이 있다는 것은 세곡을 시나리에서 바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조현감의 애민선정(愛民善政)이 얼마나 지극하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으며, 조창이 만들어지므로 마을 이름도 시나리(稅津)로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현감의 이러한 선정을 잊지 않고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하여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암석(巖石)에 각자(刻字)하여 길목에 불망비(不忘碑)를 세운 선현(先賢)들의 정성에 감읍(感泣)할 따름이다.

옛날에는 낙동강 본류가 시나리 앞으로 흘러 조운선(漕運船)이 정박할 수 있을 만큼 수심이 깊어 남지 웃개나루 지암담(地巖潭)에 사는 이 무기(이십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여기 와서 살았다고 기록에 전한다.


지금은 낙동강이 송진 나루에서 까마득하게 멀리 있고, 송강(松江 계성천)도 나루와는 거리가 멀어서 배를 나루에 정박할 수가 없는 형상이나 1986년대까지는 지금의 계성천은 남지 입구 남송교에서 낙동강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시나리 마을에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송진마을 앞 도로에 붙어서 관음사 절벽 밑으로 흘러서 요갱이 마을의 창암에서 낙동강 본류에 합수되었다.

시나리 마을 앞 강변에는 1986년대까지 방풍방사림(防風防沙林)으로 자라고 있는 낙락장송(落落長松)이 국도5호선을 따라 듦성듦성 있었으며 그 가운데 오두막이 한 채 있었다.

낙동강의 물길이 본류는 남쪽 함안군 쪽으로 치우쳐 건기에는 강바닥이 말라 있으나 홍수나 장마기에는 마을 앞 도로까지 강물이 흘렀으나 낙동강 상류에 안동댐, 임하댐, 황강댐, 남강댐 등 많은 댐이 건설되어 홍수가 조절되면서 지금은 송진삼거리 앞까지 강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86년 88올림픽을 앞두고 비포장 국도 5호선을 법정 2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나리 앞의 국도에 붙어 있는 계성천을 지금의 위치로 변경하고 강변을 폐워 도로를 넓혀 지금의 선형으로 변경되었다.

기록을 따라 조현감 애민선정비를 찾아보고 시나리의 조창까지 답사하며 확인해 보았다. 조현감의 애민선정비가 방치되어 수초에 묻혀 잊혀지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민관이 합심하여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이어지기를 희망해본다.


*별첨 : 등기부와 토지대장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

고유번호: 1951-1996-479727



[토지]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 송진리 553-7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권 3)	1994년9월1일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 송진리 553-7	대	591㎡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8월 11일 전산이기
2	2006년10월9일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 송진리 553-7	대	230㎡	분할로 인하여 대 301㎡를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 송진리 553-12에 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집 수	등기원인	권리관 및 기타사항	
1 (권 1)	소유권이전	1976년2월4일 제523호	1948년9월11일 관리귀속	소유자 국 관리청 국세청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8월 11일 전산이기	
1-1	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2006년10월9일 제18781호	1976년12월31일 국유재산법부칙 제3조	국세청의 청명(명칭) 재정경제부 등록번호 221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9520219501193121010964011CWC0797625NOH12758021122 발급확인번호 ATNW-MIAL-7273 발행일 2023/12/01

1/2

문서확인번호 : 1701-4145-3540-4117

2023.12.01 16:08:57 (토지등록번호)

1/1

고유번호	4874040028-10553-0007	토지 대장	도면번호	13	발급번호	202348740-00369-1535
토지소재	경상남도 창원군 도선면 송진리		장 번호	1-1	처리시각	15시 59분 04초
지번	553-7		속적	1:1200	발급자	인터넷민원

토지 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230*	(20) 2005년 05월 13일 분할하여 분번에 -12를 부합	2005년 10월 09일 (05)상명(명칭)변경	국(재정경제부) --- 이하 여백 ---	221
		--- 이하 여백 ---			

등기수정 년월일	1984. 07. 01. 수정	1991. 01. 01. 수정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기)	93	105							
개발공시지가(준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발공시지가(원/㎡)	54100	57200	57600	61400	22400	27500	257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3년 12월 1일

경상남도 창원군수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와 인터넷발급문서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에도 전자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4874040028-10553-0012

토지소재 경상남도 창원군 도선면 송진리

지번 553-12

속적 1:1200

토지 대장

도면번호 13

발급번호 20231201-202348740003691530-1

장 번호 1 - 1

처리시각 16시 29분 16초

발급자 김나영

토지 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301*	(21)2005년15월13일 553-7번에서 분할	1976년12월4일 (03)소유권이전	국(국세청)	255
		--- 이하 여백 ---	2006년11월28일 (05)상명(명칭)변경	국(재정경제부) --- 이하 여백 ---	221

등기수정 년월일									
토지등기 (기준수확량등기)									
개발공시지가(준일)	2019년1월1일	2020년1월1일	2021년1월1일	2022년1월1일	2023년1월1일			용도지역 등	
개발공시지가(원/㎡)	57,600	61,400	22,400	27,500	25,7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3년 12월 01일

경상남도 창원군수

수인 500 원
2023.12.01
창녕군 7001

[202354100330008357-#404-16:29:45-01001]

취취(翠翠)의 기다림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환갑을 맞이한 여행의 마지막 장소가 중국 호남성의 다동(茶洞)이다. 다동은 심중문의 소설 「변성(邊城)」의 무대이기도 하다. 변성은 20세기 중국소설 100선 중 노신(魯迅)의 소설 「눌함(訥喊)」다음으로 유명한 소설이다. 우리 일행이 묵을 유연거객잔(悠然居客棧)은 목조건물로 되어 있다. 입구에는 실물처럼 생긴 누렁이가 맞아준다. 삐걱거리는 나무계단을 올라 객실로 들어서니 침실위에 원어로 되어있는 소설 「변성」이 놓여 있었다. 객잔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주인장의 배려이다. 책을 보는 순간 작가가 나와 같은 성이기도 하지만 내용도 궁금해서 꼭 읽어 보고 싶은 마음에 귀국 후 번역본을 구입해서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누렁이와 한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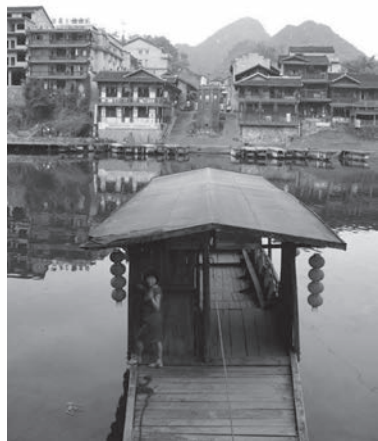


객잔에 놓여있는 소설: 변성

작은 강이 흘러가는 강가에는 제법 큼직한 흰 탑이 세워져 있고, 그 탑 아래 외딴 인가가 있는데, 그 집에는 노인과 노인의 손녀 취취(翠翠), 그리고 누렁이가 함께 살고 있다. 노인은 이 강에서 나룻배를 끄는 라라두(拉拉渡) 뱃사공이다.

이 나루는 관청의 소유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샅을 내지 않아도 된다. 노인은 관청으로부터 식량을 타 먹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다. 배를 타는 손님들이 미안한 마음에 몰래 돈을 두고 가면 노인은 뒤 쫓아가서 돈을 돌려주는 따뜻한 장면이 연출된다. 이웃 마을에는 순순(順順)이라는 부두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순은 겨우 선 살이지만 소탈하고 정직하며 온화한데다 재물을 아끼지 않아 마을사람 누구도 그가 하는 일에 흠잡지 않는다. 그에게는 천보(天保)와 나송(灘送)이라는 두 아들이 있다. 단오 축제를 계기로 두 형제는 동시에 취취를 사랑하게 되는데 취취는 둘째 아들 나송을 더 좋아한다.

뱃사공 노인의 제안으로 두 형제는 노래 부르기 시합을 통해 구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큰 아들 천보가 졌고 그는 낙담하여 배를 타다 사고로 죽었다. 이를 알게 된 순순은 뱃사공 노인에 대한 오해로 냉랭하게 대하였고 둘째 아들을 산촌 방앗간 집 딸과 결혼시키려 했다. 이에 나송은 아버지와 다투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사공 노인이 죽게 되고 순순은 오해가 풀어지면서 취취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홀로 된 취취는 나송이 돌아오면 순순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나루터에서 사공 일을 하며 나송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지금도 취취는 나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룻배와 라라두



라라두를 당기는 뱃사공

심종문(선충원)의 소설 「변성」중 노인과 종이장수가 실랑이하는 대목이 있다. 전국시대 신화지리서에 나오는 이상국가인 군자국(君子國)사람들이 “양보를 좋아 한다”는 이야기에서 기인한다. 받을 수 없다고 고집하는 뱃사공과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종이장수 결국에는 동전 한 움큼을 던져놓고 바삐 걸어간다. 줄을 잡고 다른 손님 내리는 것을 도우는 탓에 둔덕에 있는 손녀에게 사내가 못 가게 잡으라고 하자 손녀가 가로 막고 강아지까지 멍멍 짖어댄다. 잠시 후 혈레벌떡 숨이 차서 뛰어온 뱃사공은 종이장수 손에 동전을 쥐어주고 그의 붓짐 속에 잎담배 한 다발을 넣어준 후 웃으며 ”자 이제가도 되오 어서 떠나슈!” 하며 보낸다. 이 작품은 문체가 소박하고 아름다우며, 전체 서사에서 따듯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신화적이면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변성」은 21장(章)으로 된 중편소설이다. 한 장 한 장이 서정적인 시와 스물 한 폭의 그림으로 연결된 그림책을 연상하게 한다. 작가가 중국의 소수민족인 묘족 혈통이라 그런지 묘족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다.

함께 한 도반들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작은 마을의 객잔에 여장을 풀고, 강가를 따라 걸어본다. 강의 양쪽 기슭은 높은 산으로 둘러져 있고 이름은 백하(白河)로 불린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길이나 되는 호수와 맑은 물로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고 투명하고 한 낮에 햇살이 비추면 호수 바닥의 흰 자갈과 무늬 있는 자갈마저 또렷이 보인다고 인솔자가 전한다.

이곳은 물이 그다지 맑아 보이지는 않고 약간 흐리다. 그 이유는 강가에 저녁을 짓기 위해 쌀을 씻는 사람 아래쪽에는 빨래하는 처녀들을 볼 수 있다. 강변을 따라 걷다가 묘족의 밀주를 파는 곳이 있어 한 통을 구입을 했다. 대나무 테를 두른 나무 술통이다. 다시 걸어 나루에 도착한다. 뱃머리가 네모 난 나룻배 한 척이 있다. 강의 양쪽 기슭에 큰 나무와 나무 기둥에 철사로 엮은 줄이 매어져 있고 뱃머리에 쇠고리가 매달려 흔들 거리고 있다.

강을 건너려면 쇠고리를 줄에 걸고 사공이 그 밧줄을 당기면서 천천히 맞은 편 기슭으로 배를 끌고 간다. 예전에는 철사 줄 대신 대나무를 비비 꼬아 연결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탄 배가 소설 속에 나오는 라라두이다.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니 소설 속의 여주인공 취취는 강 하류를 바라보고 외로이 서 있다. 다시 배를 타고 숙소로 되돌아온다.





강하류를 바라보고 있는 취취상

유연거객잔의 주인은 북경사람인데 몇 년 전 이곳으로 와 객잔을 열었다고 한다. 여유롭고 지적이며 친절하면서도 예의바르다. 소설에 나오는 순순을 연상하게 한다. 객잔의 시설도 5성급호텔 못지않다. 객실은 정갈하고 아늑하다. 탁자에는 소설「변성」이 놓여있고 벽면에는 묘족의 전통복장을 한 여인들을 그려 넣은 나무 액자가 걸려 있다. 베란다에는 나무로 만든 안락의자가 인상적이다. 중국을 제법 많이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운치 있고 포근한 곳은 처음이다.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



베란다에 있는 나무의자



묘족 전통복장의 여인

저녁 식사 후 주인장의 안내로 3층 전망대로 올라갔다. 낮에 구입한 묘족의 전통 밀주로 다동의 야경과 함께한 도반들의 지난날 연애사를 안주 삼아 취기에 흠뻑 젖었다. 예전과 달라 환갑이라 해도 환갑잔치도 안하지만 그대로 넘기기 아쉬워 오게 된 여행이다.

늦은 밤까지 젊은 시절을 떠 올리며 추억에 잠겼다. 이른 새벽 배란다 의자에 기대어 강을 바라본다. 강바닥에 앞산 그림자가 잠겨있다. 이내 산등성이에는 여름 내내 감추고 있다가 가을이오면 고운 붉은빛을 펼쳐 내는 단풍처럼 붉은 태양이 불쑥 솟아오른다.

가슴 속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어찌면 내일 바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을 추억하게 만드는 여백을 남겨두면서 나의 인생2막도 취취의 기다림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순간의 사진처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



다동의 야경



함께한 일행과 한 컷

회원동정 및 수상소식

- ◇ 창녕문화원 '유영숙 향토사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의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 ◇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24회 황우문화상 수상
- ◇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한국문화원 연합회 고문 선임
- ◇ 창녕문화원 회원 '권춘석' 제3회 일본 색소폰 경연대회 대상 수상
- ◇ 제33회 창녕군민대상 수상(조정환 / 신용태 / 성위경)
- ◇ 창녕문화원 회원 '신영옥' 제31회 구암대상 전국 시조 경창대회 대상부 장원 수상
- ◇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제10회 합천 대야성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 ◇ 창녕문화원 회원 '글길 문경주' 제4회 신정문학상 전체 대상 수상
- ◇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불교문화해설사 1급 자격 취득/ tvn 방송 출연
- ◇ 제2회 경남도민 문화의달 문화한마당
- ◇ '창녕 부곡가마골풍물단' 제15회 경남도지사기 어르신농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 창녕문화원 회원 '이순미'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파크골프 여자 1위
- ◇ 향토사연구소 '노용호 연구위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인물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 창녕시무구지놀이 제42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
- ◇ 창녕문화원 사진 동아리 전시회(사진: 픽셀에서 추상까지 그림을 탐하다.)

창녕문화원 '유영숙 향토사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 일 시 : 2024. 1. 12. (금)
- 장 소 : 경남도청대회의실
- 주 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 연수원장)’ 제24회 황우문화상 수상!



- 일 시 : 2024. 2. 23. (금)
- 수 상 :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수상자격)

군민 또는 출향인사로써 덕망있고 문화창달에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 또는 단체

공적 내용

1988년부터 32년간 창녕문화원 이사로 활약해 왔으며, 201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12년간 창녕문화원 제22대, 제23대, 제24대 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재임기간 동안 한국문화원 231개 문화원을 아우르는 사업추진본부장과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 3선,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 3선을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등을 중점 추진하시면서 문화원 위상을 높이고 창녕문화발전에 기여.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
연수원장)’, 한국문화원 연합회 고문 선임



•선임 일자 : 2024. 4. 2.(화)

창녕문화원 회원 ‘권춘석’
제3회 일본 색소폰 경연대회 대상 수상!



- 일 시: 2024. 2. 16. (금)
- 주 최: 국제색소폰문화예술총연합회

제33회 창녕군민대상 수상!



- 일 시 : 2024. 4. 3. (수)
- 장 소 : 군민의 날 기념식장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수 상 :
 1. 봉사부문 - 조정한 (회원/ 의정동우회 회장)
 2. 산업부문 - 신용태 (시우회 회장/ 신돈사상 회장)
 3. 교육문화 부문 - 성위경 (이사/ 물계서원 이사장)

창녕문화가족 군민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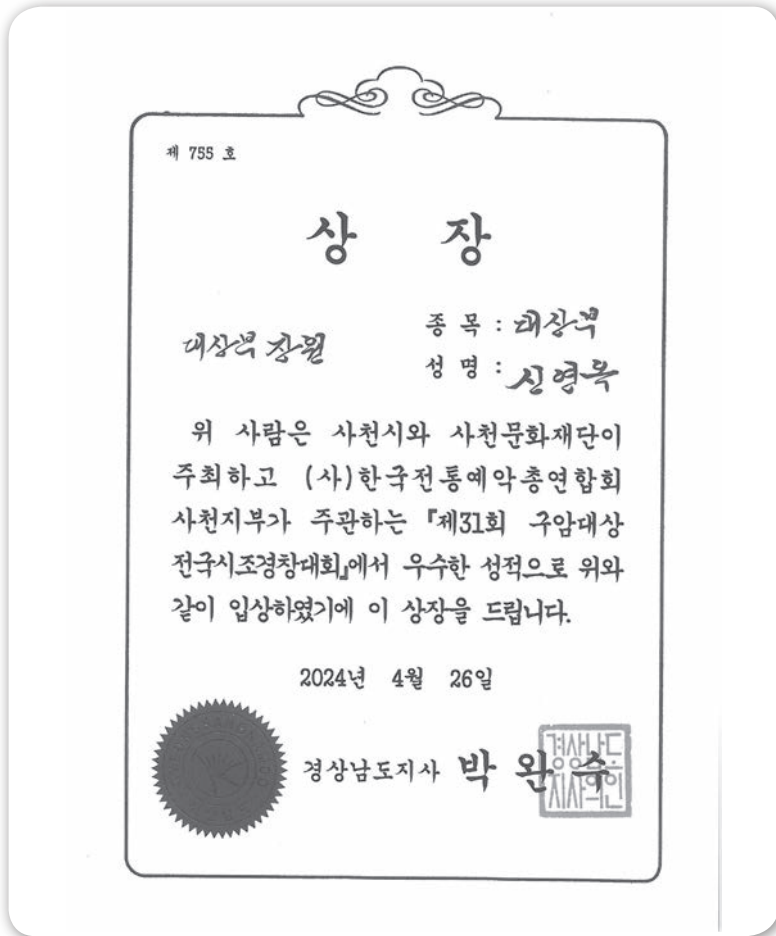
1. 수상 대상자

부분	수상 대상자	
	성명	주요경력
봉사	조정한	• 창녕문화원 회장 • 창녕군의회 제2, 4대 의원 • 창녕군(이)청동우회 회장
산업	신용태	• 창녕문화원 부설 시우회 회장 • 창신학교 전교 • 지역명농협인 창녕농산성립 • 시우회(시우)연합회(시우)회 설립 회장
교육문화	성위경	• 창녕문화원 이사 • 물계서원 이사장 • 창녕신문 자문위원 • 우물물 72면 물관정립 발간 편집위원

2. 시상 일: 2024. 4. 3. (수)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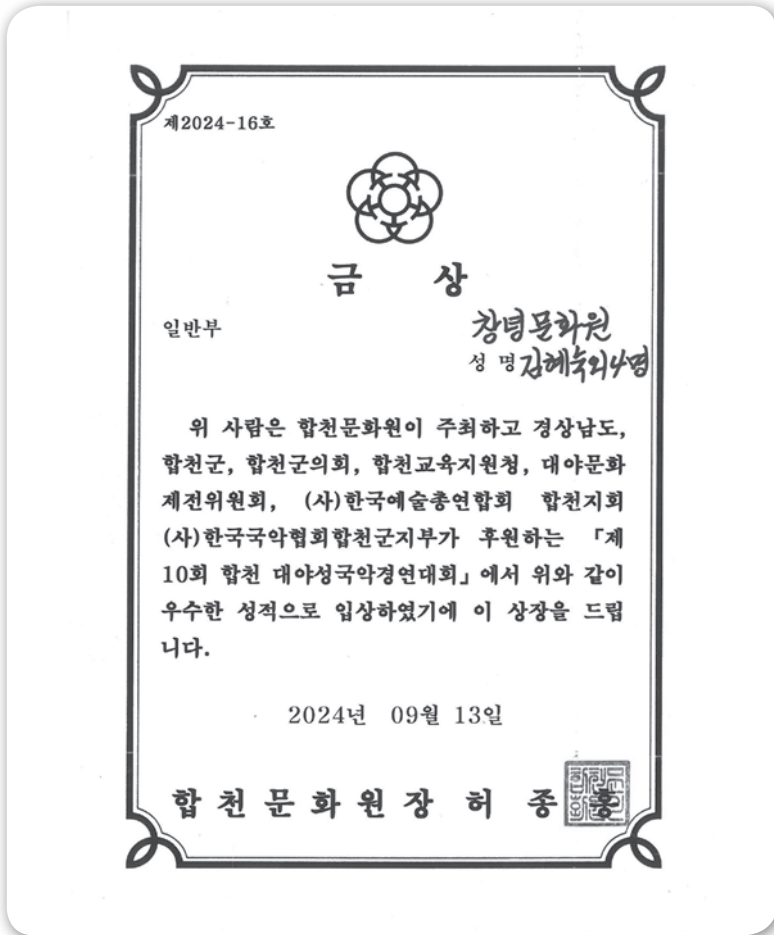
3. 시상 장소: 제31회 군민제날 기념식장(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창녕문화원 회원 '신영옥' 제31회 구암대상
전국 시조 경창대회 대상부 장원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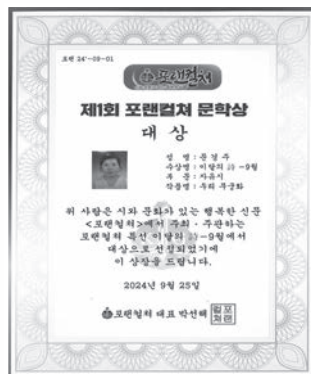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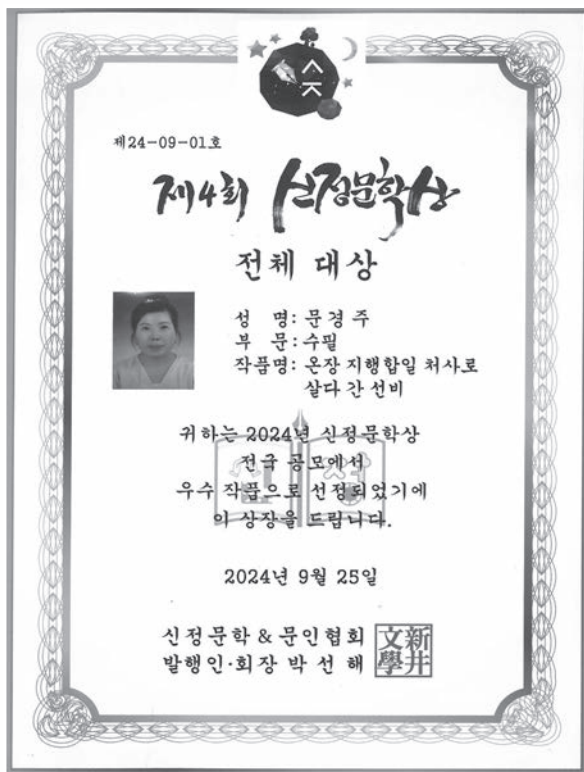
- 일 시 : 2024. 4. 26. (금)
- 주 최 : (사)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사천지부
- 수 상 : 신영옥 회원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제10회 합천 대야성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 일시 : 2024. 9. 13. (금)
- 주최 : 합천문화원
- 수상 : 한국무용 디딤새 동아리

창녕문화원 회원 '글길 문경주' 제4회 신정문학상 전체 대상 수상!



- 일 시 : 2024. 9. 25. (수)
- 부 문 : 수필
- 작품명 : 온장 지행합일 처사로 살다간 선비
 - 전국 시화전 “첫눈에 반한 봄”에서 경의상 부문에 선정
 - 제1회 포랜걸쳐 문학상 대상 수상
 - 제5회 포랜다큐 영상 공모제 금상 수상
 - 제2회 봉황대 마타리꽃 문학상 대상 수상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불교문화 해설사 1급 자격 취득/ tvn 방송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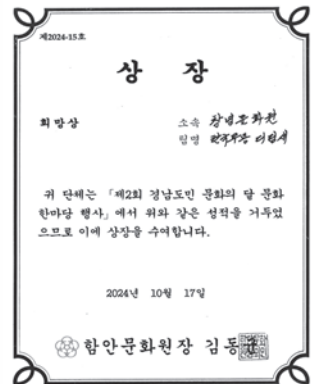


- 방송제목: tvn해썹가이즈 (BTS진, 차태현, 이이경 등 출연)
- 방송일시: 2024. 12. 8. (일) 19:40
- 출 연: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 내 용: 창녕 관룡사 해설

제2회 경남도민 문화의 달 문화한마당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문화예술발전 공로상 수상!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희망상 수상



‘창녕 부곡가마골 풍물단’ 제15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일 시 : 2024. 10. 25. (금)
- 장 소 : 밀양 남천강 고수부지
- 참가단 : 경남 시·군 문화원 18개팀
- 인 원 : 800명
- 참 여 : 부곡 가마골 풍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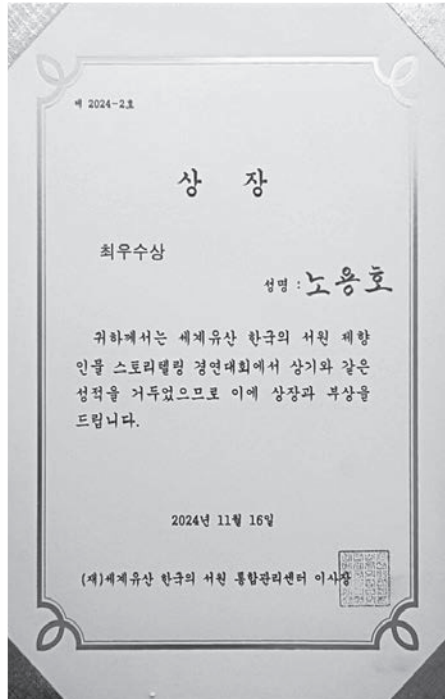
부곡가마골풍물단이 밀양 강변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15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경남 각 지역의 특색있는 농악을 알리고, 도민들이 농악을 통해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된다. 창녕군 대표로 출전한 부곡가마골풍물단은 김종목 단장 등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함안 화천농악을 바탕으로 흥과 멋이 어우러진 풍물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녕문화원 회원 '이순미'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파크골프 여자 개인 1위



- 일 시 : 2024. 11. 2. (토)
- 장 소 : 함안 군북 파크골프장

향토사연구소 ‘노용호 연구위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인물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일 시 : 2024. 11. 16. (토)
- 주 최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내 용 : 기후 위기 시대의 퇴계선생 이야기

창녕시무구지놀이 제42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



- 일 시 : 2024. 11. 19. (화)
- 장 소 : 함안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
- 참 가 : 시무구지 놀이
- 시 연 : 구계목도(우승팀)
- 특 징 : 시무구지는 창녕에서 두레를 일컫는 토착말이다. 시무구지놀이는 농민이
가 번성하던 시절에 세벌논매기를 마치고 큰머슴을 소등에 거꾸로 태우
고 샷갓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굿물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노는 놀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느린 ‘오호 쉬이여’ 빠른 장단에 부
르는 ‘오혜야 쉬쉬야’가 무덥고 힘든 농사일을 집단적 신명으로 풀어냈다.
큰머슴을 소등에 거꾸로 태우고 노는 곳을 꿩이말 탄다고 하는데 이때 부
르는 소리가 칭칭이 소리로 창녕 특유의 가사와 소리가 특징적이다.
- 짜임새 : 시무구지 놀이는 총 7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당산굿마당 ▶ 서낭대놀いま당-보리타작마당 ▶ 모정자마당 ▶
논매기마당 ▶ 북놀いま당 ▶ 시무구지놀いま당

창녕문화원 사진 동아리 전시회

사진: 픽셀에서 추상까지 그림을 탐하다.



- 일 시 : 2024. 11. 22. ~ 11. 27.
- 장 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창녕을 빛낸 사건

◇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천혜의 보고인 우포늪과 100대 명산 화왕산을 중심으로 한 유네스코 창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청정한 국제 명품 생태관광 도시로서의 가치 향상 기대

- 지정대상 :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구역으로 한 창녕군 전 지역
- 지정주체 : 유네스코 MAB(Man and Biosphere: 인간과 생물권) 국제조정이사회
- 지정일 : 2024. 7. 5.(금)
- 장 소 : 모로코 아가디르
- 지정 및 관리
 -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지정 관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 **내용** :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높고 인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호지역

■ **국내지정현황** : 10개소

-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완도, 창녕

- ▶ **규제관련** :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규제사항 및 행위제한 일절 없음
→ 10년마다 재갱신
- ▶ **국내 지정 10개소 중 우리 군 포함 6개 지자체 (제주도, 신안, 고창, 순천, 완도, 창녕)가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2025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일시	사업명	장소	내용
1월	제1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2월	을사년 설 합동 세배회	본관 3층 대강당	기관 및 사회단체장, 문화원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등 250여명. 1부- 합동 세배회 2부(웃놀이 13개 단체참여)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강사 모집	문화원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A·B), 난타, 댄스스포츠, 사진, 건강체조, 시조창, 기공, 웨비로즈, 파크골프 등
	제2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72차 창녕문화원 정기총회	본관 3층 대강당	문화원 회원 및 기관단체 참석 400여명
	문화나눔 공연	관내	부설단체 참여
3월	문화학교 개강식	별관 2층 강당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시조창, 기공, 웨비로즈, 사진, 파크골프 등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부설단체 및 분원장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부설단체장, 분원장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4월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국내유적지	전 회원 대상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5월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해외 문화 교류 참여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 예능제(5.23)
6월	202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경남지역 오디션	경남문화원연합회	부설단체 참여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역축제 및 한마음대회	관내	부설단체 참여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일시	사업명	장 소	내 용
7월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제3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8월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9월	202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본선참가	서울	경남오디션 본선 진출팀
	2024 실버문화페스티벌 참가	서울 어린이대공원 특설무대	부설단체 2팀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대회 참가	미정	참가 농악팀, 임원 및 향토사연구위원 참여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10월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전 회원 대상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비사별 문화제 동아리 참여	젊음의 광장	색소폰, 민요, 난타,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시조창 참여
	제4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3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향토사 연구위원 워크숍	미정	임원 및 연구위원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11월	제19회 경남도지사배 경상도사투리 말하기 대회	경남문화원연합회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문화 나눔 봉사공연	관내	부설단체 참여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시조창, 건강체조 등)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12월	제5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제45호 창녕문화 발행	우편발송	전 회원 및 기관단체
	창녕문화원 “문화의 날” 행사	본관 3층 대강당	부설단체 공연 회원 300여명 참석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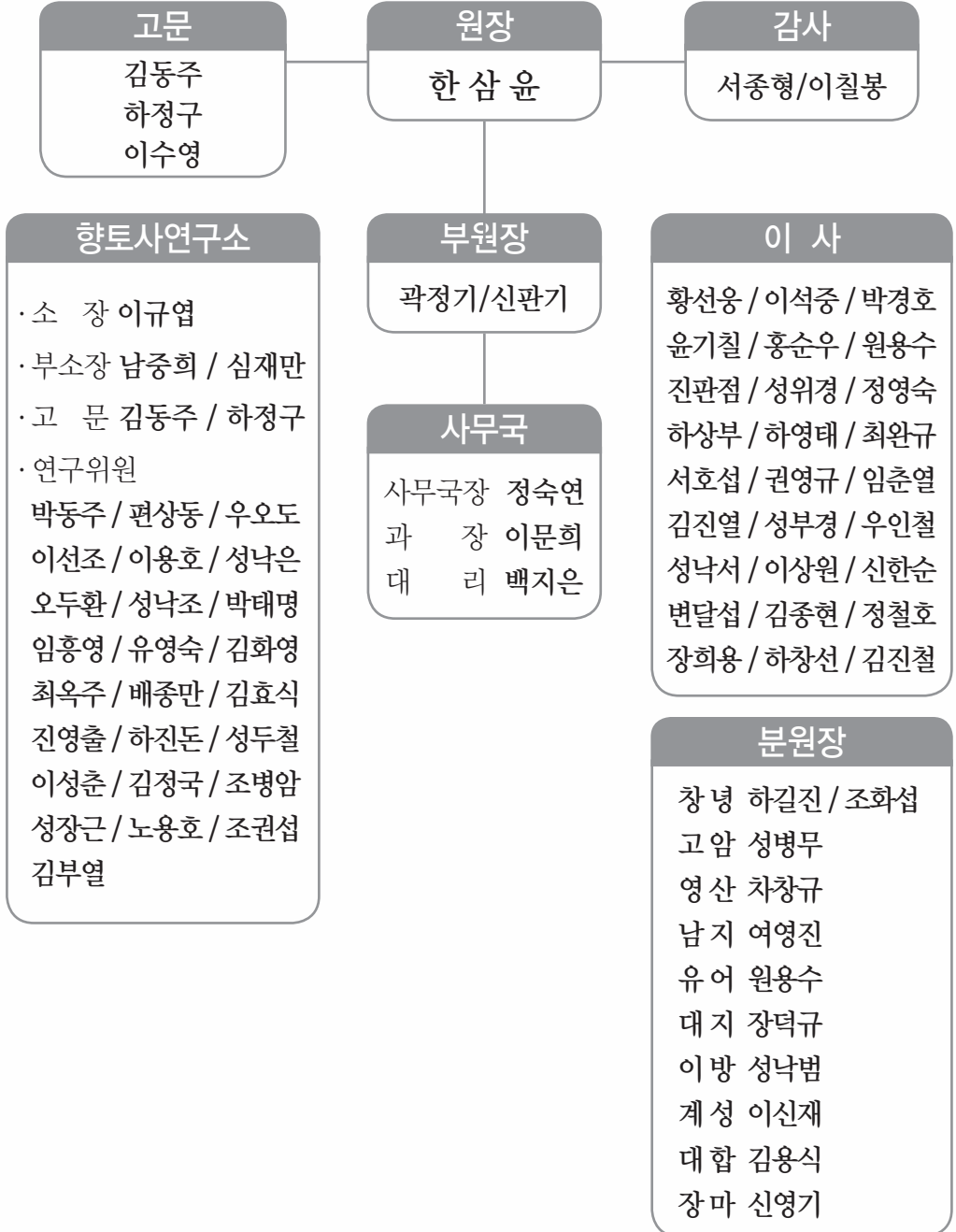
연번	강좌명	요일	시간	장소
1	기공	월	10시 - 12시	별관
2	바둑	월	10시 - 12시	별관
3	요가	월	19시 - 21시	별관
4	색소폰(중급)	화	10시 - 12시	별관
5	시조창	화	10시 - 12시	별관
6	서예	화	10시 - 12시	별관
7	건강체조	수	10시 - 12시	별관
8	한문	수	10시 - 12시	별관
9	댄스스포츠	수	19시 - 21시	별관
10	색소폰(초급)	목	10시 - 12시	별관
11	판소리와 남도민요	목	14시 - 16시	별관
12	사진	목	19시 - 21시	별관
13	한국무용	수	14시 - 16시	별관
14	쉐비로즈	금	10시 - 12시	별관
15	난타	금	19시 - 21시	별관
16	파크골프	일		
17	인문학 특강	수시 모집	14시 - 16시	별관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수강신청

- 모집기간 : 2025. 2. 3 ~ 2. 20
- 수강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개 강 : 3월 (예정)
- 개설과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사무국 533-3777 / 532-6663

창녕문화원 조직도



창녕문화원 부설단체(동아리) 현황

부 설 단 체	직 책	회 장	회원수
향토사연구소	소장	이규엽	30
우리 유산 찾기 문화탐방	회장	심재만	72
파크골프 (울타리파크회)	회장	이용호	22
시조창	회장	신용태	26
요 가	회장	이인자	48
서 예	회장	신한순	20
색소폰(중급)	회장	전종길	21
색소폰(초급)	회장	김일식	36
건강 체조	회장	이순미	45
댄스스포츠	회장	박순덕	31
한 문	회장	양창석	22
민 요	회장	이순선	26
한국무용	회장	김혜숙	15
난 타	회장	성경숙	25
바 독	회장	성낙은	29
사 진	회장	김희수	15
수석회	회장	하진돈	28
쉐비로즈	회장	송향희	18
기 공	회장	오두환	29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 창녕문화 책자에 게재할 원고를 기다립니다.

창녕문화원이 매년 1회 발행하는 책자로 시, 수필, 여행기, 독후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 및 기사 보내실 곳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 길 10
 - 전화 : 055)533-3777 / 532-6663
 - 팩스 : 055)533-3775
 - E-mail : cc635cn@hanmail.net
 - www.cnccenter.co.kr
- 

昌寧文化 제44호

2024년 12월 인쇄

2024년 12월 발행

| 발행처 | 창녕문화원

| 발행인 | 원장 한삼윤

| 편집인 | 창녕문화편집위원회

| 제 작 | 도서출판 일성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9

E-mail ilsungpr@hanmail.net

昌寧文化院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길 10

Tel 055.533.3777 Fax 055.533.3775

E-mail cc635cn@hanmail.net

본 책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비매품>

— 〈 표지 사진 설명 〉 —

• 표지 전면 / 후면 공히

2024. 7. 5.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핵심구역인 우포늪과 화왕산을 상징적으로 표현

2024

昌寧文化

제44호



창녕문화원



창녕문화원 원훈(slogan)

더 아름답게!
(法 / 古 / 創 / 新)

- 1. 나누자(大) [건강/일깨움]
- 1. 받들자(明) [사랑/복돋움]
- 1. 누리자(充) [행복/꽃피움]






‘아름다움’이란 ‘나다움’이다

아름다움 → ‘문화(文化)’의 다른 이름

-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 하는 것
 -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
- 나다움, 자기다움, 나누고, 받들고, 누리는 것.
- 비웠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텅 빈 충만)
 - ‘개체’로서 ‘전체’를 인식하며 살아감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나누자(大) ⇨ 건강(배려)

- * 나누면 적어지는게 아니라 크게(大) 된다.
 - * ‘나(我)를 내려놓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이다.
 - * 집착을 놓고 배려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 * ‘불취심(不取心 / 취하지 않는 마음)’이다.
 - *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는다.
 - * 상대보다 나에게 더 이롭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리(自利)의 마음’이다.
- 

받들자(明) ⇒ 사랑(존중)

- * 받아들여서 받들면 밝아(明)진다.
- * 상대를 존중하고 보듬는 ‘사랑하는 마음’이다.
- * ‘불사심(不捨心 / 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 * ‘발고여락(拔苦與樂)’이다.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함께한다.
- * 상대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타(利他)의 마음’이다.
- ※ 사랑은 「나」와 「상대」, 「나눔」과 「누림」,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자양분이다.

누리자(充) ⇒ 행복(조화)

- * 누리면 마음이 보름달처럼 늘 충만(充)해진다.
 - 행복은 미래의 희망이 아닌 현재의 선택이다.
- * ‘불식심(不息心 / 늘 좋은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마음)’이면서, ‘원력심(願力心 / 모두를 잘 되게 하는 마음)’이다.
- * 법희선열(法喜禪悅)이다.
 - 세상의 이치(진리)를 깨닫는 데서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다.
- *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우,
모두에게 좋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이다.





《 문예중흥선언문 》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 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 속에 꽃피우고 우리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년 10월 20일





《 문화비전선언문 》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CONTENTS 차례

❁ 창녕문화원 원훈

❁ 문예중흥선언문

❁ 문화비전선언문

❁ 발간사

- 창녕문화원장_한삼윤..... 012

❁ 축사

- 창녕군수_성낙인..... 014
- 창녕군 의회 의장_홍성두..... 015
- 창녕경찰서장_오경용..... 016
-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_이경희..... 017

❁ 2024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019

❁ 좋은 생각 / 좋은 글 / 좋은 사진

- 용과 인간_김동주..... 064
- 교육과 저출산과의 상관관계_곽정기..... 082
- 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_진태홍..... 095
- 스승의 은혜_진태홍..... 098
- 흐끄뜨레한 새벽 미풍이 부는 날 마타리 꽃을 피우리라_문경주..... 100
- 역사왜곡에 대한 소고 - 건국전쟁과 사육신_김진열..... 109
- 나만의 행복한 인생 꿈_진영출..... 113
- 을사년 새해를 바라보며_유영숙..... 118



- 충의의 표상 백이(伯夷)와 숙제(叔齊)_이복순 120
- 許交와 許與_성두철 129
- 기후 위기 시대의 퇴계선생 이야기_노용호 134
- 우리 문화원에서 피워낸 꽃_주영숙 140
-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_염옥현 142
- 세계속의 우포늪 위상_성득용 148
- 구채구의 물_박태명 151
- 전통신발 만드는 방법_한판철 160

❁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 창녕 진만석 영세불망비_창녕문화원 170
- 고구려 남정에 대한 가야사의 미스터리_남중희 172
- 추운 시절의 그림, 세한도 감상하기_남용우 176

❁ 시와 한시 / 서예 작품

- 도동 아리랑_김희덕 198
- 햇불 밝힌 청룡_신익교 200
- 송출선원_신익교 201
- 창녕문화원 수덕사 예당호 탐방_하재훈 202
- 토평천 세레나데_염옥현 203
- 모란_이우걸 204
- 월영대_공병찬 205
- 서예작품_ 우당 하인종/ 석호 하명술/ 청아 사공순/ 덕산 신한순/보라 이봉임/ 고야 최상교/
정암 남이우/ 지우 이호일/ 창암 김영수/ 유당 곽병윤/ 우만 성태기 206



CONTENTS • 차례

❁ 역사문화 및 여행기

- 우리 유산 찾기 탐방 기행문_이규엽 214
- 수덕사로 가는 길 부처님 연가 마음에 담다 _문경주 220
- 현감조후운한애민선정비 답사기_박태명 243
- 취취의 기다림_심재만..... 259

❁ 회원동정 및 수상소식

- 창녕문화원 ‘유영숙 향토사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 협의회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266
-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24회 황우 문화상 수상 267
-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한국문화원 연합회 고문 선임 268
- 창녕문화원 회원 ‘권춘석’ 제3회 일본 색소폰 경연대회 대상 수상 269
- 제33회 창녕군민대상 수상(조정한 / 신용태 / 성위경) 270
- 창녕문화원 회원 ‘신영옥’ 제31회 구암대상 전국 시조 경창대회 대상부 장원 수상 271
-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제10회 합천 대야성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272
- 창녕문화원 회원 ‘글길 문경주’ 제4회 신정문학상 전체 대상 수상 273
-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불교문화해설사 1급 자격 취득/ tvn 방송 출연 274



- 제2회 경남도민 문화의달 문화한마당..... 275
 -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문화예술발전 공로상 수상
 -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희망상 수상
- ‘창녕 부곡가마골풍물단’ 제15회 경남도지사기 어르신농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76
- 창녕문화원 회원 ‘이순미’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파크골프 여자 1위 277
- 향토사연구소 ‘노용호 연구위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인물 스토리 텔링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78
- 창녕시무구지놀이 제42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 279
- 창녕문화원 사진 동아리 전시회 (사진: 픽셀에서 추상까지 그림을 탐하다.) 280

❁ 창녕을 빛낸 사건

-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283

❁ 2025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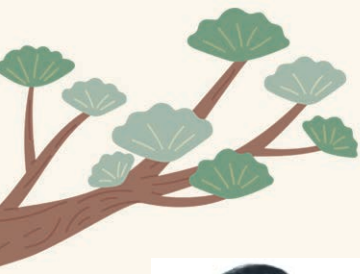
❁ 2025년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 286

❁ 창녕문화원 조직도 287

❁ 창녕문화원 부설단체(동아리)현황 288

❁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289





발간사



창녕문화원장
한 삼 윤

나누고 받들고 누리는 아름다운 창녕문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녕문화 제44호 발간을 자축하면서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낙인 군수님과 홍성두 군의회 의장님, 오경용 경찰서장님, 이경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무엇을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문화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려는 작은 손길들을 모아 문화라는 소박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서로 일깨우고 북돋우며 꽃 피워온 지난 여정에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갑진년 한 해, 우리군은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작년에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올해 창녕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15년도에 등재된 영산 줄다리기와 함께 그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 인연들과 함께 노력한 탁월한 결실이라고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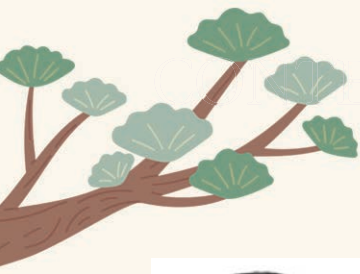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를 드리면서
뿌듯한 자긍심을 가집니다. 거듭 자축해 마지않습니다.

갑진년 한 해 숭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고 받들며 누리는
아름다운 창녕문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여정을 거울삼아 대망의 을사년 새해에도 더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늘 건승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축사



창녕군수
성낙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예술을 꽃피워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창녕문화원의 한 해 발자취가 담긴 「제44호 창녕문화」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으로 군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지역 문화지 발간을 위해서도 열성을 아끼지 않으신 한삼윤 창녕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은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줄다리기, 세계유산인 가야 문화의 창녕고동과 송현동 고분군, 국제적 생태 가치를 인정 받은 창녕군 전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명실공히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고유하고 찬란한 지역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창녕문화」는 많은 군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불어넣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지역 문화발전의 든든한 동력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수호하고 대변하는 대표적인 문화지로 자리하기를 바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창녕문화원의 위상도 더욱 단단해지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점이 될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축사

창녕의 고유문화를 계발·보급·전승시키고, 향토 문화를 발굴·조사·보존하여 창조적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제44호 창녕문화」발간을 창녕군의회 전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를 나누고·받들고·누리는 창녕 문화 발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창녕문화원 한삼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역대 원장님을 비롯한 고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문화원은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문화와 창작 활동을 모아 책으로 엮음으로서 우리 군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으며, 창녕의 문화를 선도하며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향토 문화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올해로 제44호를 맞는 창녕 문화의 발간은 우리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녕군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고유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창녕의 문화 수준과 문화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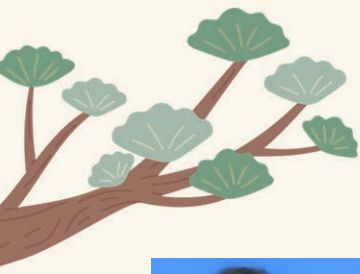
끝으로, 「제44호 창녕문화」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창녕의 고유한 문화를 이끌어 가는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창녕 문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내에 평안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창녕군의회 의장
홍성두



축사



창녕경찰서장
오 경 용

안녕하십니까? 창녕의 치안을 맡고 있는 창녕경찰서장 오경용입니다. 「창녕문화」 제44호 발간을 창녕경찰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군민의 문화 역량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삼운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고 훌륭한 유형 문화재와 수준 높은 무형문화재가 찬란하게 꽃피웠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곳입니다.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녕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문화유적지 탐방, 향토사 발굴, 문화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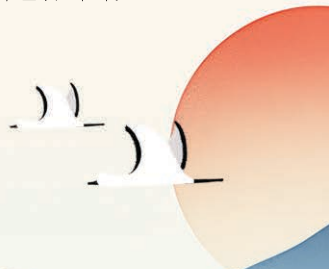
최근, 창녕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어 창녕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쾌거를 이룬 것도 「창녕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 함께 공유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경찰도 문화의 고장, 창녕에서 근무한다는 긍지를 갖고 문화재 보호 활동과 홍보는 물론 군민과 함께하는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창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44호 창녕문화」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창녕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축사

제44호 『창녕문화』 발간을 축하하며

존경하는 창녕문화원 가족 여러분!
『창녕문화』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교육장 이경희입니다.

창녕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귀중한 기록물인 『창녕문화』 제44호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한삼운 원장님과 창녕문화원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4호 『창녕문화』는 창녕문화원이 지난 1년간 기울인 열정과 노력을 집대성한 결실로, 지역 문화의 정수를 담아냄과 동시에 창녕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빛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창녕문화』는 단순한 문집을 넘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예술적,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시와 수필, 역사와 문화, 여행기와 독후감 등 다채로운 장르로 채워진 이번 호는 창녕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새롭게 조명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문화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삶을 연결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창녕문화원이 펼쳐온 다양한 사업과 『창녕문화』의 발간은 바로 그러한 문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창녕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녕문화』가 앞으로도 창녕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잇는 중심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제44호 『창녕문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책이 창녕의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경 희

昌寧文化





**2024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2024년 창녕문화원 활동사항

❁ 2024년 갑진년 창녕군민 신년인사회 초청 공연

- 일시 : 1. 8. (월) 10:3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공연 : 앙상블색소폰 동아리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신년하례회

- 일시 : 1. 10. (수) 11:30
- 장소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경남로봇재단 2층 회의실
- 대상 : 경남 20개 시·군문화원장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 일시 : 1. 12. (금) 11:00
- 장소 : 경남도청 대회의실
- 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 수상 : 유영숙 향토사연구위원



❁ 2024년 심폐 소생술 체험

- 일시 : 1. 24. (수) 10:00
- 장소 :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 인원 : 15명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임원



❁ 2024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1. 30. (화) 11:00
- 장소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실
- 대상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감사,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안건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2024년 창녕문화원 제24회 황우문화상 선정위원회 개최

- 일시 : 1. 31. (수) 10:00
- 장소 : 향토사연구소
- 위원 : 6명
- 선정 대상자 :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장)



❁ 2023년도 사업 및 결산 감사

- 일시 : 1. 31. (수) 11:00
- 장소 : 창녕문화원
- 감사 : 2명



❁ 2024년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2. 2. (금) 11: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인원 : 23명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심의의결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건, 향토사연구소장 선임의 건, 제71차 정기총회일 결정



❁ 2024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

- 일시 : 2. 5. (월) 11:00
- 장소: 진주문화원 1층 다목적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안건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2024년 창녕문화원 갑진년 설 합동 세배회

- 일시 : 2. 14. (수) 11:00
- 장소 : 본관 3층 대강당
- 대상 : 기관 및 사회단체,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 인원 : 300여명
- 행사내용 : 1부) 합동 세배회, 2부) 웃놀이 대회



❁ 경상남도 창녕교육지원청 제8회 창녕교육상 시상식

- 일시 : 2. 15. (목) 11:00
- 장소 : 창녕교육지원청 대회의실(3층)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수상자 : 김용숙 대합초등학교장



❁ 2024년 창녕 팔각회 제58대·제59대 회장 이·취임식

- 일시 : 2. 19. (월) 11:00
- 장소 : 경화회관
- 취임회장 : 오두환 (창녕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동아리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의료법인 창녕서울재단 의료서비스지원 업무 협약식

- 일시 : 2. 21. (수) 11:00
- 장소: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김동주 고문님, 곽정기 부원장님



❁ 제71차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 23. (금) 11:00
- 장소 : 본관 3층 대강당
- 대상 : 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 부설단체, 회원
- 인원 : 400여명
- 내용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의 건, 기타토의



❁ 2024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제63차 정기총회

- 일시 : 2. 26. (월) 11:00
- 장소 : 서울 호텔코리아나 7층 글로리아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안건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안 심의·확정의 건, 한국문화원연합회 임원 선임의 건



❁ 제63회 3·1 민속문화제

- 일시 : 2. 29. (목)
- 장소 : 창녕 영산 무형유산 놀이마당
- 주최 : 3·1 민속문화 향사회
- 참석 : 한삼운 원장님(개회선언)





2024 문화학교

❁ 2024년 문화학교 개강

- 일시 : 3월 ~ 11월 (9개월) • 대상 : 문화원 회원
- 과목 : 시조창, 요가, 서예, 건강체조, 한문, 민요,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사진, 난타, 색소폰(A,B), 바둑, 기공, 슈비로즈, 파크골프



❁ 창녕·창원 한국춘란회 제13회 한국춘란전시회

- 일시 : 3. 2. (토) 11: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일본 사쓰마센다이 큰줄다리기보존회 문화교류단 환영회

- 일시 : 3. 2. (토) 18:00
- 장소 : 화왕산스파호텔 연회장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빛벌회 1분기 회의

- 일시 : 3. 6. (수) 18:30
- 장소 : 가현한우식육식당
- 대상 : 빛벌회 전 회원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내용 : 전입 기관·단체장 소개, 기관·단체간 협조사항 협의, 간담회 등

❁ 2024년 대합 메탄마을 봄맞이 대잔치 초청 공연

- 일시 : 3. 9. (토)
- 장소 : 대합 메탄마을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동아리



❁ 2024년 (사)전국 이·통장연합회 창녕군지회 회장 이·취임식

- 일시 : 3. 11. (월) 17:00
- 장소 : 창녕농업협동조합 2층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창녕향교 춘향석전 대제 봉행

- 일시 : 3.14. (목) 10:00
- 장소 : 창녕향교
- 초헌관 : 이수영 고문님



❁ 2024년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 일시 : 3. 21. (목) 11:00
- 대상 : 향토사 연구위원 및 고문
- 내용 : 향토사 발굴, 당면 현안 사항 등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인원 : 21명



❁ 2024년 물계서원보존회 갑진년 물계서원 춘향대제 봉행

- 일시 : 3. 24. (일) 11:00 (음력 2. 15.)
- 장소 : 물계서원 승덕사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제1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3. 26. (화) 14:00
- 인원 : 군민 50여명
- 주제 : 꼭, 알아두어야 할 인생과 예절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 강사 : 김희덕



❁ 2024년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 군수실 내방 및 문화원 환담

- 일시 : 3. 29. (금) 15:30 • 방문기간 : 3. 29. (금)~3. 31. (일)
- 장소 : 창녕군청, 창녕문화원 별관 2층 강당
- 인원 : 60여명
- 내용 : 문화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 및 이해증진



❁ 창녕문화원·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 문화교류 합동공연

- 일시 : 3. 30. (토) 14: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인원 : 360여명
- 공연 : 창녕문화원 동아리, 일본 문화협회 동아리
- 전시 : 일본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 동아리 사진



❁ 제62회 진해군항제 꽃비 내리는 풍류 한마당 초청 공연

- 일시 : 4. 1. (월) 10:00
- 장소 : 진해루 특설무대
- 공연 : 한국무용 디딤새 동아리



❁ 2024년 창녕군 제31회 창녕군민의 날 기념식 수상

- 일시 : 4. 3. (수) 10:3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수상
- 1. 봉사부문- 조정한 (창녕문화원 회원/ 의정동우회 회장)
- 2. 산업부문-신용태 (창녕문화원 부설 시우회 회장/(주)신돈사상 회장)
- 3. 교육·문화 부문- 성위경 (창녕문화원 이사/ 물계서원 이사장)



❁ 2024년 창녕군 창녕 반다비 체육센터 개장식

- 일시 : 5. 1. (수) 14:00
- 장소 : 창녕반다비체육센터 2층 실내체육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문화유적지 탐방

- 일시 : 5. 3. (금) 07:30
- 장소 : 충남 예산 수덕사, 예당호 출렁다리
- 대상 : 전 회원
- 인원 : 370명



❁ 2024년 광평이씨 창녕중중묘원 완공 고유제(古由祭) / 수비(豎碑) 제막식

- 일시 : 5. 6. (월) 11시
- 장소 : 경남 창녕군 대합면 퇴산리 77번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제4회 창녕군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 일시 : 5. 7. (화) 09:00
- 장소 : 유어파크골프장
- 참가 : 창녕문화원 율타리 파크골프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창녕군새마을회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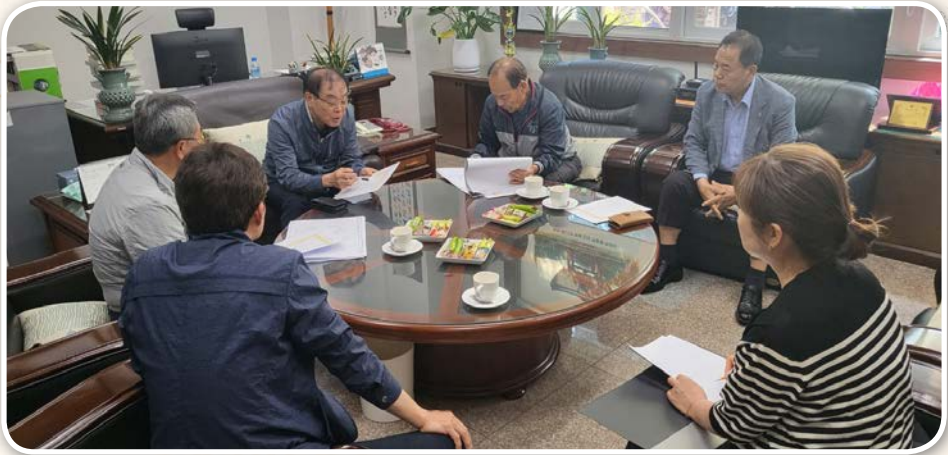
- 일시 : 5. 8. (수) 10: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창녕군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행사

- 일시 : 5. 10. (금) 14:00
- 장소 : 우포따오기복원센터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창녕문화원 리모델링 간담회

- 일시 : 5. 13. (월) 10:00
- 장소 : 원장실
- 인원 : 한삼윤 원장님, 김동주 고문님, 이수영 고문님, 국장, 설계업체, 담당 공무원



❁ 2024년 영산향교 기로연 행사

- 일시 : 5. 14. (음력.4.7) (화) 10:00
- 장소 : 영산향교 충효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제2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5. 14. (화) 14:00
- 인원 : 군민 40명
- 강사 : 노용호 교수
- 주제 : 노용호 교수의 생태문화 콘서트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2024년 창녕향교 기로연

- 일시 : 5. 23. (목) 10:00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장소 : 창녕향교 명륜당



❁ 2024년 창녕문화원 농촌일손돕기

- 일시 : 5. 27. (월) 09:00
- 인원 : 원장님의 10명
- 장소 : 창녕군 창녕읍 옥천길 727
- 농가 : 옥천 소재(마늘 수확)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동아리 버스킹 공연

- 일시 : 5. 29. (수)
- 장소 : 영산 영지못



❁ 2024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표창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일시 : 2024. 5. 30. (목) 14:00 ~
- 위촉 : 한삼윤 원장님
- 장소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1층 회의실

❁ 창녕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 일시 : 6. 6. (목) 09:55
- 장소 : 충혼탑 광장
- 대상 : 400여명 (도의원, 기관 · 단체장, 보훈가족, 군민, 공무원, 학생 등)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창녕문화예술회관 출향 작가전 「한국의 얼」

- 일시 : 6. 7. (금) 16: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1층 대전시실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우리 유산 찾기 문화탐방

- 일시 : 6. 21. (금) 08:00
- 장소 : 안동 봉정사, 의성김씨 학봉(김성일)종택, 목계서원, 만휴정 등
- 대상 : 고문 및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 인원 : 34 명



❁ 2024년 (사)송엽관소리보존회 「국악이 날다」

- 일시 : 6. 21. (금) 19:00
- 장소 : 만옥정 공원
- 주관 : 송엽관소리 보존회
- 후원 : 창녕문화원
- 공연 : 송엽 지미희, 우포 따오기 민요동아리



❁ 박진전쟁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 일시 : 6. 24. (월) 14:00
- 장소 : 박진전쟁기념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창녕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

- 일시 : 6. 25. (화) 11:00
- 장소 : 경화회관 다목적홀(2층)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너도 나도 하하! 행복 미소 전도사」 프로그램

- 일시 : 6. ~ 10. (4개월)
- 장소 : 낙영리회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녕문화원
- 인원 : 22명
- 내용 : 마음의 행복과 소통을 위한 활동. 좋은 시 낭독,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다양한 체험 등



❁ 2024년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간담회 및 창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Net Zero City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6. 26. (수) 10:00
- 장소 : 고성박물관 회의실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내용 : 상호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Net Zero City 조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협약 체결.



❁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창녕군협의회 제13대·제14대 회장 이·취임식

- 일시 : 6. 27. (목) 11: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2024년 제3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7. 1. (월) 14:0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대상 : 고문 및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회원, 창녕군민
- 인원 : 110여명
- 강사 :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 주제 : 세계 속의 한국, 지속가능한 K·컬처



❁ 2024년 어르신 국어문화 “디지털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 일시 : 7월 (1개월/총 4회차)
- 장소 : 별관 3층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국어국립원
- 인원 : 군민 25명
- 내용 : 디지털로 통(通)하는 어르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찾기, 가짜 뉴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애로 사항 해결 등



❁ 2024년 제2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7. 4. (목) 11:00
- 인원 : 20명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상반기·하반기 주요활동 사항, 당면 사항 등



❁ 2024년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 일시 : 7. 5. (금) 11:00
- 대상 : 창녕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 인원 : 19명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내용 : 창녕의 누정, 서원, 당사 주련 및 제영집 편찬 관련, 당면 현안 사항 등



❁ 2024년 찾아가는 문화나눔봉사 공연

- 일시 : 7. 9. (화) 14:00
- 장소 : 영산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 공연 : 휘파람 색소폰 동아리



❁ 2024년 불교 문화유산연구소 창녕 용흥사지 학술대회

- 일시 : 7. 10. (수) 13:00 ~ 18:00
- 장소 : 경화회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이규영 소장님 등
- 내용 : 창녕 용흥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과제



❁ 제13회 이기철 시인과 함께하는 서정시 삼천리

- 일시 : 7. 13. (토) 16:00
- 장소 : 창녕 우포늪 형설의 전당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이수영 고문님
- 동행 : 창녕문화원, 창녕문인협회, 창녕위낭소리 시낭송회



❁ 제7회 창녕군수배 세계합기도대회

- 일시 : 7. 20. (토) 11: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주최 : (사)비연관 합기도협회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곽정기 부원장님

❁ 2024년 국제 인지 문화진흥협회 창녕지부 수료식 초청

- 일시 : 7. 27. (토) 11:00
- 장소 : 국제 인지 문화진흥협회 창녕지부
- 공연 : 우포 따오기 민요동아리



❁ (주)창녕신문 창간 24주년 기념식

- 일시 : 7. 30. (화) 11:00
- 장소 : 경화회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이규엽 소장님 등

❁ ‘경남 창녕의 정신’유튜브 영상 촬영

- 일시 : 7. 31. (수) 14:00
- 장소 : 창녕문화원
- 인터뷰 : 한삼윤 원장님
- 방영 : 유튜브 채널

❁ 2024년 창녕군의회 홍성두 의장 간담회

- 일시 : 8. 21. (수) 12:00
- 장소 : 양반청국장
- 참석 : 원장, 고문, 부원장, 향토사연구소장
- 내용 : 당면사항 및 본관 리모델링 추진 등 적극 협조.

❁ 2024년 국립극장 우수공연 “우리 동네 국립극장” 영상 상영

- 일시 : 8. 23. (금) 10:0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인원 : 군민 30여명
- 제목 : 훌춤(무용)



❁ 2024년 제4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8. 27. (화) 14:0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인원 : 군민 70여명
- 강사 : 이선중 문학박사
- 주제 : 위기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2024년 찾아가는 문화나눔봉사 공연

- 일시 : 8. 27. (화) 14:00
- 장소 : 성산 소리제이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 2024년 국립극장 우수공연 “우리 동네 국립극장” 영상 상영

- 일시 : 8. 27. (화) 19:0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인원 : 군민 40여명
- 내용 : 춘향(창극)



❁ 2024년 대합 한여름 밤의 음악회 초청 공연

- 일시 : 8. 29. (목) 18:00
- 장소 : 대합면 체육공원
- 공연 : 우포 따오기 민요동아리



❁ 성낙인 군수님과 간담회

- 일시 : 9. 4. (수) 18:30
- 장소 : 대가식당
- 참석 : 원장님, 고문님, 부원장님 등
- 내용 : 문화원 당면 현안사항 건의

2024년 경남 지방문화원 임원 및 지역사연구위원회 워크숍

- 일시 : 9. 6. (금) 10:00 • 장소 :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 참석 : 9명(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향토사연구소장님 등)
- 내용 : 특강 및 문화탐방



하동칠 작가 개인전 ‘화왕산에서 우포늪으로’

- 일시 : 9. 10. (화) 10: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2층 소전시실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제10회 경상남도지사배 합천대야성 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 일시 : 9. 13. (금) 09:30 • 장소 : 합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인원 : 5명 • 참여 : 한국무용 디딤새 동아리

❁ 2024년 제5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9. 24. (화) 14:00
- 인원 : 군민 50여명
- 강사 : 남중희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 주제 : 비사벌(比斯伐)에서 가야(伽倻)를 찾다.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2024년 국립극장 우수공연 “우리 동네 국립극장” 영상 상영

- 일시 : 9. 24. (화) 16:30
- 장소 : 별관 2층 강당
- 인원 : 군민 50여명
- 제목 : 천년의 노래, 리버스(국악관현악)



❁ 제2회 창녕 비화가야 학술심포지엄 <빛의 나라 비화, 세계유산으로 빛나다.>

- 일시 : 9. 26. (목) 13:3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 : 한삼운 원장님,곽정기 부원장님, 이규엽 소장님, 연구위원 등
- 내용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1주년을 맞이하여 “빛의 나라 비화, 세계 유산으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제2회 창녕 비화가야 학술심포지엄.



❁ 2024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

- 일시 : 9. 28. (토) 18:00 • 장소 : 창녕박물관 역사공원
- 참석 : 한삼운 원장, 김동주·이수영 고문님, 곽정기·신판기 부원장님 등



❁ 제20회 창녕군생활체육대회 개최식

- 일시 : 10. 5. (토) 09: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 일시 : 10. 8. (화) 09:3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제3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10. 10. (목) 11:00
- 인원 : 20명
- 장소 : 본관2층 소회의실
- 안건 :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상반기·하반기 주요 활동사항, 당면 현안사항 등



❁ 2024년 찾아가는 문화나눔봉사 공연

- 일시 : 10. 10. (목) 14:00
- 장소 : 남지복지회관
- 공연 : 휘파람 색소폰동아리



❁ 제2회 경남도민 문화의달 문화한마당 행사

- 일시 : 10. 17. (목) 10:00 • 장소 : 함안군 함주공원 내 다목적 잔디구장
- 주최/주관 :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함안문화원
- 참가 : 한국무용 디딤새 - 희망상 수상
- 수상 :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문화예술발전 공로상)



❁ 2024년 우리 유산 찾기 문화탐방

- 일시 : 10. 18. (금) 07:30 • 장소 : 수원화성, 용주사, 화성박물관
- 대상 : 고문 및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 인원 : 40명



❁ 제15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른농악경연대회 참가 최우수상 수상

- 일시 : 10. 25. (금) 09:30 • 장소 : 밀양강 둔치
- 인원 : 60명 • 대상 : 도내 20개팀 참여

- 참여 : 부곡가마골풍물단



❁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제38회 비사벌문화제 향토기양제

- 일시 : 10. 25. (금) 17:00
- 장소 : 만옥정공원 객사
- 참석 : 한삼윤 원장님(인사말씀)

❁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제38회 비사벌문화제 기념식

- 일시 : 10. 25. (금) 18:30
- 장소 : 창녕천 비사벌 문화광장 특설무대
- 참석 : 한한삼윤 원장님(격려사)

❁ 제35회 전국시조경창대회

- 일시 : 10. 26. (토) 09: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 : 창녕문화원 부설 시우회
- 인원 : 200명



❁ 제38회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비사벌문화제 ‘창녕문화원 동아리공연’

- 일시 : 10. 26. (토) 16:00
- 장소 : 비사벌문화광장 특설무대
- 인원 : 1,000명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우포의 향기 댄스스포츠, 판소리 명창, 한국무용 디딤새, 창녕 비사벌 난타, 우포 따오기 민요, 휘파람 색소폰



❁ 2024년 제6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10. 30. (수) 14:00
- 장소 : 창녕문화원 별관2층 강당
- 인원 : 40명
- 강사 : 남용우 교수
- 주제 : 세한도 감상



❁ 제7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녕지부 회원전

- 일시 : 11. 1. (금) 13:0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 참석 : 한삼운 원장님, 김동주 고문님,곽정기 부원장님 외

❁ 신동 불교 사상 학술대회 개최식

- 일시 : 11. 1. (금) 13:3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김동주 고문님, 곽정기 부원장님 외

❁ 제3회 창녕군수배 파크골프대회

- 일시 : 11. 05. (화) 09:00
- 장소 : 유어파크골프장
- 참가 : 울타리파크골프 동아리



❁ 제15회 우포늪 생명 길 걷기 대회

- 일시 : 11. 9. (토) 08:30
- 장소 : 우포늪 일원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이수영 고문님, 곽정기 부원장님

❁ 영산 향로당 추계 만수위로연 초청 공연

- 일시 : 11. 11. (월) 11:30
- 장소 : 영산 도리원 교육관
- 공연 :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 일시 : 11. 15. (금) 11:0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제42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 수상

- 일시 : 11. 19. (화) 09:30
- 장소 : 함안 함주공원
- 참가 : 창녕 시무구지
- 시연 : 창녕 구계목도(제6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년 문화유적지 탐방

- 일시 : 11. 22. (금) 07:30
- 장소 : 청풍 문화재단지, 비봉산, 만천하 스카이워크(충북 단양군)
- 대상 : 고문 및 임원, 향토사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 인원 : 40명



❁ 사진 전시 “픽셀에서 추상까지 그림을 탐하다”

- 일시 : 11. 22. ~ 11. 27.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주관 : 창녕문화원 사진동아리



❁ 2024년 제7차 인문학 특강

- 일시 : 11. 26. (화) 14:00
- 인원 : 60명
- 장소 : 별관2층 강당
- 강사 : 이규엽 향토사연구소 소장
- 주제 : 유교사회의 비석문화를 알아본다.



❁ 2024년 창녕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공연

- 일시 : 11. 29. (금) 10:30
- 인원 : 350명
- 대상 : 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 및 회원, 군민
- 내용 : 공연 (설레임 앙상블 색소폰, 우포의 향기 댄스스포츠, 관소리 명창, 한국무용 디딤새, 창녕 비사벌 난타, 우포 따오기 민요, 휘파람 색소폰, 시조창, 시낭송, 건강체조), 전시 및 체험 (쉐비로즈 작품 전시, 서예전시, 사진 전시, 전통차 체험)
- 장소 : 본관 3층 대강당



❁ 2024년 울타리파크 동아리 나들이

- 일시 : 12. 1. (월) 08:00
- 장소 : 지리산 삼성궁, 쌍계사, 화개장터
- 대상 : 울타리파크 동아리 회원
- 인원 : 27명

❁ 장학 기금마련 일일차집

- 일시 : 12. 5. (목) 10:00
- 장소 :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강당 2층
- 참석 :곽정기 부원장님

❁ 제11회 (사)한국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가족 한마음대회

- 일시 : 12. 11. (목) 10:30
- 장소 : 창녕군민체육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 창녕군 새마을지도자대회

- 일시 : 12. 13. (금) 11:00
- 장소 : 경화회관 다목적홀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 2024 창녕 예술인의 밤

- 일시 : 12. 13. (금) 17:30
- 장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창녕지회
- 참석 : 한삼윤 원장님, 곽정기 부원장님

❁ 향토사 연구위원회 회의(3차)

- 일시 : 12. 24. (화) 11:00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 : 21명
- 내용 : 창녕의 누정, 서원, 정자 주련 및 제영집 편찬 관련

昌寧文化






좋은 생각 / 좋은 글

- ◇ 용과 인간
- ◇ 교육과 저출산과의 상관관계
- ◇ 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 ◇ 스승의 은혜
- ◇ 흐끄므레한 새벽 미풍이 부는 날 마타리 꽃을 피우리라
- ◇ 역사왜곡에 대한 소고 - 건국전쟁과 사육신
- ◇ 나만의 행복한 인생 꿈
- ◇ 을사년 새해를 바라보며
- ◇ 충의의 표상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 ◇ 許交와 許與
- ◇ 기후 위기 시대의 퇴계선생 이야기
- ◇ 우리 문화원에서 피워낸 꽃
- ◇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
- ◇ 세계속의 우포늪 위상
- ◇ 구채구의 물
- ◇ 전통신발 만드는 방법

김동주
곽정기
진태홍
진태홍
문경주
김진열
진영출
유영숙
이복순
성두철
노용호
주영숙
염옥현
성득용
박태명
한판철



용(龍) 과 인간(人間)



김동주
창녕문화원 고문

금년(2024년)은 갑진년 용의 해라고 하며 특히 용 중에서 청룡의 해이다. 이 해를 맞이하면서 필자의 생각도 세상사가 무언가는 크게 한번 변할 것이다. 아니 변해야 된다는 막연한 기대를 해봤다.

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용의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상징의 동물이다.

육십갑자의 지지 부분 12동물의 5번째가 진(辰) 즉 용의 해이다.

사전에서 용을 풀이한 내용은

- ① 큰 구렁이 같고 발톱과 뿔이 있는 전설상의 동물.
- ② 관념상의 동물의 하나, 중국, 인도 등지에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파충류로 뱀과 흡사하며 등에 81개의 비늘이 있고 네 개의 발에 각각 5개의 발가락이 있고 뿔은 사슴에, 눈은 귀신에, 귀는 소에 가깝다고 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용에 관한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있어 흥미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기록한다.

용의 그림은 천차만별로 용을 그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구상대로 온갖 형태로 나타난다. 용은 기린, 봉황, 거북과 더불어 사령(四靈)이라 불리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 등 문명 발상지 어디에서나 오래전부터 상상되어 온 동물로서 신화나 전설 등에 등장하여 왔으며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큰 몫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상상의 동물이니 시대나 민족에 따라 그 모습이나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도 한다.

중국의 문헌에서 용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내용은 【용은 인충(鱗蟲: 비늘이 있는 동물의 총칭) 중의 우두머리로서 그 모양은 다른 짐승들과 아홉 가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과, 눈은 토끼와, 귀는 소와, 목덜미는 뱀과, 배는 큰 조개와, 비늘은 잉어와, 발톱은 매와,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라는 내용이다. 그중에서 9·9의 (兩數) 인 81개의 비늘이 있고, 소리는 구리 쟁반 울림과 같고, 입 주위에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 명주(明珠)가 있으며, 목 아래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박산(博山: 평탄한 공간)이 있다. 라고 설명한 내용도 있다.

1. 민간 신앙에서의 용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으로 신앙 되면서 많은 용신 신앙을 발생하게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물을 외면하고는 살 수 없다. 특히 농경민족은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물을 지배하는 용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다. 신라 시대 사해 제, 사도가 제, 고려 때는 사해사독제(四海四獨祭) 조선 시대는 각처에서 각종 용신제 등이 모두

용을 대상으로 한 거국적 의식으로 생명의 원천이며 농경의 절대적 요건인 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려 시대부터 해오던 잔재는 지금 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전승 되고 있는 용왕굿, 용신제, 등은 현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四海四瀆(나라에서 정한 바다의 4방향과 낙동강(동독) 대동강(서독) 한강(남독) 용흥강(북독)의 4대강)

용에 관한 몇몇 기록을 보면 대개가 비를 구하는 행사로써 신라 진평왕 오십 년 조에 보면 흙으로 용상(龍像)을 만들어 놓고 무당으로 하여금 비를 빌게 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으며 그래도 계속 비가 없으면 ¹⁾오해신(五海神)에게 비를 빌기도 하였다.

용은 특히 어민들의 어로 신앙에 중요한 대상으로 숭배되어 왔다.

용이 바다 밑 용궁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 전승되어 왔으니 안전한 항해, 조업 그리고 풍어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용왕제 풍어제 등이 있고, 특히 용왕제는 어촌의 부녀자들이 음력 정초, 또는 이월 초에 만조시를 택해 바닷가에 제물을 차리고 사해(四海)용왕님께 가족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의식으로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다.

2. 풍수(風水)에서의 용

용은 풍수설에도 중요시해 와서 토지의 기복(起伏: 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함)인 산을 용 또는 용 날이라 한다. 기복 변화가 무상 무진한 산이 마치 음양 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용의 조화와 같다는 뜻이라 본다.

1)오해신: 동, 서, 남, 북과 중앙의 다섯 용왕

풍수설에는 모든 산의 종산을 태조산이라 하며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태조산이고, 곤륜산은 중국의 태조산이다. 태조산에서 뻗어 나오는 큰 산맥을 간룡(幹龍)이라 한다.

3. 설화에서의 용

용이 등장하는 설화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한국사의 증추적인 사서에 각종 용이 등장하는 설화가 86편이나 된다고 하니 놀랍다.

하도 많은 설화를 용소(沼)설화, 용연(淵)설화, 용정(井)설화, 용혈암(血岩)설화, 용꿈(夢)설화, 기타 설화 등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기록돼있는 내용이 있다.

전남 담양군 추월산 동쪽에 두 개의 돌연못이 있다. 기암 밑에 용이 살았다는 굴이 있고 반석 위에는 구불구불한 용의 발자욱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못을 용연이라 한다. (박영춘: 한국의 전설 8, 1973)

용혈암 설화로 경상도의 양산 통도사에 관한 설화는 통도사 창건 시 그 자리는 원래 연못이었는데 안에 용이 9마리가 살고 있었다 한다. 이에 자장(滋臟: 신라 때 고승)이 용이 다른 곳으로 떠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아 종이에 불화자 4자를 써서 못에 던지고 법장(法杖)으로 연못을 저으니 갑자기 물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러자 다섯 용은 오룡곡(五龍谷)으로 달아나고 4마리 용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죽어 그 피가 근방의 바위에 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용혈암이라 하였다. (한국 민간 전설 집, 1958)

또 용꿈(夢) 설화는 우리 주변에도 익숙한 말이라 하겠다.

용 자체를 큰 희망과 청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입신출세의 관문을 등용문(登龍門)이라 하였다. 갑자기 매우 좋은 행운이 생기면 용꿈

꿨다는 말을 한다. 꿈 중에서 가장 으뜸이 용꿈이라 한다. 옛 용꿈에 얽힌 설화중 세조 때 홍제상이 낮잠을 자다가 문득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진동하고 청룡이 그에게 달려드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난 홍제상은 급히 춘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로부터 춘성은 태기가 있어 결국 홍길동을 출산하였다. (朴榮春, 한국의 전설 8, 1973)

기타 설화중에는 영덕 무등산 적벽봉 위의 큰 바위에 말 발자국이 있는데 이는 아기 장수가 타던 용마의 발자국이라 하고, 또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에 걸쳐있는 계룡산은 그 연봉(連峰)이 마치 닭의 벼슬 쓴 용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산 서쪽은 용문폭포(龍門瀑布)가 있다. 남쪽은 솟용추와 암용추가 있다. 옛날 그곳에 암용과 솟용이 살았다 하고 양쪽이 땅 밑으로 서로 통했다고 하며 아무리 가뭄에도 물이 줄지 않는다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계룡산 아래 잠연(潛淵)이 있는데 한재에 기우하면 호험이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용에 관한 설화는 끝없이 이어진다.

4. 불교에서의 용

불교에서 용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과 인도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으나 생략하고 우리나라의 불교가 삼국통일 이래 독자적인 호국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호국용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영원한 왕권과 호국을 기원하는데 용이 많이 이용되었다. 황룡사 구층탑이 그 예의 하나이며, 문무왕이 죽어서 대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며, 또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의 내용은 신라 제31대 신문왕 2년에(682) 용으로부터 영험스러운 대(竹)를 얻어 피리를 만들었다는 설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東海)에 감은사를 지었다. 신문왕 2년에 해관(海官)이 동해안에 작은 산이 감은사로 향하여 온다

고 하여 일관으로 하여금 점을 쳐보니,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金庾信)이 수성(守城)의 보배를 주려고 하니 나가서 받으라 하였다. 이견대(利見臺, 유적, 사적 제159호)에 가서 보니, 부산(浮山)은 거북 머리 같았고 그 위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풍우가 일어난 지 9일이 지나 왕이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말하기를,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 하여, 그것을 가지고 나와 피리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이 피리를 불면 평온해져서, ‘만과식적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 뒤 효소왕 때 이적(異蹟)이 거듭 일어나 ‘만만과과식적’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5. 제왕의 상징으로서의 용

용은 임금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임금이 시무복으로 입는 옷이 용포(龍袍)다 이를 곤복(袞服) 또는 곤용포(袞龍袍)라고도 한다. 두루마기형의 윗옷으로 노란색 또는 붉은색 비단으로 가슴, 등 양어깨에 오조용(五爪龍)을 금실로 수놓아 지었다.

임금이 사용하는 평상을 용상(龍床), 수레를 용가(龍駕), 큰 배를 용가(龍舸) 심지어 임금이 흘리는 눈물을 용루(龍淚)라 하는 등, 임금과 관계되는 것에는 모두가 빠짐없이 용이라는 접두사를 붙여 호칭하였다. 이는 용이 무한하고 경이로운 조화 능력을 인정하며 이것이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하며 호국용 사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6. 용의 그림과 조각(彫刻)

용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마음이 융합함으로 태어난 환상적인 하나의 창조물로서, 어느 종교의 독점물도 아니며 민속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다 같이 받아들이는 영물이므로 실체는 없으면서도 위대한 존재라

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용에 관한 수많은 신화, 설화, 전설과 신앙 학설 문화 또는 미술의 형태로 거듭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소산물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용의 형상이며 그 형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용의 미술이다.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하는 사찰 주변의 옛날 유명 선사들의 공적 비석의 두부에 용 조각으로 장식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많은 용상이 닮은 것은 있어도 같은 것은 없듯이 작가의 뜻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나타나 있는 용에 관한 기록 중에서 용의 발가락 개수도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고 하는데, 한나라 고조(高祖) 때 제왕과 제1, 2 왕자만이 다섯 발가락용을 쓸 수 있고, 제3, 4 왕자는 네 발가락용을 쓰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후세에 와서 중국은 황제만이 다섯 발가락용을 쓸 수 있고, 우리 한국의 왕은 네 발가락용을, 일본의 왕은 세 발가락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화의 세계에서는 다섯 발가락 용 그림이 자유롭게 나타나 있으며, 용의 몸집은 뱀을 닮은 탓으로 그 자세가 자유로워서 천변만화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 용의 모습과 현대적 변용

용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동물이다. 시대와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용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용이 발휘하는 조화 능력을 신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용의 모습이나 조화 능력도 조금씩 달리 묘사되고 인식되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중국 민족이 상상해온 용의 모습을 받아들였다. 거기에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인도의 불교적인 용의 모습이 겹치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의한 또 다른 모습의 용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세 가

지 모습들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용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있는 용의 형상의 보면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시대 금동 당간 용두와 삼성 미술관에 있는 고려시대 용두보당(龍頭寶幢)이 있으며 삼성미술관의 것은 금속으로 제작된 국보 제136호의 귀중품이다.

또 용의 그림으로는 양산 통도사 대들보에 그려져 있는 백용의 그림이 우리나라 용 그림의 대표작이라 한다.

8. 용자를 사용한 여러 분야

먼저 고금을 막론하고 인명에서 앞과 뒤 용자를 사용한 이름은 수없이 많으며 용자 단일로 호칭한 이름도 흔하다.

하나같이 최고, 최대, 최상, 최강 등등 가장 으뜸을 희망 내지 기대하는 바람을 추구한다고 할까? 계천(溪川)에서 용 났다는 말도 낯선 말이 아니다. 외딴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에서 만사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크게 출세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세상 만물에서 출중한 부분이 있으면 으레 용자가 붙는다.

우리 지역 안의 지명을 위시하여 용자를 곁들인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신라시대 팔대 사찰의 하나인 관룡사의 경우 원효가 제자 송과와 함께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색 채운이 영롱한 하늘을 향해서 화왕산 마루의 월영 삼지(三池)로부터 아홉 마리 용이 등천하는 것이 보이므로 절 이름을 관룡사(觀龍寺)라 하고, 산 이름을 구룡산이라 하였다 한다. 또 고암면 감리 쪽에서는 관룡산이라고 하고, 구룡곡의 지명은 감골 동편 골짜기 이름인데 이 일대에 구불구불한 능선이 아홉 개가 있어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구룡(九龍)이 감돌아 있는 곳이므로 구룡곡 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관룡사 대웅전 앞에서 서남 방향 높은 산등성에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95호)이 있는 장소를 용선대(龍船臺)라 하며 이 지명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사전에 용선(龍船)의 뜻은 임금의 놀잇배라 한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뱃놀이는 만인이 즐기는 놀이다.

특히 옛 기록을 보면 용선은 엄청 호화롭게 꾸며졌다고 한다. 고려시대 어느 임금 때는 어선(御船)을 비단으로 꾸미는 데 3년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다. 또 광해군이 만든 용주(龍舟)는 선상에 방을 꾸며 사치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별로 이용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참고해 보면 용선대라 이름 붙인 것은 석가 석조 여래좌상이 안치된 이 산봉우리가 용선에 비길만큼 아름답다는 표현 외는 다른 뜻이 없을 듯하다.

9. 우리 지역 내의 용(龍)자를 겸한 여러 명칭과 내역

● 창녕읍

용석리 이마을은 읍의 남서(南西)부로 동서간의 거리가 5.5km의 산능선이 이어지고 있어 용의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양용석 골용석 등 크고 작은 자연마을이 15개쯤 되고 마을 앞에 흐르는 냇가 용석천이며 화왕산의 남쪽 자런 골과 비들제 골 두 골짜기가 퇴천마을 앞에서 합류하여용석리 앞을 길게 흐름으로 용석천 이라는 이름으로 유어 풍조 앞을 지나 낙동강에 이른다.

퇴천 아랫담 냇가에 서흥 김씨 봉선소인 기룡재(起龍齋)가있는데 기문 내용 중 마을 앞에 누워있는 돌(바위) 모양이 용과닮았다고 하여 용석이라는

동명(洞名)을 갖게 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기룡재(起龍齋) 서흥김씨 봉선소이며 기문 쓴이가 주자(朱子) 「여산 와룡암기문」 내용 일부를 인용한 것 이라함.

용양재(龍陽齋) 기문 내용에 재명에 대한 언급이 없고 용석리의 남쪽 즉, 양지(陽地)의 뜻으로 볼 수 있다.

벽진 이씨 봉선소.

용화당(龍華堂) 남창녕 입구 고개에 있는 김해김씨 종친 회관이다. 용화는 김수로왕의 13세손인 홍무왕 김유신 장군의 별호 이다. 선조의 훌륭한 인품을 본받아 종친의 번영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으로 보는 것이 어떠할지?

● 남지읍

용산리(龍山里) 풍수지리에서 산줄기가 구불구불 힘차게 뻗어 내려 오는 것을 지칭 하는 말이며,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이 용의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변에 용암산 용지덤 용산늪 용산제방과 용제단이 있는데 용제단은 옛날 여기에 봄가을로 고을 원이 와서 제사를 올렸는데 낙동강 수운과 홍수그리고 가야 진에 주둔 하고 있는 군사들의 무운을 비는 제단이라 한다.

용갱이(龍江) 아지리의 한곳으로 옛적에는 늪으로 깊은 소(沼)가 있어 용이 살았다하고 용이 등천하여 용이 내려 보낸 비의 강물로 매년 풍년이 든다하여 용갱 들 이라 한다.

● 장마면

용암산(龍岩山) 강리의 상강마을 북쪽 산 으로 용이 등천한 자리라 한다. 가뭄이 심할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사흘안에 비가 온다고 한다.

축산군지의 이사(異事)란에「용암산유용공심부지 기백장면천한기우측적우운」(龍岩山有龍穴深不知其百丈面天旱祈雨即雨云)

「용암산에 용의 굴이 있어 그 깊이는 몇 백길인지 알 수 없다. 가뭄에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내린다.」라는 기록이 있다.

용암재(龍巖齋) 밀양박씨의 선조 남유당 박공(諱 延福)을 추모하는 봉선 소로서 용암산의 지명을 따라 지어진 재명인 듯 하다.

● 성산면

대산리 이 사찰은 1760년대(영조40년) 건립되었다는 모호
용흥사(龍興寺) 터 한 기록 과 또 구전으로 신라시대부터 있었다는 말도 있다. 용흥이란 절 이름 유래는 어디에도 없다. 이 터의 북쪽 700m 높은산 기슭에 각료암 이라는 용흥사에 따른 암자가 있다. 현재 밀양 표충사 호국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국보 재75호 청동은입사향완이 과거 용흥사 소유였다는 기록과 받침에 용무늬를 장식 하였는데 용의 모습을 능숙하게 표현된 고려의 은입사 기술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군이 국보 제33호 진흥왕 척경비, 제34호 술정

동삼층석탑, 제75호 용흥사 청동은입사향완 등 3점이나 된다. (이 향완의 안쪽면에 새겨진 57자 내용을 미루어보니 고려 명종 7년(1177)에 제작되었다 하니 용흥사가 신라 때부터 라고 구전으로 전하는 내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 된다.)

추기

이 글을 완료한 후에 용흥사에 관한 새로운 기록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용흥사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지난 7월10일 용흥사지 학술대회 책자를 통해 새로운 기록을 접하게 되었다. 창녕현의 주산인 관룡산과 북쪽의 비슬산이 창창하게 고을의 남과 북에서 마주하고 있는데 관룡산의 줄기가 이윽고 일어난 까닭에 용흥을 절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기록 하고 있다.

● 대합면

내울(內弓)리

이 마을에는 외룡(外龍), 구룡산, 어룡곡(魚龍谷) 등 3개소가 용이 들어있다. 외룡은 옥산리의 왼쪽 산등성 이를 따라 붙인 이름이며 어룡은 잉어가 오래 살아 화한 것을 말하며 이 골짜기에 잉어가 있었다고 한다.

구룡산(九龍山)

신당리의 북쪽이며 옥산리에서는 남쪽산으로 산봉우리가 9개 라는데서 한 말이며 진사(進士)가 9명 날 곳인데 7명이 났다고 한다. 어룡곡은 잉어가 오래 살아 화한 것을 말하며 이 골짜기에서 어룡이 있었다고 한다.

용호벌(龍湖一) 외룡동(臥龍洞)은 마을 뒷산이 누워있는 용의 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용천(龍川)월포앞을 흐르는 내로 용이 승천하 면서 비를 내린다는 용쟁이(龍莊澤), 용천(龍川) 용산리용 의 위쪽 이라고 용산으로 작명 하였다고 한다.

구룡재(九龍齋) 대구(大丘) 서씨의 재각으로 구룡산 아래의 뜻외는 다른 기록이 없다.

용암재(龍巖齋) 대합면 도개에 있는 옥산전씨의 문중 윗분의 호가 용암(龍巖)이라 그분을 추모하는 봉선소.

● 대지면

용소(龍沼)리 넓은 면적의 옛 사밭포의 일부인 세거리벌로서 옛날 개간전에 깊은 못들이 많아 용이 살았다고 하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용소리 안에는 20개의 각각 유래에 따라 붙여진 지명이 있다.(용소, 헌터, 우뜸, 매란새미터, 아랫뜸, 화지대굴, 세거리, 당산동, 앞당산, 뒷 당산, 신만만당, 용시골, 삼학골, 장고개, 작살고개, 장정승묘, 세거리벌, 사밭벌, 가운데지, 살구십, 큰보 등이다.)

뢰용재(雷龍齋) 효정리(槐洞)에 있는 창녕성씨 봉선소 이다. 산의 형국이 용의 형상이며 용은 서리어 움츠리고 잠겨 누워있어야 기이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어서 뢰용 이라고 한다는 내용이다.

용산재(龍山齋) 용소리에 있는 여양진씨(驪陽陳氏) 용암이란 호를 가진 문중 웃어른을 추모하는 재각이며 마을의 지명에 따라 지은 이름 이라 한다.

용연재(龍淵齋) 용소리에 있는 하산장씨(河山張氏)의 조상이신 태사공(太師公)의 후손이 조상의 추모를 위한 봉선소로 건립된 재실(齋室)이다.

● 영산면

영산면 영산면의 지명사나 누정록을 다뒤져도 용자가 포함된 명칭은 찾아 볼수가 없고 다만 창녕지명사 중 영산면 첫장에 조선팔경에 따른 영산 팔경이 구전되는데 이 팔경외 또다른 팔경이 있다고 하면서 나열한 팔경중 용산만하(龍山晚霞)가 있는데 원문만 기록이 있다.

어느 산을 지적한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산에 비친 늦은 저녁노을 경치가 영산팔경의 한 몫을한 듯 하다.

교리 골룡(骨龍) 교리 남쪽의 마을로 처음엔 용이 앉은자리라 하여 용성(龍成)이라 했는데 그후 산세를 보니 돌이 많아 딱딱한 지형이므로 이 지형은 용의 뼈라하여 골룡으로 고쳤다 한다.

용산정(龍山亭) 영산 궁도의 역사가 100년이나 된다니 놀랍다. 용산정의 발기는 1924년 남산기슭에서 남산정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어 1938년에는 장소를 옮기면서 영덕사우회(靈德射友會)를 창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6.25 한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중 1976년

창녕군의 지원을 받아 재건과 동시에 용산정(龍山亭)으로 개칭 하였고, 뜻있는 몇분이 사비를 출연하여 지금의 장소를 매입하는등 각고의 노력으로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용산정의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전국대회를 개최하여도 손색없는 궁도장으로 발전하였고, 용산정 백년사를 펴내어 영산인의 기질과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 이방면 석리

용배(龍背)와 상룡(上龍)

용배는 용의 등이라는 좋은 뜻이 아니라 달리 용의 위쪽으로 상용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창리에는 용아산(龍牙山) 용아천(龍牙川)등의 지명이 있다. 아리실 남쪽 산으로 용의 형국이라 하여 용아산 으로 불리고 아리실 마을 앞 내를 용아천 이라 한다.

용강재(龍岡齋)

광주노씨 소유 재각(齋閣)으로 옆에 이수정(二水亭)이 화재로 소실되고 용강재에 합(合)치게 되었다는 기록만 있다.

● 유어면

대대리 호룡골(回龍)

이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름이 용두산이다. 이 산이 『회룡 고조(回龍顧祖)의 형국』 이라하는 풍수 지리설에 의해 마을이름이 되었다. 이마을이 모두 부자로 잘사는 것이 이 회룡고조의 덕이란다.(回龍顧祖)~풍수설, 산의 지맥이 뺨 돌아서 본 산과 서로 마주 대하는 地勢)

회룡재(回龍齋) 선산김씨의 봉선소로서 기문에 중수기(重修記)내용 외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도천면 우강리 호룡골(回龍) 우강 동편끝의 정상에서 남으로 뻗어 있는 산등이 아홉 개가있어 구등산(九登山)이라 하고 아홉등중 서쪽으로 뻗어다, 낙동강과 만나는 산등을 용두산이라 하고 산등이 구비쳐 왕성이곡(旺聖峴谷)을만든 시초라하여 이곳이 용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왕성이곡(旺聖峴)): 효우촌에서 길곡 오희리 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길곡면 오희리 용두(龍頭) 오희리의 바깥마을을 외동이라 하고 외동의 북쪽의 산으로 용의 머리 형상이라고 용두라 칭하며 풍수지리설에 의한 지명이라 한다.

부곡면 학포리 비룡산(飛龍山) 학포리 마을 뒷산이며 노리의 논실마을 앞산이기도 하다. 산의 형상이 나르는 용처럼 힘차게 꿈틀거리고 있다. 하여 풍수지리설에서 나온 이름이라 한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창원 북면의 천마산과 마주하고 있다.

기타 용의 명칭(읍지, 군지등의 문헌에 명칭만 있는 樓, 亭)

대지 성구세(成龜世)강학소~~~ 臥龍亭,

장마 창녕조씨 재각~~ 龜龍亭,

장마 밀양박씨 재각~~ 龍巖齋,

장마 윤경의(尹慶義)재각~~ 駕龍齋,

在縣南十里김시해(金是階)묘각~~ 龍岡齋,

참고문헌: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창녕루정록, 창녕군지명사, 창녕금석문

10. 용을 주제로한 각종 조형물

1) 전통적인 용모습



용두보당(삼성 미술관 전시)
국보 제136호

※ 용두보당(龍頭寶幢):
금속으로 제작된 고려시대 당간지주



금동 당간 용두(국립대구박물관 소장)
통일신라시대 보물

2) 용의 돌조각



고달사지, 원종대사 해진탑비의 귀부

※ 귀부(龜趺):
거북모양 비석받침돌



원각사비의 이수

※ 이수(螭首):
용 모양을 새긴 비석의 머릿돌

3) 무신도(巫神圖)중의 용신



용왕대신, 중요민속자료 제17호
(서울 종로구 국사당 소장)



용궁부인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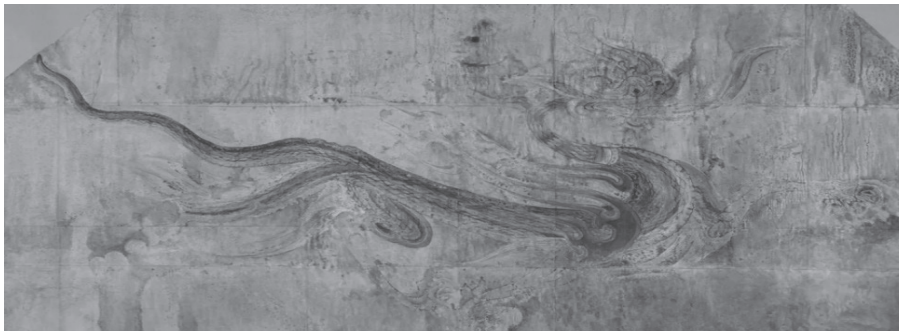
4) 용의 조형물



운룡문대모장룡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용신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룡도, 고구려 벽화 (북한 평안남도 강서군)

교육과 低出産의 相關關係



虎棲 곽정기
창녕문화원 부원장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개인을 떠나 국가적인 큰 문제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느끼고, 또 걱정하는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아나,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전연 개의치 않고, 국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 역사상 언제부터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고민하게 되었나? 왜 저출산이라는 아주 국가적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상상하고 미래 대비에 관심을 두었는가? 이런 부분을 필자는 교육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가 교육의 발전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사회 활동 등 활발한 움직임, 경제적인 富, 여러 조건을 고려해보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국가적인 정책과 대책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부터 즉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임시방편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며, (예를 들면 1명 낳으면 100만 원, 2명 낳으면 400만 원, 3명 낳으면 돈과 학교 교육지원 등 지자체별, 기업별 상이한 지원, 어느 기업에서는 아이 낳으면 1억(億)

지원을 한다고 하는 등) 방법은 어느 기점에 가서는 한계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일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한 처방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인 교육의 방향, 여성들의 사회 활동 등을 고려해서 정책을 장기적이고 다방면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판단되어 교육과 저출산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교육의 변천 과정

교육방식은 아주 예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실시됐지만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는 朝鮮時代부터 한번 과정을 알아볼까 한다.

朝鮮時代에는 중앙에 成均館과 4학(東學, 西學, 南學, 衆學)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방에는 향교와 서당이 운영되었다. (지금도 향교, 서원, 서당이 많이 남아있다) 향교는 聖賢祭祀를 비롯한 유생교육 및 지방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각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위치하며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여 운영되었다. 서당은 주로 初等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고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나, 일반평민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교육기관 들이 朝鮮時代의 敎育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참 고

서당의 기원은 고구려의 경당에서 찾을 수 있다.

이어서 조선 시대에는 여러 형태의 서당이 세워졌고 일제 강점기에 학교설립이 어려웠으므로 자연 서당에 다니는 학생이 많아졌다.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서당은 없지는 않았지만 공부한다고 해도 여자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기초적인 문자만 배웠다.

◇ 教育의 기회 ◇

朝鮮時代는 주로 일반층(소수의 支配階級) 남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백성이 文盲 상태였다. 그러나 세종대왕 시기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백성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支配階級은 여전히 漢文 중심의 文字 생활을 유지하며 일반백성들은 지배계급의 文化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訓民正音

1443년 음력 12월(양력 1444년 1월)에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국어의 표기체계(朝鮮 4代 임금 세종대왕)

“1444년 창제하고 1446년 반포한 韓國 고유의 文字체계”

◇ 개화기 教育기관 ◇

원산학사는 1883년에 설립된 教育기관으로 19세기 말 조선이 서양을 향한 개방과 근대화에 필요성을 직면하면서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원산 개항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教育 근대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원산학사는 정식학교와 함께 자생적인 教育기관으로 운영되었다. 학교는 문반(文科)과 무반(武科)으로 나뉘어 상업, 해외무역, 행정 등의 문화적인 지식과 치안유지를 위한 군사훈련을 제공했다. 이 학교는 조선의 教育체계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다음으로 1885년 한성사범학교, 1886년 ¹⁾육영공원 등이 있으며 1886년 배재학당은 기독교 선교사인 스크랜턴부인이 설립한 학교이며 이 학교는 女性 教育의 産室로서 初等, 中等, 大學교육을 모두 실시한 개화기의 女性 教育 기관으로 운영된 것으로 본다.

1) 육영공원 : 1886년 설립된 관립학교(양반, 고관자제 수용)

◇ 정부 주도 교육기관 ◇

고종이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의 이름을 지어주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조치였다. 정부는 公教育에 의한 근대적 國民教育制度 수립을 추진했고, 한성사범학교 관제와 小學교령을 제정하고,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노력은 당시 조선 정부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教育改革을 주도적으로 추구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의 자주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세기 실학자들의 보편적 國民教育에서 출발하여 자생적으로 국민 初等教育制度를 수립한 것이다.

◇ 民間 주도 교육기관 ◇

소규모 教育機關이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활발히 운영되었다. 이러한 教育機關은 法令에 의한 정식학교만큼의 시설과 교사, 교육과정을 갖추지 않았지만, 新學問에 대한 열의로 교육활동이 조직 운영되었다.

民間 교육활동은 정식학교와 비교해 훨씬 많았으며, 1905년 당시 전국에는 公立 小學校가 60여 개 있었고, 반면 私設 教育機關은 무려 5,000여 개로 많았으며 1908년 민간학교 인가를 신청한 수는 1,200여 개 더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교육 열의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 고

「女性的 역할과 근대 여자교육 談論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여성 지식인과 여자교육의 歷史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27년 이능화의 「조선여속고」 「조선해어회사」로 볼 수 있다. 이 두 연구서는 근대 이후 형성된 남녀 同等權이나 여자 教育談論을 반영한 것이다.

2. 教育의 중요성 인식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부가 教育改革에 힘을 기울여 초, 중등교육의 확대와 質的 改善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대학개방, 사립대학 육성정책 등이 시행되어 고등 教育 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부터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教育정책의 다각화와 현대적 도약이 이루어졌다. 教育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人材 養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社會的 編成, 다문화 教育, 教育과 일치하는 진로 체계 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세기 초에는 教育의 平等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롤리즘교육정책과 유럽의 教育정책은 性別, 人種, 社會的 背景과 관계 없이 모든 이에게 教育 機會를 제공하기 위해 教育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教育프로그램과 정책이 마련되었다.

교육의 歷史的 발전은 인류문명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古代文明에서 시작된 教育은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와 현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現代의 教育은 디지털 기술과 개인화된 학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發展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教育의 歷史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教育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다. 教育의 기원과 發展 過程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教育시스템을 이해하고 미래의 教育을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教育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知慧와 價値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教育의 역사적 進化를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 教育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教育 方向도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教育으로 轉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 이런 교육 課程에서 인구 增加는 계속되었다.

교육이 이런 과정과 발전을 하면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經濟가 어렵다 보니 먹고사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시골 지역에서는 보릿고개(보리가 나기 전에 糧食이 고갈되는 時期)가 유행처럼 무척 어려운 살림살이가 계속되는바 정부는 産兒制限이란 정책을 내면서 필자가 공직생활 할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으로 가족수당도 자제는 2명까지만, 그리고 심지어 예비군훈련(남자)도 정관수술을 하면 訓練 免除 등 다양한 방법으로 産兒制限을 부르짖으며, 인구억제를 위한 노력이 지대하였다.

“Birth control(산아제한 가족계획)의 Let us do it now 한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기가 있었는데 産兒制限의 넵 두유.

4. 인구억제를 위한 家族計劃事業

6.25 戰爭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증했기 때문에 韓國戰爭 이후 1955年~1963年 生을 베이비 붐 세대라 칭한다. 인구증가를 우려한 정부는 1961년 출산을 抑制하는 「産兒制限」가족계획사업을 펼쳤다.

産兒制限이란 과잉인구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家族構成元數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調整하는 것을 의미한다.

人口增加를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임법교육, 피임 도구 제공, 불임수술, 임신중절을 권장하기도 했다.

‘61년 産兒制限은 ’70년까지 추진했으나 그의 실패 수준이었으며, ‘70년 출산율은 4.53명으로 여전히 높았다.

다시 정부는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口號와 연도별로 구호를 만들어 인구억제 정책을 연구한 바 있다.

1970년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父母 되자

1980년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超滿員

1990년

젊은 꿈을 아름답게 이성 교제 健全하게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5. 人口增加에서 減少로

1960년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
급격한 인구증가는 經濟成長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經濟開發 5개
년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 정책이 並行 추진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여 저출산이 시작되어 대략 年
度別로 출생률을 보면, 1960年 6.0명, 1970年 4.53명, 1983年 2.08명
으로 人口代替 수준(2.1명)에 도달한 후 약 10여 년간은 1.6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青年 失業者가 대거 생겨
나고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1
년에는 初 저출산사회(1.3명)로 진입을 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最低 수준을 記錄하였다.

연도별 출생아 數字로 보면 1980년대에는 年 87만 명, 2006년에는 年
46만 명,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도

2018년부터 減少가 예상되었고 유소년 인구가 65세 노인인구보다 줄어드는 人口構造의 변화는 社會構造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高齡化로 이어져 생산능력이 鈍化되고 소비, 투자, 저축이 위축되어 경제성장과 潛在 성장률의 鈍化가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이 문제화되면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 제기

家族 親和的 양성 평등적 文化 造成,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과 관련하여 세부 과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共感帶 형성을 위하여 經濟界, 宗教界, 女性界, 保健 醫療界, 市民 團體, 言論界 등 전국 5,857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앙 및 지역출범을 지속해서 재개해 나가기 위한 아이 낳기 좋은 世上運動本部가 출범하였다.

◇ 최근 年度別 출산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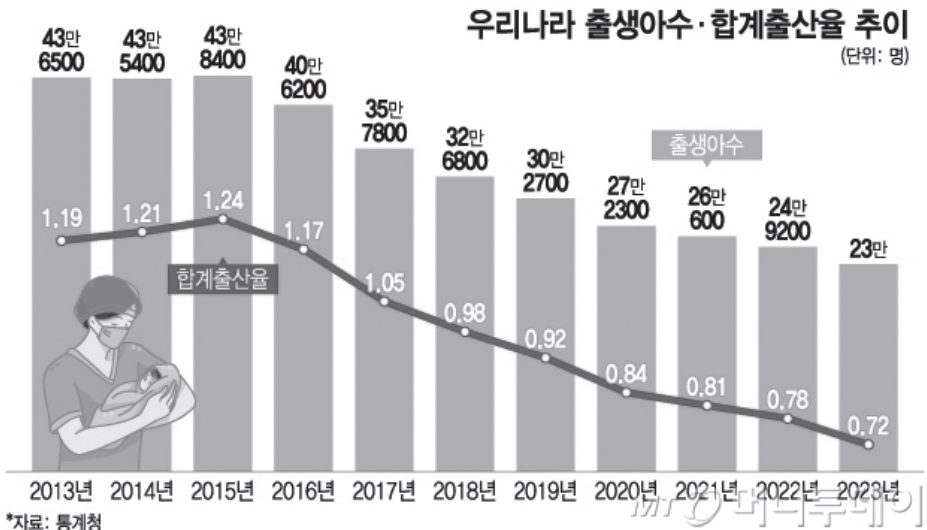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그래픽=이지혜

6. 각고의 努力에도 저출산은 繼續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시작은 2001년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인구 출산에서 보면 2000년도 출산이 63만 명인 데 반하여 2001년에는 54만 명으로 1년 만에 약 9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게 태어나 이때가 저출산의 時期로 보는 것이다.

연도별 출산 수

연도별	총 출산수	남자 아이	여자 아이
1990년	632,168	331,449	300,719
2000년	625,914	326,275	299,639
2010년	460,535	237,229	223,305
2020년	291,777	149,578	142,198
2022년	249,089	127,504	121,585

※ 2023년 223,895명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증가하다 2020년부터 사망자보다 출산자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 減少로 돌아섰다. 즉 2020년-**32,611**명, 2021년 -57,118명, 2022년 -123,753명으로 매년 減少 폭이 증가하고 있다.

7. 왜 저출산은 繼續되고 있는가?

늦은 婚姻 時期와 혼인을 하락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80년대 후반에는 30대에 家庭을 일구어 자녀를 두 명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時代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는가? 현재는 30대 초반은 結婚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30대 후반은 '아직 멀었네' 하고 옛날에는 30대 결혼 못 한 자녀가 있으면 큰 흥으로 생각하고 부모는 죄지은

사람처럼 부끄럽고 꼭 부모 잘못된 양 말도 못 하는 시절인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싱글 시대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다.

특히 都市보다 農, 漁村지역으로 가면서 이는 더 深刻하고 아예 결혼을 外國여자에 의존하는 時代에 다문화 가족을 이제 받아들여 그나마 가정을 이루고 출산율에 일조하고 있다.

부모가 結婚을 강요하지 못하는 사정 중의 하나는 정말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르겠지만 본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과 눈을 낮추어서라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운이 좋아 저의 이상형에 딱 맞는 짝꿍을 만나 결혼했지만, 만약 男便을 만나지 않았다면 기준을 낮춰서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結婚 잘못하는 순간 人生은 와-장창~~~~~무너지는 거 아시죠?” 이런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과 상호 比較하는 내용으로 물론 돈 문제가 있다. 누구는 명품가방에 다이아 반지에 住宅준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부터 아파트 생활하던 세대인데 우리네 父母들처럼 원룸, 빌라, 전셋집에서 新婚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고, 남들 다 하는 몸 조리부터 유아 되기까지의 과정, 영유 私立初, 그리고 어마어마한 私教育費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결혼이 멀어져 가고 있다.

미혼일 때 나 혼자 충분히 즐기며 여유롭게 생활했는데 아이 낳고 기르려니 힘들게 일해도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이런 젊은 사람들의 思考가 社會的으로 변화되어 스스로 판단해서 결혼과 가정을 가지는 것이 幸福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을 통한 저출산의 극복책

1. 教育의 變化추구

結婚, 出産, 育兒 費用을 줄여주는 정책지원(policy)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祝福이 될 수 있고 자연의법칙과 생존의 가치 추구를 위한 認識 變化(cultural change)가 없으면 정책은 成功할 수 없다면서 “독일, 이스라엘, 일본, 미국 등 출산율이 1%대인 先進國을 보면 일과 가정이 확실히 양립되고 사회적 돌봄 체계가 구축돼있고 가족 친화적 文化 등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했다.

“오늘날 출산은 哲學이다.”

출산 세대는 幸福하지 않다. 幸福할 자신이 없다.
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아니 못 낳는다.

총체적인 문제의 결과가 저출산, 그 뿌리는 哲學의 不在다.

출산 세대가 幸福하게, 幸福할 자신이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직 저출산에 대한 深刻한 문제를 느끼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 대책이란 게 정부정책만 쳐다보고 있고, 정책을 내놓아도 따를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왜일까?

“출산 세대가 幸福하고, 幸福할 자신이 있으면 된다.”

그들 부모 그들 자식은 따라서 幸福해진다. 최소 부부가 아이 둘 낳으면 된다.

2. 教育을 바꿀 수는 없는가?

유럽과 미국처럼 學生에게 공부만 하라고 하느냐? 대학진학률 30%, 대학을 안 가도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공부가 趣味인 사람들이 대학 간다. 숙련공, 기능공이 몸값이 더 비싸다. 이들은 파티를 즐기면서 幸福하게 산다. 우리가 먼저 이 길을 만들고, 가 보면 된다.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를 키우고 있는 父母로서 기성세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자각하자. 현재 저출산 時代를 위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世上을 여는 기회로 만드는데 總力을 기울여 보자. 또한 교육의 방향도 한번 생각하면서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結婚, 家庭, 아이 낳는 것을 자기 幸福 지수가 아니라는 아이러니한 생각 이런 것이 지금하고 있는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를 바꾸는 데는 전문적인 專門家나 學者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3. 그렇다면 克服策은 없는가?

지난해 정부는 모델로 헝가리를 선택해서 다방면으로 研究를 했다. 양육 보조 정책, 이는 女性들이 家庭을 위해 職場을 포기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없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특히 “家族을 위한 住宅구매 보조금 지급정책”으로 新혼 부부의 住宅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新築 주택에 대한 부가세율을 27%에서 5%까지 삭감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 결과 헝가리 출산율은 2011년 1.23에서 2018년 1.49로 2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마침내 오늘날 헝가리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약 20만 가구에 달할 정도의 성황으로 이어졌다. 헝가리 政府의 다방면의 노력으로 총체적 증가추세로 成果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방향에서 저출산 탈출을 위한 정책이 헝가리 못지 않게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企業體가 앞장서서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2024년도 結婚과 출산수가 늘어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은 다행 중 다행이나 이는 一時的인, 즉, 깜짝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앞서 필자가 저술한 內容과 같이 長期的이고, 저출산 탈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教育의 方法과 方向에 대한 研究를 해서 並行하여야만 될 것이다.

結婚과 자녀 수에 따라 더욱 다양한 支援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補助金 이외에도 저금리 담보대출, 차량구매 보조, 각종 세제 혜택 등 각종 제정 지원을 계속 지원해서 인구 增加 추세로 轉換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우리의 未來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인가? 投資에 인색해선 절대 成功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선순위로 보아서는 가장 1順位가 이 문제 아닌가 싶다.

結論적으로 우리는 저출산의 탈출은 教育과 結婚, 子女, 家庭을 가지는 것이 幸福이 될 수 있는 哲學이 되면 자연히 저출산은 극복되리라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는 言行들과 시행자의 정치 성향에 대한 評價와는 별개로 오르반(헝가리 총리)이 시행한 출산 정책은 맞벌이 가구들이나 職場이 있는 女性들에 매우 커다란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世界的인 저출산 분위기 속에서 그중에서 OECD 국가 중 最下位에 있는 大韓民國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經濟大國이 된 것과 같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증가로 돌아서는 위대한 國家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국민의 底力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역사는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지 않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政府의 좋은 정책과 다방면의 지원을 더 해서 우리 모두의 努力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조상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



海水 陳台洪 (96세)
창녕군 대지면 학성리

조상을 잘 모셔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다.
조상을 배신하면 불행하다.
부모님 생전이나 사후에도 불효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자부한다.

부모님의 유언을 고령의 나이지만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편모 슬하(膝下)에서 자당(慈堂)의 유언은 “너는 학력 없지, 재물 없지,
도와줄 형제 없지. 어떻게 살 것인가 심히 걱정이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대문부터 열어라. 그것이 부지런의
상징이다.”

이런 유언을 실천한 결과, 먹고 사는 데도 가난하지 않고, 내가 장수
하는 것도 유언의 덕택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은혜로운 자당이 82세로 운명(殞命)하셨다.
너무나도 슬퍼 울고 또 울고 하여 얼굴이 많이 부었다. 마을 이웃에서
문상을 와서 하는 말이 “상주 병원에 가야 하겠다”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것은 병이 아니고 어머니님 안장 후에는 절로 완치가 됩니다.”

장례 후에는 49제를 위해 빈소를 차려 49일간 아침저녁 밥상을 차려 곡을 하며 절을 했다. 묘소에도 상복 입고 매일 성묘 참배 하였다.

내 침실에 자당(慈堂) 사진이 걸려 있는데 하루 평균 10번 이상 절을 한다.

호천망극(昊天罔極)에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여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행복감이 있다.

우리 모두 조상을 섬겨야 행복하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로운 사람도 볼 수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다.

조상은 나를 있게 하신 너무나도 은혜로운 분이시다.

근원 없는 냇물 없고, 뿌리 없는 나무 없으며, 구름 없는 비가 올 수 없고, 조상 없는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조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로운 분이시다.

때문에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교훈이다.

조상을 모신다는 것은 다만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후손의 도리다.

조상을 배신하면 천벌을 받는다.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선산에 묘소를 둔다. 그 묘소에 수시로 가서 참배 성묘하는 것이 또한 자손 된 도리다.

또한 가정에서는 조상의 가신 날을 기해 후손이 모여 정성 어린 제사를 지낸다.

양 명절에도 누대 조상을 같이 모신다.

효성이 지극한 후손은 철저히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며 정성을 다한다.

이러함에도 명절이 되면 조상을 모시고 가족 간에 친목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엔 수십만 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니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패륜아들이다.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부모님의 제사에 올리는 축문에 호천망극(昊天罔極)이란 말이 있다.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다는 뜻이다. 부모님의 은혜가 이러한데 어찌하여 보답할 수 있겠는가!

스승의 은혜



海水 陳台洪 (96세)
창녕군 대지면 학성리

옛날에는 ‘군사부(君師父)’라 하여 스승을 임금님 다음으로 예우하였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사람다운 도리다.

필자는 어릴 때 한학자로부터 한문교육을 받았다.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창녕읍 직신리에 김녕김씨 재실인 청온당이 있었는데 그 곳이 한학을 배우는 서당이었다.

율곡 선생의 저서인 격몽요결(擊蒙要訣)과 대학(大學)을 배웠다. 이후 그것을 그만두고 신학(新學)을 배웠다. 또한 한학 스승님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강학계(講學契)를 조직하고 필자가 계장이 되어 운영하였다.

정기총회 시 스승의 아호를 작호하여 직암(直菴)이라 하였다. 스승은 별세하시고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학들이 모여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묘비를 세우자는 결의를 하였다.

후학들의 성금이 상상외로 많았다. 비문도 필자가 작성하였다. 묘비 비제(碑題)를 ‘직암 김진하 선생지묘’라 하였다. 드디어 1990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수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많은 하객이 운집 하였다. 김진백 군수님, 황희룡 교육장님도 참석 하시어 축사 말씀이 있었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바로 이곳이 교육의 현장이라 하셨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다.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회고해 보니 참으로 잘한 일이었고 지난 추억이 새삼 새롭게 다가 온다.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일회적인 인생이다.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면 인생무상감(人生無常感)만 남는다. 후회 없고 미련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한다.

운명적인 생로병사(生老病死), 누가 거절 할 수 있겠는가? 매사 인연에 순응하며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다. 죽음은 우리 삶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다. 은혜에 보답하고 배신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면 희희낙락(喜喜樂樂)으로 황천을 간다.

직암 스승님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흐끄므레한 새벽 미풍이 부는 날 마타리 꽃을 피우리라



글길 문경주

우뚝 솟은 용마루 섬섬이는 피리를 불면서 서러운 봉황대(鳳凰臺) 공원을 내려다보았다. 취기가 더 오른 가야 주거군(회현리 패총: 조개 껍데기 등이 쌓여 만든 조개무지) 뜨거운 역사 철기 및 골각기, 토기와 탄화미 등 가야 시대 생활 모습은 골각기(骨角器: 석기시대 동물의 뼈, 뿔, 이빨)와 탄화미(炭化米: 유적에서 출토된 곡물 중 하나 불에 타거나 자연적으로 탄화된 남아 있는 쌀)의 상흔이 남았다. 미풍이 부는 날 사금 파리 별들을 에워싸고 후벼 파는 아픔 뺏고동 울음 뒤 숨어 해선의 얼굴 너울처럼 소나무 숲 사이 아픔 근심의 봉황대 뒤 숨어 담뱃불 라이트를 켜며 안 보일 때까지 몸 웅크리며 난간에 기댄 채 혼절하며 선 인생 수레 바퀴는 한 많은 애모(哀慕)의 정(情) 꿈에도 못 잊을 사랑을 남기고 뒹구는 낙엽은 생이별이란 걸 모른 채 풍광을 즐기는 만추의 서정이었다.

한밤중 벌떡 일어나 몽유병 환자처럼 두려움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할 때마다 아쟁으로 심신을 달래었다.

김해 봉황대는 조선시대 김해 부사 정형석이 “언덕의 모양이 봉황이 날개를 편 모습과 같다.” 하여 대(臺)를 쌓고 봉황대(鳳凰臺)라 불렀다.

에둘러 해선은 가야금 열두 줄을 튕기며 움작달삭 못하고 버티는 기둥의 높이 세 치는 하늘, 땅, 사람(三才)을 기원하였다.

가끔 내 위치와 상관없이 손이 떨릴 때마다 한 움큼의 진통제를 털어 넣었다.

걸핏하면 피리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김해의 가락국(금관국:금관가야) 때 가야금(伽倻琴)은 가야를 정복한 신라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승(傳承)하여 신라금(新羅琴)이라 하였다.

봉황대 주위를 둘러보았다.

넓은 공원으로 사당이 있고 곳곳에 맞춤형 용도들이 즐지어 있었다.

가야의 음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야금이다.

우륵은 가야금을 만들고 작곡도 12곡 하였다. 그중 하가라도(下加羅都)는 금관가야를 가리키고 상가라도(上加羅都)는 대가야를 가리킨다.

가실왕(嘉悉王)은 “가야 여러 나라의 말이 각각 다르게 성음(聲音)을 한 소리로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가야금을 만들었다.

가야금을 만든 목적은 음악을 통해 가야의 연맹체를 결속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던 중 신라와 국경 분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예비군으로 나아가야 했다.

꼬깃꼬깃 접힌 입영 통지서를 허둥지둥 꺼내 해선의 손에 꼭 쥐어준다.

섬섬이 : 내가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해 선 : 걱정 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골목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포옹하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꽃이 지고 필 때까지 몇천 번이고 기다릴 수 있다고 대뇌였다.

섬섬이 : 담배를 사납게 꼬나물며 진짜 사나이가 되어 군 출전을 앞두고 불안한 기운에 정신이 번쩍 달아나버렸지만, 눈을 뜨지 않고 해선의 젖은 머리칼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말없이 기댄다.

해선 : 마음이 뒤숭숭해요.

눈자위가 붉게 부어 물든 해선을 뒤로하고 흘끔거리듯 애꿎은 돌을 툭툭 차올렸다.

여름 쟁글쟁글 햇살이 가파른 사선으로 내리 쏘였다.

신라 통일기 6정(停)의 설립과 군사 지리적 관계로 왜(倭)로 가득 찼다.
천변길 따라 남지 철교가 보인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해선과 걷던 남지 개비리길 걷다 낮게 흘러나오는 자연의 소리를 상상해 보았다.

머리를 굽적이며 눈을 내리깔고 호주머니 속 피리를 꺼내 [봉황대의 봄]이 흘러나온다.

반주에 맞춰 빠져나온 발가락들 끄떡끄떡한다.

섬섬이 군에 출전하여 자충괘(현: 군악대)에 배치되어 군의 사기를 높이고 분위기 고조를 위해 피리를 불곤 하였다.

가야금과 가야 음악은 각종 의례【(儀禮: 형식과 절차를 갖춘 행사로 의식과 전례(典禮)】에 연주되었다.

왕 역시도 예악 정치를 추구하였다.

이후 가야금은 왜(倭)에 전해져 현재 일본 정창원에 신라금(新羅琴)이 남아 있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봉황대 깊은 침묵 속에서 올려 보는 하늘은 높고 푸르다 못해 시렸다.

섬섬이 없는 미래는 없다.

현재의 삶은 과거를 양산하는 것이다.

못내 사랑을 알아버린 병어리 풋 가슴처럼 애욕(愛慾)을 알았다.

본인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타의(他意)에 의한 섬섬이는 찬란한 비화가야의 창녕을 방문자 취급으로 낙동강변을 따라 부챗살 꼭지만 남겨두고 ‘희생양’이 되었다.

금관가야의 터(김해)는 지형은 육지와 남해 바다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낙랑과 왜(倭)를 연결하는 중계무역이 활발히 성행한 상업 국가이다.

철제 무기를 앞세워 철을 제련하여 대외 교역품으로 사용, 무장력을 향상해 적들을 괴로하게 하여 사기를 떨어 떨어뜨렸다.

덕필 장군은 신라 중고기(中古期)에 중앙 및 지방 주둔 군단의 지휘관이자 주(州)의 장관이었다.

덕필 장군은 그전부터 해선이 마음에 들어 속마음 드러내며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세월을 막연히 기다릴 수 없었다.

자신을 소개한 뒤 “잘 지내시죠?”라며 인사로 헤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잠깐동안 그를 좋아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매우 난처하게 대답한 적은 있다.

“옛 애인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지만 덕필 장군에게 굳이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망설였다.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들은 주파수를 맞출 때 들렸던 지지직씩 소리가 무거운 군홧발 소리로 들려왔다.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적막해져 갈 즈음 흘끗 뒤 돌아보니 덕필이 필터 없는 말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새벽부터 실랑이가 땅거미 지도록 해결이 나지 않았다.

덕필은 해선이 어떤 생각으로 있는가? 우선 떠 보고 난 다음에 그 기분에 맞추어서 모호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 지레 겁먹고 무책임한 것 같지만 해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친척들은 해선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묻곤 했다.

“너는 언제 시집을 갈 생각이냐?”

그 무수한 일관된 말(言)들에 함축된 의미를 차단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쳤다.

환상을 쫓아 가지만 해선은 무릉도원의 꽃 잔치에 흠뻑 빠져 매몰차게 몰아세우고 현(炫)의 마음을 싣고 저녁노을이 붉게 타들어 가도록 윤슬처럼 빛날 뿐이다.

반짝이는 하늘의 별 마냥 섬섬이와 허수아비 사랑 이룰 수 없었다.

섬섬이와 해선의 사랑을 끊어 놓기 위해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하고 (마음)을 시험하는 행위로 어깨를 껴안으려고 하며 불쾌한 기색으로 외면하면 덕필은 해선이 일절 응하지 않는 마음에 너그럽게 웃고 조금도 다름없이 응대하였다.

“그럴수록 질투의 기색 화살을 쏴야 한번 더 내 사랑은 간곡히 받아 주게. 우린 잘 알고 있잖은가?” 라며 호소하였다.

노곤한 감기로 인한 오한으로 으스스 추워 계단에 발을 디딜 순간 덕필이 젖은 양어깨에 손을 올리며

“추우세요.”

“괜찮아요.”

“섬섬이 많이 보고 싶구나?”

(멍 때리고 있다)

“감싼다.”

하루 종일 제 몸 말린 맨 처음 말린 마타리꽃 작은 송이 1~2개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첫 물은 버리고 우려낸 차 맛을 음미하며 향기로운 냄새가 코 끝을 간지럽힌다.

섬섬이를 죽일 욕심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분노하면서 위험한 곳으로 유도하였으나 운명은 그들의 인연 줄 끊어 놓고 세월은 떨어지는 나뭇잎 서로 눈여겨보며 갈피를 못 잡고 흐느끼는 줄 타는 가야금만이 슬픈 인연의 언약을 튕겨본다.

2년이 지나서 세월 넘어 섬섬이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포로가 되어 투항하거나 항복은 하지 않았다.

가을의 문턱에 서서 해선은 섬섬이의 무사 귀환을 위해 하얀 밤을 지새우며 고즈넉이 추념하는 가야금 노래에 포물선 그리듯 오매불망(寤

寐不忘) 사연을 전하고자 처연(悽然)의 소리를 낸다.

섬섬이의 거동과 모습이 봄에 뿌린 씨앗이 각자의 가슴에 알찬 열매로 수확되어 가꾸어진 풍성함 빼어남을 안 덕필은 그럴수록 질투심에 차 섬섬이가 전사하였다고 거짓을 알린다.

가끔 바람과 바람을 가르며 피리를 불어 주던 섬섬이 포로가 되어 있던 장소는 군사력이 크지 않은 충분히 억재(億載) 할 수 있는 호각 지세(互角之勢)를 이루었다.

요령껏 해선이 앞에서는 겨우 태연하게 행동하며 저울질해보기도 하고 눈사람 모양으로 점점 커지던 이해심 많은 덕필도 어설피 적의 화살에 맞아 죽는다.

해선은 덕필의 영혼의 배려를 위해 가야금 연주로 빌어준다.

섬섬이는 일정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호기심으로 미지의 것을 동경한 반면 해선은 섬섬이를 자기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정착하였다.

섬섬이 다른 곳을 탐색하여도 절대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다.

해선이 마음이 너그럽고 그 어떤 여자보다도 매력이 넘쳐 그에겐 간단히 넘길 방지턱이 없었다.

봉황대 108계단을 내려가면 철독 건너편 봉황리 동네가 있고 그 중간쯤 봉황사 절이 있다.

좁고 긴 고샅길 골목이 둥근 언덕을 가르마처럼 지나쳤고 올망 올망 녹슨 철 대문이 따개비처럼 붙어 있었다.

가을 들녘 추수를 끝낸 할아버지는 마늘을 심다 쪼그리고 앉아 한 개비 담배를 빨아대는 사이 허리 구부려 무릎 짚고 일어선 할머니는

누른 호박을 쓰다듬으며 번쩍 들어 수레에 싣는다.

수레에 담긴 풍성한 찬 거리는 저녁 부엌으로 들어가는 내내 할머니의 입꼬리는 올라간다.

주머니 깊숙이 언제 적부터 있었는지 녹녹해진 박하사탕을 꺼내 마른 입을 적신다.

자신의 길을 지키려 아픔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채 짝 되어 홀로 몸서리쳤다.

한 사내를 만나 두 손 꼭 잡아 주는 인연도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나니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아름다운 인연이었노라고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 편한 것을 해선은 가끔 사내가 그리울 때도 일편 단심 섬섬이를 기다리다 허공에 무너지고 만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였다.

매장하는 과정은 크게 묘택(墓宅: 묘지)의 선정과 정지 단계를 거쳐 매장 주체부를 구축과 시신 안치 및 부장품 부장 단계 매장 주체부 복개 및 밀봉 단계 성토 단계로 나뉜다.

해선도 봉황대 장지로 운구된 시신을 목곽에 넣어 석실의 중앙에 안치되었다.

해선이 아끼던 옷 장신구 가야금은 묘 곁에 두어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가져갔다.

죽은 해선을 매장 후 탈상(脫喪)할 때까지의 의례를 상장례라 하여 시신을 장지로 운구할 때도 일정한 의례 절차를 밟았다.

장례기간은 3년 동안 슬픔을 묻어 해선이 봉황대에서 가야금으로 노래하니 새소리가 들어오고 동네 사람들도 해선이와 섬섬이를 위해 춤 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듯이 혼 불을 넣어 가야금을 탔다.

지고지순한 사랑과 헌신 사랑하기엔 존재 가치가 신성(新星)하여 마
른 앞들 눈에 선하다.

봉황대 바람도 매섭고 어둡고 외진 마을로 내려온 섬섬이는 몇 날 며
칠 툭툭 부은 눈을 닦으며 흙 속에 묻혀 무릎 위 썩어질 것 생각하니
야! 이생(生)의 인연은 끝났구나?

늘 그랬듯이 함께 연주하는 첫 곡은 『마타리 꽃』이었다.

지휘자는 숲 속의 미물들이 코로스를 높여가며 그 노래를 반복하게
했고 구경꾼들은 목젓이 다 보일 정도로 흥으로 돋운 뒤 마지막은
춤으로 시나위 하였다.

(독백) 무덤가에 삼배하고 다소곳이 앉아 “장부(丈夫)의 한 세상 허망
하게 초라하게 살다 가는 거지?”라며 다 부질없는 것이라 선답(禪答)
하듯 들어왔다.

뜻 한번 펼치지 못한 사내의 진한 눈물, 다 내려놓으니 무념무상(無念
無想)이라?

들판을 가로지르며 소신 공양하며 향을 피운다.

몇 달 전 그곳에 지나게 되었는데 비석 옆 돌에 섬섬이와 해선이
내세의 못다 한 사랑을 이승에서도 똑같이 옮겨 갈 수 있도록 영역을
표시하며 혼을 옮겨주며 땅 속에 숨을 쉬던 핏빛 붉은 단풍이 떡살잡이
하듯 붉다.

철저히 계율을 지키며 생의 축수들 환생하며 건드리면 토오톡 터지는
씨앗, 위상을 앞으로 형상화하여 벽화를 그려 도심의 피곤을 녹인다.

꽃송이 날리며 크게 숨 쉬는 날
이듬해 초가을 올려다보는 옹골진 봉황리 마타리 꽃으로 부스럭거
리리라.

역사왜곡에 대한 소고

(건국전쟁과 사육신)

海昌 金辰烈
창녕문화원 이사

행정동우회의 주선으로 2024년도 화제가 된 영화 “건국전쟁”을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단체 관람했다.

건국전쟁은 김덕영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김감독은 1965년생인 서강대 84학번으로 그동안 586세대로서 이승만에 대한 비난과 왜곡된 교육을 받아오면서 부정과 모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한으로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건국전쟁은 1945년 해방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 원리로 경제번영과 선진국의 길에 들어선 대한민국. 두 나라는 같은 언어와 역사, 인종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갈라졌을까?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투쟁과 희생을 재조명한 작품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지금도 좌우로 나누어 별이는 정치적인 판단을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야 하고 어떠한 길이 우리 후손에게 영광스럽게 물려줄 유산인지 지금이라도 늦지않게 각 오를 달리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워 왔던 역사가 정치적인 논리나 힘에 의해 왜곡되고 폄하되어 왔음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며 모든 매체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빛과 그림자 중에 그림자만 알아왔던 본인이 토지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원리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각자적인 노력 등 새로운 사실을 알면서 그동안 역사의 왜곡과 편파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백촌 김문기 선조가 오랜 시간 동안 사육신에 등재 되지도 못하다.

1977년 9월22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에 의거 사육신 중의 한분으로 판정하고 현창한 내용을 되세기며 후손으로써 사육신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알려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느끼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사육신 김문기 선생의 추모제 내용과 약전을 이번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매년 춘분일이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 있는 충의사에서 옥천군 문화원이 주최하고 옥천군과 김녕김씨충의공파 대종회가 후원하는 추모대제가 거행된다.

2024년 3월20일 순의 568주년 추모제가 전국의 유림대표, 옥천군 기관단체장 및 김녕김씨 충의공파 대종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창녕에서도 버스 1대로 종친 25명이 참석하였다. 참고로 1년전

567주년 행사시는 한삼윤 창녕군 문화원장 등 20여분의 지역유지분과 종친등 35명이 추모제에 다녀온적이 있다. 추모제에 참석하는 버스안에서는 항상 9순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산 김진백 전군수님의 사육신과 충의공 백촌에 대한 역사의 진실을 소개하는 특강이 있는데 매번 감동과 감사를 느끼며 소중한 역사를 한번 더 배우는 기회가 가진다.

11시가 되면 추모제향을 올리는데 초헌관은 황규철 옥천군수. 아헌관은 김녕김씨충의공과 대종회장이 맡으나 올해는 건강상 김창규 대종회이사장(전 창녕군종친회장)이 종헌관은 박한범 옥천군의회의장이 맡았으며 집례는 김정수 대구유림원로와 연정희 옥천향교장외가 대축은 유정현 옥천문화원장이 맡았으며 난계국악단의 제례악으로 거행하였다. 2부행사는 추모식으로 내빈소개(최명서 영월군수 등 주요인사), 사육신 김문기선생 약전 소개, 추모식사(옥천군수) 추모사(옥천군의회의장), 후손대표인사(대종회장), 사육신의노래(정순철 짝자궁 어린이합창단), 헌화 순으로 거행됐다.

사육신 白村 김문기(金文起)선생 약전을 간략히 소개한다.

선생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서조선초 부(父) 휘 觀, 모(母) 옥천 陸氏의 장운으로 출생 초휘는 효기(孝起)였으나 장인의 휘를 피휘하여 문기(文起)로 개명.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 마암(馬巖)이고 시호는 충의공(忠毅公)이다.

- 1418(태종18)년 일선(선산)김씨와 혼인(빙부 文靖公 金孝貞公)
- 1426(세종8)년 생원시와 문과에 급제
- 1429~1450(세종11~32)년 예문관 검열, 병조정랑, 경창부 소윤, 함길도 도진무, 수 승문원 판사, 겸지형 조사, 병조참의(정3품) 등 역임

- 1450(문종즉위년) 동부승지, 우부승지, 좌부승지
- 1451(문종1)년 함길도 관찰사,
- 1453(단종1)년 형조참판, 함길도도절제사
- 1455(단종3)년7월 공조판서
- 1456(세조2)년 6월2일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로 계시면서 단종 복위 모의를 주동하시다 발각. 6월8일 군기감 앞에서 거열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효수하여 3일간 시정에 걸어두는 형벌에 처해짐.
이날의 새조실록의 기사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의 6인에 대해서만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음.
- 1778(정조2년) 3월 충의공(忠毅公)시호를 받으심.
- 1781(정조5년) 증직을 받으심. 증직교지 내용에도 “자헌대부 이조 판서겸 오위도총부도총관 증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의겸부사 지경연 춘추관사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 세손이사” 당시 관직과 증직교지 관직이 잘못기재되어 있음을 알수있음
- 1791(정조15년)영월 장릉 충신단에 배향되심.
- 1977년 9월22일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사인 조선왕조 실록에 의거 선생을 세조조에 가려진 육신중의 한분으로 판정하고 현창하셨음.
- 1978년 5월18일 사육신 묘역에 허묘를 봉안하고 의절사에 위패를 봉안함.
- 2004년 7월16일 노량진에 사육신 김문기선생 기념관을 개관하고 영정과 위패를 봉안함.
- 2017년 3월20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 충의사를 건립하고 영정과 위패를 봉안함.

나만의 행복한 인생 꿈



智樹 진영출
향토사 연구위원

“시간은 금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대는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문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2 인생 시작 12년 차, 40여 년의 직장생활 퇴직 후 강산이 한번 변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었다. 가슴이 뛰는 삶, 드맑은 가을날 서산마루에 저무는 한 해 노을을 보면서 인생의 나잇값을 생각해 본다.

인생의 나이는 5가지가 있다고 한다.

- 첫째 시간과 함께 먹는 달력의 나이
- 둘째 건강 수준을 재는 생물학적 세포의 나이
- 셋째 지위 서열의 사회적 나이
- 넷째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신적 나이
- 다섯째 지력을 재는 지성의 나이

“나잇값 한다.” 사람값 한다는 얘기다. 나는 과연 내 나이에 걸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일 모두 다 기록하지는 않다.

“나이 드니까 아침에 보고 들은 걸 다음날엔 까먹더라” 칠십 이후 팔십이 넘으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나이, 상황과 현실이지만 반복해서 읽고 쓰고 생각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노년일수록 머리뿐 아니라 몸을 자주 움직여야 한다. 배우고 익히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희망을 찾으면 불빛이 보이고 절망에 집착하면 어둠에 갇힌다.”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공부 하고 일터에서 땀을 흘린다. 행복 하려면 힘과 지혜, 부와 명예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악한 욕망을 억누를 줄 아는 힘, 모든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지혜와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명예로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몫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므로 남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자기의 재능(TALENT)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성공은 목적인 바를 이루는 것이다. 삶에서 꿈, 욕망, 소망, 목표를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이루면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성공의 물질적인 소득수준 비싼 집과 차, 사회적 명성 등 가치를 좇는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 생각한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을 받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 에머슨

오래전에 소장하고 있던 코리안 탈무드를 다시 읽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배움을 뜻하는 유대교의 경전으로 가르침이라는 뜻의 토라와 같은 책이다. 토라와 탈무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교사)라 한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2가지 욕구가 있지만 모든 것 다 성취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래도 험담보다 좋은 말 칭찬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해 주지 않을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들은 자 그리고 험담의 대상자”이다.

유대인의 지혜가 집약된 탈무드는 말하기 전 3가지를 체에 걸러 봐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인지, 상대에게 유익한 좋은 내용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영화 “버킷 리스트”에서 자동차 정비사 카트는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에게 이런 말을 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나의 존재는 어떤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지은 스티브코비의 아들 프랭클린 코비의 조언은 첫째, 우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살펴본다. 둘째,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셋째, 사회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 한다.

나는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인생을 새옹지마라는 사자성어로 묘사하는데 좋은 일이 나쁜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뜻으로 길흉화복은 언제든 찾아온다.

배움은 달콤하고 즐겁다고 나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다.

“배운다는 것은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 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이해하며 공감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되고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갈 줄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역사 공부도 좀 하고 문화도 이해하면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과학화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맞추어 우리의 삶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과학 혁명의 시대 우리는 모든 것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야 한다. 자신을 알고 남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공존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이질성이 있는데, 동질감을 느끼도록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인 삶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라는 개념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국가도 우리 나라라고 이제 가슴을 짝 펴고 당당한 자세로 자신감을 가져 보자.

“거거거중지 행행행이각(去去去中知 行行行裏覺)이라, 행해 나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뜻으로 깨달음이 항상 부족한 것 같은 내 마음을 잡아준 좋은 글귀로 모든 일에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누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 에너지로 가족, 친구, 공동체 사회와 의미 있는 삶을 가꾸어 보자,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조국 찬가”라도 불러 보자.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중략.)

자유 평화 희망찬 앞날을 구상하고 꿈꾸며 다 함께 노력해보자.

을사년 새해를 바라보며...



유 영 숙
(주)창녕신문 대표

사람들 모두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묵은 때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해 뜨는 동쪽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소원을 빌며 새해를 맞이한다.

한 해가 가면 또 한해가 시작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또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을 실감하며 한 살을 더 먹게 된다.

인간의 기대는 무한대이므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절망도 크므로 한정된 자기 삶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 을사년 해를 맞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각오는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단지 같은 게 있다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해에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했고 좌절을 희망으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삼아 한층 더 마음을 가다듬고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좌절을 이겨낸 지난해의 어려움을 새해엔 더욱더 부각시켜 아름다운 사회를 이끄는 한 존재로서 남아있어야 한다. 아직 사회는 부정과 부패로 명들어 있고 서민들은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특수층 사람들은 돈 보따리를 들고 숨어서 왔다 갔다 하는 엽기적인 역장 무너지는 일을 많이 본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으면서 이권과 명예에 두 눈이 멀어져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기 그지없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하고 정화시켜야 하는 큰 숙제와 목적을 안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큰 몫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국민들 모두가 삶의 투쟁 속에서 먹고 살기가 바쁜데 정치가 어수선했다 국민들 모두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게 나라가 바로 나아가는지가 참 의문스럽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변화 소용돌이는 당연히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을사년의 바람은 오직 나라가 안정되고 건강해야 또 각자의 개인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을사년 새해 모든 분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충의의 표상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李福順

창녕읍 조산 서재골로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 말기의 형제로,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의인(義人)으로 알려져 있다. 백이와 숙제 두 형제는 서쪽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죽국의 후계자였다. 고죽국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자 이 둘은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영주의 자리에 나서지 않으려 했다.

이때 상나라의 서쪽에는 훗날 周나라 문왕이 되는 희창(姬昌)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西伯)의 자리에 있었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희발(姬發)은 군대를 모아 무도한 상나라를 치려하였다. 희발의 스승 강태공은 뜻을 같이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준비를 시작했다.

이 때 백이와 숙제는 희발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孝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국가이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 하려는 것을 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희발은 크게 노하여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 이라 하여 죽음을 면했다. 이후 희발은 상나라를 토벌하고 주나라의 무왕(武王)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가 망한 뒤에도 상나라에 대한 충심을 버릴 수 없어 고죽국 영주로 받는 녹봉 역시 받을 수 없다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만세에 이어져 지금도 충의(忠義)의 표상(表象)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우리 조선 왕조에도 많은 충의의 지사(志士)들이 있지만 세조때 사육신(死六臣) 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그 중 단종복위 운동의 주모자격인 성삼문(成三問)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 진들 재미도 하는것가
비록애 푸새의 것인들 그 님 땅에 났더니 (성삼문)

-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 숙제 형제를 한탄해마지 않는다.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는단 말인가. 아무리 그것이 보잘 것 없는 풀이기로서니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 백이, 숙제가 주나라 무왕을 부정하여 수양산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무왕의 천하에서 고사리를 캐어먹은 휘절(毀節)을 한탄한 것이 이 시조의 요지이다.
 초장의 수양산은 산 이름인 동시에 수양대군을 가리키고 중장의 고사리와 중장의 푸새는 세조가 주는 녹을 먹지 않겠다며 백이, 숙제보다 더한 절의를 가슴속에 품고자 스스로 다짐하고 세조의 신하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 하리라 (성삼문)

○ 이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하니,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큰소나무가 되었다가 흰 눈이 온 세상을 가득 덮었을 때 홀로
푸르고 푸른빛을 보여 주리라

- 단종 복위 계획이 탄로되어 옥에 갇혔을 때 부른 노래로 義를 어기고
욕되게 사느니 죽음의 길을 택하여 忠義를 지키겠다는 작품이다.

봉래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제일봉(峯)에 솟아있는 소나무, 그 소나무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가지가 축 늘어져 위풍당당한 소나무가 되려는
자신의 이상이 작품 속에 뚜렷이 나타나 있고 온 천하를 덮은 눈 위에 홀로
푸르리라는 절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칼날 앞에 굴복하여 세조를
섬기는 세상이 되더라도 나라도 단종을 섬기고 절개를 지키겠다는 대목은
읽는 이로 하여금 숙연케 한다.

성삼문 (成 三 問 ; 1418-1456)

그는 태종 18년(1418) 외가인 홍주 (洪州 ; 지금의 홍성)에서 무관인
도총관(都總管) 성승(成勝)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학문은 조성(早成)
하여 1435년 18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38년 21세에 식년문과에 하
위지와 함께 합격하고 세종 29년(1447)에는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했다.
이 시험에서 박팽년, 이개, 신숙주등 8명이 합격했는데 모두 수재들이라
우열을 가리지 못함에 세종이 몹시 기뻐하여 이들 모두를 궁전으로 불러

직접 시험을 보고 성삼문을 수석 합격자로 정했다. 세종 24년 박팽년, 신숙주, 하위지, 이석형등과 삼각산 진관사(津寬寺)에 가서 ‘사가독서’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

또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핵심역할을 한바, 요동지방에 유배되어 있던 명나라의 유명한 음운학자 황찬(黃攢)에게 신숙주와 더불어 13차례나 찾아 갔으니 훈민정음 창제에 끼친 그의 공적은 실로 높은 것이었다.

세종 말년에 중국사신 예겸(倪謙)이 왔을 때, 시에 조예가 깊은 그를 대접할 인물이 없어서 난감했을 때 성삼문, 신숙주가 접대역으로 선발되었다. 중국어에 능통한 신숙주가 말상대를 하고, 시는 모두 성삼문이 지었다한다. 예겸은 깊이 감동하여 두 사람과 의형제를 맺었다. 이때 예겸이 우리학자 들에게서 받은 시를 모아서 요해편(遼海篇) 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성삼문이 발문(跋文)을 썼다. 예겸이 다녀간 4년 후 그의 제자인 장녕(張寧)이 사신으로 왔다. 그러나 이때는 성삼문등이 죽음을 당한 후 였다. 그는 몹시 애통해 하며 “조선에 재사가 많다는 스승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다”고 말했다하니 생전에 그의 높은 명성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라 하겠다.

세종은 어느 날 집현전 뜰을 거닐면서 “내 죽은 후에 너희들이 이 아이(세손)를 잘 보호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세종이 재위 32년 만에 죽고 향(珦)이 문종으로 왕위에 오른 후 문종은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를 불러 무슨 일이건 의논했다. 어느 날 문종은 이 세 사람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세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 한다”고 했는데 병약한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 말이 곧 유언이 되어 버렸고 성삼문은 이 유언대로 어린 단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쳤다. 세종과 문종의 이와 같은 당부는 단종의 앞날에 애절한 운

명이 꼭 올 것을 예견이라도 했을까?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5개월 만에 수양대군은 김종서등 중신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았다. 소위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결국 단종도 수양대군의 꾀박을 견디지 못하고 1455년 윤 6월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었다.

성삼문은 당시 예방승지로 국새를 갖다 바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단종의 명으로 국새를 안은 삼문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제하지 못해 그만 목 놓아 통곡하고 말았다. 었드린 채 거짓 사양하고 있던 수양은 독기서린 눈으로 한참동안 삼문을 노려보았다.

양위식에 참석했던 박팽년은 비분을 참지 못해 경희루 앞 연못에 몸을 던지려 했으나 뒤따라온 삼문이 “상왕이 살아 계시니 후일을 도모하다 잘못되면 그때 죽어도 늦지 않다”고 만류하여 들은 입술을 깨물고 진정했다.

단종복위 운동을 제일먼저 발기한 사람은 성삼문이지만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 집현전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많은 동지들을 모아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그들 중에는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립도 참여했다. 세조와 세자는 유응부가 자신이 맞기로 장담했고 “신숙주는 나의 평생 친구지만 죄가 중하니 용서할 수 없다.”한 성삼문의 말에 모두 찬동하여 “신숙주는 내가 죽이겠다.”고 윤영손이 나섰다. 삼문은 김질을 보고 “대사가 성공하면 그대의 장인 정창손은 수상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계획도 세우고 각자의 소임도 정해졌다.

그러나 성승, 유응부가 맡은 별운검(別雲劍:임금이 거동할 때 칼을 들고 호위하는 무관)이 소용없게 되었다. 세조의 총복이며 모사꾼 한명회(韓明澮)의 직감에 의한 건의로 연회장에 세자의 출석과 무관의 참기를

취소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사실을 모르는 성승이 무장을 갖추고 연회석에 들어가려 하자 한명회가 왕명이라며 가로 막았다. 분개한 성승은 그 자리에서 한명회를 베려 하였으나 성삼문은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고 결사적으로 말렸다. 이때 유응부는 격분함이 극에 달하여 칼을 잡고 소리친다. “이런 거사는 신속히 해야만 하고, 만일 뒤로 미루었다가 기밀이 누설되면 만사가 끝장이오. 세자가 없다하나 수양과 저들의 수뇌들이 같이 있으니 이들을 먼저 죽이고 상왕의 명으로 무사들에게 경복궁을 포위시키면 세자가 갈 곳이 없을 것이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소” 그러나 좌우에서 이구동성으로 만전을 위한 방법이 못된다고 만류했다. 중의(衆意)에 따라 유응부도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같이 거사에 참여했던 김질이 마음이 변하여 세조에게 단종복위 계획의 전모를 밀고 했다. 놀란 세조는 군(軍)을 소집하고 승지들을 불러 모았다.

근위병에게 체포되어 세조에게 끌려 나간 성삼문에게 「김질과 어떤 일을 꾸렸는지 말해보라」 뜻밖의 질문에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김질과 대질을 요구했다. 김질은 세조에게 밀고한 내용을 되풀이 하였다. 김질의 배신을 안 성삼문은 “김질! 다 말할 것 없다. 나머지는 내가 말하겠다.” 하며 김질을 물리치고 세조를 향해 당당히 말하였다. “김질의 말이 옳소. 상왕께서 아직 젊은데 왕위를 빼앗겼으니 상왕을 복위 시키는 것은 신하로서 도리가 아니겠소?” 이리하여 계획에 가담한 동지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는다. 「너희들이 어째서 반역을 모의 했는가?」 성삼문은 동지들을 대표하여 소리 높여 대답한다. “진짜 왕을 복위 시키는 것이 어찌 반역이란 말이오? 나으리는 걸핏하면 ¹⁾주공(周公)을 들먹이곤 했지만 주공이 이랬단 말이오? 하늘에 두 태양이 없고 우리에게도 두 임금이 있어

1) 주공(周公) 周나라 무왕(武王)의 동생으로 무왕이 일찍 죽자 어린조카 성왕을 도와 주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서는 아니 되겠기에 일을 도모한 것 이요” 이 말에 세조는 노기충천하여 소리쳤다. 「그러면 어찌하여 즉위할 때 말리지 않고 이제 와서 반항하는가?」 “대세를 어찌할 길이 없었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냥 죽는 것은 헛된 일이므로 뒷날을 도모하기 위해 참아 왔을 뿐이요.” 「너는 나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 하니 내 녹을 먹지 않았단 말이냐? 녹을 먹고 배반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냐?」 “상황이 계시거늘 나으리가 어찌 나를 신하로 삼는단 말이요. 나는 나으리의 녹을 먹은바 없소. 믿지 않거든 내 집을 몰수해 조사해 보시오” 극도로 노한 세조는 무시를 시켜 첩편을 불에 달구어 팔과 다리 살을 애게했다. 그러나 성삼문은 낮빛 하나 변치 않고 세조 옆에서 있던 신숙주를 보고 꾸짖었다. “네 이놈! 너와 함께 집현전에 있을 때 영릉(英陵;세종)께서 원손(元孫;단종)을 안으시고 앞뜰을 거니시면서 간곡히 부탁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내 귓전에 생생한데 너만 까맣게 잊었던 말이냐? 네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줄은 정말 몰랐다” 신숙주는 곤혹스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세조가 물러가 있으라고 하자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다.

이때 시(詩), 서(書), 화(畵)에 능하여 3절(三絶)이라고 부르던 강희안도 성삼문과 친하였다는 이유로 잡혀와 고문하다가 불복 하므로 삼문에게 관련 여부를 물었다. “선조(先朝)의 명사는 나으리가 이미 다 죽이고 남은 이가 이사람 뿐이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남겨두어 쓰는 것이 좋을 것 이요” 삼문의 이 한마디로 강희안은 죽음을 면 하였다.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가던 성삼문은 좌우에 있는 옛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자네들은 어진임금 잘 섬겨 태평성대 이룩하게. 나는 이 길로 지하로 돌아가서 선왕을 모시겠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곧장 형장으로 향했다.

그 혹독한 낙형(烙刑)을 당했건만 그 의지, 그 기백은 용솟음 쳤다. 그는 강개한 표정으로 한 수의 시를 길게 읊었다.

울리는 저 북소리 목숨을 재촉는데	(擊鼓 催人命)
머리를 돌이키니 서산에 해저문다	(回頭 日欲斜)
저승 가는 길엔 주막도 없다는데	(黃泉 無客店)
오늘밤엔 뉘 집에서 자고가리	(今夜 宿誰家)

여섯 살 난 딸아이가 수레 뒤에 따라가다 기진한 목소리 애절하게 울부짖는다. 아버지! 아버지! “내 집 사내자식은 모두 죽겠지만 너는 계집애라 살겠지?” 강장한 그의 얼굴에도 추연한 빛이 돌았다. 말문이 막혀버린 그의 종은 눈물만 흘리면서 술잔을 올렸다. 수레는 다시 움직였다. 한 잔 술에 만 갈래 회포가 가슴을 열어 놓은 듯 천천히 다시 읊조린다.

임의 밥 임의 옷 먹고 입으며	(食人之食 衣人衣)
일평생 먹은 마음 변할 중이 있으랴	(素志平生 莫有違)
한번 죽음이 충의인줄 알았으니	(一死固知 忠義在)
²⁾ 현릉의 송백이 꿈결처럼 아롱이네	(顯陵松柏 夢依依)

듣기에도 끄찍한 형벌이 기다리는 형장으로 가면서도 시를 지어 읊은 것이다. 술 취해서 시를 읊은 이태백을, 초토를 거닐며 읊은 두보(杜甫)를 어이 이에 비기랴. 흐느끼던 군중들마저 숙연해 졌다.

이리하여 그는 동지 유응부, 이개, 하위지 등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광년은 모진 고문으로 감옥에서 이미 죽었고, 유성원은 집에서 자결(自決)했다. 이 들이 바로 역사상 충신의 표본으로 일러오는 사육신(死六臣)이다.

2) 현릉(顯陵): 문종릉

단종 복위운동의 기수(旗手) 성삼문과 그 동지들이 무참히 희생되고
관련자 70여명도 살해와 유배를 당했다. 삼문의 남자 가족은 모두 살해
되고 처와 자부는 관비로 되었으나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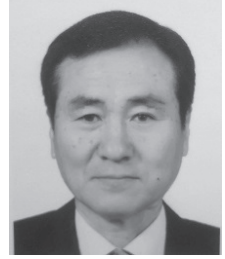
그가 죽은 뒤 가산을 몰수하니 세조가 주는 녹봉은 월별로 고스란히
그대로 쌓여 있었다 한다.

이어 세조는 상왕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시켜 종내는 사사(賜死)
하고 단종 모후의 무덤 소릉(昭陵)도 파헤치는 등 만행을 저질러 민심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시습, 남효온, 조여, 성담수, 이맹전, 원호 등 생육신(生六臣)은 폐인을
자처 하였고, 신숙주의 아우 신말주(申末舟)는 은퇴 하였으며 이징옥의
난등 두 차례에 걸쳐 무인의 반란이 일어났다. 세조 자신도 “일대의 죄인
이요 만고의 충신이다”고 그들의 충절을 감탄한바 있다.

그 뒤의 왕들도 한결 같이 그의 충의를 찬양했고 일반 국민들은 모두
그를 높이 받들었다.

許交와 許與



성 두 철
향토사 연구위원

許交란 事典에 ‘서로 벗하기를 허락(許)하고 사귀(交). 가까이 사귀어 「하계」의 말씨를 씀’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고전에는 허교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면
허교(許交) 5년. 나이가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10년이 많으면 형처럼 섬기고 한다. 나이가 배가 되면 아버지처럼 섬긴다. 『소학(小學), 동몽선습(童蒙先習)』

허교(許交) 7년. 역사상 돈독한 우정으로 유명한 오성(鰲城)과 한음(漢陰)의 연령 차이가 7살이므로 전통적으로 허교의 나이로 본다.

허교(許交) 8년. ¹⁾忘年之友를 사귄 수 있는 나이가 상팔하팔(上八下八)이다.

1) 忘年之友: 나이를 초월한 우정,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교제하는 벗, 연소자의 재덕을 인정하여 연장자가 특별히 하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전에는 보통 5년 차이는 누구나 허교하고 돈독한 관계는 7년, 망년지우는 상팔 하팔까지 허용 되었다.

안동의 유서 깊은 양반 집안에는 허교라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 아무 하고나 친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그 사람의 학문과 인품을 겪어 본 후에야 본격적으로 교제를 허락하는 방식이다. 즉, 사람을 만나고 단기간 내에 곧바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라 허교라고 하는 검증 기간을 거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임진왜란 공신들을 기리는 임진난 정신문화 선양회 행사에 功臣의 후손 대표로 참석하여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분이 7년 전 창녕향교 춘계 석전대제에 필자를 제관으로 추천하였다.

망권(望圈)을 받고 처음으로 석전대제(釋奠大祭)에 참석하여 대축(大祝)을 맡아 장의(掌議)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필자를 제관으로 추천한 그 분은 필자보다 7년 연상이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일곱 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우리 허교하세” 라면서 말을 트고 지내자고 제안했다. 대합의 벽진 이씨 집안에서는 지금도 7년 장은 서로 허교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승낙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옛날에는 그 것이 가능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두 살만 많아도 형대접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방 모곡의 매당 이진락 선생은 선친보다 8년 연상 이고 그의 아들은 8년 연하였다. 매당 선생으로부터 “우리 벗 하세” 하면서 허교를 제안 받은 적이 있었다. 어른과 벗하면 아들로부터 어르신 대접을 받게 되고 아들과 벗하면 어른은 어르신으로 모셔야 하는데 누구와 벗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요즈음 許交는 忘年之友가 아니라면 한 살 차이까지만 가능 하고 학교 동기라든지 어릴 때부터 흥허물 없이 같이 자란 동네 친구라면 서로 묵시적 동의하에 2~3년 차이도 말을 트고 지내는 것도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선비의 사귄 허여(許與)에 관하여

許與는 깊은 사귀를 가리킨다. 서로 간에 ‘허여’가 되는 관계는 동지적 결속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깔려 있는 관계이다. 난세에는 서로 행보를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까지 간다. 그러니까 허여의 관계는 아무하고나 쉽게 맺는 관계가 아니다. 상당한 관찰과 검증을 거쳐야만 허여가 되는 법이다.

60년대 초반. 한학자 벽사(碧史) 이우성(1925~2017)이 30대 후반의 새과란 시절에 학봉종가를 찾아가서 고문서를 좀 보고 싶다고 부탁하였다. 당시 종손은 김시인(金時寅, 1917~2008)인데 김시인은 초면의 벽사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였다. “안 됩니다.” 얼마 후에 벽사가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에도 거절하였다. “우리 집안 문서를 함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 벽사는 김시인에게 “저도 계남(溪南) 출입입니다.”라고 하였다. “계남 어디요?” “쌍취당(雙翠堂) 사위입니다.” 계남은 도산서원 근처의 냇물인 토계(兎溪)의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퇴계 후손들의 집성촌이다.

계남에 살았던 쌍취당은 종손 김시인의 증조부인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1827~1899)의 매형인 이만운을 가리킨다. 벽사의 부인이 쌍취당의 증손녀이다. 김시인의 고모가로 8촌이 되는 셈이다. “계남 쌍취당이라면 문서를 보여 드려야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시인과 8세 연하의 벽사는 허여의 관계가 되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음은 물론

이다. 1987년 학봉가의 고문서를 보관하는 운장각(雲章閣)을 건립할 때 그 이름도 벽사가 작명한 것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영남학과의 좌장 역할을 하였던 벽사는 학문이 한참 무르익기 시작하던 젊은 시절에 학봉가와 이런 許與가 있었던 것이다(조용헌 건대교수).

중국에 전해 오는 이런 말이 있다. 그림보다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글씨다. 글씨보다 어려운 것이 시(詩)다. 시보다 어려운 것이 문장이다. 문장보다 어려운 것이 책이다. 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이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

젊었던 시기에는 평생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를 한명이라도 사귀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렸지만 60고개를 넘으면 실감하게 된다. 내가 줄 것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연락도 많고 모임도 잦고 주위에 웃는 얼굴들이 많다. 그러나 힘이 빠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관계들은 다 빠져 나간다.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다.

청나라 서예가였던 정판교는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

꽃이 아름답게 필 때는 좋아하지만 꽃이 시들면 가차 없이 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이 든든하고 편안한 친구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친구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만나 교제를 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 간다.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 부른다.

어떤 사람은 좋은 우정을 가진 친구를 사귀어 그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옛 사람들은 許交나 許與의 과정을 거쳐서 벗 하였다.

친구를 사귄다에 신중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오늘날에도 참고 할 만하지 않은가?

기후 위기 시대의 퇴계선생 이야기

노용호

향토사연구위원, 생태춤 창시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야행 평가위원

올해 여름은 매우 더웠다. 이상 고온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화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수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복수극(?)의 정도가 올해 정도로 끝이 아닐 것 같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상기온을 걱정하는데 어느 나라 지도자는 경제 논리로만 판단할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최근 한국 ESG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환경 관심, 사회적 기여,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뜻하고, 영어로 된 앞자리 글자를 따서 이름 지었다. 최근 학회세미나는 경북 경주시에서 열려 경북ESG지도자과정에 참가했다. 경주시의 불교와 천도교 유산들을 ESG 관점에서 알아보았고, 저녁에는 학회 김형준 감사의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동요와 인기 가요를 다 같이 즐겁게 부르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회에서는 환경 관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교 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협의체인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의 류덕기 차기 회장을 만나는 기회도 있었다. 20여년 전 부터 대학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나는 반가웠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학교와 교수들 그리고 각계 각층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우리 창녕문화원도 ESG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면 좋겠다.

한국ESG학회로 부터 퇴계선생을 주제로 한 강연을 부탁받아 그분의 삶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 고등학교 다닐 때 퇴계선생의 도산십이곡을 배운 기억이 난다. 그 이후 퇴계선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1천원 지폐의 주인공이 퇴계선생님 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된 무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선생의 삶을 알아보고선 아~ 이분의 삶이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감동하며 살아온 분임을 알게 되었다. 선생을 단순히 유학자라고만 생각해온 나의 생각이 잘못 되었구나 함을 느끼게 되었다.

도산서당의 이동채 별유사는 “퇴계선생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의 만물이 다 착한 성품을 가졌다. 하늘이 내려 준 만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퇴계 선생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분은 자연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행동으로 실천하신 분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글쓴이가 받은 선생의 자연사랑에 대한 감동을 지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선생의 삶을 주요 나이별로 알아보고, 자연 사랑 시, 이야기, 노래도 소개한다. 그리고 퇴계선생의 삶이 기후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선생은 15살에 숙부님과 함께 청량산에 가고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청량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곤 평생 청량산을 좋아하여 호도청량산인이라 했다.

퇴계선생에 대해 공부를 하는 중에 안동의 병산서원을 갔다 왔다. 지난 10월 말에 창녕향교 모임에서 안동의 병산서원을 갔는데, 그곳은 조선시대의 임진왜란때 크게 활약하신 류성룡선생을 모신 서원이었다. 병산서원이 세계유산임을 알리는 표지판 옆에 선생께서 돌아가시기 전 소나무에 대해 이야기했던, 물아일체라는 표지판이 인상적이었다.

병산서원의 입구 맞은편 하천 근처 저 멀리에 스토리텔링 현수막이 보였다. 나중에 해설사안내소 앞에 가니 서원에서 모시는 분이나 제례 행사에 관한 스토리텔링대회가 있음을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있었다.

주저하다가 자연사랑을 실천하신 퇴계 이황 선생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았다. 나는 내가 퇴계선생이고 도산서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해설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해설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읽어주기를 바란다.

청량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청량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감탄의 소리를 지른 이황입니다. 자 저와 함께 그 소리를 질러봅시다. 제가 먼저하고 하면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너무도 아름다운 청량산이 있다고 상상하고 감탄의 소리를 질러 보는 것입니다. “야아 우아 와우 뷰티풀 원더풀 오마이가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동하고 감탄함으로써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15살에 가재 시를 지었어요. 자연에 사는 생물에 감동하고 자연을 주제로 하여 지은 첫 시랍니다. 그리고 46살에 경암이라는 바위를 칭송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리저리 시류에 흘러 살아가는 부평초 인생이 아닌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바위에 감동받아 지은 시랍니다.

저는 2천 여 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중 107수의 매화시를 짓고 91수를 뽑아 매화시첩을 만들었지요. 매화를 친구 삼아 대화하며 시물의 이치를 묻고 깨달으려 했어요. 내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작은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저 앞에 있는 나무들의 나뭇잎들이 위로 옆으로 밑으로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잎들이 위로 흔들리는 것은 나무들이 나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밑으로 움직이는 것은 춤추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나무가 하는 말>이라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하고 같이 낭송해봅시다.

내 두 팔이 왜 위로 뻗었는지 아니?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야 내 두 팔이 왜 옆으로 뻗었는지 아니? 너를 안아주기 위해서지 내 두 팔이 왜 밑으로 뻗었는지 아니? 너와 함께 춤추기 위해서야.

(위의 시로 <춤추는 나무> 시 동작을 보여드리고 같이했어요. 제가 먼저 춤추는 시를 시연했고 방문객은 즐겁게 따라서 했답니다.)

49살에는 소수서원에 느티나무 21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나는 나무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혜택에 감동받아 나무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해볼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나무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제자들도 생각이 안 나는지 조용히 듣기만 했죠.

나는 나무인 너에게 감동의 소리 지르기, 박수치기, 그림 그리기, 춤추기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나무들을 칭찬하고 즐거운 체험을 하였지요. 제자들과 함께한 <나무춤>을 보여드릴게요. (나무춤을 시연

한다.) 나무가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동작, 비가 내리는 형태,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리는 동작입니다.

상처받아 줄기가 일부 부서진 상처받은 나무가 있군요. 저는 제자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 했죠.

(늦게 자라는 나무를 가르키며) 저는 제자들에게 “늦게 크는 나무도 있다. 여러분의 학문에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아도 너무 걱정마라”고 격려 했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무 인문학이죠.

50대에 도산서원을 지으면서 산 모양으로 글자를 쓰고, 깨끗한 친구라는 뜻의 정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심었고, 절우사라 부른 화단에는 매화,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심었다.

세월이 흘러 64살에 다시 청량산에 가자고 친구에게 말했다. 한 살이라도 다리 튼튼할 때 멋진 청량산을 보고 싶어진 것이다. 그날따라 친구가 늦게 와서, 늦게 오는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산에 먼저 가네가 아닌 <나는 그림 속으로 먼저 들어가네>’ 라는 멋진 시를 지었다. 자연인 생물과 내가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마음을 전한 시이다. 그냥 산으로 들어가네 보다는 멋지지 않은가요?

65살에는 한글로 된 도산십이곡을 지었는데 자연사랑을 통해 진리를 향하는 마음인 전6곡 언지(言志)와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인 후6곡의 언학(言學)이라는 노래지요.

노래 한편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중략) 자연을 사랑하는 병에 걸린걸 고치지 아니한들 어떠하리’ 도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중략) 자연사랑 병을 고치지~ 노래를 같이 불러봅시다. (방문객과

노래를 부른 후) 70살에 세상 떠나기 전 일평생 사랑한 매화에 물을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의 삶은 평생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 사랑을 시로, 노래로 이야기로 나타내고 나무를 심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400여년 도 더 지난 그 당시에 도 자연을 사랑하고 돌본, 선생의 그 마음과 행동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기후 위기를 맞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행동을 가지면 좋을까요? 자연사랑을 실천하신 퇴계 선생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자연을 보전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실 것 같다.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자, 나무들을 심고, 전기 아끼고 자연사랑 콘텐츠도 만들어 자랑스런 세계시민이 되자고 하실 것 같다. 독자님은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위는 <세계유산 서원 스토리텔링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창녕문화원 노용호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의 스토리텔링 원고입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피워낸 꽃

주영숙
한국무용 회원

우리 생활의 활력이 되어 준 문화원,
각자 취미와 적성에 맞게 여러 분야별로 즐겁고 신나게 생활 하던 중
우리 무용반에서 용기를 내어 도지사 배 합천 가야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했다.

지혜롭고 훌륭하신 선생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배워 익혀서 합을 잘 맞
춤으로 큰 상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이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곱게 단장하여 꾸미고 서로서로 다듬어주고
챙겨 주면서 화합을 도모하여 국악을 사랑하는 19개 팀의 많은 경쟁자
들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하이얀 버선발로 사뿐사뿐 내디디며 뱅글 뱅
글 돌면서 예쁜 새가 날갯짓하듯이 부채를 접어다 폈다 피리 소리에 맞
춰 춤을 추었으니 참으로 신명 나는 일이었다.

우리 창녕문화원의 위상을 드 높이는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요, 문화원
에서 피워낸 산물이어라. 앞으로도 각기 분야별로 서로서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족한 실력이나마 뽐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어라.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모든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우리 문화원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원 파이팅!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

염옥현
창녕군청

하얀 뭉게구름과 누런 들판이 어우러져 한 컷의 감동 프레임이 되는 가을이다. 여행 떠나기 좋은 시절이다. 여행의 종류는 다양하다.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해외로 가는 여행, 맛집 여행, 문화탐방 여행, 역사 뿌리 찾기 여행 등. 어쩌면 매일 내가 생활하는 창녕을 걸어보는 것,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체험. 이것도 하루의 여행이다.

요즘 창녕의 멋짐이 폭발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는 세계적으로 빛나는 여행지가 되었다. 창녕 전 지역이 역사의 영험과 현재의 신비로움으로 세계인이 찾아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다. 우리 곁에 흔하게 존재했던 태고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우포늪, 화산 분화에서 역새 평야를 만들어 낸 화왕산. 그리고 비화가야 역사의 길을 따라 고분의 숨겨진 내력이 매력 발산 중이다.

고분의 높이만큼 깊은 역사적 숙명으로 내가 사랑하는 창녕과 유네스코의 창녕이 공존하고 있다.

창녕 전 지역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의미와 감상을 적어본다.

창녕읍 송현동에 위치한 창녕박물관 맞은편 주차장에 자랑스러움을 뽐내는 안내판이 생겼다.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UNESCO)에 등재되었다는 내용의 기념비가 고분길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자연적 인위적 훼손을 막고 국가의 경제적 선택의 우위에서 역사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유는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창녕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주는 브랜드가 있다.

유네스코 기념비의 맨 위에 전 세계인이 알아보는 표식이 있다. 신전의 모양 속에 UNESCO 철자를 넣어서 기둥을 만들었다. 로고의 기본 형상이 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비율로 만든 완벽한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신전 형태의 유네스코 로고가 지정된 곳은 세계 문화 역사의 명품. 여행지를 방문하면 꼭 방문해 봐야 할 핫 스폿(hot spot)이 되는 것이다. 표식만 보아도 방문지에 대한 신뢰와 역사적 가치 브랜드화를 한꺼번에 녹여 주는 것이 유네스코이다. 꼭 방문해야 할, 방문할 가치가 있는 전 세계 역사와 문화 명품인증이다.

내가 만난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찬란했던 고대 서구 문명의 발원지인 아테네 중심지 아크로폴리스(높은 곳의 도시)에 우뚝 솟아 있다. 건축 높이 제한으로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유럽 문화 부흥을 이룬 르네상스의 모태가 되었다.

신성한 신전도 오랜 역사의 톱니바퀴에서 고대 그리스에는 고귀한 아테나 신전이였지만, 점령자에 따라 로마제국 때는 교회로, 오스만 지배 때는 모스크로, 십자군 전쟁 때는 화약 창고로 변신해야만 했다. 황금비율의 건축물도 시대를 지배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폭파되어 파편으로 나뒹굴게 되었다.

시내에서 바라본 신전은 상처가 없는 잘 보존된 건축물처럼 화려한 네온 사인에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정상에서 만난 세계유산 1호는 지붕은 폭파 되었고 조각상은 전쟁기념품으로 약탈당했다. 기둥마저도 파편들을 모아 신중하고 느리게 복구 중이다. 복구된 신전이 누적된 역사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현대적 고찰이 반영될 것이다.

복구 중인 건축물은 훼손된 역사와 패전국의 슬픔을 대변하는데도 불구하고, 파르테논 신전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유럽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 봐야 할 문화유산이다.

파르테논 신전은 600년이나 앞선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먼저 세계유산이 되었다. 강력한 왕권에 의한 노예들의 피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한 그리스 역사, 문화, 철학의 집약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염원이 담긴 기금을 모아 재건한 역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유네스코의 대표 유산이 되면서 민주주의 핵심 문화가치 브랜드가 되었다.

창녕의 비화가야가 보존될 역사로 선택된 것은 시민이 동참한 민주주의로 재건된 파르테논 신전과 다르지 않다. 아시아 지역을 군림했던 강력한 왕의 통치권에 지배되지 않았다는 것. 우호적 연맹 체제로 이뤄낸 가야연맹이 동양적 정치 한계를 넘어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 낸 성과를 존중하는 것이다.

창녕을 사랑하고 아꼈던 많은 지식인과 군민들의 염원들이 누적되어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속의 작은 도시가 아닌, 전 세계에서 지켜야 할 유산이 있는 미래 자원의 보고가 된 것이다.

첫 번째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은 영산 줄다리기이다.

영산 줄다리기는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줄다리기는 성별과 나이에 구분 없이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 즐기는 행사이다. 마을 공동체가 풍작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창녕은 특히 3·1독립운동의 발원지로 알려진 영산면에서 3.1 민속문화제 마지막 날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는 줄다리기로 장관을 이룬다. 두바이 팜 아일랜드 중심부처럼 뻗어 있는 몸줄. 곁줄. 끝줄이 펼쳐지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부와 서부 진영으로 나누어 단판 승부를 내는데, 모두가 승자이다. 그것이 줄다리기의 미학이다.

두 번째 유네스코가 사랑한 것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다.

약 100년간 지속된 비화가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창녕읍 박물관 주변 교동과 송현동 고분이 역사의 증인이다. 주민수호단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굴과 고증을 통하여 가치를 높였다.

금관가야의 김해 대성동고분군. 아라가야의 함안 말이산고분군.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합천 옥전 고분군, 소가야의 고성 송학동 고분군. 운봉고원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그리고 자랑스러운 비화가야의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7개 고분군 연속유산으로 같이 등재되었다.

세 번째 유네스코가 사랑한 창녕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 지구인 우포늪과 화왕산이다.

우포늪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개발 욕구를 자연보존으로 합의한 지역민들의 결단이 중요했다. 산업화가 가져다주는 빠른 경제적 이익을 견뎌낸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다. 우포늪에 대한 무한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늪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아우성의 갈무리이다.

람사르습지에 등재된 우포늪에서 역새 풀이 장관인 화왕산까지 전 지역이 보전지역이 되어 미래세대에 물려 줄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산업화와 경제적 부를 향해 달려왔던 사람들은 공존의 공감을 잊었다. 정신적 육체적 황폐화로 현대병에 시달리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원초적 회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것이 에코(Eco, 생태)와 어싱(Earthing, 지구와의 교감) 맨발 걷기이다. 물질 사회를 배척할 수 없는 인간은 결핍된 심리적 치유의 목적으로, 자연으로의 회귀를 본능적으로 찾고 선택하게 되었다.

오늘의 유네스코 성과는 자연에 순응하며 느린 진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모든 가공된 삶에서 잠들지 않는 늪의 생명력과 숨겨진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생태계를 활용하는 경영 창안으로 자연 친화적인 것이 새로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창녕은 서로의 힘을 모으게 했던 3월의 줄다리기에서 비상(飛上)하고 있다. 우리는 일년내내 전 세계인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의 대단한 모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생물이 태어나는 우포늪에서부터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는 고분군
까지.

따오기가 날고 붉게 물든 우포의 깊은 일몰 한 컷조차 세계인의 SNS의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면 유네스코 도시, 창녕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치유하는 최적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행하기 좋은 날. 창녕의 구석구석을 탐미해본다.

우포늪을, 화왕산을 그리고 고분군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도록 우리의 창녕을 나눠줄까 한다. 늪에서 한 걸음 걸어
보는 것도 지구와 가치 있는 교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세계 속의 우포늪 위상



성득용

창녕군 문화관광해설사

우포늪은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에 걸쳐있는 총면적 2,31km²의 대한민국 최대의 내륙 습지다. 형성 시기는 백악기 중기인 1억4,000만 년 전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 내륙 습지다.

우포늪은 람사르 등록 습지다. 1971년 세계 각국이 모여서 체결한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서식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간단하게 말해 “물새 서식지 보전” 이것이 모토이다.

물새의 대다수는 철새인데 철새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중간기착지와 종착지가 있다. 수천 킬로를 여러 나라를 거쳐 이동하는데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나는 새라고 하지만 한 번에 수천 킬로를 이동할 수는 없다. 해서 중간기착지에서 휴식하고 먹이도 먹고 체력을 보충하여 종착지에 도착한다. 그래서 종착지가 있는 나라와 중간기착지가 있는 나라가 같이 물새 서식지를 보전해야 효과적인 서식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보전이 잘 되고 있는지 답사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가입하여 우포늪, 순천만, 대암산용늪 등 무려 25개소의

중요 습지를 등록하고 2008년엔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우포늪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우포늪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광복 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자 '창녕 백조 도래지'란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1년 후인 1973년에 철새 감소를 이유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된 바 있다. 그 후 꾸준한 철새 보호와 관리로 2011년에는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이란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524호로 재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2024년) 창녕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이 되었다. 이것은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아름다운 우포늪이 창녕에 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우포늪은 가장 큰 내륙 습지고 람사르협약으로 물새 서식지를 보전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으로도 보호하고 유네스코에서도 보전하는 큰 타이틀이 4관왕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생명의 요람'인 것이다.

지금 우포늪은 수리부엉이가 산란하여 포란하고 있고 복원사업 중인 따오기 깃대종인 큰 부리 큰기러기를 비롯하여 고니,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엄청난 진객들이 무리 지어 와 있으니 쌍안경 하나 챙겨 둘러보시기를 권장한다.



구채구(九寨溝)의 물(水)



阿鵠 朴泰明
郷土史研究委員

구채구¹⁾는 육천오백만년의 신생대의 역사를 간직한 땅으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해발 4,500m 이상의 설봉(雪峰) 19좌가 품고 있는 만년설이 쏟아 내는 용설수(融雪水) 해빙수(解氷水) 맑은 물이 모여서 해발 2,500m 이상의 깊은 계곡으로 흐르면서



해발 4,500m 이상의 설봉(雪峰)과 초해(草海)와 천아해(天鵝海)

검애(劍厓)²⁾ 현천(懸泉)³⁾이 되어, 칼슘, 마그네슘, 구리, 석회석 등 광물질을 용해하여 여린 초록색, 맑은 옥색, 짙푸른 비취(翡翠)색, 청록색, 담황색, 검푸른색, 짙은 남색(藍色), 연한 황동색(黃銅色) 등의 환상의 물색(水色)을 빚어낸 호수에는 만년설 설봉의 태산준령과 원시 삼림의 푸른 수목 그리고 하늘과 구름과 실바람의 조화로 맑고 찬란한 음영으로 물에 비추어진 만상의 그림자는 오색 물빛으로 더욱 선명하고 청초해 경이로운 풍광을 간직한 천하의 비경이다.



천아해(天鵝海) 전죽해(箭竹海) 오화해(五花海)

3,000m의 원시 삼림에서 한 줌의 눈이 녹아 작은 샘이 되고, 재잘거리는 샘물이 흘러 일척구(日則溝)의 초해(草海)를 지나면서 실개천이 되고 여울(灘)로, 다시 내(川)가 되고, 여울이 되고 호수가 되어 또다시 호수는 폭포를 만들고 폭포는 여울로, 여울은 호수로 이렇게 반복되는 물의 흐름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幻生)하는 여정을 거쳐 낙일랑폭포(落日朗瀑布)를 지나 칩사와구(則查洼溝)에서 서로 만나서 수정구(水晶溝)를 이루어 노호해(老虎海)를 만들고,



오화해(五花海) 진주탄(珍珠灘)여울. 진주탄 폭포(瀑布)

이어서 수정폭포(水晶瀑布)를 이루어 화화해(火花海)와 갈대해(蘆葦海)로 이어지는 구체구의 아름다운 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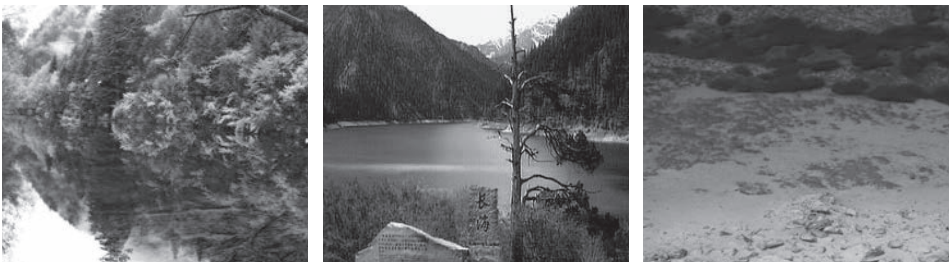
햇빛과 토양과 수목, 바람과 물의 양과 흐름이 시각(視覺)에 따라形形色색의 아름다운 신비의 색조의 물이 물속에서 억겁의 세월에도 부식되지 않고 생명이 숨 쉬고 있는 고사목(枯死木)과 여기에 새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있다.



노호해(老虎海) 낙일랑폭포(落日朗瀑布) 수정폭포(水晶瀑布)

개울은 개울마다, 여울은 여울마다, 호수는 호수마다, 폭포는 폭포마다,
제각각 특유의 몸짓을 가지고 있다.

홀로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때를 지어 있고,
평평히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겹겹이 쌓여있는 것이 있고,
깊으면 깊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바닥 속살까지 흰히 내비치는 오색의 맑고 맑은 물이
더러는 움직임 하나 없는 태고의 정적으로,
때로는 실바람에 일렁이는 운슬이 나뭇잎을 타고 숨 쉬는 고요한 호수물이
내를 이루어 쉬엄쉬엄 여유로움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 거칠 것 없이 내리퍼부어 귀청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천 갈레 만 갈래로 끝없이 떨어지는 동적인 몸부림의 폭포수로 환생
(幻生)한다.



경해(鏡海) 장해(長海) 오채지(五彩池)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천길만길 아래로 쏟아지는 웅장한 폭포수는

동백기름을 바른 시골 새아씨의 삼단 같은 머릿결인가 하면,
 무더운 염천에 광풍을 몰고 오는 시원한 소낙비 같기도 하고
 돌담길 탕자나무 울타리에 널어놓은 옥양목이 바람에 날리는 것 같다.
 모여져서 쏟아지는 모습은 물대포 같은가 하면
 흩어져 뿌려지는 모습은 촘촘한 물 조리로 여린 채소 잎에 흠뿌리는
 것 같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은 진주 알갱이로 엮어 만든 주렴 같은가
 하면, 쏟아지다 바위에 부딪혀 튀는 모양은 공작이 날개를 펴고 비상
 하는 것 같다.

구채구의 물은 사시사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모양과 색채와 냄새와
 소리로 태어난다.

여명과 일출에는 탄생의 기쁨이 녹아들고 작열하는 태양의 시간에는
 땀 흘리는 환희가, 낙조와 어둠에는 거둠과 휴식이 함께한다.

해빙수(解氷水)가 흘러 생명이 움트고, 신록이 짙어질 때와 만산홍엽의
 현란한 자태와 백설이 빙산에 쌓이는 삭풍의 계절로 항상 살아서 움직여
 천태만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 구채구(九寨溝/九寨沟: Jiuzhaiqou, 주자이거우) : 중국 사천성의 청장고원(靑藏高原:티베트고원)의 동남(東南)쪽 소이납산(尒爾納山)의 고산지대로, 아파장족강족자치주(阿坝藏族羌族自治州)의 구채구현(九寨溝縣)에 속하는 9개 마을이 거주하던 “Y”자형 3개의 계곡으로 구채구풍경구(九寨溝風景區) 자연보호지역으로 198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1984년 여행객에 개방되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세계환경보호연맹의 보호지역분류체계에서 “V(보호된 경관)”에 속하며, 1997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구채구는 수많은 계단식 폭포와 다채로운 호수들로 114개의 푸른 호수, 47개의 맑은 샘물, 17개의 아름다운 폭포, 11개의 급류, 5개의 갈숨화 여울, 9개의 티베트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 검애(劍厓) : 500m 정도 되는 산으로 그 모습이 마치 보검을 하늘에 꽂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

3) 현천(懸泉) : 검애(劍厓)에서 초해(草海) 쪽으로 샘 하나가 떨어져 내리는데 약 130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인 샘.

* 해(海)와 해자(海子 Haizi) : 장족(藏族: Tibetan) 사람들은 처음엔 호수를 바다(海)로 알았으나 나중에 호수와는 다른 더 넓은 바다가 있음을 알고서 호수를 “바다의 아들을 의미하는 해자(海子 Haizi)라고 부른다.





오화해(五花海) 해발 2,472m



진주탄 폭포(珍珠瀑布) 해발 2,4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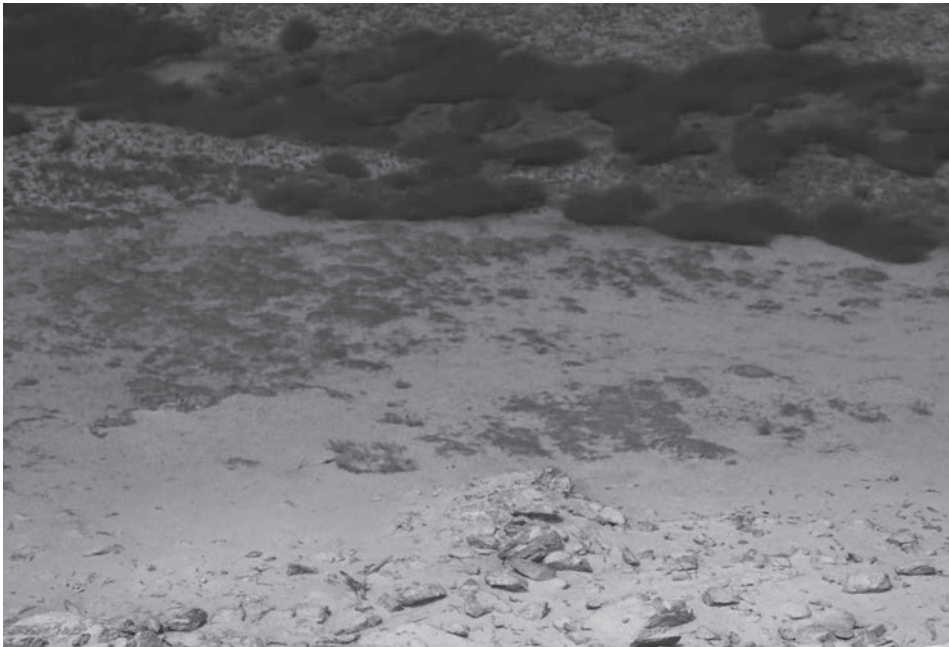
진주탄 폭포(珍珠灘瀑布) 해발 2,450m



경해(鏡海) 해발 2,390m



장해(長海) 해발 3,150m



오채지(五彩池) 해발2,995m



낙일랑폭포 해발 2,365m

전통 신발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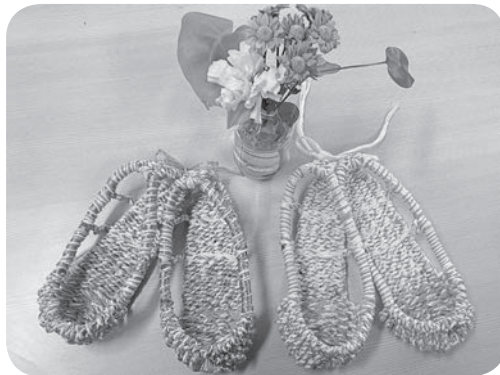
한 판 철

전) 부산 덕문여고·금성 중학교장

한국의 전통 신발은 짚, 나무, 가죽 등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신발입니다.

신분, 계절,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우리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유산입니다.

전통 신발 만드는 법 소개



1. 준비물: 노란색, 주황색 공작실, 노란색 비닐 끈, 연두색 목공실, 소형가위, 대바늘

2. 만들 준비

- (1) 노랑, 주황색 실, 노랑 비닐 끈, 연두색 목공실, 네 가닥을 약 7m 정도 길이로 두개를 만든 다음 하나는 5m, 2m 길이로 잘라둔다.
- (2) 노랑과 주황색 실을 각각 7m 정도 자른 후 노랑 실은 5m, 2m로 잘라둔다.
- (3) 기둥 줄 새끼를 꼬기 위하여 네 가닥을 각 7m 정도가 되게 두 개를 준비한다.

3. 기둥 줄 새끼꼬기

- (1) 길이 7m 정도의 네 가닥 두 쌍을 이용하여 꼬아서 약 4m 50cm 정도의 기둥 줄을 만든다.
- (2) 꼬아진 기둥 줄의 중앙에서 반으로 접어 접힌 부분을 약 30cm 정도에서 묶는 다음 나머지 두 줄을 묶은 부분에서 약 90cm 정도에서 또 묶는다.
- (3) 90cm 정도의 양쪽이 묶인 두 줄의 중앙을 접어둔다.

4. 신발 엮기

- (1) 신발 밑바닥과 신축을 엮을 줄 약 7m 정도 네 가닥 중 주황과 노랑은 약 5cm 정도 길게 하여 오른쪽으로 끝을 꼬아둔다.
- (2) 기둥 줄 묶인 부분 양쪽을 두 발에 걸고 그 가운데를 허리에 두른 줄을 걸어 약 30cm 뒤를 묶어 배 앞에서 고정한다. 이때 다음에

풀기 쉽게 매듭을 고리로 만들어 묶는다.

- (3) 7m짜리 네 가닥 줄(미리 준비해둔)을 긴 것은 약 20cm, 짧은 것 두 개 (비닐, 목공실)를 오른쪽으로 꼬아둔 상태에서 오른쪽 두 번째 기둥 줄 밑으로 넣고 세 번째 기둥 줄 위로 빼서 네 번째 줄 위로 빼었다 반대로 세 번째 밑으로 넣었다 두 번째 위로 감아서 길이가 긴 주황색과 노란색은 남겨두고 첫 번째 위로 빼었다 남은 부분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새끼에 끼워 고정.
- (4) 계속해서 나머지 네 가닥 긴 부분을 오른쪽에서는 왼방향(왼손을 밀어)으로 7~8번 꼬아서 7cm 정도를 잡고 새끼를 꼬아서 나머지 부분을 첫 번째 줄 아래로 끼워 넣었다 두 번째 줄 위로, 세 번째 줄 아래로, 네 번째 줄 위로 뺀 후, 미리 남겨둔 5~6cm 정도의 주황색 실을 첫째 줄 위로 감아 둘째 줄 아래에서 셋째 줄 위로 넷째 줄 아래로 감아 다시 셋째 줄 위로 감은 후 둘째 줄 새끼를 벌려 끼워 고정한다.
- (5) 나머지 길게 왼편에 빼 둔 네 가닥 줄을 오른쪽(오른손을 밀어)으로 꼬아 7cm 정도의 신총을 만든 후 나머지 부분을 왼쪽 첫 번째 기둥 줄 아래로 넣었다 두 번째 줄 위로 빼었다 세 번째 줄 아래로 네 번째 줄 위로 뺀 후 아직 남아 있는 5cm 정도의 노랑 실을 처음 주황색 실과 같이 기둥 줄 아래위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후 1cm 정도 남으면 가까운 기둥 새끼줄에 끼워 고정한다.
- (6) 나머지 네 가닥 긴 줄을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꼬아 7cm 정도의 신총을 끈 다음 오른쪽 첫째 줄 아래로 넣었다 둘째를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 줄 (왼편 첫째 줄) 위로 빼 두고, 미리 준비한 여분 주황색 7m짜리 줄 약 15cm 정도를 왼편 첫째 줄 위로, 둘째 줄 아래로, 셋째 줄 위로 넷째 줄 (오른쪽 첫째 줄) 아래로 빼서 감은 후 오

른쪽 둘째 줄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왼편 첫째 줄) 위로 빼서 1cm정도 남으면 기둥새끼에 끼우고 나무지 길게 남은 부분을 정리해둔다.

- (7) 다시 길게 빼 둔 네 가닥 긴 줄을 오른쪽으로 꼬아 7cm 정도의 신총을 꼬아 만든 후 나머지를 왼편 첫째 기둥 줄 아래로 둘째로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 줄 위로 뺀 후 정리해둔 주황색 실을 왼쪽 첫째 줄 아래로, 둘째 줄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 줄 위로 빼서 정리해 둔 후 주황색 한 가닥을 이용하여 전과 같이 고정한 후 위와 같이 반복하여 신총을 만든다. (바닥도 같이)
- (8) 신총의 개수는 240mm 이하의 신발은 양쪽 각 8개 정도, 250mm는 9개, 260mm는 10개, 더 크면 한두 개 더 만든다.
- (9) 신총을 필요한 만큼 만들고 나면 네 가닥 줄과 여분 고정 줄을 함께 왼쪽으로 꼬아 오른쪽 첫 기둥 줄 아래로 넣었다. 둘째 줄 위로, 전과 같이 계속 바닥을 엮어간다.
- (10) 처음 엮기 시작한 부분에서 240mm 이하의 신발은 약 13cm, 250mm는 14cm, 260mm는 15~16cm 정도까지 바닥을 계속해서 엮는데 7m 짜리가 끝나면 5m 짜리를 연결하여 엮는다.
- (11) 신발 바닥 중간까지 엮은 다음 다섯 가닥 중 여분 줄 한 가닥은 따로 분리하여 기둥 줄을 감아가며 고정한 후 빼 정리해 둔 다음

나머지 네 가닥을 꼬아 약 6cm 정도의 중간신총을 만들고 나머지를 오른쪽 첫째 줄 밑으로 넣었다 둘째 줄 위로 셋째를 아래로 넷째를(왼편 첫째 줄) 위로 빼 둔 다음

정리해둔 고정 줄을 이용하여 첫째 줄 아래로 넣었다. 둘째 줄 위로 셋째 줄 아래로 넷째 줄 위로 다시 셋째 줄 아래로, 둘째 줄 위로 첫째 줄 아래에서 위로 감아 반대편까지 단단히 당겨 왼편에 정리해두고,

나머지 긴 네 가닥 줄 여분을 꼬아 신총 6cm 정도를 만든 후 전과 같이 바닥을 엮은 후 반대편에 빼 둔 다음 고정 줄을 전과 같이 감아 고정한 후 다섯 가닥을 한 번에 꼬아 바닥을 더 만들어 간다.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어 가다, 뒤끝 약 5cm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양쪽 뒤 신총을 전과같이 만든 후 바닥 뒷부분을 엮어 간 후

0.5cm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바닥을 만들 때는 양쪽 끝을 바짝 쫓여 기둥 줄을 모은 다음 기둥 줄 두 가닥씩을 감아서 뒤축을 만드는데 12번 정도 감아 만든 후 나머지 줄은 오른쪽 두 번째 새끼를 벌려 끼워 빼 둔다.

5. 마무리

- (1) 묶어져 있는 기둥 줄 양쪽을 풀어 오른쪽 첫째 줄(여분 줄이 끼어 있지 않은 줄)을 오른쪽 뒤 신총부터 차례로 맨 앞까지 끝을 벌려 끼운 다음 길게 빼 둔다.
- (2) 반대편 기둥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줄을 뒤축 윗부분에 바짝 붙여 자른 후 왼쪽 신총 끝에 끼워 맨 앞까지 끼운 다음 길게 빼 둔다.
- (3) 여분 줄이 끼어 있는 기둥 줄에서 여분 줄은 신총에 끼워져있는 줄에 두세 번 감아 끼워둔 후 새끼를 풀어 두 가닥 중 한 가닥과 여분 줄 일부(노랑, 주황, 연두 약 30cm정도)를 오른쪽 신총에 끼워져있는 줄을 감아 중간 신총까지 감은 뒤 반대로 돌아 뒤축까지 감은 후 고리를 만들어 뺀 후 바짝 당겨 빼 두고 반대편도 남은 한가닥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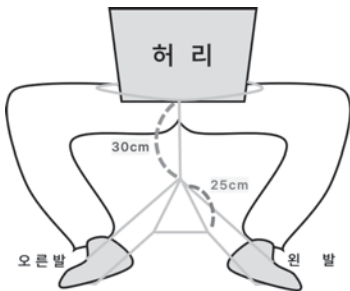
분줄(노랑, 비닐끈, 약 30cm 정도)를 왼쪽 신총에 끼워져 있는 기둥줄에 같은 방법으로 감아 고정한다.

- (4) 뒤축 끝에 고정된 각 네 가닥의 줄 중 비닐 끈은 1cm 정도 남겨 자른 후 불을 붙여 지지 손으로 눌러 붙인다.
- (5) 세 가닥씩 남은 여분 줄을 약 25~30cm 정도 되게 자른 후 각 세 가닥을 대바늘에 끼워 뒤축 바깥쪽 약 1cm 정도 위치에서 안으로 끼웠다가 빼고 바깥에서 다시 끼워 빼기를 세 번 한 다음 마지막은 안에서 바깥으로 끼워 빼 두고 나머지 세 가닥도 같이 해서 뺀 후 각각의 가닥을 서로 묶어 고정한 후 노랑과 주황실은 바깥 자르고 연두색 목공실은 1~2cm 남겨 자른 후 불로 지지 눌러 고정해준다. (조금 남았을 때 접촉시킨다)
- (6) 신발 앞부분에 빼 둔 두 가닥을 신발 크기에 맞게 한번 묶은 다음 여분 실을 이용하여 묶어 고정해 둔다.
- (7) 두 가닥 기둥 줄을 각각 풀어 양쪽의 한 가닥씩을 단단히 묶은 다음 고정하기 위해 묶어둔 여분 실을 풀어 없앤다.
- (8) 풀어져 있는 네 가닥의 비닐 끈은 약 1cm 정도 남겨두고 잘라 없앤다.
- (9) 나머지 네 가닥 중 서로 반대편의 세 가닥씩을 이용하여 앞머리 신총부터 감싸며 차례로 감은 다음 마지막 앞 신총 뒤에서 짧은 세 가닥을 이용하여 묶은 후 전체를 이용하여 중간 신총까지 기둥 줄을 감싸준 후 짧은 세 가닥을 묶어 두고 나머지 세 가닥을 앞 신총 마지막까지 감은 후 매듭짓고 주황, 노란색은 모두 자르고 연두색은 1cm 정도 남겨 자른 후 불로 지지 눌러 접촉시킨다.
- (10) 앞부분에 남아 있는 비닐도 불로 지지 접촉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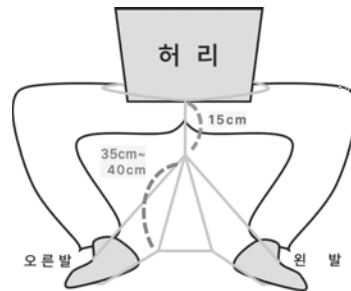
6. 주의 사항

- (1) 기둥 줄을 허리에 두른 끈과 양발에 걸어둔 상태에서 양발을 최대한 벌려 시작해야 앞부분이 뽕족하지 않다.
- (2) 가운데 두 줄 사이가 벌어지면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묶어져 있는 줄과 연결된 부분에서 약 25cm 정도 위치에 실을 걸어 네 기둥 줄의 간격이 비슷하게 한다.
- (3) 처음 시작하여 7m짜리 줄이 다 엮이고 난 후 기둥 줄 간격 조정용 줄과 허리에 묶인 줄을 풀어 허리에 묶인 줄로부터 15cm 정도에 신발 앞부분이 오게 조정하여 허리에 묶고, 간격 조정용 줄을 약 35cm 정도에 다시 묶어 발을 벌려 간격이 비슷하게 한다.

※참고도 1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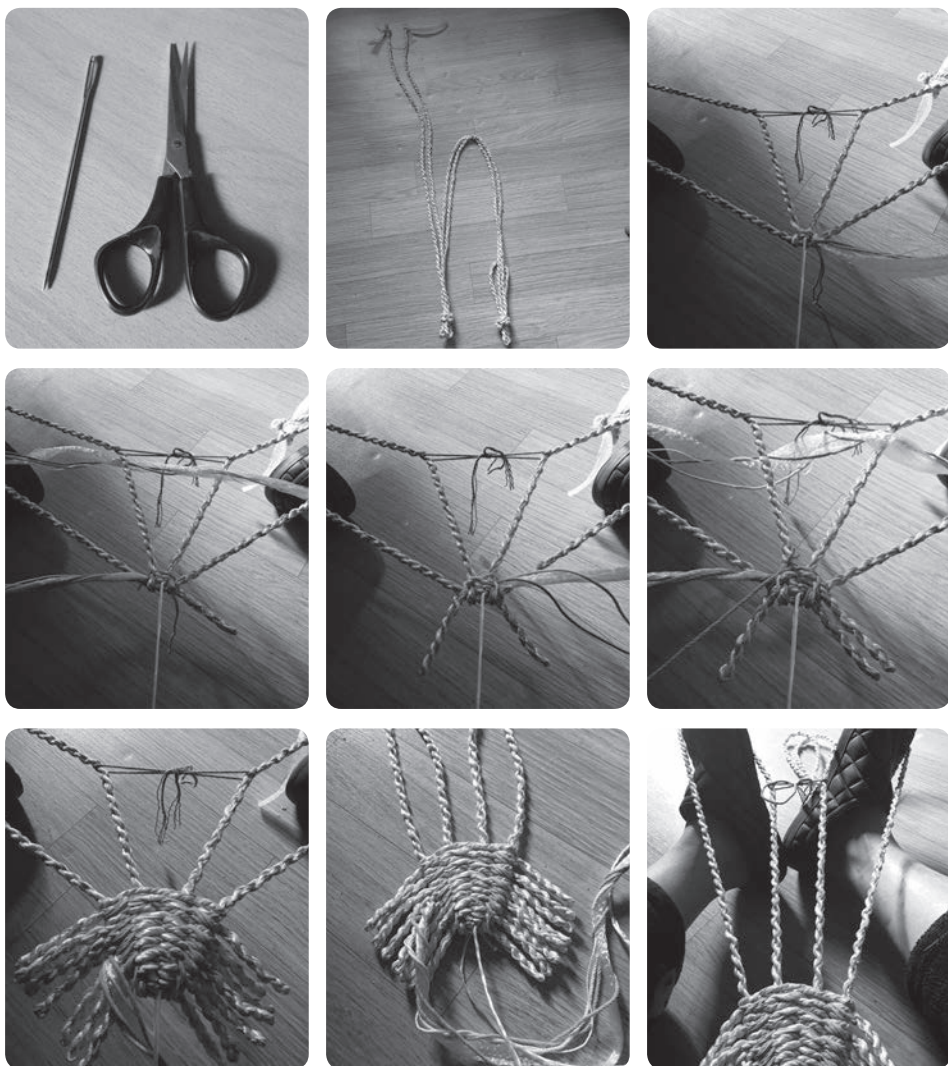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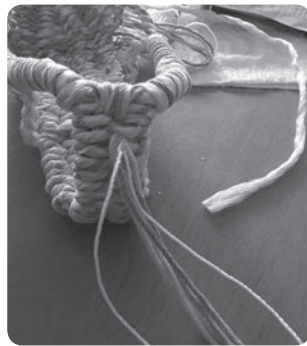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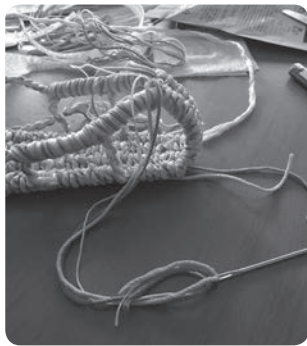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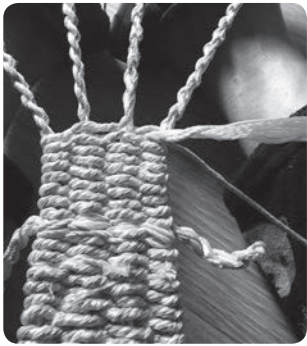
※참고도 2 (중간수정)



- (4) 허리에 두른 끈은 약2cm정도 되게 자른 후 한쪽은 고리를 만들어 사용한다.
- (5) 기둥 새끼줄용 끈이 길이가 너무 길어 불편하면 5m, 2m로 잘라 이어서 꼬아 사용할 수 있으나,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이어진 부분이 신총 감을 때 사용되지 않게 해야한다.

(6) 앞 신총 중 마지막 두 개를 간격이 벌어지게 만들면 신발 모양이 좋아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 마지막 두 번째 신총 만들기 전에 바닥을 한번 만들고 고정줄을 이용하여 왕복하여 고정시킨 후 신총을 만들고, 마지막 신총을 만들기 전에도 바닥을 한번 만들고 고정 후 신총을 만들면 마무리했을 때 마지막 신총 위와 아래가 비슷한 위치에 있어 모양이 좀 더 좋아진다.







향토문화 연구 및 자원 소개

◇ 창녕 진만석 영세불망비

창녕문화원

◇ 고구려 남정에 대한 가야사의 미스터리

남중희

◇ 추운 시절의 그림, 세한도 감상하기

남용우



창녕 진만석 영세불망비 (昌寧 陳萬碩 永世不忘碑)

-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

창녕문화원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란 선행을 쌓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기리는 비석을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 베푼 선행이나 공덕이 매우 커서 후세 사람들이 그를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창녕 진만석 영세불망비는 조선시대 자산가인 진만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진만석은 창녕의 부호로 경종 원년(1721)과 경종 2년(1722)에 흉년이 들자 개인 재산을 내어 굶주린 백성을 도운 이후 영조 2년(1726)까지 지속적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관의 곡식을 빌려 갚지 못하는 농민을 대신해 갚아주거나 흉년으로 인하여 노비가 될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는 대신 세금을 내주고 풀어 주는 등 덕을 베풀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영조대에 자헌대부의 품계를 받았으며, 공을 기리는 불망비가 세워졌다.

비문은 정조 2년(1778)에 창녕 출신 학자 성계우가 지었으며, 순조 34년(1834)에 화재로 비각과 비석이 불타게 되자 헌종 7년(1841)에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비석을 지탱하는 돌을 양옆에 세우고 지붕을 얹어 이를 보존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지붕돌은 그 크기로 보아 처음 비석을 세웠을 때의 것이 아니라 헌종 7년(1841) 좌우에 돌을 세울 때 같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공덕을 칭송하는 비석은 보통 관아에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진만석 영세불망비는 관아에서 주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우리 창녕에 적덕(積德)을 해서 세세영영 잊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공적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고구려 남정에 대한 가야사의 미스터리



남 중 희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가야역사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다. 한반도 역사의 주역에 하나였으나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서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승자 중심의 역사라고 해도 철저히 외면받아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500년 이상을 이어온 긴 역사의 가야가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토가 작고 인구수가 적다 보니 신라에게 멸망 당하게 된 것일까? 그러나 당시의 지도를 보면 신라나 가야나 그저 그런 정도였다. 그리 보면 땅 넓이와 인구수가 곧 흥망을 가르는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가야 고분에서는 백제나 신라에 비해 수많은 철제 무기와 갑주(甲冑, 갑옷과 투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역사 논점으로 번지고 있다. 상당수의 학자는 광개토 대왕 비문의 소위 경자년조(庚子年條)를 근거로 서기 400년경 고구려군의 남정(南征)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근거로 금관가야가 5세기 무렵에 멸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관가야의 지배계층 묘역인 김해 대성동고분군도 고구려군의 남정에

의해 축조 중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고대사학회 제129회 정기발표회’의 ‘광개토왕비 경자년 남정 기사의 고고학적 고찰(송원영)’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서기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고구려 남정으로 5세기쯤에 금관가야가 거의 멸망했다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인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축조 중단도 없었다는 것이다.

먼저 고구려군의 금관가야 남정 사실부터 반박했다. 묘제(墓制)의 변화나 고구려와 관련지을 수 있는 유물의 출토가 금관가야 지역에서 있었다면 고구려군의 금관가야 남정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묘제나 토기, 무기류 등에서 고구려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구려군 남정의 유력한 근거로 들고 있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축조 중단설도 반박했다. 그 직접적 근거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남쪽에 있는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서 지난해 발굴된 자료이다.

지난해 발굴된 5세기 후반의 수장급 무덤인 대성동 73호분은 금관가야가 5세기 전 반대에 중단이 됐다는 견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기존 남정설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된 대성동고분군의 축조 중단과 고구려 문물의 유입은 그 실체가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고구려군의 남정에 의해 금관가야가 5세기께 거의 멸망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5세기 후반의 수장급 무덤 대성동73호분과 광개토대왕 비문(우)

다만, 5세기 중엽 이후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5세기 이후 금관가야의 세력 약화는 외부의 군사적 정복에 의한 급격한 세력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관가야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가야 내부의 역학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점진적인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했다.

따라서 장수왕 대에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광개토대왕비의 서기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은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남정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정 기사는 장수왕의 남진 의지에 대한 과장된 표현 방식이거나, 장수왕의 남방 경력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추측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 근거로 고구려 남정의 피해를 함께 입었다는 아라가야가 5세기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실과 김해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북천동(부산) 지역이 남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경자년조(庚子年條)를 부정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서기 399년 기해년조(己亥年條) 신라가 광개토대왕에게 왜인의 침공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도 부정되어야 하는데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또한 전쟁에 휘말린 아라가야가 5세기대의 꾸준한 성장을 고구려 남정의 부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라가야가 금관가야나 왜 등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에 동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개토대왕 비문에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이라는 기록이 세 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는 고구려-신라의 연합군 측에 동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가야사는 미스터리로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새롭게 속속 발굴되고 있는 가야의 고분과 유물로 인하여 한반도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야사도 이제 한반도 역사의 주역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추운 시절의 그림, 歲寒圖 감상하기



남 용 우

전)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

전문 연구자는 아니며 —전원에 묻혀 낮에는 약간의 농사터를 일구고, 밤에는 산 숲의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책 읽기도 즐기는—소위 晝耕夜讀 하는 사람으로서,

秋史의 學藝의 바다는 깊고도 넓어서 선불리 섭렵하기도 두렵지만, 평전과 圖錄, 세한도 그리고 몇 편의 논문을 읽고, 느낀 감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 士人畵는 워낙 강한 개성을 넘나드는 파격성을 띠고 있어서, 그 작품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술적 感興을 얻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當代 조선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로 지여서 오죽하면 괴상한 글씨(怪) 취급을 받았겠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넘나드는 세상에 웬 추사 타령이나 할 수 있으나, 세상은 변해도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라는 삶의 본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에,

옛사람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세상의 이치와 인간존재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지혜와 삶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에,

우리는 古典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한 게 아닌지 싶다.

추사는 대단히 스마트하고 지식욕이 강하면서 介潔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 같다. 그가 청년기를 보낸 18세기 후반 조선의 사회에서, 상위 1%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의 잘 나가던 한 인간이, 인생살이의 迂餘曲折(家禍, 개인의 수난, 人間世의 非情)과 艱難辛勞를 통해 인생과 학문이 어떻게 익어갔는지, 이를 통해 우리는 半面敎師나 他山之石으로 엿보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감상해 본다.

1. 수난을 초래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인가?

1) 추사가 忠淸右道 御使시절(41세)에, 庇仁縣監 金遇明(59세)을 법대로 규정대로 부조리 처분(封庫罷職)한 것에 대한, 김우명의 개인적 원한과 앙심을 초래한 것이 악연의 시발이 되어, 후일 복권이 된 김우명은 추사 집안의 저승사자로 변하여,

1차(1830)와 2차의 상소(1840)를 주도하여 기어이 제주도로 유배의 길을 나서게 하고, 解配된 뒤 3년 후에는, 眞宗의 祧遷禮訟의 책임을 물어 함경도 北靑으로 또다시 유배의 길(1851)을 떠나게 하는 등, 추사는 김우명이라는 奸凶의 毒手에 걸려 인생과 집안이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나락(奈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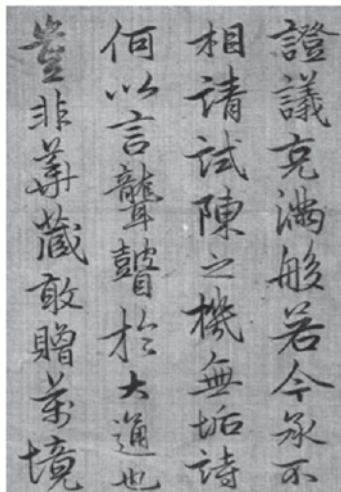
2) 英祖의 駙馬인 증조부 김한신의 奉祀孫이 되면서 王室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든든한 뒷배 덕택에 生父 金魯敬과 더불어 화려하고

높은 자리를 오가는 出仕와 영광을 누리면서, 금수저 집안의 넘치는 부귀영화는 필연적으로 주변의 嫉視를 초래하였고, 점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주변의 性情을 건드린 점이다.

- 3) 게다가 추사 자신이 잘난체한 지식인 특유의 자신감과 거만스러움은 상대방에게 모멸과 反感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2. 추사의 書法과 글이 변화된 변환의 계기는 무엇인가?

- 우선 추사가 등장하기 전의 조선의 대표적 글씨인, 안평대군 李瑢이 엄상좌라는 노승을 보내면서 지은 재송엄상좌귀남서(再送嚴上座歸南序)는, 당시의 주류 글씨체인 王羲之體 類의, 따뜻하고 살찌며(溫潤), 우아한 글씨이고, 조선의 사대부들이 대부분 그러하였듯이, 정통의 書帖과 尺牘으로 익힌 소위 帖學 기반이었다고 여겨진다.



〈安平大君 李瑢〉
재송엄상좌귀남서(再送嚴上座歸南序): 간송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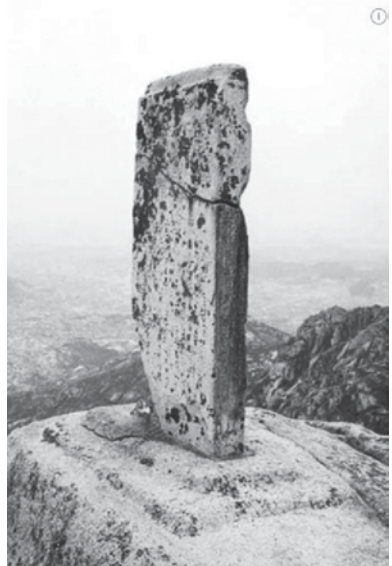
- 추사의 글씨가 독특한 개성으로 익은 말년 무렵의 글씨인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는, 비바람, 풍우에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무디고 완악한 돌에 남아있는 글씨라는 뜻으로, 북한산의 비봉에 서있던 眞興王巡狩碑(진흥왕순수비)가 그 ‘잔서완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 書法의 전형과는 전혀 맞지 않을뿐더러, 취한 듯 춤추며,拙朴하고, 거친(寒險) 스타일의 소위 碑學(묘지비석) 기반이었다.



〈秋史 金正喜〉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제자인 柳湘(1821~?)에게 준 글: 개인 소장

- 추사 역시도 청년기까지는 조선에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왕희지체 類의 정통적 서법을 익혔을 것인데, 이러한 서법에 의한 서체가 획기적 변화를 갖게 된 계기를 살펴본다.

첫 번째는, 15세 무렵(1800), 楚亭朴齊家에게 가정교사 수업을 받으면서, 燕京에서 일고 있던 清朝學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자극을 받았던 점을 들 수 있다.



〈殘書頑石의 상징 : 북한산 진흥왕순수비〉

楚亭은 당시에 이미 燕京의 巨匠과 석학들인 나빙(羅聘)과 기윤(紀昀)들과 交遊하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淸朝문화에 심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청조학의 견문을 바탕으로 北學議(1778)를 저술한 선구자였는데,

秋史는 초정으로부터 燕京의 발달한 文物과 왕성한 學藝활동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동경하여 쓴 詩를 楚亭이 1801년에 燕京에 갔을 때, 淸朝 學界에 소개하여 영민한 추사를 알렸다.

慨然起別想 四海結知己 如得契心人 개연기별상 사해결지기 여득계심인
可以爲一死 日下多名士 艷羨不自己 가이위일사 일하다명사 엄선불자이

개연히 한 생각 일어나 넓은 세상에 지기와 인연 맺고 싶어라
마음 맞는 사람을 얻기만 한다면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으련만
연경엔 명사도 많다는데 부러운 마음 절로 다함이 없어라.

두 번째는, 24세 무렵, 부친인 김노경의 冬至使 燕行(1809.10) 때, 자제군관으로 동행하여 淸朝 지식계의 거물인 翁方綱과 阮元을 만나고, 단개한 淸朝學(고증학,금석학)을 엿 보기 한 사건이다.

- 1) 淸朝문화의 완성자 격인 阮元으로부터 北碑南帖論과 碑學을 접하고, 종래 書帖에 의한 帖學이 위주가 아니라, 碑拓이 法帖의 원형이라는 논지를 듣고,
- 2) 書法의 원류는 南北朝와 魏晉을 거쳐 前漢의 隸書이며, 이는 篆書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漢隸에 書體의 근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글씨는 北碑부터 배워야 하며, 북비를 배우려면 唐의 歐陽詢,

그 중에서도 化度寺碑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은 길이다”고 入門을 권고받았으며, 이후 추사는 前隸에 입문하게 된다.

- 3) 碑文을 문헌과 사료에 근거하여 분석적으로 考證하여, 그 비문이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이며, 문화적, 예술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소위 考證學을 접하는데,

여기서 추사는 전혀 뜻밖의 학문의 論旨에 강한 충격을 받는다.

- 종래 익혀온 書法은 筆帖을 기반으로 한 書寫 위주였으나, 淸朝學은 碑石의 拓本인 碑帖 위주인 점으로
- 게다가 숭한 세월을 거치면서 풍우에 마모된, 빗돌의 탁본을 문헌과 사료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고증을 거쳐서, 비문의 내용과 글씨의 주인을 밝혀내고, 나아가 문화적, 예술적 가치까지 밝히는 이러한 서화 감상과 고증 방법을 목격하고는,
 - ① 淸朝學의 先進的이며 참신한 논지와 眼目에 압도당하고,
 - ② 학문의 접근방법과 학문하는 방식에 가히 충격을 받는다.그에 반해 조선의 학문은 시쳇말로 암기 위주의 학문방식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碑學은 石碑와 銅碑의 金石文을 고증하는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루어지므로 따로 분리할 수 없으며, 碑學과 金石學, 考證學은 동의어로서 淸朝學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 4) 추사 외에 考證學에 눈을 먼저 뜬 자 중에는 李德懋도 있으나,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秋史學’이란 것으로 재창출해 낸 이는 추사 外는 찾기 어렵다.

〈 청조학의 開祖인 顧炎武의 日知錄(1695)을 李德懋가 1778년 琉璃廠 거리(燕京의 서점가)에서 처음 구해 읽어 보고는, 六藝의 文章과 百王의 典(제도), 當世의 일(사무)을 빈틈없는 근거로써 명쾌하게

分析,考證한 것」을 처음 보고 “고염무는 실로 宏儒(굉장한 학자)로다”라고 탄복하여, 친구인 李書九에게 보내면서 “자네도 한번 玩賞해보라”고 권한다. >

5) 영민한 추사는 선지식에 電光石火같이 눈이 번쩍 뜨였을 것이고, 짧은 燕京에 체재하는 중에 옹방강과 완원으로부터 서화 鑑識과 金石考證의 방법을 지도받았으며, 완원의 <13經 注疏校勘記>245권, 옹방강의 <化度寺碑>모각본 등, 방대한 문헌자료마저 수집하여 귀국하였고, 귀국한 이후에는 金石學에 바탕을 둔 학예의 방향을 설정하여, 書道 수련을 하게 되었으니, 실로 秋史學의 결정적 變曲點이라 하겠다.

3. 왜 碑帖, 碑學인가?

여기서 碑帖이 왜 法帖의 원형인지, 碑文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碑拓을 考證하는 碑學인 지를 살펴보면,

- 1) 漢字라는 象形文字가 가지는 繪畫性과 유교문화가 가지는 文字崇尚의 기질이 결합하여, 文字의 표현에서 楷定한 書寫 이상의 예술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풍토가 漢代(AD 22~225)에 극성을 보인 점.
- 2) 게다가, 조상에 대한 孝나 師長(스승과 웃어른)에 대한 체면을 과시하기 위하여 碑文 치레를 경쟁적으로 해나갔으며,
- 3) 碑文치레를 위해 名筆, 名文章이 요구되었는데, 名筆을 요구하다 보니 楷正한 표현 이상의 예술성까지 희망하게 된 것이다.< 최완수 : 秋史實紀- 그 波瀾의 生涯와 藝術>

이러한 연유로 金石에 좋은 글씨와 좋은 문장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 글씨를 배우는 바른길이 碑拓과 碑帖에 있는 것이다.

4. 추운 시절의 그림, 세한도 감상의 착안점은?

朝鮮朝 지식인들이 그리는 士人畫의 특징을 살펴보면,

- 1) 형상을 빌려 보이지 않는 작가의 마음(心意)을 묘사(以形寫神)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언뜻 보면 畫法에는 허점투성이나, 내재한 그림 속에는 작자의 내공에 따라 철학적, 인생적 畵意를 품게 되고,
- 2)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 品格을 따지고, 그에 어울리는 작가의 人品과 學識, 感情과 思想이 응축된 格調와 文氣(文字香과 書卷氣)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心意를 짝 차게 하는 것이 文氣라고 본 것이다.
- 3) 書畫一律(글씨와 그림이 한가락)이라는 전통에 따라, 心意를 존중하는 것은 書 · 畫 모두가 동일하다.
- 4) 歲寒圖에서 추사는 형상의 집을 그리지 않고, 그 집으로 상징되는 - 권력으로부터 떨어져서 世人에게서 잊혀져 간 자기 자신을 - 추운 겨울에 빗대어 자신의 마음을 그렸으며, 빗자루로 끝 듯이 황술(荒率)한 필치(거칠고, 간략하고, 메마른 느낌)로 유배지의 고독과 炎涼 世態의 모질고 차가움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품격 높은 士人畫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담겨있는 복잡한 心意를 讀畫해내야 하며, 독화하는 만큼 그림이 보이는 것이다.

5. 세한도가 제작되게 된 계기는?

1) 추사가 모진 고문과 杖刑으로 반죽음 상태의 겨우 숨만 살아서, 제주도 大靜縣에 圍籬安置 되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절망의 나날을 보낼 즈음, 제자인 李尙迪은 舊誼를 잊지 않고 열성으로 추사를 섬겼다.

특히, 燕京 知識界의 동향과 신간 서적, 그리고 金石文을 구하는 대로 大靜으로 보내서 지식인의 갈증을 解消해 주었기에, 추사는 그 고마움을 謝禮할 방법이 마음밖에 없어서, 마음을 그림에 담아 李尙迪에게 선물하였고, 이후 이 그림은 燕京과 漢陽, 제주도를 오가며 流轉된 사연이, 그림을 더욱 값지게 하면서 사람을 감동케 한다.

2)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세한도 序文과 그림의 구석구석에 녹아있지만, 찍힌 方印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長毋相忘“장무상망”」이라는 閑章印이다.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다짐이고 기원이기도 한, 이 도장의 원래 出典은 漢 나라 때 瓦當(기와) 문자였으나, 그 뜻이 너무 좋아 훗날 文士들이 즐겨 사용했다는 글귀이다.



長毋相忘

6. 非情한 人間世의 풍조에서 추사는 李尙迪의 무엇을 보았는가?

序文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추사가, 현실사회에서 이상적의 뒷배가 되어 줄 아무런 영양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舊誼(구의)를 저버리지 않는 李尙迪의 태도를 보았으며, 이러한 李尙迪의 처신을 비교하기를

- 1) 史記 중, 諸侯의 기록인 「鄭世家」의 ‘厲公과 甫瑕’의 고사에서 甫瑕(보하)가 당한 업보를 “권세와 이해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은, 권세와 이해가 다하면 그 관계도 멀어진다”(以權利合者 權利盡以交疎: 이권리합자 권리진이교소)는 속담을 두고서 사마천이 한 論評을 인용하고,

(厲公과 甫瑕의 고사: 春秋時代 鄭나라의 厲公이 甫瑕와 담합하여 甫瑕의 결정적 도움으로 왕위를 차지하였으나, 도와준 甫瑕를 당초의 약속을 저버린 채 죽였다. 이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배신이 횡횡하는 炎涼世態를 통탄한 太史公 사마천의 論評)

그런데 가만 보니, 자네는 나(추사)의 권세를 보고, 이해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던가?

- 2) 史記 중, 주요 인물의 기록인 列傳의 「汲鄭列傳」에서 前漢시대 汲黯(급암)과 鄭當時가 겪은 세상사의 非情에 대한 太史公의 論評인, “세력을 가진 때에는 빈객이 성황을 이뤘다가, 세력이 없을 때는 대문 앞에 새그물을 칠(門前雀羅:문전작라) 정도로 한산한 것(賓客與之盛衰: 빈객여지성쇠)이 세상인심이다.”을 인용하여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절해의 孤島에 남겨지고 보니, 나 역시 그러 한데, 자네는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주니, 태사공의 언급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 3)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더디 시들음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栢之後凋: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고 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인(공자)도 情義를 어려운 시절에 변함없이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또한 세상인심이란 것이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손바닥 뒤집 듯 박절한데도, 그대가 보여준 태도와 나(추사)를 대하는 처신을 돌이켜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니, 어찌 聖人한테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며,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7. 入古出新이 왜 유배시절에 세한도, 추사체로 완성되었나?

前漢의 隸書로 입문하여 이제까지 익힌 南帖의 서체와 漢隸를 응용하고, 그 기에 나름의 개성을 더한, 독특한 소위 「추사체」가 왜 하필 어려운 유배기에 창출이 된 지를 살펴보면

- 1) 제주 유배기가 연령적으로 인생이 무르익어가는 시점(55세~64세)이고,
- 2) 지난 시절 出仕와 功名으로 지낸 20년 영광의 세월은 꿈속으로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의 날로 바뀌어버린 환경 속에서, 學藝, 특히 글씨의 연찬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3) 그 글씨는 쓰는 목적과 방향성이 이제까지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씨에서, 자기를 위한 글씨로 전환되면서, 8년 3개월 동안 사실상의 無門關 생활을 견디어 냈으니, 師子吼를 토할 정도의 예술적 성숙이 어찌 아니 이를 손가?

8. 艱難辛苦를 겪으며 어떻게 변해 갔는가?

1) 제주에서의 유배가 解配된 지 3년 만에, 거머리 같은 저승사자 김우명의 上疏로, 다시 北靑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 추사는(1851: 66세) 피가 끊는 비탄을 토한다.

“하늘이시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天乎此何人斯)

2) 世波의 굵이를 겪고

몰아친 세상사의 거친 파도가 도저히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살다 보니, 인간은 하늘 앞에서 기세가 저절로 꺾이게 되는 법이다.

북청 시절에 쓴 細算이란 詩에서, 추사는 세월을 헤아려 본 것 같다.

細算來頭三十年	세산래 두삼십년
支離拘倮孰非然	지리구루숙비연
如君壽者無量相	여군수자무량상
到此方知我可憐	도차방지아가련

오는 세월 삼십년을 곱곰히 헤아려 보니
지리하고 구부러져 누구들 아니 그럴겠나
무량하게 수명 누릴 그대와 같은 상은
여기까지 와봐야 내 가련함을 알 걸세

이제는 옛날의 阮堂도 秋史도 아니고, 출세도 모두 부질없는 노릇이며, 따지고 옳고 그르네도 소용없는 일이란 걸 알게 되면서, 너그러운 自然人으로 변한 것이다.

9. 남다른 個性, 自負의 一面이나 아니면 깨침인가?

解配된 이후의 蘭畫 그림 중, 잡초 한 포기와 산만한 畫題가 엉켜있는 不二禪蘭圖를 보면, 추사는 난화의 理想郷을 구현했다고 희열을 느낀 모양인데,

畫題 중에 일부를 옮겨보면

不作蘭畫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 부작난화이십년 우연사출성중천
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不二禪 폐문觅觅심심처 차시유마불이선

난초를 안 그린지 20년만에 우연히 그려냈다. 마음속의 자연을 찾고 찾고 또 찾은 곳, 이게 바로 유마거사의 不二禪이라네

維摩經의 不二法門品の 얘기로, 禪悅에 들어가는 상황을 維摩는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없다 하여 침묵하였다는 내용인데,

이것으로 추사가 난화를 설명한 것은, 蘭을 地面에다 그린 것보다 마음속으로 체득하는 것이 蘭을 그리는 진정한 예술의 경지라고 빗댄 것이다.

이어서 추사는

以草隸奇字之法爲之 이초예기지지법위지
世人那得知 那得好之也 세인나득지 나득호지야

초서와 예서의 奇字의 법으로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를 알아보며, 어찌 이를 좋아할 수 있으리.

라며 스스로 이 그림을 그린 근거를 설명하였다. 즉, 추사는 난초의 모양을 묘사했다기보다는, 書法을 그림에 응용하여, 상징적으로 蘭의 정신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나는 이 그림과 畫題에 담긴 심오한 뜻을 읽는 순간, 가히 入神의 경지, 깨침의 상태에 다다랐다고 느꼈다.

10. 추사가 추구한 學藝의 窮極은 어떤 경지인가 ?

1) 추사가 보낸 大靜縣과 北靑 시절의 10년의 기간은, 佛家の 無門關 參究에 비견할 수 있으며, 그 긴 忍苦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타고난 남다른 個性의 兩面 중,

남에게 傲慢과 倨慢으로 비치면서 嫉視 받던 고집스런 처세도 순화되고, 반면에, 또 다른 철저한 完璧主義의 개성은 나름의 진정한 학예의 성취로 구현되고 있었는데, 그 개성의 구현 과정을 살펴보면,

2) 그 긴 시간 분노를 삭이기 위해 쓰고, 외로운 마음 달래려고 쓰고, 심심해서 쓰고, 어떤 때는 쓰고 싶어 쓰고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제까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씨에서, 자기를 위한 글씨로, 내 안으로 안으로만 다져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청 유배가 解配 되고, 과천의 瓜地草堂에 머물던 시절에는 “비로소 허물을 벗었다”며, 오랜 벗 권돈인에게 고백하기에 이른다.

3) 글씨체가 여태까지 형태 중심의 ‘怪’의 가치에서, 기교를 감춘 ‘拙(바보스럽고, 천연스런)’로 글씨를 쓰는 마음이 변신하여, 의식적인 怪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개성으로서 발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상태를 추사는 「虛和」라 말하면서, 王徽之의 山陰雪棹 雪夜訪戴(逵) (산음설도 설야방대)의 고사를 인용해서 虛和의 예를 설명하였다.

- 눈 내리는 밤 王徽之가 山陰에 살 때, 빗이 보고 싶어 배를 타고, 섬계(剡溪)에 사는 빗 대규(戴逵)를 찾아갔다. 대규의 집이 보이는 강가에 다다라서는 굳이 대규를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와 버렸다. 사람들이 까닭을 물으니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왔을 뿐이다. 어찌 꼭 만나 봐야 흥이 있는가(乘興而來 興盡而返 何必見戴: 승흥이래 흥진이반 하필견대)”라고 했는데, 虛和는 바로 그런 氣와 興이 조화로운 비움(虛)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글씨를 닮으려 하는 것을 보고는, “요즘 사람들이 써낸 글씨를 보니 다 능히 虛和하지 못하고, 시뻐 악착한 뜻만 많아서 별로 나아진 경지가 없으니 한탄스러운 일일세.

이 글씨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虛和한 곳에 있으니, 이는 人力으로 나아갈 바가 아니요. 반드시 일종의 天品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이네(전집 권4, 김석준에게, 제4신, 재인용)

요새 사람들의 속된 글씨를 보면 모두 객기를 부려 飛揚(비양: 거들먹 거림)하는 것만을 숭상하여 초서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하나의 부적을 만들고 마는 실정이다(전집 권7, 잡저, 김석준에게, 재인용)”라고 개탄하였다.

- 5) 그 虛和의 상태에서 나온 拙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글씨가, 추사가 타계하기 직전에 쓴 봉은사 장관각의 懸板인 「板殿」인 데, 추사가 진정한 大自由人으로 거듭난 悟道頌으로 나는 느꼈다.



봉은사의 板殿

- 6) 尙有鉉(1844~1923)의 秋史訪見記에 의하면, 추사는 말년에 봉은사에 머물며, 매일 조석으로 팔뚝에 심지를 박아 자화참회(刺火參會) 하면서, 염주를 쥐고 굴리고 청정심을 닦는 지극한 佛心 속의 나날을 보냈던 것 같은데,

조선의 儒者들이 그토록 금기시하고 이단시하는 佛家 식의 수행을, 주변의 눈치도 신경 쓰지 않으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경지가 된 것이 아닌가?

11. 깨침의 수단은 多樣한가?

- 1) 추사가 이룬 학예 성취의 궁극은, 大自由人으로 거듭난 虛和의 경지, 즉 깨침이라고 생각하며, 깨침(見性)이라는 것이 話頭로 參究하는 佛家의 專有物은 아니며,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치열함과 절실함으로, 자기의 모두를 던져(全生活的, 全人格的 투입) 窮究(궁구)하면 깨침이 가능하다고 본다.

- 2) 이 같은 事例를 西洋畵의 1세대 격인, 장욱진(1990. 歿)의 그림 「밤과 노인」에서 읽을 수 있는데, 초승달이 떠 있는 밤하늘을 유유히 노니는 도인은 장욱진 자신이며, 禪悅의 상태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나는 느꼈다.



장욱진의 밤과 노인

- 3) 또 한 편은, 16세기 조선의 女人 許난설현이 밤에 꿈속에서 廣桑山을 노닐다가 꿈이 깨어, 그녀가 노닌 광상산을 詩로 그린 「夢遊廣桑山」을 보면, 이 역시 禪悅의 경지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나는 느꼈다.

비범했던 여인이 너무도 한심한 남편을 만나 마음고생을 겪으면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자녀마저 어릴 적에 잃어버리고, 원한과 애통함에 사무침을 그림과 글씨로 다져나갔는데, 종래에는 광상산을 노니는 경지에 이른 것으로 나는 읽은 것이다.

夢遊廣桑山(몽유광상산)

碧海浸瑤海 青鸞倚彩鸞 벽해침요해 청난의채난
芙蓉三九朶 紅墮月霜寒 부용삼구타 홍타월상한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 어울렸구나.
연꽃 스물일곱 송이
붉게 떨어져 달빛 서리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12. 세한도의 마지막 소장자는?

- 세한도는 李尙迪의 사후, 그의 제자인 김병선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李尙迪(1844)→金秉善→金準學(1914)→閔泳徽→閔奎植→藤塚(1930)
→孫在馨(1944.8)→孫世基(1970)→孫昌根→중앙박물관(2020)

경기도 개성 출신 松商의 後裔(후예)인 손세기에게 인도되어, 그의 자녀 손창근이 최종적으로 소장하였으나, 손창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2020)하였다.

그전에도 「불이선란도」와 「잔서완석루」外 상당량의 古書와 珍品을 국가에 기증한 바 있으나, 그는 요란을 떨지 않았으며, 2024. 6월 세상이 모를 정도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조용한 기부와 조용한 마무리를 하면서,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긴 울림으로 세상에 남기고 손창근씨는 떠났는데, 그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巨商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마지막 소장자 손창근

13. 글을 맺으면서

감상을 정리하면서 느낀 所懷는 다음과 같다.

1) 추사로부터 封庫罷職을 당한 김우명의 怏心(양심)에 찬 복수는, 전.후 세 차례의 上疏를 주도하여 기어이 추사와 추사의 집안을 송두리째 도륙을 내고 말았으니, 그 집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고,

지금의 우리네 세상에서도 私感에 의한 背信과 怏心, 그리고 復讐(복수)의 행태가 여전히 횡횡하는 것은, 예컨대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 ① 남들보다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同鄉 출신의 상관을 배신하고 弑害한 悖倫의 사건과
- ② 60년대 초, 지방관에 대한 비위 사실을 허위 보고한 책임을 물어, 閑職으로 보직 조치한 상관께 怏心을 20여 년간 품고서, 그 이후 국가의 중요한 고비의 현장에서, 치명적인 양심 불량한 행위로 절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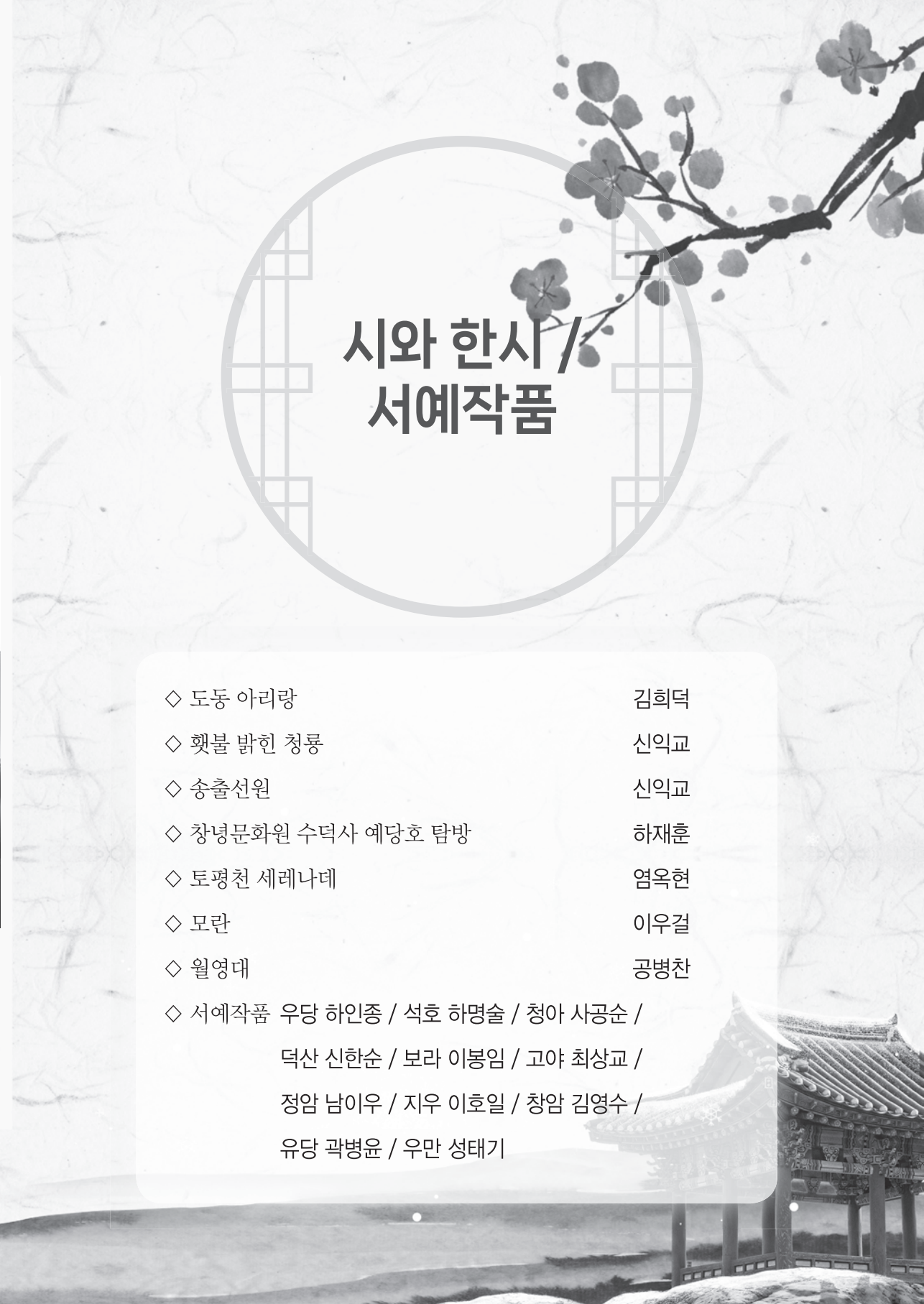
기어이 복수한 사건은 人間世의 변할 수 없는 속성인가?

그래서 사마천은 史記의 列傳에, 私感보다는 大義를 위해 自己를 버리고, 主君의 복수를 위해 칼을 뽑아 든 자들의 「刺客列傳」을 집필한 것이었던가?

- 2) 추사의 上疏와 둘러싼 推鞠(추국) 과정을 보면, 정의를 구현하기 보다는, 개인적 私感이나 怏心, 그리고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인 勢道 카르텔 간의 패권 다툼이 주된 내용이니, 당시 政爭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하겠다.
- 3)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추사는 학예와 인생의 갈 길을 찾아 그 궁극에 도달하여 一世의 通儒(통유)가 되었으니, 불행이 오히려 스승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그렇게 反轉 시킨 추사가 더욱 우러러 보인다.

昌寧文化





시와 한시 / 서예작품

- ◇ 도동 아리랑 김희덕
- ◇ 햇불 밝힌 청룡 신익교
- ◇ 송출선원 신익교
- ◇ 창녕문화원 수덕사 예당호 탐방 하재훈
- ◇ 토평천 세레나데 염옥현
- ◇ 모란 이우걸
- ◇ 월영대 공병찬
- ◇ 서예작품 우당 하인종 / 석호 하명술 / 청아 사공순 /
덕산 신한순 / 보라 이봉임 / 고야 최상교 /
정암 남이우 / 지우 이호일 / 창암 김영수 /
유당 곽병윤 / 우만 성태기

道東我理朗



辟山 金熙德

1) 戴尼山 감도는 洛東江 따라
 대니산 낙동강
 風景이 아름다운 道東書院에
 풍경 도동서원
 寒暄堂 先生의 小學精神을
 한훤당 선생 소학정신
 배우고 익히려 찾아가 보자

 我理朗 我理朗 我羅理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다람재 고개로 넘어 간다

2) 元亨과 利貞은 天道之常이요
 원형 이정 천도지상
 仁義와 禮智는 人性之綱이라
 인의 예지 인성지강
 寒暄堂 先生의 小學精神을
 한훤당 선생 소학정신
 배우고 익히려 찾아가 보자

 我理朗 我理朗 我羅理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杏子木 아래로 모여 든다
 행자목



3) 愛親 敬兄과 忠君 悌長이
 예친 경협 충군 제장
 是曰 秉彝라 有順無彊이라
 시왈 병이 유순 무강
 寒暄堂 先生의 小學精神을
 한훤당 선생 소학 정신
 배우고 익히려 찾아가 보자

我理朗 我理朗 我羅理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喚主門 차래로 들러 간다
 환주분

4) 惟 聖은 性者라 浩浩其天 이시니
 유성 성자 호호기천
 不加毫末 이라도 萬善足焉 이라니
 불가호말 만선족언
 寒暄堂 先生의 小學精神을
 한훤당 선생 소학 정신
 배우고 익히려 찾아가 보자

我理朗 我理朗 我羅理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中正堂 講座에 熱心히 배우세
 중정당 강좌 열심

햇불 밝힌 청룡 - 선원의 날 -



해송 신익교

내륙에 앞장을 선 새 시대 개척자로
일본의 침략에도 맞대응 게릴라전
동남아 해적 떼들을 물리친 젊은 전사들

조국은 바람 앞 등불 세차게 불어오고
신무기 새총에도 제압시킨 비격지천뢰
뱃길을 깨우친 뱃사람 지켜온 이 강산

사람은 인간답게 상호 간 존경대응
엄지손 내민 열정 세계만방 우뚝서서
백두산 상상봉오리 포효하는 해양건아.

송출선원

해송 신익교

단절된 애환여파
소명에 마음 비워
내일의 충전 향해
항구마다 희망충전
폭풍의
황금 바다에
생존의 보람 캔다

이국의 무역 승선
오대양 육대주로
이항구 저항구로 향한
난 세월 몇 몇 헨가
무더운
지옥 속에서 천당 발길
오고가는 바다로다

인고의 고뇌에도
삼백육십오일 청해상에
막극에 잠이 들어
수십 년
갯벌 공항 꽃피운다

昌寧文化院 修德寺 禮唐湖 探訪

창녕문화원 수덕사 예당호 탐방



관암 하재훈

大夏棟梁奇妙宮
대하동양기묘궁

1) 대하동양이 기묘한 수덕사에

傳承佛法盛無窮
전승불법성무궁

불법전승이 무궁하게 성하였네.

見庵尼院修行處
견암니원수행처

견성암에는 비구니 수행 처이고

定慧男僧崇德空
정혜남승숭덕공

정혜사에는 남승들의 숭덕을 다하였네.

唐水蕩潏雄壯視
당수탕망웅장시

예당호의 넓고 넓은 웅장함을 보고

動橋特異匠工虹
동교특이장공홍

출렁다리의 특이 장인의 무지개네.

莊嚴面貌保遺產
장엄면모보유산

장엄한 면모의 유산을 보호하며

技術尖端風景豊
기술첨단풍경풍

첨단기술의 풍경이 넉넉하네.

2024. 5. 10. 甲辰冠巖河在焄
갑진관암하재훈

1) 主: 大廈棟梁 = 큰 집을 지을 때 쓰이는 기둥과 들보, 마룻대와 들보.
주 대하동양

토평천 세레나데

염옥현
창녕군청

가을녘 풍요로움을 예찬하는 이방인의 가벼운 품평 너머
토평천 들녘의 수채화를 여러 번 걷어 내는 것은
자연의 선율에 운율을 지휘하는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내는 당신의 고단함

어두운 적막을 걷어 올리는 강렬한 써치라이트
잠들 수 없는 대지(大地)의 시간을 뜯눈으로 연장하여
토지를 파고, 갈고, 고르고, 어른다
100마력의 농기구는 트랜스포머가 되어 쉬지 않고 달린다
내려 설 수 없는 자연의 독촉에 다리가 마비 된다

오만한 통계를 비웃는 냉정한 날씨의 변덕에
속세의 시간은 스치는 상념을 더하고
흙 먼지까지 폐로 스며들어 한때의 끼니가 된다
작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지휘자는 시간과 전쟁 중이다

연약해진 토지를 깨워 생존의 하모니를 연주하는
당신의 그을린 미소에 겸허한 팬이 된다
노동의 질서정연한 연주는 계속 되고
오늘도 토평천의 세레나데는 울림을 멈추지 않는다

모란



이우걸
시인

피면 지리라

지면 잊으리라

눈 감고 걸어올리는 그대 만장 그리움의 강

져서도 잊혀지지않는

내 영혼의

자춧빛 상처

-
- 1946년 경남 창녕군 부곡 출생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과 졸업(교육학 석사)
 - 마산여자고등학교 교감, 진해고등학교 교장,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역임
 - 197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20여권의 시집과 평론집 출판. 경남문인협회장.
 -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 경상남도 문화상, 한국문학상, 중앙시조대상 등 여러 문학상을 수상.
 - 현재 우포시조문학관 관장, 문예지 (서정과 현실) 발행인으로 창작과 시민 강연에 정성을 쏟고 있음.
 - 창녕군 부곡면에서 수차례 '창녕군민과 함께 하는 문학 세미나'를 열고 있음.

월영대



공병찬
경남미협 부이사장



碧波浩渺石崔嵬(벽과호묘석최외)
 中有蓬萊學士臺(중유봉래학사대)
 松老壇邊蒼蘚合(송로단변창선허)
 雲低天末片帆來(운저천말편범래)

아득한 푸른 물결 위 우뚝 솟은 바위에,
 그 안에 봉래학사 노닐던 대(臺) 있네
 단(壇) 옆에서 소나무 늙어가고 이끼 무성한데,
 하늘 끝 구름 아래 조각배 떠오네,

- 약력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역임
 한국미술협회 분과위원, 이사역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한국서예가협회,
 오사카전, 전각협회, 경남서단, 문자문명전, 창원서예가
 협회등 단체전 300여회
- 수상 : 국무총리상, 한국예총회장상, 대한민국창조문화대상
 (언론인협회 회장상)
 창원시장상,군수상, 지방법원장상
 현) 경남미술협회 추진위원장, 한문서예 분과위원장,
 3.15미술협회 추진위원장

山居漫吟(산거만음)

-西湖 金弘道(서호 김홍도)

우당 하인종

석호 하명술



文章驚世徒爲累 (문장경세도위누)
 富貴薰天亦饑勞 (부귀훈천역만로)
 何似山窓岑寂夜 (하사산창잠적야)
 焚香默座聽松濤 (분향묵좌청송도)

雨餘觀山色景象便覺新妍
 夜靜聽鐘聲音響尤爲清越

문장이 세상을 놀라게 한들 다만 누(累)가 될 뿐이요
 부귀가 하늘에 닿아도 역시 그저 수고로운 뿐이네
 어찌 산창의 고요한 밤에
 향 피우고 말없이 앉아 솔바람에 귀기울임만 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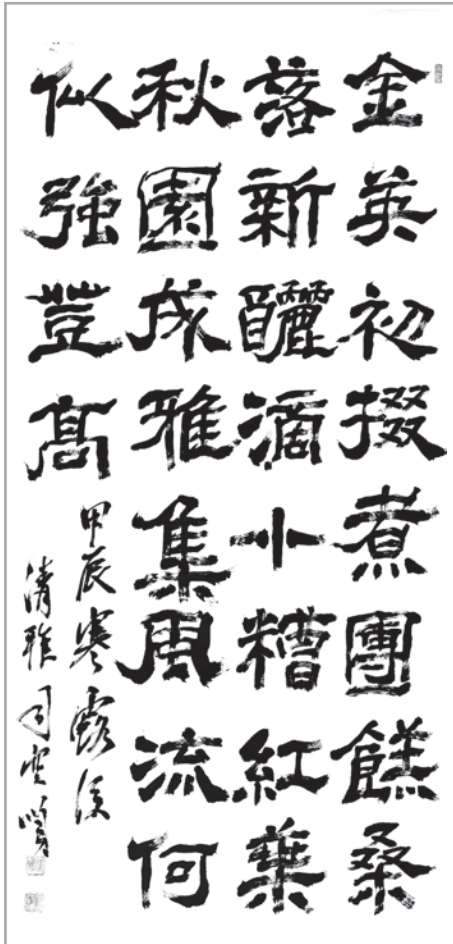
비가 갠뒤에 빛을 보면
 경상이 문득 새로움을 깨닫게되고
 밤이 고요한때에 종소리를 들으면
 울림이 더욱 맑고 높다.

-채근담 구

세시풍조(중양절의 풍속도)

-유득공(1800년대)

청아 사 공 순



金英初掇煮團饊 (금영초칠자단고)
 柔落新醞滴小槽 (상락신시적소조)
 紅葉秋園成雅集 (홍엽추원성아집)
 風流何以強登高 (풍류하이강등고)

노란 국화 처음 따다 동그란 전 지저놓고
 작은 지게미 떠있는 상락주도 처음 걸렀네
 단풍든 가을 정원에 고아한 모임 가지니
 이 풍류 어찌 억지로 등고하는 것과 같으랴

곧은 절개

덕산 신한순



黑禪 (흑선)

보라 이봉임



글로서 마음을 닦는다.

가고파

고야 최상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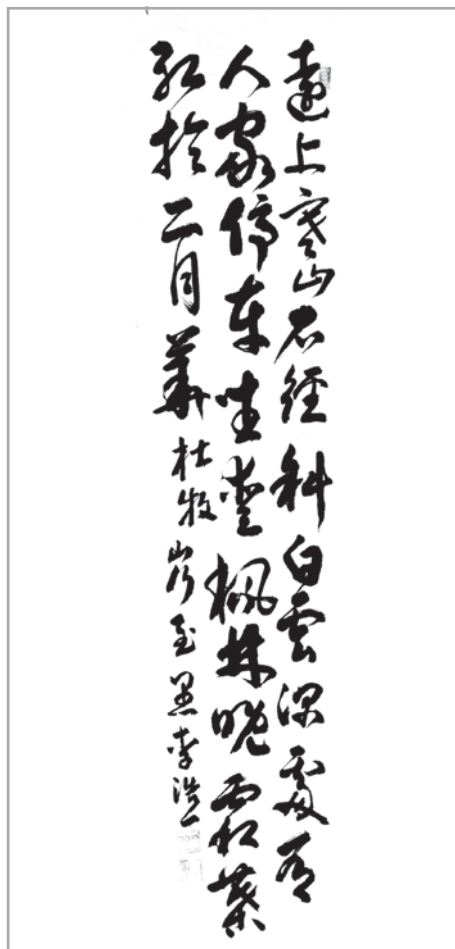


마산 성호 초등학교 “50회 졸업 동창생”을 그리워 하며 노산 이은상 작가의 10절중에서 발췌하였음.



忍是積德門 인시적덕문

참는다는 것은 덕을 쌓는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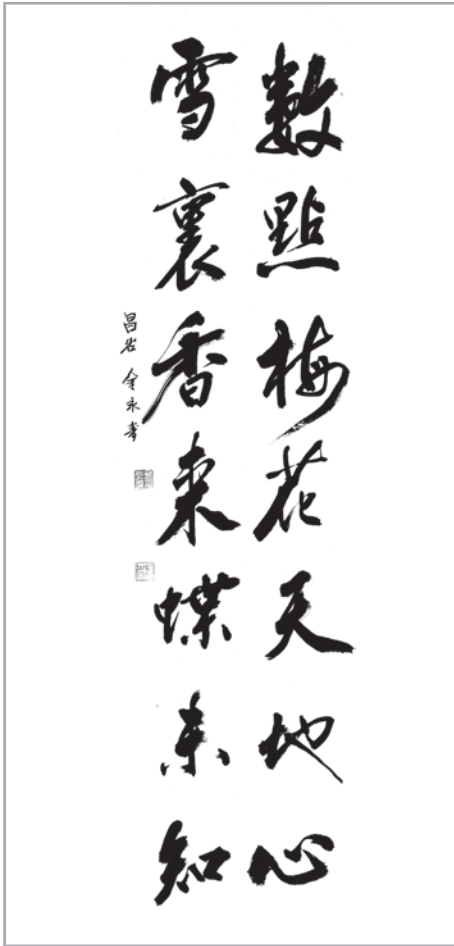


遠上寒山石徑斜 (원상한산석경사)
白雲深處有人家 (백운생처유인가)
停車坐愛風林晚 (정거좌애풍림만)
霜葉紅於二月花 (상엽홍어이월화)

멀리 비탈진 돌산길에 오르니
한구름 깊은곳에 사람이 사네
수레를 멈추고 늦은 가을을 감상하니
서리맞은 단풍잎이 2월의 꽃보다 붉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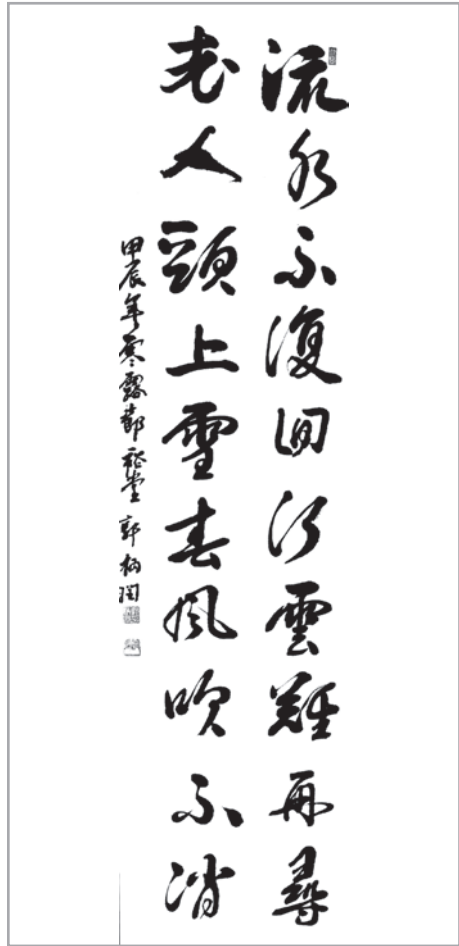
창암 김영수

유당 곽병윤



數默梅花天地心(수묵매화천지심)
 雪裏香來蝶未知(설리향래접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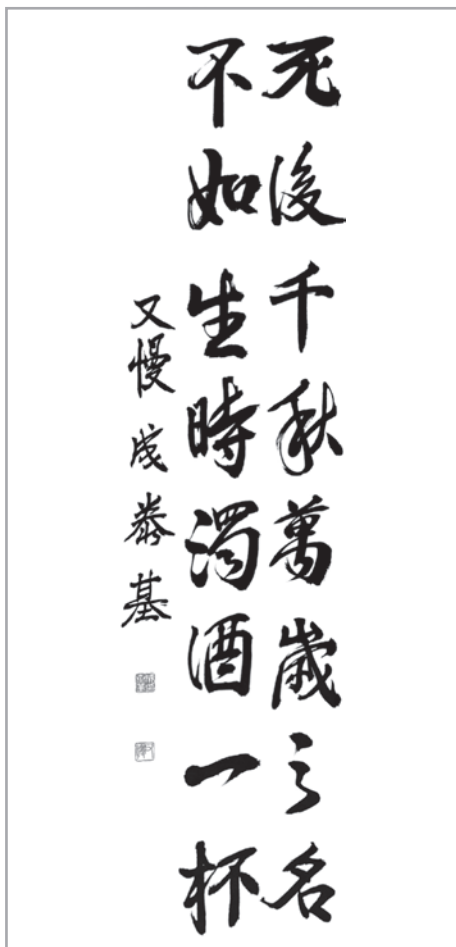
몇점의 매화에 천지의 마음이 있다.
 눈속에서 향기가 나도 나비는 알지 못하네.



유수불복회(流水不復回)
 행운난재심(行雲難再尋)
 노인두상설(老人頭上雪)
 춘풍취불소(春風吹不消)

흐르는 세월은 다시돌아오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구름은 다시볼수 없구나
 노인의 머리위에 내린 흰 눈은
 봄바람이 불어도 녹지 않는구나.

우만 성태기




死後千秋萬歲之名 (사후천추만세지명)
不如生時獨酒一杯 (불여생시탁주일배)

죽어서 천년만년 남기는 이름보다
살아 있을 때 탁주한잔이 좋다.



昌寧文化





역사문화 및 여행기

◇ 우리 유산 찾기 탐방 기행문

이규엽

◇ 수덕사로 가는 길 부처님 연가 마음에 담다

문경주

◇ 현감조후운한애민선정비 답사기

박태명

◇ 취취의 기다림

심재만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기행문



이규엽
향토사연구소장

2024년 6월 21일 창녕문화원 회원들은 夏至 날 아침 일찍이 여행을 떠난다. 국가 유산은 인류 활동의 산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다. 이번 탐방은 자연유산보다 사찰, 고가, 서원, 누정 등 문화유산 위주로 탐방한다.

한삼윤 문화원장을 비롯한 회원 35명은 2시간을 달렸다. 신록이 우거지고 천등산이 고즈넉하게 품고 있는 불교 유적 천년고찰 봉정사는 우리를 맞이한다. 일행은 천 년 이상 발길이 이어진 일주문을 지나 부처님 도랑으로 들어간다. 佛家에서 一柱門은 衆生이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 즉, 娑婆世界(사바세계)와 질병과 괴로움이 없고 수명이 끝이 없는 평안한 극락정토 즉 極樂世界의 경계문이다.



鳳停寺(봉정사)表石은 세계문화유산 새겨져 있다.

2018년에 봉정사, 통도사, 법주사, 부석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총 7곳은 1000년 이상 한국 불교문화를 계승한 산지 승원으로 귀중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기672년 能仁大師가 봉황이 머문 곳에 터를 잡아 창건한 신라 사찰이다. 長長夏日 무더운 날씨에 넓은 도랑 많은 佛舍 중에서 극락전(국보), 고금당(보물) 등을 둘러보고 잠시 만대루에서 더위를 피하며 근심과 번뇌를 다 내려놓고 맑은 공기와 함께 명상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일정으로, 400여 년을 이어온 학봉 김성일 고택에 도착하니 김종길 종손의 영접 안내로 학봉 기념관 운장각을 관람하였다. 창녕문화원 회원 예우로 특별히 학봉종택 탐방자료 책자와 수장고 진품유물 관람에 이어 마당에 차린 절편, 식혜, 음료수 등 다과 접대를 받았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답례로 문화원은 창녕특산품 양과즙을 전하였다.

학봉 김성일 고택에 담긴 문화유적과 인물, 정치, 역사 이야기는 宗宅은 손자 김시추가 1580년 창건하고 현재 안채 사랑채 문간채 風雷軒(풍뢰헌) 운장각 학봉기념관은 1964 원래 종택지로 2번 이전한 옛 조선시대 사대부 전통한옥이다.

조선 중기 정치가 학봉 김성일(1538-1593)선생은 이퇴계 문하생 유성용과 秀才同門이고 대과급제, 나주목사, 부제학거쳐 당시 당파 동인 서인의 당쟁이 극심할 때 1590년(선조23) 통신사절단 正使 黃允吉(西人 영의정 黃禧 손자) 副使 金誠一(東人) 書狀官 許箴(東人 강릉 부사 許曄 자. 許箴 형) 9개월 동안 일본을 다녀왔다.

서기1591(선조24)년3월1일 宣祖임금에 복명은 正使 黃允吉은 兵火가 있을 것이다. 副使 金誠一 병화의 정황은 보지 못했다. 正使가 장황하게 아뢰어 민심이 動搖되게 하니 事宜(사선)에 매우 어긋납니다. 書狀官 許箴은 東人임에도 정사와 같이 병화가 있을 것으로 復命하니 宣祖는 副使의 의견을 따랐다.

이듬해 1592년(선조25) 김성일은 4월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임명 부임 중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왜군이 부산포 상륙으로 통신사 책임을 물어 拿命(나명) 歸京도중 우의정 柳成龍은 선조를 설득하여 다시 경상도 招諭使(초유사)로 임명하였다. 선조는 문책 대신 戰功을 세우라는 下命을 하였다. 당시 경상관찰사 金晬와 의병장 郭再祐 사이 불화설도 있었으며 전란의 민심 동요 안정, 관군·의병 간 조정 화합과 관군의 기강, 의병의 재봉기 등 왜적 격퇴 최선의 공로가 있었다.

다시 진주목사로 1차 진주대첩 전승 후 1593년 진주성을 재정비 중 창궐한 돌림병으로 病死하였다. 선무원종 1등 공신과 후에 이조판서 贈職을 받았다. 나라 정책을 극심한 당쟁과 통신사의 잘못 판단으로 국방 대비 없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의 廢墟(폐허)는 인명 재산손실이 가장 큰 역사를 다시 생각해본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임진 의병장 후손 400년 憂國家風으로 抗日名家로 학봉 후손 김홍락 김용환 애국지사는 의용단에 활동하여 모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상하였다.

인근 전원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안동시를 경유 20여 분을 달려 묵계서원, 보백당 종가, 만휴정은 깊숙한 산간 길안천변에 있다 연산군 때 김계행 도승지 대사간 유허지이다. 옛날엔 오지였으나 당진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안동 IC를 이용하면 교통이 편리하다. 안동의 도산서원 하회마을 다음으로 조용한 문화유적지다.

1687년 (숙종13) 묵계서원을 창건하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하는 곳이다. 조선초기 문신 김계행과 號 凝溪(응계) 玉沽선생의 덕행과 청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당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옥고선생은 야은 吉再의 문하 정종1 18세 급제, 안동부사로 선정을 펼친 인물이다. 서원 건물은 강당立敎堂, 挹淸樓, 進德門, 東齋克己齋, 특이한 小廚房, 金係行神道碑 등 도 국가유산이다.

특히 옛 소주방은 카페 만휴정 간판을 걸고 한옥 고택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카페로 서원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분위기를 준다.

晩休亭은 寶白堂 김계행 1498년(연산군4) 대사간 재직 때 勳舊派 權臣을 極論 制止하려다 낙향하여 1501년 원림과 폭포가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독서와 사색을 하면서 만년에 쉬는 사대부의 別墅(별서)이다. 조선시대 정자와 원림을 보존하여 경북도 국가 유산이다. 창녕문화원 회원들은 더운 날씨에 오솔길을 오르니 1871년 신미양요 벌어진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주연 유진초이 역-이병헌, 고신애 역-김태리) 촬영지와 개울가에 단아하게 지어진 세월이 겹겹이 쌓인

정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개울을 건너는 아슬아슬한 외나무다리 위는 방문객들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양측 방과 청마루 천정에 雙淸軒 시인 묵객의 題詠 현판이 걸려 있다.



드라마 촬영 후 전국관광객이 매년 17만명 이상 방문으로 새로운 문화 유적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 문화유적지 중심인물은 조선 초기 문신 김계행(1431-1577) 관행新安동 호 寶白堂 시호 定獻 父는 충청 비안현감 金三近이고 별족으로 장상 고관이 많고 혼인 연비측 외증손 영의정 유성룡을 비롯한 40여명 고관 등 친가, 외가, 처가 문벌이 대단한 집안이다.

김종직은 동갑으로 성균관 입학 동문 영의정 성희안 등 교유로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의금부의 고초를 당했다. 늦은 나이 49세에 대과 급제하여 나이를 고려하여 6품직에서 출발하여 승진이 빠르게 도승지, 대사간, 홍문관 등 三司 淸要職을 두루 거쳤으나 벼슬길에 있으면서 조정이나 왕실 병폐에 대해서는 直諫을 서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사직과 복직을 반복한 淸白한 정치가이다.



이번 안동지역 국가 유산을 찾아서 세월이 겹겹이 쌓인 400년에서 1300여년의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귀중한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국가 유산을 창건한 대선사 정치가 문신들의 사상 철학과 학문을 이해하고 국가 유산 보전 계승을 다짐한다.

수덕사로 가는 길 부처님 연가(戀歌) 마음에 담다

문 경 주
글길



1. 천년고찰(古刹) 덕숭산 덕숭총림 수덕사

5월 3일(금) 오전 7시 30분, 창녕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수덕사(修德寺)로 가기 위해 성낙인 군수님의 배웅을 받으며 버스 9대 인원 330명이 질서 정연하게 출발하였다. 더욱이 1호 차에 배정되어 내심(內心) 기뻐했다.

창녕문화원 → 수덕사 → 더스타웨딩홀 방문 → 출렁다리 → 창녕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버스에 착석하자마자 애써 준비했을 익숙한 음식들이 봉지에 담겨 한 분 한 분 배급받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속담이 생각나게 하는 한삼운 문화원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창녕문화원 김동주, 하정구 원로 고문님 등 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으로부터 사전답사(事前踏査 : 4월 16일(화)을 통한 고찰(考察)이 이어지고 창녕 문화와 유적지를 귀담아듣고 문화유적지 탐방지인 수덕사는 백제 때에 창건되어 내려오는 유서 깊은 고찰로써 내포 땅 가야산의 명승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평소 한삼윤 원장님의 『인본주의 표현은 휴머니즘이다.』라는 인간다움을 중요시하는 철학적 사조로 인간의 이성, 도덕, 창의성을 중시하였다.

《손에 잡히는 인문학》을 통해 역사, 문화, 예술, 철학의 존재 가치를 깨우치고 탐구하여 경험에 따른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통찰의 시간을 엮는다.

박학다식한 식견으로 미리 예습하였다. 이어 현 창녕 향교 전교 최수길님, 광정기 부원장님, 이규엽 향토사 연구소장님의 소중한 창녕문화원 유산인 『70년 사』 『낙동강이 들려주는 창녕 이야기』 『나무로부터 듣는 창녕 이야기』는 창녕문화원이 있기까지 원로 고문님들과 문화 가족이 함께 문화원의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유산을 계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궤적들을 책으로 엮으면서 역사와 유산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 이에 어려움의 단상(壇上) 생각해 보니 충분히 박수를 보낸다. 창녕문화원의 원훈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큰 자산으로 기억의 부활을 철저히 상기시켜 준다.

정숙연 사무국장님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휴게소 두 번 들린 것 말고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곧 도착 시간을 알린다.

현재 우리나라 현존하는 고려 시대 목조 건축물은 다섯 곳이 있다.

오늘 가는 수덕사는 고려 시대 목조 건축물은 그 다섯 곳 중 한 곳이다.

고려가 태조 왕건(재위: 918~943)이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숭상함으로써 현존하는 고려 건축물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두 『나라의 보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 ①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 사찰의 옆면과 앞면의 비가 1 : 1.62로써 완벽한 황금분할을 이루며 배흘림이 뚜렷한 원기둥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 ② 조사당 벽화(국보: 제46호)는 우리나라에서 남아 있는 벽화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영주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 ③ 고려말인 1375년(우왕: 원년)에 세워진 영천 거조사 영산전(국보: 제14호)이 있다. 또한 ④ 목재를 층층이 쌓아 만든 구조가 명쾌하게 보이는 한국 건축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평가 받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 ④ 국내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건축 시기가 명확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며 한반도 목조 건축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재인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이 있다.
국보인 대웅전과 함께 대웅전 노사나불 괘불탱(보물: 제1263호)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 유물(보물: 제1381호) 대웅전 앞 3층 석탑(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등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수덕사에는 부처의 진신사리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수덕사 전경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한 후 동양 여러 나라에 전파된 종교로써 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 그로부터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일렁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 권 18 고구려 본기 제2 소수림왕에는 불교가 고구려 땅에 전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수림왕(小獸林王: 재위 371~384) 2년(372년), 6월에 진왕(秦王) 부견(符堅)이 사절(使節)과 부도(浮屠: 승려) 순도(順道)를 보내어 불상(佛像)과 경문(經文)을 전하니 왕(小獸林王)은 사신을 내어 회사(回謝)하고 방물(方物)을 전하였다.

또한 같은 책 『삼국사기』 권 24 백제 본기 제2 침류왕에는 불교가 백제 땅에 전래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침류왕(枕流王: 재위 384~385) 원년(384년), 9월에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동진(東晉)에서 왔다. 왕(침류왕)이 그를 궁궐 안으로 맞이해 예우하고 경배하였다.

불법(佛法)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또한 같은 책 『삼국사기』 권 4 신라 본기 제4 범흥왕에는 불교가 신라 땅에 전래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법흥왕(法興王: 재위 514~531) 15년(528년), 불법(佛法)을 처음으로 행하였다.

앞서 눌지왕(訥祗王: 재위 417~458) 때 고구려의 승려 묵호자(墨胡子)가 고구려에서 일선 군(一善郡: 지금의 善山)에 이르니 모례(毛禮)란 사람이 자기 집에 토굴을 짓고 묵호자를 모셨다.

여기서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고 이차돈(506~627)이 순교한 사실은 『삼국사기』 권 4 신라 본기 제4 법흥왕과 『삼국유사』 권 3 흥법(興法)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차돈은 대쪽 같은 성미에 거울처럼 맑은 뜻을 품고 나이 22세에 사인(舍人)이라는 하급 벼슬을 하고 있었다.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할 당시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차돈이 나서서 불교를 공인할 것을 적극 주장하며 자신을 처형함으로써 왕의 위엄을 세우고 신하들의 반대를 가라앉힐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이에 왕은 신하들을 모아 놓고 불교를 공인할지를 의논하였고 대부분 신하가 반대하는 가운데 오직 이차돈만이 찬성하였다. 왕은 신하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이차돈 혼자서 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를 처형할 것을 명령했다. 이차돈은 죽기 직전에 “나는 불법(佛法)을 위하여 형(刑)을 받으니 부처께서 계신다면 내가 죽은 뒤 이적(異蹟)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차돈의 목이 베여 떨어지는 순간 붉은색이 아닌 흰 피가 한 길 높이로 솟구쳤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땅이 흔들리며 꽃비가 내렸다. 이에 신하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법흥왕 14년: 527년)하였다.

위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불교가 수용 혹은 연도별로 공인된 순서를 정리하면 ① 고구려 -> 소수림왕 (372년), ② 백제 -> 침류왕 (384년) ③ 신라 -> 법흥왕 (527년) 순이 되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三國)이 불교를 공인하기까지는 15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불교는 전래한 지 약 1,700년 신라가 공인한 지는 약 1,500년이라는 찬란한 역사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의 64%가 불교 문화유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유산 중 불교 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현대 불교신문 2002/11/19)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말(言)속에도 나타나는데 그 외중에는 “야단법석(野檀法席)”이라는 말이 있다.

‘야단법석’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판을 나타내는 명사나 어원은 절 마당에 불단(佛壇)을 차리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도시가 아니라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에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불심(佛心) 법회(法會)에서 ‘바리 춤’ 같은 불교 무용이 대단한 볼거리이며 이를 통하여 불심은 더 깊어졌을 것이다.

백제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덕사 경내에는 신라의 원효대사가 수도하던 소림초당을 비롯하여 비구니들의 수도장인 금강암, 견성암, 선수암 등의 암자가 있다.

수덕사가 자리 잡은 덕숭산(德崇山 495m)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산으로 백제의 옛 땅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침류왕이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 후인 그 다음 해인 침류왕 2년(385)에 ‘봄 2월, 한산(漢山)에 사찰(伽藍)을 창건하고 10명의 승려를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까지는 여기에 언급된 한산이 어느 곳인지 밝혀진 것은 없다.

백제는(31대 왕 678년) 수도 천도를 3번 한다.

첫 수도인 한성백제 도읍기 【시조 온조왕 14년(기원전 5) 한성(서울), 493년간】을 시작으로 웅진 도읍기 【문주왕 원년(475) 천도·공주 63년간】 사비 도읍기(성왕 16년(536) 부여 122년간)로 이어진다.

사찰 한산이 건립된 침류왕 2년(385) 당시 백제 수도는 한성(서울)이므로 『삼국사기』에 언급된 ‘한산(漢山) 사찰(伽藍)’은 최소한 수덕사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의 마음(德)을 닦는(修) 사찰(寺)’이라는 뜻을 지닌 수덕사는 충남 내포 지역의 조계종 사찰을 관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조계종에는 25 교구 본사가 있다】 일 정도로 규모가 크다.

백제 시대인 6세기경에 창건되어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천년 고찰이면서 예산의 제1경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한국 선불교를 지켜낸 선종의 종찰(宗刹)이면서 선사들을 배출한 요람이며 여승의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2. 화살같이 빠른(永矢) 수덕사 탐방

내달리는 버스 창문 바깥에는 초록빛 물결이 일렁이고 바람결에 실려 온 향긋한 꽃내음... 아카시아꽃이 인사를 건네는 참으로 좋은 계절이요 맑고 갠 날이다.

11시 도착 (창녕 -> 수덕사 291km: 3시간 30분 소요) 덕숭총림 수덕사 선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매표소를 통과하여 해설사의 설명을 듣기로 하였다.

늦은 감이 있으나 2023년 5월 4일부터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덕사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어 무료입장이었다.

총림은 승려들의 참선 수행을 위한 선원, 경전 교육을 위한 강원, 계율 교육을 위한 을원 등을 모두 갖춘 사찰로 수덕사,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동화사, 쌍계사 등이 총림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선문을 지나 숲이 우거진 길을 따라 일주문에 이르니 인간의 욕망과 번뇌 악한 생각들을 정화한다.

일주문의 편액 ‘德崇山 修德寺’와 ‘東方第一仙院’ 글씨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서예가인 소전(素荃) 손재형(孫在馨, 1902~1981) 선생이 쓰셨다고 한다.

인걸(人傑)은 가고 없으나 그의 작품은 살아서 ‘추사 이후의 일인자’로 불린 그의 힘찬 글씨(筆力)를 잘 보여준다. 또한 소전(素荃) 선생과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에 엮인 사연들을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는 일제 말에 ‘추사의 펜덤(fandom)’인 후지쓰카(藤塚隣)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서예가 소전 손재형 선생의 노력과 재력에 힘입어 국내에 돌아오게 되었다. (소전 선생이 세한도를 양도받은 지 석 달이 지난 1945년 3월, 도쿄공습으로 후지쓰카의 서재가 불타버리면서 그가 힘써 수집한 추사의 많은 작품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수덕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초가집이 있다. ‘수덕여관’이다. 1945년, 42세가 된 화가 고암(顧庵) 이응로(李應魯, 1904~1989)는 해방이 되어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충남 예산의 수덕여관을 인수하고 작고하기 전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던 집(고택)이라고 한다.

초가로 지어진 ‘내 마음의 고향’ 같은 수덕여관이 보여 사진을 찍고 암각화도 찍었다. 고암 선생의 대표작은 ‘군상(群像)’이라고 한다.

화면 전체에 개미같이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영고 성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이 초가집은 고암 화백이 작품 활동

하던 곳으로 암각화 2점이 있다. 안내판에는 1969년 고암 선생은 직접 추상 문자와 암각화 2점을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수문장 역할을 하는 금강문(金剛門)을 지나 네 분의 천왕이 사천왕문(四天王門)으로 들어가니 해설사가 수덕사 내부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검은 기와 불사가 쌓여 있어 가족들의 건강, 소원성취라 적고 그것도 미약해서 촛불 한 자루에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올린다.

숨이 가쁘게 가쁜 돌계단 선명한 연둛빛 바위틈 이끼가 올해 나이 716살이라는 걸 알려준다. 이팝 꽃향기가 코끝에 머문 천 번의 계절을 맞이하는 수덕사는 새로운 단장으로 바꿨다.

포대화상은 실존 인물로 배를 만져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배를 쓰다듬고 사진을 찍곤 하였다.

현재 수덕사의 창건에 관한 문헌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여러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웅전(국보: 제49호)은 1937년 해체·복원 작업에서 발견된 묵서(묵재에 쓴 글씨) 가운데 기록으로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대웅전을 건립하였고 공민왕 대에 나옹화상이 중수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마지막 대웅전을 보수하였다. 서까래 기둥에서 1308년에 지어졌다는 문구를 발견하여 건축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한다.

1931년 만공선사(滿空禪師)가 세운 7층 석탑과 ‘수덕사의 4대 보물’로 10km 밖까지 아릅드리 고목 아래로 종소리가 들리는 6천5백 근 범종, 범종각의 목어(木魚: 나무로 고기 모양을 만들어 걸어 두고 쳐서 소리를 낸다) 범고각의 범고(法鼓: 절에서 예불할 때나 의식을 거행할 때 치는 큰북)가 마주하고 섰는데 이는 색상이 화려한 날아다니는 새 조류를 위한 운판(雲板: 구름 형상의 판목) 등이 독특한 고려 시대의 보물들로 중생을 지혜의 세계로 인도한다.

소림초당(少林草堂)은 만공(滿空1871~1946) 스님의 뜻에 따라 벽초 스님(1899-1986)이 지었다고 한다. 소림초당이라는 말 그대로 둥그런 초가지붕의 집이다.

소림초당에는 벽초 스님이 수행 길로 만든 1080 돌계단이 있다. 만공 스님이 건립했다는 25척 (7.5m) 미륵불상은 석불로서 특이하게도 머리에 이중 갓을 쓰고 있다.

경허 스님은 시를 잘 썼고 만공 스님은 돌을 아주 잘 깎았다고 전해진다. 우아한 부처님의 자비 만공 스님의 걸작품이다. 소림초당은 참선하는 도량이라 그런지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다시 계단을 오른다. 자연석 바위를 깎아 불사(佛事)한 관음 불상을 만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면 석불은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에 있다.

1983년 화전리에서 발견된 백제 시대 사면 석불을 그대로 재현한 수덕사 석조 사면불은 2008년 봉안되었다고 한다. 사면 석불은 동서남북 사방(四方)에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미륵존불을 조성한 불상이며 석가모니불만 좌상(坐像)으로 하고 나머지 3기는 입상(立像)으로 봉안하였다. 청명한 목탁 소리에 불자의 발걸음 멈추게 하며 합장하게 만든다. 수덕사를 품은 덕숭산은 씨앗을 뿌리고 역사를 꽃피워 거둬들이는 자연 박물관이다.

또 다른 문화유산으로는 조선 인조 때 (인조 17 : 1639년)에 일곱 명의 비구 (남자 승려)의 발원으로 만들어진 대웅전 본전에 모셔진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 유물 (보물: 제1381호)이 있다. 여하한 이상기후로 인한 흉작과 전염병의 유행으로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 《나무위키 / 경신대기근 계정》 연구에 의하면 1672년의 조선의 인구는 10,062,000명이라고 추정한다. 【(李永九, 李鎬撤, 『經營史學』 第3輯,

經營史學會 1988. p181)】하였다는 경신, 신해대기근 【(庚辛辛亥大飢饉:1670년~1671)】때 조성된 ‘노사나불 괘불탱(보물 제1236호)’이 있다.

조선 인구 10명 중 1명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할 정도로 국난(國難)을 당해 불심(佛心)으로 이겨내며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든 조선 현종 14년 (1673: 康熙 가: 12년)에 727cm × 세로 1,059cm에 이르는 거대한 괘불이다. 괘불이란? [그림을 그려서 걸어 놓은 부처의 모습]이며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하여 십이지대보살, 십 대 제자 등이 그려져 있다.

노사나불(盧舍那佛)이란 ‘비로사나(毘盧舍那)’의 다른 이름이며 부처의 전신으로 법계를 고루 비추어 빠짐이 없이 완전무결을 상징한다고 한다.

수덕사에 이 괘불이 걸리면서 야단법석 대법회가 열리는 날, 그날에는 꼭 참견(參見)하여 이 괘불을 직관하고 싶어진다.

대웅전 마당 한쪽에 세워진 ‘수덕사 삼층석탑’은 신라 문무왕 5년에 건립되어 원효대사가 중수했다고 전해지나 통일신라 시대 양식을 갖춘 고려 초기의 석탑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수덕사 해설

수덕사 대웅전은 조선 시대 고종(1865년 2년)에는 만공선사가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현존하는 고려 시대 건축물로 주심포식(柱心包式: 고려 시대 이전)으로 앞면 3칸, 옆면 4칸 크기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보면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으로 꾸몄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한 공포(栱包)가 기둥 위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다.

기둥은 배가 살짝 나온 배흘림기둥 양식으로 지어진 고려 건축물 양식인 절제와 균형미가 돋보인다. 이는 건축물의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천장과 지붕을 지지하여 백제의 목조건축 양식을 이은 고려 시대 가람(寺刹)으로 특히 건물 옆면의 장식적인 요소가 고즈넉한 산사에 너른 품안을 감싼 어머니의 도량이다.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고 사원 전을 하사(下賜)받아 재정을 충당하기도 하고 승려들은 승과에 통과하고 나면 한 세대를 이어가는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았으며 사찰도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으니 왕실과 귀족들의 시주와 불교 신앙의 보편화로 사찰이 크고 장엄하게 지어졌을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 유교, 도교, 무속신앙 등 여러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발달하였다.

불교는 국가 지원을 받아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으로 많은 노비를 소유하였으며 땅과 곡식을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과 곡식을 받고 난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으로 수입이 점차 늘어났다.

절은 장생표(長生標)를 세워 절의 영역을 표시하였다. 절의 행사에 쓰이는 물건을 팔거나 운반하는 사람이 등이 굽은 오솔길을 내며 모여들었다. 특히 불상을 바위에 새겼다. 험 험한 산보다는 더 깊은 산을 보기 위해 산과 산 사이 숲과 숲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칸막이 바위에 관음 부처를 새기니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명산(名山) 속에 은거하며 시끄러운 가슴앓이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한 수행자가 참선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수덕사 창건에 관한 애뜻한 설화가 전해 온다. 먼 옛날 이곳, 수덕산에 ‘수덕’이란 마음씨 좋은 도령이 살았는데 수덕 도령은 가야산으로 매사 낱하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해 질 무렵, 민가로 들어가 밥 짓는 ‘덕송’ 낱자의 자태에 마음을 빼앗겨 상사병을 앓게 되었다. 수덕 도령은 덕송 낱자의 두 눈을 쳐다보며 “낱자의 발을 매일 씻겨 주리라.” 하며 청혼한다. 덕송 낱자는 입으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지만, 눈빛으로는 이미 수덕 도령을 ‘귀었다 났다’ 하며 어쩔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백일이 지나 덕송 낱자는 수덕 도령의 청혼에 화답이라도 하듯 가야산 남쪽 절경이 아름다운 덕송산 중턱에 “절을 지어 달라”라고 말한다. 이 말이 청혼의 대가로 알고 수덕 도령은 절을 짓게 되는데 내 마음의 깊은 숲에도 이토록 단아한 나무들이 불현듯 골짜기 깊이 산봉우리는 높게 길을 터준다.

그 길을 따라 절을 짓고 살아가는 것도 보시하는 그것으로 생각하여 혼불을 불어 꼼꼼히 훑어 넣었지만, 완공도 되기 전에 산이 깨어나는 꼭짓점에 불이 나서 내 것이 아니 되니 미련 없이 햇살도 공기도 바람도 자연의 풍경들은 모두 소실되고 만다. 두 번째 지은 절도 추풍낙엽 떨어지듯 발자국 내던지 못하고 풍성하게 잘린 눈(眼) 속의 아름다움이 빠져나가지 못해 다 벗어 주고 소실되었다. 모든 탐욕과 내려놓고 고갯마루 끝자락 실오라기 한 줌 아쉬움 없이 부처님 영원에 대한 믿음으로 절을 완공시킨다. 불사가 완공되자 그동안 미뤄졌던 결혼식을 절 입구까지 길게 늘어선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덕송 낱자를 끌어안으려 하자 절 마당 위로 불탑 위로 와당 끝자락이 막 펼쳐지면서 웃고름 풀린 덕송 낱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버선 한쪽만 남겨졌다고 한다. 덕송 낱자가 서 있던 자리는 계곡물 스민 물이 물소리에 섞여서 단숨에 덮쳐 바위로 변하고 좁다랗게 놓인 길에 하얀 버선 꽃이 피었다. 덕송 낱자는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고 한다. 세월이 강물같이 흘러서 불자들은 마음속에 꽃씨가 되어 서원 하나를 세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수덕사는 수덕 도령의 이름을 따고 덕송 낱자의 이름을 따서 덕송산 수덕사라고 지었다고 전한다.

현존하는 백제의 사찰은 공주의 대통사지, 부여의 정림사지, 익산의 미륵사지 등이 남아 있다.

아무렴 어머니 자궁 속 같은 편안함을 내가 나를 모르면 나의 운명을 모르듯이 카르마(業)의 근원을 알고 나면 자연을 품을 수 있는 씨앗을 잉태한 자각도, 깨달음도 과거의 생애 이곳에 잠시 머물다 현재의 지금 나의 주체 의식이 경험으로 씨앗을 뿌려 다 함께 여행하러 오듯이 미래의 섞일 줄 아는 불성 깨달아 가는 길목에서 잉태된 씨앗이 분만하는 나의 뫼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3. 견성암과 일엽 스님(1896~1971) 그리고 일당 스님(1922~2014)



수덕사 대웅전 내 삼층석탑

대웅전 아담한 경내 앞마당을 가로질러 ‘황하정루’ 지붕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능선의 산들이 어머니의 품속 같이 정겹게 느껴진다.

견성암은 수덕사의 부속 암자로 산정의 정혜사에 이르는 중턱에 있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 비구니의 참선 도량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도처이다.

1965년 인도식으로 지은 석조 2층 건물의 선방에서 80여 명의 비구니가 수도에 정진하고 있다. 비록 암자의 규모는 작으나 전국 여성들이 참선 수도하는 수련장으로 종가 구실하고 있다.

이 견성암에서 수행하면서 한국 불교 최고의 여승(女僧)으로 불려졌던 자서전 『청춘을 불사르고 (1962년 발간)』로 유명한 일엽 스님이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 현해탄을 건너왔다”는 14살의 소년이 늦은 봄날, 해 질 무렵에 견성암으로 일엽 스님을 찾아왔다. 모정에 목말라 있던 아들에게 “절에 왔으니 절 풍속을 따라야 한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스님으로 불러라”라고 냉정하게 말하곤 아들을 절간에서 재워주지도 않고 절 밖 ‘수덕어관’으로 내쫓았다. 스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던… 훗날, 유명한 화승(畵僧)이 된 이 일엽 스님의 아들 일당 스님은 『월간조선』 2010년 9월호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어머니의 추상같은 냉정함 속에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제가 정신적으로 이유(離乳)를 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어차피 저를 거둬들일 수 없는 몸이라면 속세에 두고 온 아들이 어머니 없어도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게 됐던 것이지요.”

일엽 스님 속가의 이름은 김원주(金元周)로 1896년 4월 28일(양력 6월 9일)에 평안남도 룡강군 삼화면 덕동리에서 감리교 목사인 아버지 김용겸과 어머니 이말대의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일엽 스님이 태어난 1896년은 국내외적으로 격변기의 세월이었다.

조선 정부는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태음력을 폐지하고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해 2월 11일,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아관파천을 강행하였다.

‘조선을 누가 통치하느냐?’를 놓고서 중국 청나라와 섬나라 일본이 크게 한판 뜬 전쟁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1895년)하는 그 무렵이었다.

이 전쟁에서 조선 정부군은 일본군과 같은 한편이었고 평양 지방군은 청나라와 한편이 되어서 이 땅을 전쟁터로 삼은 침략자를 위해서 ‘동족 살육(同族殺戮)’이라는 웃지도 못할 비극이 이 땅에서 영화처럼 상영되었다.

일엽 스님이 4살이 되던 1900년, 결핵을 앓던 어머니가 남동생 출산 후 사망하자 아버지는 재혼한다. 재혼한 아버지마저 1909년에 돌아가시자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소학교(초등학교)를 거쳐 이화학당에 입학(1913년)하고 졸업(1918년)하였다.

1918년 여름, 22살에 미국 유학과인 연희전문학교 교사인 이동익과 정동 예배당에서 결혼하였다.

남편 이동익은 40살이며 다리 하나가 없었다. 남편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하러 갔다. 그러나 결혼 4년 차에 이혼하게 된다.

일엽 스님은 1920년 3월, 잡지 『신여자』를 창간하여 주간으로 활동하였다. 이 잡지는 한국 최초의 여성 잡지로 기록되었으나 재정난으로 총 4호로 폐간되었다. 이때 소설가 춘원 이광수(1892~1950)는 친구인 일엽 스님에게 평생 필명과 별명으로 사용되는 ‘일엽(一葉-하나의 잎)’이라는 호(號)를 지어주었다.

오타 세이쥬(太田清藏)는 일본 귀족 집안의 장남으로 규슈 제국대학 법학과 출신이었다. 조선인 유학생 김원주(일엽 스님)와 세이쥬는 1921년 일본 도쿄행 특급열차 안에서 서로 만나 첫눈에 반해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대만은행(그 당시 대만은 조선과 같은 일본제국의 식민지(1895~1945)였다) 총재를 지낸 세이쥬 아버지[오타 호사쿠(太田法祚)]는 장남의 로맨스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이죠의 집안은 에도(江戸) 시대의 명장인 오타 도칸(太田道灌)의 직계 손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와 더불어 일본의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 오타 가문은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명문가라고 알려졌다. 그에 반해서 김원주(일엽 스님)의 집안은 아버지(김용겸 목사)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로서 일제가 말하는 이른바 ‘불령선인(不逞鮮人)’이었다.

1922년 아들(일당 스님 金泰伸)을 낳은 일엽 스님은 아들 아버지의 앞날을 위하여 아들을 도쿄에 남겨 두고 조선으로 떠났다.

1931년 35세인 일엽 스님은 불교에 귀의하기로 하고 1933년 37세에 만공 스님의 상좌가 되었다.

일엽 스님과 결혼을 맺지 못하고 불꽃 같은 사랑을 한 오타 세이죠(太田清藏)는 훗날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고위 관료를 지냈고 1970년대 초 독일 주재 일본 특사라는 고위 관리를 지냈으며 못 이룬 사랑을 그리며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한다.

일엽 스님의 아들인 일당 스님은 오타 마사오(太田正雄), 송영업, 김설촌, 김태신, 그리고 일당(日堂) 스님 모두 그의 이름이다.

66세라는 늦은 나이의 불문(佛門)에 귀의한 그의 이름이 사사하듯이 영화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세수는 93세 범람 27세에 원적(승려의 죽음) 하였다.

일당 스님의 일대기는 2004년에 발간된 자전 소설 『화승, 어머니를 그리다』에 잘 나타나 있다.

오뉴월 콩알 튀기듯 사랑을 흠치고
 꽃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더니
 떠돌다 잉태된 일체무상(一切無常)이라
 속세(俗世) 비명 듣기 싫다 귀 닫아
 홀연히 수덕사 이꼴려 숨어들었노라.

휘청이는 한 생애 절반 도둑맞고
 승방 깨달음 부처님 영광 찾아
 돈으로 할 수 없는 공덕 닦으니
 금욕 응혈 되도록 화려하면 덮은
 여래(如來) 범종은 울고 간다

-自作詩 - 연꽃으로 피어난 백련도엽(白蓮道葉)

4. 시인이면서 화가인 나혜석(1896~1948)

일엽 스님이 자신을 찾아온 아들(일당 스님)을 매정하게 대했을 때 모정에 굶주린 일엽 스님의 어린 아들인 일당 스님을 친아들처럼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준 이가 화가 나혜석이다. 이때 나혜석은 이혼의 아픔을 안고 출가를 결심하고 수덕사 견성암에서 여승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친구인 일엽 스님을 찾아서 수덕사 수덕여관에서 머물 때다. 【수덕여관에서 5년 동안 머물면서 승려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만공 스님으로부터 “임자는 중노릇할 사람이 아니야”라며 일언지하에 거절당한다. 만일 화가 나혜석이 꼭 여승이 되고자 하였더라면 수덕사 견성암이 아닌 다른 여승들의 수도처 《가지산 동쪽 기슭 석남사 등》로 신라 헌덕왕 때 지은 유서 깊은 사찰에서는 뜻을 이룰 수가 있었을 것이며 불교 미술사에서 한 획을 장식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화가 나혜석은 수덕여관에서 미술을 어린 일당 스님과 이당 김은호(1892~1979) 등에게 가르쳤다.

화가 나혜석과 일엽 스님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나서 잡지 『폐허』와 『삼천리』에서 같이 동인으로 활동한 친구였다.

화가 나혜석이 수덕사 수덕여관에 있다는 전갈을 받은 일엽 스님은 암자에서 내려와 두 사람의 회포는 풀었지만, 이혼녀와 속세를 떠난 여승과의 대화는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달라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후일, 일당 스님이 자신을 모정으로 품어준 나혜석 작가에 대한 회상을 『월간조선』 2010년 9월호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어머니는 냉랭한 모습으로 대하며 눈길도 주지 않고 내쫓았어요. 그러곤 수덕사 아래에 있는 수덕여관에 가서 자라고 했어요. 그럼 나혜석 작가가 ‘수덕사 견성암까지 올라갔다가 쫓겨났구나’ 하시며 저를 친아들 처럼 대해 줬지요.

나혜석 작가는 제게 팔베개를 해 주었고 그렇게 가슴팍 품에 안겨 나혜석 작가가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상에 빠지곤 했어요.”

화가이면서 시인인 나혜석은 1896년 경기도 수원에서 시흥군수를 지낸 아버지 나기정과 어머니 최 씨의 의 5남매 중 넷째로 “나 참판댁”으로 불릴 만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1913년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하러 가서 도쿄의 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때 나혜석은 오빠 나경석의 친구인 최승구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최승구는 본처가 있었으며 『그 당시 결혼식장에서 당사자끼리 처음 만나 보는 것이 풍습이었다.』 결핵으로 2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이 첫사랑은 화가 나혜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trauma)로 남았다.

1920년 당시 25세 일제 강점기 조혼 풍습에 따른 데다 유학이라는 미명 아래 늦은 결혼으로 오빠(나경석)와 집안의 강요에 의해 결혼 전 4가지 조건(첫째 : 첩을 얻지 말 것, 둘째: 살림에서 자유로울 것, 셋째 : 시집살이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것, 넷째 : 애인(최승구) 묘지에 비석을 세워 줄 것)을 걸고 김우영과 결혼을 하였다.

남편 김우영이 일본 외무성이 주는 해외 위로 여행 포상으로 세계 일주를 부부 동반으로 하게 된다. 문제는 세계 일주에서 일어났다.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외교관으로 있던 최린(1878~1958)을 만나게 된다.

최린에게 한눈에 반하게 된 나혜석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소문이 남편 김우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김우영·나혜석 부부는 10여 년간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이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줄 아는 마음은 내가 남이 되어 보고 남의 잘못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내로남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이중잣대인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최린에게 과정의 책임을 묻고 당당하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다.

같은 시기에 일본 유학 중 화가 나혜석은 일엽 스님을 알게 되어 친구가 되었다.

동갑 나이 서른셋,

나혜석은 세계여행을 떠났고 김일엽은 출가하였다.

신여성으로 문인으로 여권운동가로 우정을 나누던 친구인 김일엽 스님과 화가 나혜석의 생년 월일(1896년 4월 28일)은 신기하게도 똑같다.

수덕사 덕수여관에 얽힌 일엽 스님과 화가 나혜석, 일당 스님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갔다.

남·여 사랑의 아름다움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져 가리지 않고 이름
답기만 한 그 순수한 모습으로만 바라보아야 오래간다.

신여성이라는 공통분모 속에 화가 나혜석도 수도승으로 살다 갔더라
면 인형이기보다는 인간이기를 대변하던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기에
울림은 크게 다가온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적의(敵意)
허공 같은 일진의 바람 피 토하며
고독은 왜 나의 몫이어야 합니까
적수오건(滴水熬乾) 근(根)이 없도다
육(肉)과 영(靈)의 결합 잘리며 잘못 이뤄
외로움을 채질하며 심장이 멎도록
외로우면 배어 빈빈(頻頻)의 독 가시 찔렀다
일생 내내 낙인이 찍힌 조롱 묻히니
굽지 못한 복원 내 인생 여로였나

- 自作詩 - 왜 나는 안됩니까

5. 내일 뜨는 태양 그 약속은 영원하리라

인생은 나그넷길이다. 하나의 씨앗이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안에 있어
그 연줄로 엮여 있다.

운명의 수수께끼 터득한다는 건 도(道)를 깨치는 것이다.

성인(聖人)이 된 일엽 스님과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화가 나혜석은 신
여성으로 ‘화양연화(花樣年華)’의 시간들, 상간남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의
외조를 받으며 사랑받는 합집합에 있었다. 도드라진 면모가 돋보였으나

이혼으로 자식을 볼 수 없는 움푹 파인 삶의 가시가 서로를 아프게 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가 달리 보인다.

그래서 꼬인 삶이 삶과 죽음의 불균형을 넘어서는 경험의 축적을 견주어 보지 못한다.

운명(運命)은 천명(天命)을 이루기 위해 상실의 아픔을 성숙의 회상으로 목적지를 따라간다.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해체함으로써 진정한 나를 찾아 세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는 뜻인,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을 음미하는 하루가 되었다.

수덕사를 빠져나오기 전 선문 바로 옆에 부도전이 있다.

부도전은 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탑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 탑은 주로 사찰 안에 있지만 승탑은 사찰 밖에 있다. 일행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 허둥지둥 내려오니 버스 주차장에 군데군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곧 예약된 식당으로 이동하여 뷔페 음식점인데도 식탁에 음식을 미리 차려두어 바로 식사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었다.



예당호 출렁다리

버스로 이동하여 ‘예당호 출렁다리’에 도착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저수지인 예당호는 가장 긴 다리 출렁다리(내진 설계 1등급)는 하늘을 곧게 쏘은 64m 주탑 길이 402m, 폭 5m 양옆으로 펼

쳐진 케이블은 황새가 넓은 호수를 비상하는 듯한 형상의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예당호에서 출발 -> 창녕(260km) 오후 6시에 도착하여 오고 가는데 7시간 장시간 동안 어르신들은 흥에 겨워 노래도 잘 부르시고 식사도 즐겁게 하시는 것을 보아 평소 몸을 많이 움직여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다.

비장한 각오로 들렀다가 시간이 촉박하여 아쉬움과 여운이 남아 다시 한번 더 오고픈 천년 고찰 수덕사 탐방기이다.

다음은 기억하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헤어졌다.



2024년 창녕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수덕사, 예당호 출렁다리)

현감조후운한애민선정비 답사기

(縣監趙侯雲漢愛民善政碑 踏查記)



阿鵠 朴泰明
郷土史研究委員

영산현감 조운한에 대한 기록은 창녕향토사료제9집(昌寧郷土史料第九輯)으로 발행된 창녕현지 축산군지 합책(昌寧縣誌 鷲山郡誌 合冊)¹⁾

환적편(宦蹟篇)에 『趙雲漢 丁卯到任 庚午移白川 有善政碑(조운한 정묘도임 경오이백천 유선정비)』 즉 “조운한 현감은 정묘(1867)년에 도임하여 경오(1870)년에 백천으로 옮겨갔다. 선정비가 있다.”는 기록과 창녕군지(昌寧郡誌)²⁾ 사화편(史話篇)과 남지읍지³⁾ 사화편(史話篇) 『아들은 목사(牧使) 아버지는 현감(縣監)⁴⁾』의 기록에 따라 조운한 현감

1) 昌寧縣誌 鷲山郡誌 合冊 昌寧文化院 昌寧郷土史料第九輯 2006.11. 發行 P106, P500

2) 昌寧郡誌 昌寧郡誌編纂委員會 1984.1. 발행. P698-699

3) 南智邑誌 南智邑誌編纂委員會 1999.7. 발행 P607

4) 경국대전 / 위키백과

○경관직(京官職) 한성부(판윤:정2품) 1명, 개성부(유수:종2품) 2명-1명은 경기 관찰사가 겸함

○외관직(外官職)

8도(관찰사:종2품)	경상도
부(부윤:종2품)	경주
대도호부(대도호부사:정3품)	창원·안동
목(목사:정3품)	상주·진주·성주
도호부(도호부사:종3품)	김해·영해·밀양·선산·청송·대구
군(군수:종4품)	합천·함양·초계·청도·영천(永川)·예천·영천(榮川)·홍해·울산·양산·함안·김산·풍기·곤양
현(현령:종5품)	영덕·경산·동래고성(固城)·거제의성·남해
현(현감:종6품)	개령·거창·삼가·의령·하양·용궁·봉화·청하·언양·칠원·진해·하동·인동·진보·문경·함창·지례·안음·고령·현풍·산음·단성·군위·비안·의흥·신녕·예안·영일·장기·영산·창녕·사천·기장·웅천

선정비 답사를 마치고 이를 정리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화편의 『아들은 목사 아버지는 현감』 전문을 옮긴다.

『조운한(趙雲漢) 현감은 1867(丁卯)년에 영산 현감으로 도임한 나이 많은 현감이었다.

그가 부임해 보니 삼세(三稅-國稅)⁵⁾를 내는데 고을 사람들이 배에 직접 실어 밀양 삼랑진까지 싣고 가서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막심했으니 도천 송진 나루에서 배에 싣고 삼랑진까지 가면 홍수가 나서 파선하기도 하고 도둑 떼들에게 양곡을 빼앗기기도 하여 다시 양곡을 건너야 되므로 주민들이 세곡을 이중 삼중 부담하는 결과였다.

“원님, 세곡(稅穀)을 송진 나루에서 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나라에서 책임지게 되면 이 폐단이 줄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진정을 듣고 조 현감은 진주목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몇몇 관속을 거느리고 진주 목사가 있는 동헌으로 갔는데 큰일이 났다. 조현감이 무엄하게도 상관을 만나려면 마땅히 문전에서 가마에 내려 걸어가야 하는데 버젓이 가마를 탄 채 동헌 마루까지 가는 게 아닌가?

“원님! 내려야 됩니다.”

“그냥 가자! 괜찮다.”

“안 됩니다요.” “괜찮다.”

5) 삼세(三稅)조선 때, 백성들에게 부과하던 세 가지 조세. 곧, 대동미(大同米)·전세(田稅)·호포(戶布).

원님은 자꾸 괜찮다는 소리만 반복하자 따라간 이속(吏屬)⁶⁾들은 간이
콩알만 해졌다.

목사가 보였다.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려니 겁을 냈는데 ‘어허! 어인
일인가?’

목사가 대청에서 뛰어 내려왔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바로 진주 목사는 조운한 현감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건의를 받고 그 뒤부터는 삼세를 송진 나루까지만 운반하면
되었다니 주민의 큰 부담과 노역을 덜게 했다.

영산 고을에는 오랫동안, “아들은 목사 아버지는 현감.” 하는 말이
돌아 오늘날까지 전하는데, 「縣監趙侯雲漢愛民善政碑 현감조후운한
애민선정비」라 새긴 선정비를 남지읍 성사리에 주민들이 1876년에
세웠다. 이 비는 지금 성사리 황새목에 서 있다. - 史話 끝 -

상기 사화(史話)를 보면 조현감은 정묘(1867)년에 영산현감으로 도입
하여 경오(1870)년에 백천으로 옮겨갔으니 조현감은 지금부터 157년
전에 영산 현감으로 3-4년 재임하였다.

생몰(生歿) 년대는 알 수 없으나 아들이 진주 목사이니 당시로는 노령
의 현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현감은 세세손손(世世孫孫) 이어온 조세(租稅) 방법을 그대로 이행
하여도 무방할 수 있을 것을 민초(民草)에 대한 지극한 측은지심(惻隱

6) 이속(吏屬)

고려와 조선의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딸려 있던, 일명 서리(胥吏).이서(吏胥)·이속(吏屬)·
아전(衙前)이라는 하급 관리.

之心)으로 삼세(三稅)를 영산현의 시나리(송진松津)⁷⁾에서 바칠 수 있도록, 몸소 아들인 진주 목사를 찾아가 청하여 선정을 베푼 것이다. 주민들은 현감의 고마운 정을 잊지 못하여 조현감이 백천(白川)으로 이임한 6-7년 후인 “1876(丙子)년에 성사리 주민들은 지금의 남지읍 성사리 황새목에 「縣監趙侯雲漢愛民善政碑」를 세웠다.”는 남지읍지의 기록에 따라 현장을 찾아 조현감 애민선정비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고 오석(烏石)으로 세운 커다란 「靈友親睦會記念碑(영우친목회기념비)⁸⁾만 우뚝 서 있었다.

분명히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다.

영우친목회 기념비 주변 산자락에는 대나무와 닥나무, 아카시아, 찔레나무 등이 무성한 풀숲을 헤집어 보니 그 속에 잡목 사이로 흐릿하게 비의 모습이 보였으나 분명하지 않아 사진 한 장도 담을 수가 없었다.

7) 소나무는 솔나무. 소나무 가지를 솔가지로, 열매는 솔방울로, 세금(稅金)을 시금(稅金) 세곡(稅穀)은 시곡(稅穀) 나루(津)를 나리(津)로 말하는 것이 이 지방의 사투리로, 일제 강점기 한자 지명 정책 이전에는 순우리말 지명으로 불리던 것이 시나리로 지금의 송진(松津)마을 이다. 요강이 마을에 살던 고(故) 신○기 옹은 시나리마을은 세곡(시곡稅穀)을 내고 모아두는 나리(루 津). 즉 시곡(金)을 내는 나리라는 뜻으로 “시나리”라 한다고 하였다. 남지 용산리의 “창나리 마을”은 신라 때 낙동강을 경계로 백제와의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큰 창고가 있는 나루(나리 津)라하여 창나리(倉津)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8) 영우친목기념비(靈友親睦會記念碑)

갑술생(甲戌 1934년생 현재 90세) 동갑 친목계에서 회갑년인 갑술년(1994) 3월 20일 건립한 비로, 비신 전면에 「靈友親睦會記念碑」를 각자하고, 후면에 다음과 같이 쓰고 28명 회원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이회는 유서 깊은 영남들 중부권에 거주하는 갑술 친목 단체로서 오랫동안 뜻을 같이해 오던바 회갑년을 맞이하여 보다 더 우정을 돈독히 함과 아울러 후세에 이르기까지 영원불변의 정의가 계승 유지되도록 여기에 새겨 둔다.

1983년 4월 13일 발족/ 발기인 허판용 권태현 조충제 서락규 김광수 /1994년 3월 20일 갑술년 2월 9일 건립」



남지읍 성사리 530-2번지. 수목에 묻혀 보이지 않는 조운한 현감 애민선정비

아무런 장비도 없이 찾아간 것이라 후일을 기약하고 황새목에 있는 성사기노회 5성당(成士耆老會 五成堂)⁹⁾을 방문하여 마을 원로 어른들을 뵙고 조현감 애민선정비(이하 조현감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다.

성사리 매전 마을 이○우씨를 비롯한 박○규 등 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은, 현재 조현감비는 황새목 마을의 철거된 정미소에서 대성마을로 이어지는 군도(郡道)와 계성천을 건너는 성사교(成士橋)의 삼거리 갈림길 산자락 성사리 530-2에 있으나 수목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남지리 황호영(黃鎬永) 등 갑술친목계 회원들이 1994년 “靈友親睦會記念碑”를

9) 성사기노회 5성당(成士耆老會 五成堂)

성사리는 성사.매전.관동.학암.대성 이렇게 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5개 마을의 노인들로 구성된 기노회 회원들이 모여서 서예 등 다양한 취미 생활과 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다.

세운 이후로 갑술회 회원들이 주변 제초 작업과 청소 등 꾸준히 관리하여 주변이 청결하였으나 갑술 회원들이 대부분 작고하였거나 생존하여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또 후손들 또한 지근(至近)에 없으니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으니 곁에 있는 작은 조현감비는 수목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조현감비는 처음부터 성사리 주민들에 의하여 황새목에 세운 것이 아니고, 남지읍 성사리 마을과 영산면 월령리, 봉암리 등의 주민들 성금으로 작포마을 입구인 영산면 봉암리 240-9번지 산자락에 처음 비를 세웠다고 전한다.

이곳은 영산현에서 창원대도호부나 진주 목으로 가는 대로(大路) 길목으로 영산 현청에서 계성면 봉산리-영산면 봉암리-남지읍 남지리를 거쳐 낙동강을 건너 함안군 칠서면 부목리 도흥나루로 이어지는 대로로 인마(人馬)가 많이 다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정시대를 맞아 영남수리 들녘이 만들어지고 치도(治道)인 국도 5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 길 이 유일한 대로였다.



노항친목회기념비(鷲項親睦會記念碑)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던 조현감비는 토지 소유주의 비이설(碑移設)을 요구함에 따라 1985년 현 위치인 성사리 530-2번지로 이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현감 비를 이설한 성사리 530-2번지에는 “노항친목회

(鷺項親睦會 황새목친목회)¹⁰⁾에서 1957.8.25. 회원 이름을 연서각명(連書刻銘)한 영세불망비(永世不忘紀念碑)인 “노항친목회기념비(鷺項親睦會紀念碑)”가 서 있던 자리였는데, 세월이 흘러 노항친목회 회원들이 작고함에 후손들이 선현들의 유지를 받들어 1985년 가을 황새목 마을에 사우(祠宇) 상덕사(尙德祠)를 창건하여 노항친목회 60명 회원의 위패를 봉안하고 영세불망기념비를 상덕사 안으로 옮김에 빈자리에 조현감 선정비를 봉암리 240-9에서 성사리 530-2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1999.7.25. 남지읍지가 발행될 때는 조현감비는 성사리 530-2번지 있으니까 “성사 주민들이 황새목에 세웠다”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수목 제거 작업



수목 제거 후에 나타난 조현감비

- 10) 노항친목회(鷺項親睦會 황새목친목회)와 상덕사(尙德祠) 남지읍지 P563
 노항친목회 서문을 요약하면, 민족 고유문화의 상징인 도의문화정신을 후진들에게 일깨워주고 이를 유지 보전하려는 의지의 발로로 1952.4.8. 산재(散在)한 정해생(1887.당65세), 무인생(1878.당74세), 계미생(1883.당69세) 등 21인이 규합하여 노항친목회를 결성하고 1957.8.25. 황새목 다리머리 큰길가(鷺項橋頭 大路邊)에 회원 55인을 연서각명(連書刻銘)하여 약 2m의 화강석의 영세불망기념비(永世不忘紀念碑)를 건립하였다. 세월이 흘러 회원 체현이 작고하심에 후예들이 선현들의 유지를 받들어 1985년 가을 황새목 마을에 와가(瓦家) 3간의 상덕사(尙德祠) 사우(祠宇)를 완공하여 60선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금까지 매년 4월 8일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상덕사를 건축하면서 황새목 다리머리 큰길가(鷺項橋頭 大路邊)의 영세불망기념비는 상덕사 안으로 옮겼다.

지인들과 낫과 톱으로 조현감비 주변 초목을 제거하자 3개의 크고 작은 비가 있었다.

조현감 조현감 비는 훼손된 곳은 보이지 않으나 150년의 풍상에 화강암은 많이 부식되었다. 흙 속에 묻힌 4각 하대석(下臺石) 위에 비신을 세워 장방형의 비개석(碑蓋石)을 올려둔 형태로, 비신(碑身)은 높이 97cm 폭 43cm 두께 14cm이며, 비신 밑둥부터 비개석(碑蓋石)상단까지 전체 높이 120cm다. 비신에 “縣監趙侯雲漢愛民善政碑 丙子八月(현감조후운한애민선정비 병자 8월)”는 글자를 알아볼 정도로 양호하였다.



조현감비 서편에 있는 작은 와비(臥碑)는 지금의 성사교 재건립에 대한 기념비(記念碑)¹¹⁾를 성사리 허판용(許判龍) 주선으로 성사 5개 마을 이장단이 1996.12.에 세운 것이다.



성사교 재건립 “記念碑”

11) 성사교 기념비(記念碑)

일제는 영남수리 제방축조와 함께 영남수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다리를 1926년5월에 두 곳에 만들었는데, 성사리 대성마을과 영남수리로 통행하는 다리를 공영교(共榮橋), 상대포 마을과 상대포 양수장으로 통행하는 다리는 희락교(喜樂橋)라 명명하였는데, '같이 번영하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구호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을 교묘히 위장한 것이다.

희락교는 노후되어 1993.8-1994.9 준공하며 교량 이름도 상대포교로 바꾸었다.

공영교는 노후되어 2011.6.-2013.8. 준공하였다.

지금의 성사교(황새목다리)는 광복후 주민들이 가설한 다리는 노후화로 정부에서 1996년 철거하여 재시공하여 1997.1에 준공한 것이다.

영남수리 준공 당시에는 황새목 다리는 없었고, 계성천을 가로질러 제방을 넘어 영남수리로 출입하다가 8.15 광복즉후(光復即後)에 주민자력으로 만든 황새목다리를 기념하는 비로 전면의 비문은 아래와 같다.

「記念碑」

이 다리는 8.15 광복즉후(光復即後) 가설위원장 조인업(趙仁業) 총무 이점상(李点相)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력으로 건립되어 반세기 동안 이용하다가 교량 노후(老朽)로 철거되고 정부지원금으로 신영건설에서 재건립하였다.

1996.12. 성사5개마을 이장단. 주선인 성사 허판용(周旋人 成士 許判龍),

성사교는 1997년 1월 준공하였다.

영산현에서 세곡을 비롯한 삼세(三稅)를 시나리(松津)마을에서 배에 실어 바쳤다고 하는데 시나리 나루터에는 그러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 하여 시나리 나루터를 찾아보았다.



국도5호선 확포장 이전의 계성천(옛 송강)의 위치도

송진마을 앞 낙동강 둔치로 흐르는 지금의 계성천은 화왕산 자락의 옥천 저수지를 거쳐서 계성면 전평-사리마을을 거쳐 장마면과 남지읍을 지나 낙동강으로 들어와 송진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천이 지금의 계성천이다. 용화산하동범지도(龍華山下同泛之圖)¹²⁾를 보면 계성천을 송강

12) 용화산하동범지도(龍華山下同泛之圖)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강 정구선생과 여헌 장현광 선생 일행이 배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 부산 동래온천에 가면서 곽재우 의병장이 거처하는 창암정(滄岩亭)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한강 선생이 창녕과 함안의 선비와 함께 낙동강 700리에서 최고의 절경이라는 용화산 아래 낙동강에 동범(同泛)한 35현인들의 동범을 그림으로 그린 용화산하동범지도(龍華山下同泛之圖) 8쪽 동범도(同泛圖)에 송진 나루가 있는 지금의 계성천이 송강(松江)으로, 지금의 망우정(忘憂亭)이 초기 명칭인 창암정(滄岩亭)으로 표시되어 있다.

詩曰

第八滄巖舍(제팔창암사) 여덟째 창암정사
 德星耀此中(덕성요차중) 덕성이 이 가운데서 빛나네.
 蘭舟將欲發(란주장욕발) 아름다운 배가 출발하려하니
 携手主人翁(휴수주인옹) 주인옹이 손을 끌어 태우네
 右蒼巖同舟(우창암동주) 우는 창암정사에서 배를 타는 모습
 *덕성(德星) : 한강을 지칭한다.

(松江)으로 기록하고 있다.



송진삼거리의 조운(漕運)하는 배를 정박하던 “시나리 나루터”

시나리의 송진삼거리는 남지와 영산 그리고 길곡으로 나누어지는 삼거리로 중앙에 작은 섬터가 있는데, 이곳은 70년대 초까지 2가구가 살았으나 남지를 통과하던 국도5호 선형이 지금과 같이 도천면-칠서면 이룡-칠원으로 변경되면서 지역 주민이 우강2구 법사지 나들목으로 진출입하기가 용이하게 송진3거리에서 요갱이 마을로 이어진 낙동강 제방 위로 일방통행 차도(車道 지방도 1022호)를 만들면서 한 채 남은 가옥(송진리553-7)도 철거하였다.

마을 원로들에 따르면 이 마을 대부분이 세곡을 쌓아두는 조창(漕倉.漕運倉)¹³⁾이 있었으며 왜정시대부터 해방 후까지 큰 조창에는 목화를 저장

13) 조창(漕倉.漕運倉)

조창(漕倉)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경창(京倉 서울 한강가에 있던 각종 관곡(官穀) 창고)으로 조운(漕運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할 곡식(穀食)과 포백(布帛 베와 비단)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조창의 기능은 크게 세곡의 수납·보관·운송의 세 가지였으며, 조운창이라고도 불렀다. 19세기 이후 조세의 금납화(金納化)가 일반화되면서 세곡 운송의 필요성은 더욱 감소하여 19세기 말이 되면 조운제도의 폐지와 함께 전국의 남은 조창 역시 그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하였다고 한다.

조창이 있는 토지(土地)는 국세청 소유였는데 해방과 함께 개인 앞으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일부 공유지는 국세청이 있다고 하여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일부 발급해보니 송진리553-7과 송진리553-12 등은 제정경제부(국세청)로 등제되어 있었고 관음사(觀音寺) 뒤편 산도 국유지다.

국세청 토지가 있다는 것은 조창이 있었다는 것이고 조창이 있다는 것은 세곡을 시나리에서 바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조현감의 애민선정(愛民善政)이 얼마나 지극하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으며, 조창이 만들어지므로 마을 이름도 시나리(稅津)로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현감의 이러한 선정을 잊지 않고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하여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암석(巖石)에 각자(刻字)하여 길목에 불망비(不忘碑)를 세운 선현(先賢)들의 정성에 감읍(感泣)할 따름이다.

옛날에는 낙동강 본류가 시나리 앞으로 흘러 조운선(漕運船)이 정박할 수 있을 만큼 수심이 깊어 남지 옷개나루 지암담(地巖潭)에 사는 이 무기(이십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여기 와서 살았다고 기록에 전한다.


지금은 낙동강이 송진 나루에서 까마득하게 멀리 있고, 송강(松江 계성천)도 나루와는 거리가 멀어서 배를 나루에 정박할 수가 없는 형상이나 1986년대까지는 지금의 계성천은 남지 입구 남송교에서 낙동강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시나리 마을에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송진마을 앞 도로에 붙어서 관음사 절벽 밑으로 흘러서 요갱이 마을의 창암에서 낙동강 본류에 합수되었다.

시나리 마을 앞 강변에는 1986년대까지 방풍방사림(防風防沙林)으로 자라고 있는 낙락장송(落落長松)이 국도5호선을 따라 듽성듬성 있었으며 그 가운데 오두막이 한 채 있었다.

낙동강의 물길이 본류는 남쪽 함안군 쪽으로 치우쳐 건기에는 강바닥이 말라 있으나 홍수나 장마기에는 마을 앞 도로까지 강물이 흘렀으나 낙동강 상류에 안동댐, 임하댐, 황강댐, 남강댐 등 많은 댐이 건설되어 홍수가 조절되면서 지금은 송진삼거리 앞까지 강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86년 88올림픽을 앞두고 비포장 국도 5호선을 법정 2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나리 앞의 국도에 붙어 있는 계성천을 지금의 위치로 변경하고 강변을 폐워 도로를 넓혀 지금의 선형으로 변경되었다.

기록을 따라 조현감 애민선정비를 찾아보고 시나리의 조창까지 답사하며 확인해 보았다. 조현감의 애민선정비가 방치되어 수초에 묻혀 잊혀지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민관이 합심하여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이어지기를 희망해본다.


*별첨 : 등기부와 토지대장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

고유번호: 1951-1996-479727



[토지]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 송진리 553-7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권 3)	1994년9월1일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 송진리 553-7	대	591㎡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8월 11일 전산이기
					분할로 인하여 대 301㎡를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 송진리 553-12에 이기
2	2006년10월9일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 송진리 553-7	대	230㎡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집 수	등기원인	권리관 및 기타사항	
1 (권 1)	소유권이전	1976년2월4일 제523호	1948년9월11일 관리귀속	소유자 국 관리청 국세청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8월 11일 전산이기	
1-1	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2006년10월9일 제18781호	1976년12월31일 국유재산법부칙 제3조	국세청의 청명(명칭) 재정경제부 등록번호 221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9520219501193121010964011CWC0797625NOH12758021122 발급확인번호 ATNW-MIAL-7273 발행일 2023/12/01

1/2

문서확인번호 : 1701-4145-3540-4117

2023.12.01 16:08:57 (공시일확장신청)

도면번호 13 발급번호 202348740-00369-1535
 장 번호 1-1 처리시각 15시 59분 04초
 비 고 발급 자 인터넷민원

토지 대장

고유번호	4874040028-10553-0007		
토지소재	경상남도 창원군 도선면 송진리		
지 번	553-7	축적	1:1200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 적(㎡)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등 록 번 호
(08) 대	*230*	(20) 2005년 05월 13일 분할되어 본번에 -12를 부합	2005년 10월 09일 (05)상명(영정)변경	국(재정경제부) --- 이하 여백 ---	221
		--- 이하 여백 ---			
등 급 수 정 연 월 일		1984. 07. 01. 수정	1991. 01. 01. 수정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등급)		93	105		
개 별 공 시 지 가 기준 일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개 별 공 시 지 가 (원/㎡)		54100	57200	57600	61400
					22400
					27500
					257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3년 12월 1일

경상남도 창원군수

◆ 본 등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와 인터넷발급신청취학의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장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4874040028-10553-0012

토지소재 경상남도 창원군 도선면 송진리

지 번 553-12 축적 1:1200

토지 대장

도면번호 13 발급번호 2023101-2023474000009190-1 장 번호 1-1 처리시각 16시 29분 16초 비 고 발급 자 김나영
--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 적(㎡)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등 록 번 호
(08) 대	*301*	(21)2005년5월13일 553-7번에서 분할	1976년12월4일 (03)소유권이전	국(국세청) --- 이하 여백 ---	255
		--- 이하 여백 ---	2006년11월28일 (05)상명(영정)변경	국(재정경제부) --- 이하 여백 ---	221
등 급 수 정 연 월 일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등급)					
개 별 공 시 지 가 기준 일		2019년1월1일	2020년1월1일	2021년1월1일	2022년1월1일
개 별 공 시 지 가 (원/㎡)		57,600	61,400	22,400	27,500
					25,7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3년 12월 01일

경상남도 창원군수

수인 500 원
2023.12.01
창녕군 7001

[20235410033008357-#404-16:29:45-01001]

취취(翠翠)의 기다림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환갑을 맞이한 여행의 마지막 장소가 중국 호남성의 다동(茶洞)이다. 다동은 심종문의 소설 「변성(邊城)」의 무대이기도 하다. 변성은 20세기 중국소설 100선 중 노신(魯迅)의 소설 「눌함(訥喊)」다음으로 유명한 소설이다. 우리 일행이 묵을 유연거객잔(悠然居客棧)은 목조건물로 되어 있다. 입구에는 실물처럼 생긴 누렁이가 맞아준다. 삐걱거리는 나무계단을 올라 객실로 들어서니 침실위에 원어로 되어있는 소설 「변성」이 놓여 있었다. 객잔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주인장의 배려이다. 책을 보는 순간 작가가 나와 같은 성이기도 하지만 내용도 궁금해서 꼭 읽어 보고 싶은 마음에 귀국 후 번역본을 구입해서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누렁이와 한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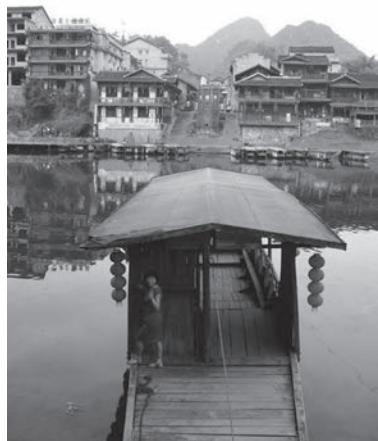


객잔에 놓여있는 소설: 변성

작은 강이 흘러가는 강가에는 제법 큼직한 흰 탑이 세워져 있고, 그 탑 아래 외딴 인가가 있는데, 그 집에는 노인과 노인의 손녀 취취(翠翠), 그리고 누렁이가 함께 살고 있다. 노인은 이 강에서 나룻배를 끄는 라라두(拉拉渡) 뱃사공이다.

이 나루는 관청의 소유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샅을 내지 않아도 된다. 노인은 관청으로부터 식량을 타 먹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다. 배를 타는 손님들이 미안한 마음에 몰래 돈을 두고 가면 노인은 뒤 쫓아가서 돈을 돌려주는 따뜻한 장면이 연출된다. 이웃 마을에는 순순(順順)이라는 부두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순은 겨우 선 살이지만 소탈하고 정직하며 온화한데다 재물을 아끼지 않아 마을사람 누구도 그가 하는 일에 흠잡지 않는다. 그에게는 천보(天保)와 나송(灘送)이라는 두 아들이 있다. 단오 축제를 계기로 두 형제는 동시에 취취를 사랑하게 되는데 취취는 둘째 아들 나송을 더 좋아한다.

뱃사공 노인의 제안으로 두 형제는 노래 부르기 시합을 통해 구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큰 아들 천보가 졌고 그는 낙담하여 배를 타다 사고로 죽었다. 이를 알게 된 순순은 뱃사공 노인에 대한 오해로 냉랭하게 대하였고 둘째 아들을 산촌 방앗간 집 딸과 결혼시키려 했다. 이에 나송은 아버지와 다투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사공 노인이 죽게 되고 순순은 오해가 풀어지면서 취취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홀로 된 취취는 나송이 돌아오면 순순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나루터에서 사공 일을 하며 나송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지금도 취취는 나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룻배와 라라두



라라두를 당기는 뱃사공

심종문(선충원)의 소설 「변성」중 노인과 종이장수가 실랑이하는 대목이 있다. 전국시대 신화지리서에 나오는 이상국가인 군자국(君子國)사람들이 “양보를 좋아 한다”는 이야기에서 기인한다. 받을 수 없다고 고집하는 뱃사공과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종이장수 결국에는 동전 한 움큼을 던져놓고 바삐 걸어간다. 줄을 잡고 다른 손님 내리는 것을 도우는 탓에 둔덕에 있는 손녀에게 사내가 못 가게 잡으라고 하자 손녀가 가로 막고 강아지까지 멍멍 짖어댄다. 잠시 후 혈레벌떡 숨이 차서 뛰어온 뱃사공은 종이장수 손에 동전을 쥐어주고 그의 붓짐 속에 잎담배 한 다발을 넣어준 후 웃으며 ”자 이제가도 되오 어서 떠나슈!” 하며 보낸다. 이 작품은 문체가 소박하고 아름다우며, 전체 서사에서 따듯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신화적이면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변성」은 21장(章)으로 된 중편소설이다. 한 장 한 장이 서정적인 시와 스물 한 폭의 그림으로 연결된 그림책을 연상하게 한다. 작가가 중국의 소수민족인 묘족 혈통이라 그런지 묘족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다.

함께 한 도반들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작은 마을의 객잔에 여장을 풀고, 강가를 따라 걸어본다. 강의 양쪽 기슭은 높은 산으로 둘러져 있고 이름은 백하(白河)로 불린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길이나 되는 호수와 맑은 물로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고 투명하고 한 낮에 햇살이 비추면 호수 바닥의 흰 자갈과 무늬 있는 자갈마저 또렷이 보인다고 인솔자가 전한다.

이곳은 물이 그다지 맑아 보이지는 않고 약간 흐리다. 그 이유는 강가에 저녁을 짓기 위해 쌀을 씻는 사람 아래쪽에는 빨래하는 처녀들을 볼 수 있다. 강변을 따라 걷다가 묘족의 밀주를 파는 곳이 있어 한 통을 구입을 했다. 대나무 테를 두른 나무 술통이다. 다시 걸어 나루에 도착한다. 뱃머리가 네모 난 나룻배 한 척이 있다. 강의 양쪽 기슭에 큰 나무와 나무 기둥에 철사로 엮은 줄이 매어져 있고 뱃머리에 쇠고리가 매달려 흔들 거리고 있다.

강을 건너려면 쇠고리를 줄에 걸고 사공이 그 밧줄을 당기면서 천천히 맞은 편 기슭으로 배를 끌고 간다. 예전에는 철사 줄 대신 대나무를 비벼 꼬아 연결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탄 배가 소설 속에 나오는 라라두이다.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니 소설 속의 여주인공 취취는 강 하류를 바라보고 외로이 서 있다. 다시 배를 타고 숙소로 되돌아온다.





강하류를 바라보고 있는 취취상

유연거객잔의 주인은 북경사람인데 몇 년 전 이곳으로 와 객잔을 열었다고 한다. 여유롭고 지적이며 친절하면서도 예의바르다. 소설에 나오는 순순을 연상하게 한다. 객잔의 시설도 5성급호텔 못지않다. 객실은 정갈하고 아늑하다. 탁자에는 소설「변성」이 놓여있고 벽면에는 묘족의 전통복장을 한 여인들을 그려 넣은 나무 액자가 걸려 있다. 베란다에는 나무로 만든 안락의자가 인상적이다. 중국을 제법 많이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운치 있고 포근한 곳은 처음이다.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



베란다에 있는 나무의자



묘족 전통복장의 여인

저녁 식사 후 주인장의 안내로 3층 전망대로 올라갔다. 낮에 구입한 묘족의 전통 밀주로 다동의 야경과 함께한 도반들의 지난날 연애사를 안주 삼아 취기에 흠뻑 젖었다. 예전과 달라 환갑이라 해도 환갑잔치도 안하지만 그대로 넘기기 아쉬워 오게 된 여행이다.

늦은 밤까지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겼다. 이른 새벽 배란다 의자에 기대어 강을 바라본다. 강바닥에 앞산 그림자가 잠겨있다. 이내 산등성이에는 여름 내내 감추고 있다가 가을이오면 고운 붉은빛을 펼쳐 내는 단풍처럼 붉은 태양이 불쑥 솟아오른다.

가슴 속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어찌면 내일 바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을 추억하게 만드는 여백을 남겨두면서 나의 인생2막도 취취의 기다림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순간의 사진처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



다동의 야경



함께한 일행과 한 컷

회원동정 및 수상소식

- ◇ 창녕문화원 '유영숙 향토사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의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 ◇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24회 황우문화상 수상
- ◇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한국문화원 연합회 고문 선임
- ◇ 창녕문화원 회원 '권춘석' 제3회 일본 색소폰 경연대회 대상 수상
- ◇ 제33회 창녕군민대상 수상(조정환 / 신용태 / 성위경)
- ◇ 창녕문화원 회원 '신영옥' 제31회 구암대상 전국 시조 경창대회 대상부 장원 수상
- ◇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제10회 합천 대야성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 ◇ 창녕문화원 회원 '글길 문경주' 제4회 신정문학상 전체 대상 수상
- ◇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불교문화해설사 1급 자격 취득/ tvn 방송 출연
- ◇ 제2회 경남도민 문화의달 문화한마당
- ◇ '창녕 부곡가마골풍물단' 제15회 경남도지사기 어르신농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 창녕문화원 회원 '이순미'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파크골프 여자 1위
- ◇ 향토사연구소 '노용호 연구위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인물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 창녕시무구지놀이 제42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
- ◇ 창녕문화원 사진 동아리 전시회(사진: 픽셀에서 추상까지 그림을 탐하다.)

창녕문화원 '유영숙 향토사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수상!



- 일 시 : 2024. 1. 12. (금)
- 장 소 : 경남도청대회의실
- 주 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 연수원장)’ 제24회 황우문화상 수상!



- 일 시 : 2024. 2. 23. (금)
- 수 상 :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수상자격)

군민 또는 출향인사로서 덕망있고 문화창달에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 또는 단체

공적 내용

1988년부터 32년간 창녕문화원 이사로 활약해 왔으며, 201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12년간 창녕문화원 제22대, 제23대, 제24대 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재임기간 동안 한국문화원 231개 문화원을 아우르는 사업추진본부장과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 3선,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 3선을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등을 중점 추진하시면서 문화원 위상을 높이고 창녕문화발전에 기여.

창녕문화원 ‘이수영 고문(현 경상남도교통문화
연수원장)’, 한국문화원 연합회 고문 선임



창녕문화원 회원 ‘권춘석’ 제3회 일본 색소폰 경연대회 대상 수상!



- 일 시: 2024. 2. 16. (금)
- 주 최: 국제색소폰문화예술총연합회

제33회 창녕군민대상 수상!



- 일 시 : 2024. 4. 3. (수)
- 장 소 : 군민의 날 기념식장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수 상 :
 1. 봉사부문 - 조정한 (회원/ 의정동우회 회장)
 2. 산업부문 - 신용태 (시우회 회장/ 신돈사상 회장)
 3. 교육문화 부문 - 성위경 (이사/ 물계서원 이사장)

창녕문화가족 군민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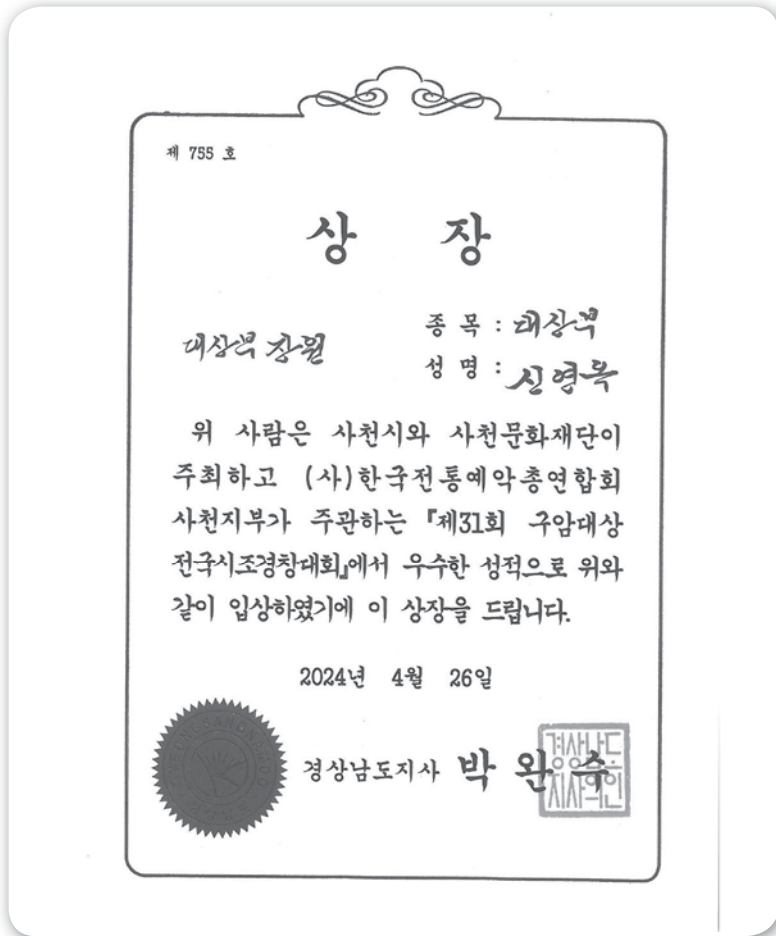
1. 수상 대상자

부분	수상대상자	
	성명	주요경력
봉사	조정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녕문화원 회장 • 창녕군의회 제2, 4대 의원 • 창녕고(여)학동무회 회장
산업	신용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녕문화원 부설 시우회 회장 • 영산학교 전교 • 지역명농협인 문향농산사업 • 시우회(시우)연합회(시우)회 설립 회장
교육문화	성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녕문화원 이사 • 물계서원 이사장 • 창녕신문 자문위원 • 후원회 72명 불만성립 집단 헌법위원

2. 시상 일: 2024. 4. 3. (수)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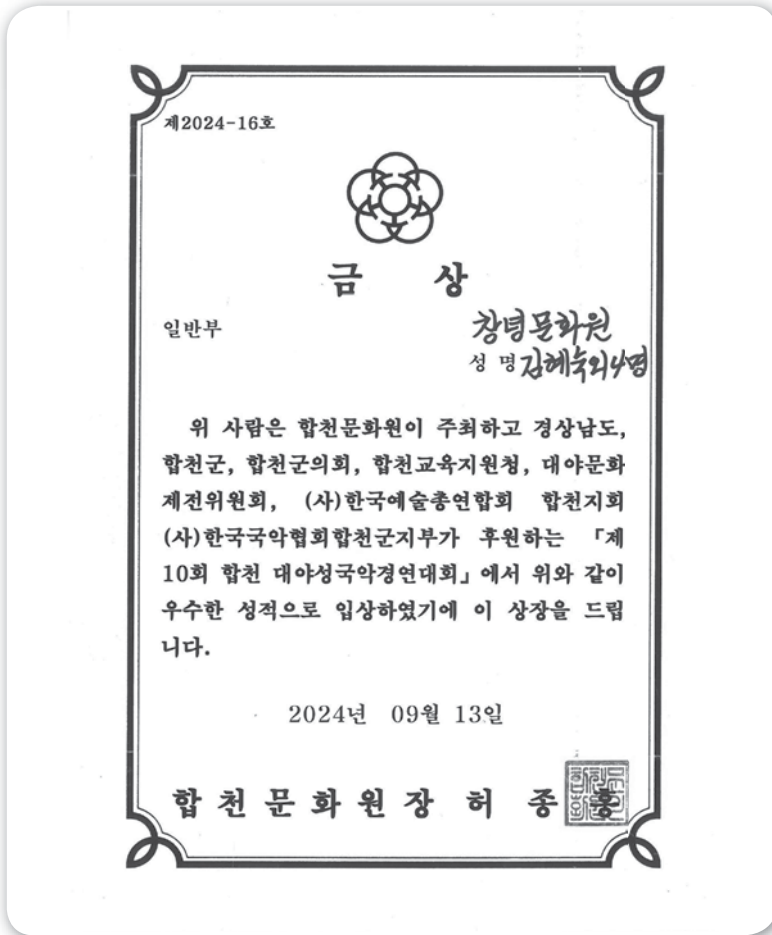
3. 시상 장소: 제31회 군민의 날 기념식(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창녕문화원 회원 '신영옥' 제31회 구암대상
전국 시조 경창대회 대상부 장원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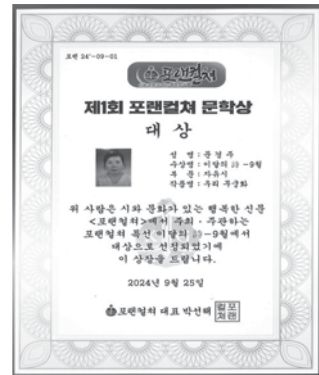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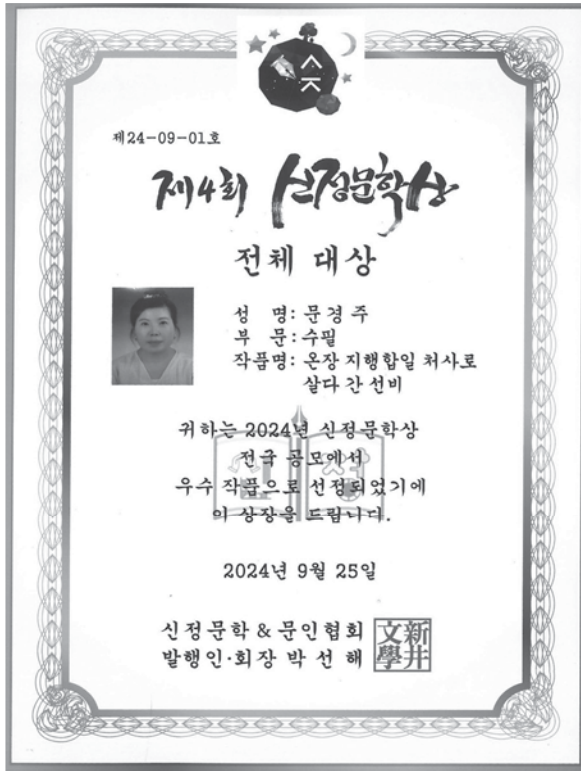
- 일 시 : 2024. 4. 26. (금)
- 주 최 : (사)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사천지부
- 수 상 : 신영옥 회원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제10회 합천 대야성국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 일 시 : 2024. 9. 13. (금)
- 주 최 : 합천문화원
- 수 상 : 한국무용 디딤새 동아리

창녕문화원 회원 ‘글길 문경주’ 제4회 신정문학상 전체 대상 수상!



- 일 시 : 2024. 9. 25. (수)
- 부 문 : 수필
- 작품명 : 온장 지행합일 처사로 살다간 선비
 - 전국 시화전 “첫눈에 반한 봄”에서 경의상 부문에 선정
 - 제1회 포랜길처 문학상 대상 수상
 - 제5회 포랜다큐 영상 공모제 금상 수상
 - 제2회 봉황대 마타리꽃 문학상 대상 수상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불교문화 해설사 1급 자격 취득/ tvn 방송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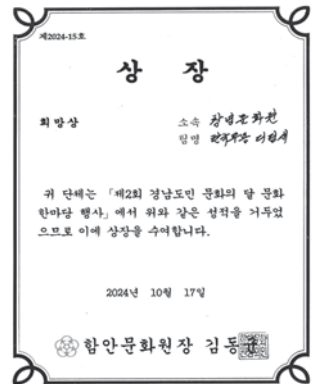


- 방송제목: tvn해썹가이즈 (BTS진, 차태현, 이이경 등 출연)
- 방송일시: 2024. 12. 8. (일) 19:40
- 출연: 심재만 향토사연구소 부소장
- 내용: 창녕 관룡사 해설

제2회 경상도민 문화의 달 문화한마당
향토사연구소 '심재만 부소장' 문화예술발전 공로상 수상!



창녕문화원 동아리 '한국무용 디딤새' 희망상 수상



‘창녕 부곡가마골 풍물단’ 제15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일 시 : 2024. 10. 25. (금)
- 장 소 : 밀양 남천강 고수부지
- 참가단 : 경남 시·군 문화원 18개팀
- 인 원 : 800명
- 참 여 : 부곡 가마골 풍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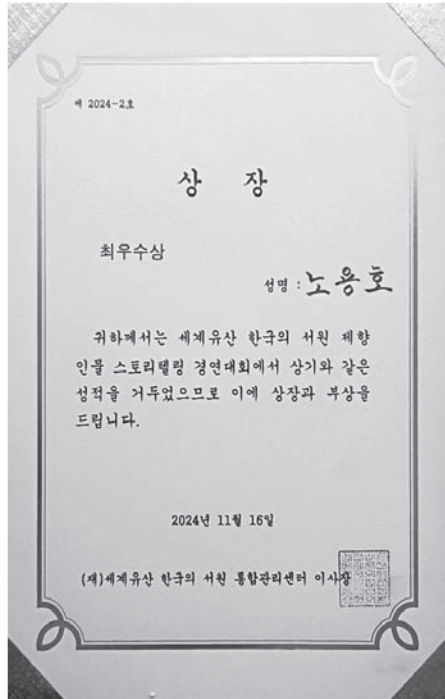
부곡가마골풍물단이 밀양 강변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15회 경상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경남 각 지역의 특색있는 농악을 알리고, 도민들이 농악을 통해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된다. 창녕군 대표로 출전한 부곡가마골풍물단은 김종목 단장 등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함안 화천농악을 바탕으로 흥과 멋이 어우러진 풍물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녕문화원 회원 '이순미'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파크골프 여자 개인 1위



- 일 시 : 2024. 11. 2. (토)
- 장 소 : 함안 군북 파크골프장

향토사연구소 ‘노용호 연구위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인물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 일 시 : 2024. 11. 16. (토)
- 주 최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 내 용 : 기후 위기 시대의 퇴계선생 이야기

창녕시무구지놀이 제42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우수상 수상!



- 일 시 : 2024. 11. 19. (화)
- 장 소 : 함안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
- 참 가 : 시무구지 놀이
- 시 연 : 구계목도(우승팀)
- 특 징 : 시무구지는 창녕에서 두레를 일컫는 토착말이다. 시무구지놀이는 농민이
가 번성하던 시절에 세벌논매기를 마치고 큰머슴을 소등에 거꾸로 태우
고 싹갓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굿물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노는 놀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느린 '오호 쉬이여' 빠른 장단에 부
르는 '오혜야 쉬쉬야'가 무덥고 힘든 농사일을 집단적 신명으로 풀어냈다.
큰머슴을 소등에 거꾸로 태우고 노는 곳을 꿩이말 탄다고 하는데 이때 부
르는 소리가 칭칭이 소리로 창녕 특유의 가사와 소리가 특징적이다.
- 짜임새 : 시무구지 놀이는 총 7개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당산굿마당 ▶ 서낭대놀いま당-보리타작마당 ▶ 모정자마당 ▶
논매기마당 ▶ 북놀いま당 ▶ 시무구지놀いま당

창녕문화원 사진 동아리 전시회 사진: 픽셀에서 추상까지 그림을 탐하다.



- 일 시 : 2024. 11. 22. ~ 11. 27.
- 장 소 : 창녕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창녕을 빛낸 사건

◇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창녕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천혜의 보고인 우포늪과 100대 명산 화왕산을 중심으로 한 유네스코 창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청정한 국제 명품 생태관광 도시로서의 가치 향상 기대

- 지정대상 :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구역으로 한 창녕군 전 지역
- 지정주체 : 유네스코 MAB(Man and Biosphere: 인간과 생물권) 국제조정이사회
- 지정일 : 2024. 7. 5.(금)
- 장 소 : 모로코 아가디르
- 지정 및 관리
 -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으로 지정 관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 **내용** :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높고 인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호지역

■ **국내지정현황** : 10개소

-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완도, 창녕

- ▶ **규제관련** :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규제사항 및 행위제한 일절 없음
→ 10년마다 재갱신
- ▶ **국내 지정 10개소 중 우리 군 포함 6개 지자체 (제주도, 신안, 고창, 순천, 완도, 창녕)가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2025년 창녕문화원 주요활동계획

일시	사업명	장소	내용
1월	제1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2월	을사년 설 합동 세배회	본관 3층 대강당	기관 및 사회단체장, 문화원 고문 및 임원, 부설단체, 회원 등 250여명. 1부- 합동 세배회 2부(웃놀이 13개 단체참여)
	문화학교 수강생 및 강사 모집	문화원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A·B), 난타, 댄스스포츠, 사진, 건강체조, 시조창, 기공, 웨비로즈, 파크골프 등
	제2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72차 창녕문화원 정기총회	본관 3층 대강당	문화원 회원 및 기관단체 참석 400여명
	문화나눔 공연	관내	부설단체 참여
3월	문화학교 개강식	별관 2층 강당	한문, 한국무용, 서예, 민요, 요가,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시조창, 기공, 웨비로즈, 사진, 파크골프 등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부설단체 및 분원장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부설단체장, 분원장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4월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국내유적지	전 회원 대상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5월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해외 문화 교류 참여	일본 사쓰마센다이시	문화협회 예능제(5.23)
6월	202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경남지역 오디션	경남문화원연합회	부설단체 참여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역축제 및 한마음대회	관내	부설단체 참여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일시	사업명	장 소	내 용
7월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제3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문화나눔 봉사공연	관내 복지시설	부설단체 참여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8월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9월	202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본선참가	서울	경남오디션 본선 진출팀
	2024 실버문화페스티벌 참가	서울 어린이대공원 특설무대	부설단체 2팀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대회 참가	미정	참가 농악팀, 임원 및 향토사연구위원 참여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10월	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전 회원 대상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비사별 문화제 동아리 참여	젊음의 광장	색소폰, 민요, 난타,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시조창 참여
	제4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제3차 향토사연구위원회 회의	별관 3층 회의실	향토사연구위원
	향토사 연구위원 워크숍	미정	임원 및 연구위원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11월	제19회 경남도지사배 경상도사투리 말하기 대회	경남문화원연합회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문화 나눔 봉사공연	관내	부설단체 참여 (한국무용, 민요, 색소폰, 난타, 댄스스포츠, 시조창, 건강체조 등)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12월	제5차 이사회	별관 3층 회의실	이사, 감사
	“우리 유산 찾기” 문화 탐방	문화유적지	임원, 연구위원, 분원장, 부설단체장
	제45호 창녕문화 발행	우편발송	전 회원 및 기관단체
	창녕문화원 “문화의 날” 행사	본관 3층 대강당	부설단체 공연 회원 300여명 참석
	손에 잡히는 인문학 특강	별관2층 강당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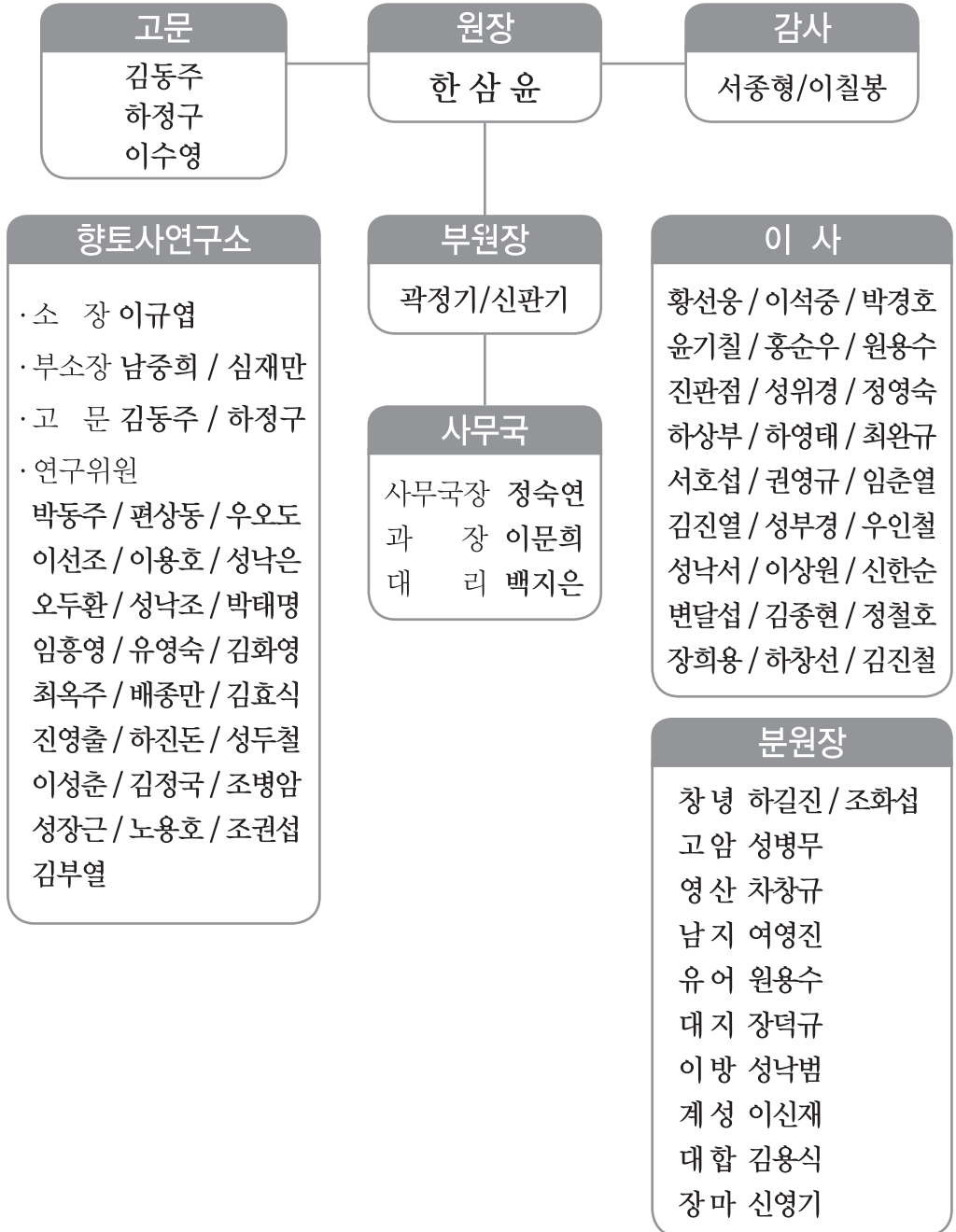
연번	강좌명	요일	시간	장소
1	기공	월	10시 - 12시	별관
2	바둑	월	10시 - 12시	별관
3	요가	월	19시 - 21시	별관
4	색소폰(중급)	화	10시 - 12시	별관
5	시조창	화	10시 - 12시	별관
6	서예	화	10시 - 12시	별관
7	건강체조	수	10시 - 12시	별관
8	한문	수	10시 - 12시	별관
9	댄스스포츠	수	19시 - 21시	별관
10	색소폰(초급)	목	10시 - 12시	별관
11	판소리와 남도민요	목	14시 - 16시	별관
12	사진	목	19시 - 21시	별관
13	한국무용	수	14시 - 16시	별관
14	쉐비로즈	금	10시 - 12시	별관
15	난타	금	19시 - 21시	별관
16	파크골프	일		
17	인문학 특강	수시 모집	14시 - 16시	별관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창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수강신청

- 모집기간 : 2025. 2. 3 ~ 2. 20
- 수강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개 강 : 3월 (예정)
- 개설과목 및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사무국 533-3777 / 532-6663

창녕문화원 조직도



창녕문화원 부설단체(동아리) 현황

부 설 단 체	직 책	회 장	회원수
향토사연구소	소장	이규엽	30
우리 유산 찾기 문화탐방	회장	심재만	72
파크골프(울타리파크회)	회장	이용호	22
시조창	회장	신용태	26
요 가	회장	이인자	48
서 예	회장	신한순	20
색소폰(중급)	회장	전종길	21
색소폰(초급)	회장	김일식	36
건강 체조	회장	이순미	45
댄스스포츠	회장	박순덕	31
한 문	회장	양창석	22
민 요	회장	이순선	26
한국무용	회장	김혜숙	15
난 타	회장	성경숙	25
바 독	회장	성낙은	29
사 진	회장	김희수	15
수석회	회장	하진돈	28
쉐비로즈	회장	송향희	18
기 공	회장	오두환	29




창녕문화원 원고모집 및 기사제보

■ 창녕문화 책자에 게재할 원고를 기다립니다.

창녕문화원이 매년 1회 발행하는 책자로 시, 수필, 여행기, 독후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 및 기사 보내실 곳

-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 길 10
 - 전화 : 055)533-3777 / 532-6663
 - 팩스 : 055)533-3775
 - E-mail : cc635cn@hanmail.net
 - www.cnccenter.co.kr
- 

昌寧文化 제44호

2024년 12월 인쇄

2024년 12월 발행

| 발행처 | 창녕문화원

| 발행인 | 원장 한삼윤

| 편집인 | 창녕문화편집위원회

| 제 작 | 도서출판 일성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9

E-mail ilsungpr@hanmail.net

昌寧文化院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길 10

Tel 055.533.3777 Fax 055.533.3775

E-mail cc635cn@hanmail.net

본 책의 무단복제 행위를 금합니다<비매품>